한권으로 읽는 부평사

부평사편찬위원회

한권으로 읽는 부평사

부평사편찬위원회

일러두기

1. 편찬 기본방향

- 이 책은 부평사편찬위원회(위원장 차준택 부평구청장)에서 기획한 것으로, 2021년에 발간한 『부평사』(총7주제, 전8권)에 대한 이해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그중 총 5개 주제(역사, 문화, 산업사회, 조병창, 마을)에 대해 주요사항을 재집필한 것이다.
- 각 주제별 자세한 내용은 2021년에 발간한 『부평사』의 각 주제를 참고하기 바란다.

2. 서술 대상 지역과 시기

- 서술 대상 지역은 현 행정구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원칙으로 하였다.
  단, 필요에 따라 분구하기 이전의 계양구, 서구를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서술 대상 시기는 선사시대부터 2019년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020년 이후의 내용도 수록하였다.

3. 본문서술

- 본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를 쓰는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 연대는 서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왕력을 표기하였다.
- 구술 증언자료의 경우 증언자가 발음한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수록하였다.
- 그 밖의 세부적인 집필방법은 국립국어원, 학회, 국책연구기관 등의 집필요령을 반영한 집필요강에 따랐으며, 집필에 통일성을 기했다.

목차

제1장 부평의 역사와 환경 및 인물

1. 부평의 지형 24

1) 산지

2) 평야와 하천

2. 700여 년 전에 탄생한 '부평(富平)' 지명 28

1) '부평' 지명의 등장

2) 1914년 '부천군(富川郡)'의 등장과 '역사 부평'의 해체

3) 인천 시역의 확장과 새로운 부평의 등장

3. '부평' 지명은 '거룩한 땅'이라는 뜻 34

1) '주부토', '장제', '수주', '안남', '계양', '길주' 지명 유래

2) '부평' 지명 유래

4. 삼국시대 해양 방어의 요충지였던 '계양산성' 38

1) 계양산성의 현황과 옛 기록

2) 계양산성의 역사적 가치

5. 세종 임금에게까지 숨긴 부평 온천(溫泉) 43

6. 조선 후기 부평 지역의 인구 양상 50

1) 18세기 중엽

2) 18세기 말

3) 19세기 후반

4) 20세기 초

7. 조선시대 부평 출신 과거 합격자들 58

1) 부평 출신 과거 합격자의 규모

2) 과거 합격자의 연령

3) 과거 합격자의 전력(前歷)

4) 과거 합격자의 성씨

8. 일제의 인천 개항 강요와 부평의 방어 시설 설치 63

1) 연희진과 포대

2) 중심성(衆心城)

9. 20세기 초 부평 지역에 설립된 사립학교들 68

1) 부평의 근대 최초 사립학교 '보명(普明)'

2) 부평의 또 다른 사립학교들

10. 우리나라 최초로 천일염전이 설치된 부평 76

11. 일제가 토지조사를 처음 실시한 부평 80

12. 부평의 수리조합 결성과 농민운동 84

1) 부평의 농업실태와 수리조합의 결성

2) 부평 지역 지주제와 농민운동

13. 부평구 각 동(洞)의 이름 유래 88

1) 갈산동(葛山洞) 2) 구산동(九山洞) 3) 부개동(富開洞)

4) 부평동(富平洞) 5) 산곡동(山谷洞) 6) 삼산동(三山洞)

7) 십정동(十井洞) 8) 일신동(日新洞) 9) 청천동(淸川洞)

제2장 부평의 문화와 에술

1. 도심 한복판에서 즐기는 신명, 부평두레놀이 98

1) 8차선 대로를 무대로 한 부평풍물대축제

2) 축제를 통해 뿌리를 찾은 부평두레놀이(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6호)

3) 부평 대표 두레, 삼산동 두레

2. 한국 최초, 부평 최고 106

1) 한국 최초 천일염 시험장, 십정동 주안염전

2) 부평 신촌, 한국 최초 클럽 오픈

3. 사택과 주거 문화 120

1) 일제강점기 사택의 등장

2) 조선영단주택과 주거 문화

4. 외국인 묘지가 부평 인천가족공원에 자리 잡은 이유 132

5. 영화와 문학 속에 비친 부평 135

1) 부평 최초의 영화관, 부평영화극장(富平映畫劇場)

2) 쇼도 보고 영화도 보는 부평극장

3) 영화 속의 부평

4) 문학 속의 부평

제3장 부평, 도시가 되다

1. 계획도시, 부평 155

1) 한적했던 농촌 마을

2) 경인 메트로뽀리스 환상곡 - 경성과 인천을 이어라!

3) 경인시가지계획 - 부평을 계획하다

2. 도시를 만들어간 토지구획정리 166

1) 도시 부평의 설계, 소화토지구획정리

2) 미완에 그친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

3)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과 부평 역전의 변화

4) 29년 만에 완료된 소화토지구획정리 사업

5) 산업화 시대의 토지구획정리, 부평을 도시로 만들다

3. 침략전쟁을 위해 시작된 부평의 공업화 184

1) 부평에 들어선 첫 공장, 히로나카(弘中) 상공 부평공장

2) 국산자동차 부평공장, 자동차공업의 문을 열다

3) 경기도가 조성한 부평 공업단지

4. 공업도시 부평 199

1) 일제가 남기고 간 공장

2) 혼란과 재건의 시대

3) 부평, 자동차공업의 중심이 되다

4) 산업화를 이끌었던 수출 4공단

5. 주거의 변화 : 노무자 주택에서 아파트까지 216

1) 사택, 공업화가 가져온 주거의 변화

2) 주택난 해결을 위해 건설된 관영 주택(官營住宅)

3) 조병창 노무자를 위한 경인기업주택

4) 광복 후 부평에 들어선 주택들

5) 부평, 아파트 시대를 맞이하다

6. 시장과 지하상가, 그리고 쇼핑몰 240

1) 시장이 들어서다

2) 다섯 개의 시장이 하나로, 부평시장

3) 청소년들의 성지, 부평역 지하도상가

4) 백화점과 대형 마트의 등장

제4장 인천육군조병창과 에스컴 시티

1. 일본군, 부평 땅을 차지하다 262

1) 구한말부터 일본군이 주목한 부평

2) 부평평야에서 부평연습장으로

2. 부평연습장에서 인천육군조병창으로 269

1) 중국 침략에 필요한 인천육군조병창

2) 조선에서 공출한 놋그릇은 어떻게 되었을까?

3. 언더그라운드 – 지하 무기공장 291

1) 다급한 일본, 미 전투기가 장악한 일본의 하늘

2) 지하에서라도 무기를 만들어라!

3) 인천육군조병창이 동원한 조선인

4. 일본 침략전쟁에서 벗어나자마자 다시 냉전의 현장으로 319

1) 광복 후 부평의 변화 : 일본의 무기공장에서 군 기지로

2) 6·25전쟁의 역사를 축적한 땅

5.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 역사문화도시 부평을 만들기 위해 335

1) 냉전의 시대에서 평화 구축 시대로

2) 부평과 한반도 민중의 역사를 올곧이 간직한 곳,
인천육군조병창-평화의 마중물로 거듭나기 위해

제5장 부평의 마을

1. 사라진 마을, 남겨진 이름 347

1) 십정동_열우물마을

2) 산곡1동_화랑농장

3) 청천동_맑은내마을

4) 부평2동_삼릉마을

5) 부평3동_신촌

2. 부평시장, 시대를 사고팝니다 374

1) 부평시장의 역사

2) 부평깡시장

3) 진흥종합시장

4) 부평종합시장

5) 부평문화의거리

6) 부평자유시장

7) 평리단길

3. 부평의 사람, 부평의 이야기 383

1) 이찰·이율 형제

2) 원통이고개

3) 부평의 독립운동가

4) 6·25전쟁과 제10포로수용소

5) 부평과 시인 한하운

6) 부평의 노동운동

1 부평구의 상징물

마크

부평구

비둘기

- 비둘기를 형상화하여 평화롭고 살기 좋은 부평을 상징
- 부평의 'p'자와 은행나무를 형상화하여 자연의 조화, 구민의 화합, 무궁한 번영을 상징
- 타원은 최첨단 산업요람 및 웅비하는 부평을 상징
- 희망과 전진의 청색, 젊음의 녹색으로 조화를 이룸

캐릭터

부디부니

- 부평의 첨단화와 풍물의 활기찬 특성을 대표하여 현대와 전통의 조화를 표현
- 몸통은 듬직한 모습으로 부평구의 저력을 형상화
- 머리의 헤드셋은 부평의 첨단화를 상징
- 전통 풍물복장은 축제의 도시 부평을 상징
- 손동작은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부평을 상징

문화유산

풍물(농악)

- 부평은 예로부터 부평평야를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 지역으로서 풍물(농악)이 성행하였으며, 부평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구의 동물

백마

- 건강한 부평구민과 힘차게 발전하는 부평구의 기상을 상징

구의 새

비둘기

- 전통적인 텃새로 높은 나무에서 서식
- 온순하고 소박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구민의 성품과 희망을 상징

구의 나무

은행나무

- 병충해에 강하고 곧게 자라는 경제 수목
- 안정과 화합 속에서 힘차게 발전함을 상징

구의 꽃

국화

- 풍토에 강한 가을 화단의 대표적인 꽃
- 다정하고 끈기 있는 구민을 상징

10.1

10월 1일

2 부평구민헌장

민족의 얼과 지혜가 살아 숨쉬는 내고장 부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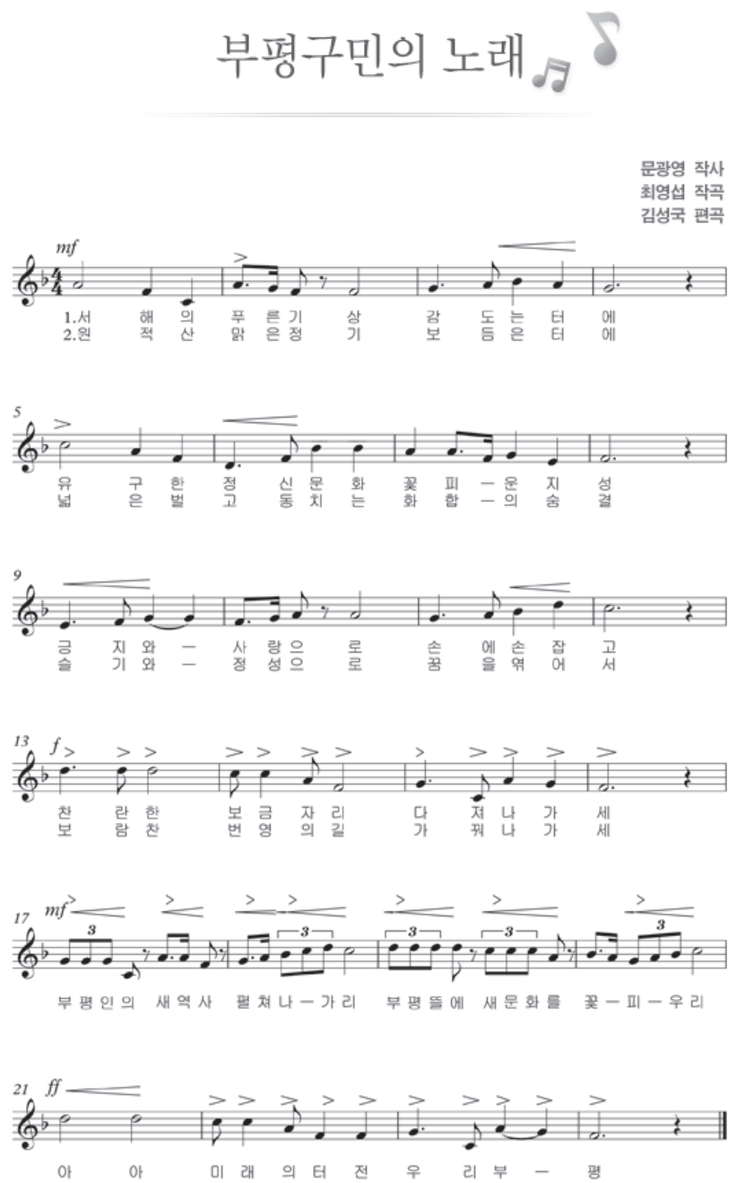
첨단산업의 요람이자 동서를 잇는 교통의 혈맥으로

세계를 여는 관문이다.

너와 나 자랑스러운 구민으로서 알찬 슬기를 모아 전통문화를

꽃피우고 풍성한 삶의 터전 가꾸어 웅비하는

인천 영광된 새부평 창조하자.

3 부평구민의 노래

❖ 만월산에서 바라본 부평 전경

❖ 부평구청과 부평구의회

❖ 부평구청사거리와 굴포천

❖ 한국GM 부평공장

❖ 부평국가산업단지

❖ 부평 신촌

❖ 캠프 마켓과 부평공원

❖ 부평풍물대축제

❖ 시장로터리

❖ 부평의 시장

❖ 삼산동농경지

❖ 옛 열우물마을

제 1 장

부평의 역사와 환경 및 인물

제1장

부평의 역사와 환경 및 인물

임 학 성(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1 부평의 지형

산지와 하천 등의 자연환경 및 지리적 조건은 경계를 설정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며, 결국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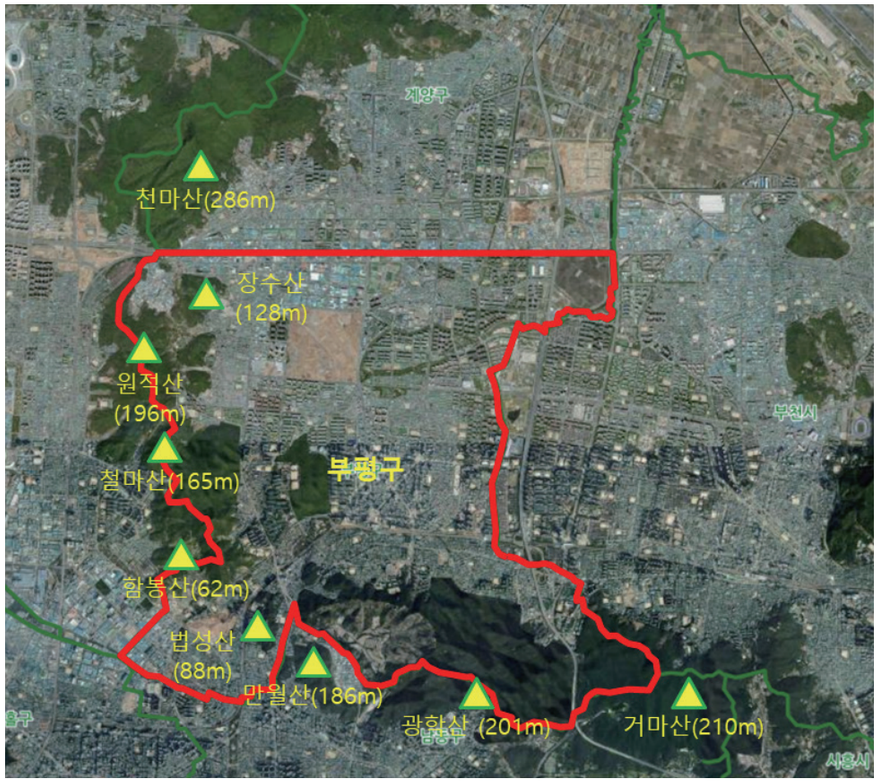
부평구는 1995년에 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인천직할시 북구가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리되면서 형성되었다. 부평구와 계양구는 굴포천을 중심으로 하나의 유역 분지를 이루고 있다. 부평구는 인천광역시의 북동부에 위치하며 북쪽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쪽은 인천광역시 서구, 남쪽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서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접해 있다. 동쪽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구와 경계를 나눈다. 부평구의 동서 거리는 약 7.5㎞, 남북 거리는 약 6.6㎞로 면적은 32㎢이다.

1) 산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이 조선의 산맥[산경(山經)] 체계를 도표로 정리하여 영조 연간에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산경표(山經表)』에 따르면, 인천의 산줄기는 속리산에서 갈라져 북서쪽으로 뻗어가면서 한강 유역과 경기 서해안을 나누는 한남·금북정맥에 속한다. 한남정맥은 인천의 남동쪽에 위치한 성주산을 지나 비루고개-금마산-주안산-원통고개-장고개-원적산-천마산-계양산-피고개산을 지나고, 계양구 둑실동에서 김포 방향으로 휘어져 가현산-약산-문수산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산줄기가 조선시대 인천도호부와 부평도호부를 나눈 경계선이었다.

부평을 포함한 인천광역시의 산지는 섬을 제외하면 대략 남북 방향으로 연속성을 보인다. 남북 방향의 산지는 남쪽으로부터 소래산(299m), 성주산(217m)이 경기도 시흥시와 부천시의 경계를 이루며, 서쪽에는 거마산(210m), 무네미고개, 만월산, 광학산(201m, 철마산이라고도 불림)으로 이어진다. 북쪽으로는 함봉산(62m), 장고개, 철마산(165m, 산곡동 위치), 원적산(196m), 안하지고개, 철마산(227m, 효성동 위치), 계양산(395m) 등이 자리 잡고 있다.

- 안하지고개(아나지고개) : 내륙의 부평과 해안 지역인 서구를 잇는 주요 교통로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부평구 청천동과 계양구 효성동, 서구 가정동을 동서로 연결하는 고개로, 조선 후기에는 삼남 지방(충청·전라·경상도)에서 거둔 세금을 한양으로 운반하던 중요한 길목이었다.
- 원통이고개 : 부평구 십정동과 부평동 사이의 낮은 고개이다. 이 고개의 북쪽에는 서부 산지의 말단부에 해당하는 61m의 함봉산, 동쪽에는 남부 산지가 시작되는 광학산(201m, 일신동 위치)이 있다. 이 고개를 중심으로 한 통로는 경인선 철도와 전철, 인천도시철도 1호선, 국도 46호선(경인로), 경원대로 등 인천의 도심과 부평, 부천, 서울을 잇는 핵심 교통로가 된다.
- 만월산 : 주 봉우리가 부평구와 경계를 이루는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다. 약산사라는 사찰과 약산공원이 있어 약산으로 불리기도 하며 원통산, 선유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비리고개는 부평구 일신동과 남동구 만수동을 연결하는 고개로 비루고개, 별리고개, 별고개 등으로도 불리었다.
- 광학산(일명 철마산, 금마산) : 부평구 부평동, 일신동과 남동구 만수동, 장수동 사이에 동서 약 6㎞, 남북 대략 3㎞ 정도에 걸쳐있다. 이 산은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삼거리역 1번 출구 맞은편에서부터 동쪽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구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밑의 무네미고개에서 높이가 낮아진다. 광학산은 오래전부터 내륙의 부평구과 연안에 인접한 남동구 두 지역의 생활권을 나누는 분수계 역할을 하였다.
- 무네미고개 : 광학산과 거마산을 연결하는 길목으로 영동고속국도, 제2경인고속국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거마산 정상은 남동구 장수동에 위치하지만, 부평구 동남부 일대에 퍼져 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남동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의 경계가 된다.



❖ 부평구 영역과 주변 지역의 주요 산

2) 평야와 하천

하천은 일정한 물길을 따라 흐르는 물로 인간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하천은 물길을 이용한 교통로와 농업용수원으로 사용되었고, 도시의 발달과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주로 식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사용된다. 부평구가 위치하는 인천광역시는 계양산을 포함하여 몇몇 산지를 제외하면 대체로 구릉지와 충적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하천의 유로가 짧고, 유역 면적이 좁다. 부평구에는 2016년 국가지정하천으로 지정된 굴포천과 인천광역시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방2급 하천이 1개소가 있다.

• 굴포천 : 부평구 청천동 295-1번지에서 출발하여 계양구 하야동, 인천 경기 도계가 종점으로 유로 연장이 11.5㎞, 유역 면적 60.0㎢이다. 다른 작은 하천과 청천천은 굴포천으로 합류하고, 연장이 8.0㎞, 유역 면적이 6.1㎢로 매우 좁다. 굴포천은 부평구와 계양구의 여러 하천과 합쳐지면서 북쪽으로 흘러 김포대교 부근에서 한강으로 합류한다.

❖ 굴포천(2021년)

• 원통천 : 굴포천의 지류 중에 부평 분지에서 발달한 하천으로 광학산 북쪽 사면에서 발원하여 북동류하다가 만월산 등지에서 흘러나오는 소하천들과 합류하여 부평 1동 사무소와 부평구청 부근을 통과한 다음 동쪽으로 방향을 튼다.

• 향동천 : 무네미고개에서 발원하여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의 경계선을 따라 흐르다가 부평구 삼산동과 계양구 서운동, 부천시 삼정동에 걸쳐 있는 서운 분기점 부근에서 굴포천과 합쳐진다.

한편, 하천의 작용은 평야의 발달에 필수적 요인이다. 굴포천은 부평평야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굴포천의 서쪽과 동쪽으로 대략 2~3㎞의 간격을 두고 각각 인공 수로인 서

부간선수로와 동부간선수로가 위치한다. 이 수로는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설하였다. 많은 비로 굴포천이 범람하거나 한강 본류가 굴포천을 거슬러 역류하면서 발달한 퇴적작용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면서 산지와 분지 내부의 경사는 더욱 완만해졌다. 그 결과, 굴포천 유역에는 평야로 발달 가능한 비옥한 충적지가 넓게 발달하게 되었다.

2 700여 년 전에 탄생한 '부평(富平)' 지명

1) '부평' 지명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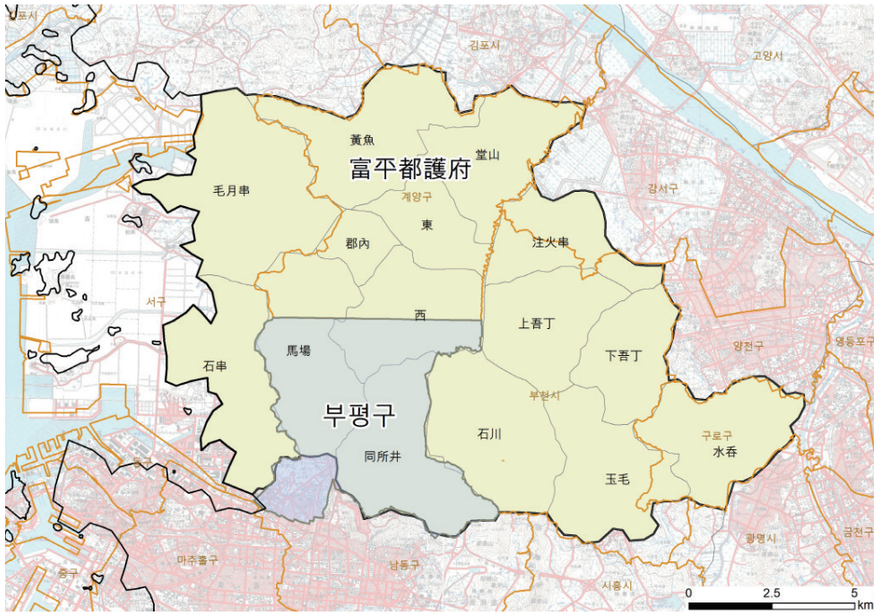
부평은 현재 인천광역시를 이루고 있는 13개 구·군에 속한 부평구이지만, 오랜 역사 동안 인천과 다른 별개의 독립된 고을로 존재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에 부평과 인천은 모두 도호부(都護府)로 읍격(邑格)이 같았다. 도호부의 수령인 도호부사의 품계는 종3품으로, 군(종4품)이나 현령(종5품)、현감(종6품)보다 높았다. 고려 때부터 따지면 천 년 이상을 별개의 고을로 지내오다가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이르러 부평의 '부'자와 인천의 '천'자를 따서 '부천군'으로 합쳐졌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인천과 부평은 '한집살이'를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문헌상 '부평' 지명이 처음 확인되는 것은 『고려사』 지리지(地理志)에서 이다.

>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수주(樹州)는 본래 고구려 주부토군(主夫吐郡)인데 신라 경덕왕이 고쳐 장제군(長堤郡)으로 하였다.
> 고려 초 수주로 고쳤고 성종 14년(995)에 단련사(團練使)를 두었다가 목종 8년(1005)에 이를 폐지하였다. 현종 9년(1018)에 지주사(知州事)로 고쳤고, 의종 4년(1150)에 다시 안남도호부로 삼았다. 고종 2년(1215)에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로 고쳤다가 충렬왕 34년(1308)에 길주목(吉州牧)으로 승격시켰다.
> 충선왕 2년(1310)에 여러 목을 폐지하면서 부평부(富平府)라 하였다.

이를 통해 역사상 '부평' 지명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700여 년 전인 1310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주부토', '장제', '수주', '안남', '계양', '길주' 등으로 불렸는데 여타의 군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지명이 바뀌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접어들어 부평부는 부평'도호부'[1413년(태종 13)] → 부평'현'으로 강등[1438년(세종 20)] → 부평'도호부' 복구[1446년(세종 28)] → 고을 폐지[1505년(연산 11)] → 고을 복구(부평'도호부')[1506년(중종 1)] → 부평'현'으로 강등[1698년(숙종 24)] → 부평'도호부' 복구[1707년(숙종 33)] 등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처럼 행정 지위의 승강이나 일시적 폐지가 있었지만 '부평'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 조선시대 부평도호부의 영역과 부평구

2) 1914년 '부천군(富川郡)'의 등장과 '역사 부평'의 해체

1310년 '부평' 지명의 등장 이후 부평 지역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부평부', '부평도호부', '부평현', '부평군' 등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일제강점기 초까지 유지된다. 그렇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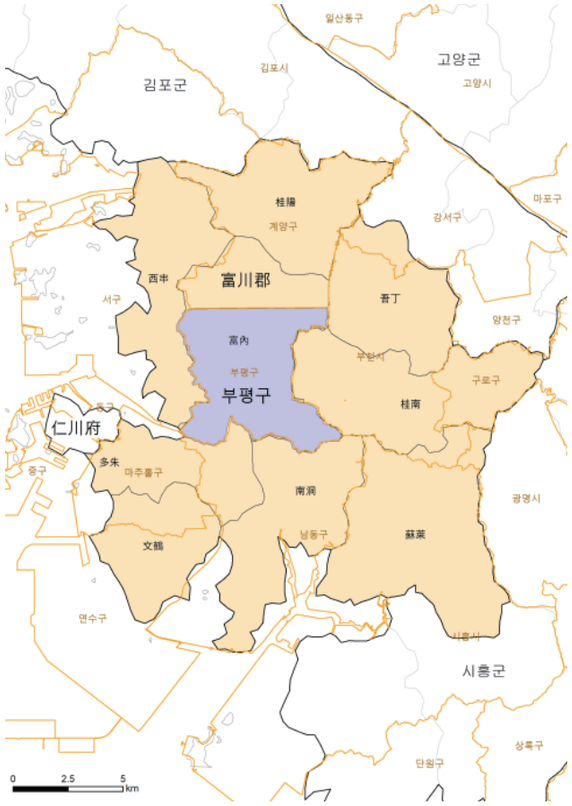
만 1914년 '부천군(富川郡)'의 등장 이후 '부평' 지명은 부내면에 속하는 '부평리(富平里)', 1940년 인천부와의 통합으로 설치된 '부평출장소', 1947년 일본식 지명 변경으로 신설된 '부평동', 1995년 인천광역시 북구로부터 분리된 '부평구(富平區)' 등 근대 이전보다 하위 행정 단위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된다. 지난 1세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기 '부평' 지명 그리고 그것이 관련된 공간 영역은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근대이행기로 접어들며 부평, 인천 지역 일대에서 경험한 가장 급격한 행정구역 변화는 단연 1914년 새로 설치되는 부천군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천군은 1895년(고종 32) 전국을 23부로 편제한 근대적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천부(仁川府)에 속하게 된 12개 군 중 인천군과 부평군을 중심으로 남양군, 강화군 일부를 합쳐 신설된 행정구역이다. '부천'이라는 명칭도 부평의 '부(富)'자와 인천의 '천(川)'자를 따 합친 것에서 유래하였다.

표 1 부평 지역의 행정구역 변화(조선 후기~현재)

<table>
<tr><th>조선시대</th><th colspan="3">1895년</th><th>1914년</th><th>1940년</th><th>1962년</th><th>1968년</th><th>1973년</th><th>1988년</th><th>1995
~현재</th></tr>
<tr><td rowspan="7">부평
도호부
(15개면)</td><td rowspan="7">부평군
(15개면)</td><td>군내면
서면
마장면
동소정면</td><td>부내면</td><td rowspan="2">인천부
(인천시)</td><td>부평
출장소</td><td rowspan="2">북구
(서곶
출장소)</td><td rowspan="2">북구
(서곶
출장소)</td><td rowspan="2">북구</td><td>부평구</td></tr>
<tr><td>모월곶면
석곶면</td><td>서곶면</td><td>서곶
출장소</td><td>계양구</td></tr>
<tr><td>동면
당산면
황어면</td><td>계양면</td><td>계양면</td><td>계양면</td><td>계양면</td><td>김포군
계양면</td><td>북구
(1989년)</td><td>계양구</td></tr>
<tr><td>주화곡면
상오정면
하오정면</td><td>오정면</td><td>오정면</td><td colspan="5">서울 강서구(1963년 오곡리와 오쇠리를 분리 편입)</td></tr>
<tr><td rowspan="2">수탄면
옥산면
석천면</td><td rowspan="2">계남면
→소사면
(1931년)
→소사읍
(1941년)</td><td rowspan="2">소사읍</td><td>오정면</td><td>오정면</td><td>김포군
오정면</td><td rowspan="2">부천시</td></tr>
<tr><td>소사읍</td><td>소사읍</td><td>부천시
승격</td></tr>
<tr><td colspan="6">서울 구로구(1963년 오류리·고척리·개봉리·온수리·
천왕리·궁리·항동리 등을 당시 영등포구로 분리 편입→
1980년 구로구 분리)</td></tr>
</table>

* 실선으로 표시된 지역은 1914년 부천군으로 편제된 부평군 지역을 말함



❖ 1914년 부천군의 영역과 부평구

3) 인천 시역의 확장과 새로운 부평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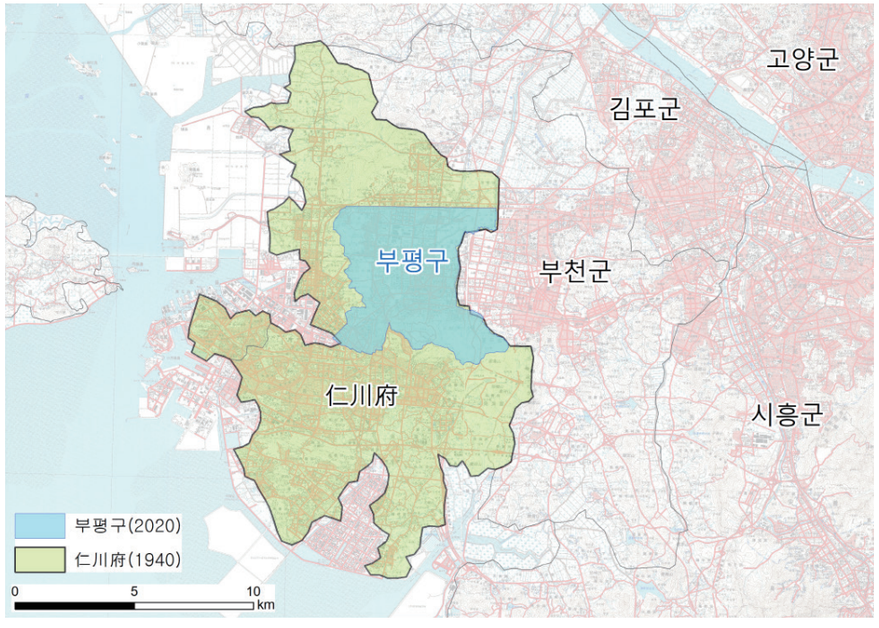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인천과 부평 지역 일대의 공간 변화상 눈에 띄는 모습은 인천의 시역 확장과 부천군의 축소이다. 1940년에 이르러서는 인천부가 다주면·문학면·남동면·부내면·서곶면 등 부천군의 주요 지역 대부분을 편입하였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인천부의 확장에 따른 부천군 주요 지역의 편입 과정에서 주목되는 장소가 있다. 바로 부평군의 소재지였던 군내면 상동(현 계산동), 즉 1914년 부천군 부내면에 편제되는 부평리(富平里)와 1899년 경인선 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개설된 부평역 일대 대정리(大井里. 현 부평구 부평동)가 그곳이다. 부평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이후 600년 이

상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던 '부평' 지명의 명맥을 잇게 된 유일한 행정 지명으로 근대 이전 부평도호부의 중심지[邑治]가 자리했던 곳이다.

이에 반해 현 부평구 부평동에 해당하는 대정리 일대는 1899년 경인선 철도의 개통으로 부평역이 개설되고 또 1940년 인천부 편입과 함께 부평출장소가 들어서게 되면서 과거 역사 부평의 중심지였던 부평리를 대신하는 새로운 부평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현재 '부평 지역'이라고 하면 근대 이전 오랫동안 부평도호부의 중심지였던 계양산 아래 계산동 일대보다는 부평역 일대의 부평동이나 부평구를 떠올릴 것이다. 부평 지명과 관련된 구체적 공간이 이렇듯 변하게 된 과정은 근대이행기 접어들며 경험하게 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경인선 철도 개통과 부평역 개설, 그리고 1940년 인천부로의 편입과 더불어 행정관청인 부평출장소의 현 부평동[대정리, 昭和町)]입지 등과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일제강점기 후반 부평조병창 개창(1939) 같은 일제에 의한 식민 군사기지 즉 공업지역으로의 변화가 현 부평동 일대에서 전개되었던 것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 1940년 인천부의 영역과 부평구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계양산 아래 부평도호부 읍치가 자리했던 '부평리(구 부평군 군내면 상동)'와 부평역 일대의 '현 부평동(구 부평군 동소정면 대정리 일대)'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조선시대 부평도호부 시절, 부평의 중심지는 계양구 계산동이었다. 계산동에 있는 부평초등학교 부지가 옛 부평의 치소(治所)이다. 치소란 오늘 시·군청 소재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곳을 일컫는다. 당시에는 동헌(東軒)과 객사(客舍)가 들어선 관아와 관아 동쪽의 향교 등이 치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었다. 이들 건물들이 있던 곳들이 지금의 계산동이고 대체적인 위치도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중심지가 부평동 일대로 옮겨 왔다.

한국의 지명 연혁을 상세히 정리한 『한국지명총람』에서도 1914년 처음 등장하게 된 부평리가 현재의 부평동과 동일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크나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만큼 근대이행기 부평 지역의 실제적인 공간상 변화 그리고 행정구역 변화, 지명 변천 등이 복잡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부평 하면 떠올리는 구체적 장소 이미지나 공간 범위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새롭게 형성된 부평 소위 신 부평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근대이행기 부평 주요 지역(부천군 주내면·서곶면 일대)의 지명 변화

1895년(부평군)		1914년(부천군)		1940년(인천부)	1947년	1995년
군내면	갈월리	부내면	갈월리	길야정(吉野町)	갈산동	부평구
	하동		하리	대정정(大正町)	계산동	계양구
	상동		부평리		계산동	계양구
서면	후정리		후정리	삼립정(三笠町)	삼산동	부평구
	도두리		도두리	동운정(東雲町)	서운동	계양구
	작정리		작천리	작전정(鵲田町)	작전동	계양구
마장면	산곡리		산곡리	백마정(白馬町)	산곡동	부평구
	청천리		청천리	천상정(川上町)	청천동	부평구
	효성리		효성리	서정(曙町)	효성동	계양구
동소정면	구산리		구산리	이등정(伊藤町)	구산동	부평구
	마분리		마분리	명치정(明治町)	부개동	부평구
	항동		항동리	향취정(香取町)	일신동	부평구
	대정리		대정리	소화정(昭和町)	부평동	부평구
(인천부) 주안면	상십정리 외	다주면	십정리	대도정(大島町)	십정동	부평구

1895년(부평군)		1914년(부천군)		1940년(인천부)	1947년	1995년
모월곶면	가정리	서곶면	가정리	천대전정(川代田町)	가정동	서구
석곶면	가좌동		가좌리	천간정(淺間町)	가좌동	서구
	검암리		검암리	과생정(瓜生町)	검암동	서구
	고잔리 외		고잔리	이가정(李家町)	경서동	서구
	공촌리		공촌리	흑전정(黑田町)	공촌동	서구
석곶면	백석리	서곶면	백석리	운양정(雲揚町)	백석동	서구
	번작리 외		고작리	촌상정(村上町)	석남동	서구
	시천리		시천리	춘일정(春日町)	시천동	서구
	신현리		신현리	현무정(玄武町)	신현동	서구
	심곡리		심곡리	일진정(日進町)	심곡동	서구
	연희리		연희리	정상정(井上町)	연희동	서구
	포리 외		포리	구수정(久水町)	원창동	서구

3 '부평' 지명은 '거룩한 땅'이라는 뜻

1) '주부토', '장제', '수주', '안남', '계양', '길주' 지명 유래

문헌상 '부평'이라는 지명이 처음 확인되는 것은 『고려사』 지리지에서이다. 부평은 '주부토(主夫吐)'(5세기 후반. 고구려 장수왕 때?) → '장제(長堤)'(8세기 중엽. 통일신라 경덕왕 때) → '수주(樹州)'(940년) → '안남(安南)'(1150년) → '계양(桂陽)'(1215년) → '길주(吉州)'(1308년) 등으로 그 이름이 변경되었다가, 1310년(충선왕 2년)에 이르러 비로소 '부평(富平)'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부평' 지명이 탄생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710년 전임을 알 수 있다.

'부평' 이전의 지명 유래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부토(主夫吐) : '주부토'는 당시의 어떤 우리말 이름을 중국 한자(漢字)의 소리와 뜻을 이용해 표시한 한자 차용(借用) 표현이다. 한글 창제 이전에 우리말을 표현할 우리 글자가 없었기에 한자를 이용해 우리말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선 '주부토'의 ① '주(主)'는 '줄', 즉 선(線)처럼 곧게 뻗은 땅이나 물줄기를 나타낼 때 많이 '注(주)'와 같은 뜻으로 쓰였으며, ② '부(夫)'는 '벌(판)'을 뜻하는 우리말 땅 이름 '부리(夫里)'의 준말로 보아야 하며, ③ '토(吐)'는 '둑(제방)'이라는 우리말을 한자로 바꿔 쓴 것으로 해석하는 연구가 있다. 따라서 '주부토'는 '줄처럼 생긴 긴 벌판의 둑'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신라 경덕왕 때 우리 고유의 지명을 한자화하면서 '주부토'가 '긴 제방'이라는 뜻의 '장제군(長堤郡)'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반면 ① '주부(主夫)'를 '님'[주인 또는 부족장, 왕]으로 해석하고, ② '토(吐)'는 장소(곳, 땅)를 뜻하는 우리말 '터'를 나타낸 말이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주부토'는 '주인의 땅(터)' 또는 '임금(왕)의 땅' 정도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主夫吐郡=長堤郡=樹州'로의 지명 변천 또한 '주부(主夫)=장(長)=수(樹)', '토(吐)=제(堤)=주(州)'라는 관계로 동일하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한다.

❖ 계양산성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主夫吐' 명문 기와와 탁본(출처: 계양산성박물관 홈페이지)

- 장제(長堤) : '장제(長堤)'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자 뜻 그대로 '긴 제방'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① '장(長)'은 '주부(主夫)', 즉 '님'('어떤 집단의 우두머리')과 같은 뜻으로 해석되며, ② '제(提)'는 '땅'을 뜻하는 '데', '터'[즉 '吐']를 나타낸 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결국 '장제(長堤)'의 뜻은 주부토와 같이 '주인의 땅' 또는 '임금의 땅'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 수주(樹州) : '수주(樹州)'에 대해서는 부평의 진산(鎭山)인 계양산의 북쪽 수소리(樹蘇里)에 고을[주(州)]의 관사(官舍)가 있어 붙은 이름이라는 해석이 있다. 그렇지만 고려 초기 고을의 관사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이러한 지명 유래는 근거가 분명치 않다. 반면 ① '수(樹)'라는 한자가 '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님'의 뜻을 가진 고대어 '나마'와 발음이 비슷하여 이로써 한자로 표현한 것이며, ② '주(州)'는 우리말 '터'[땅, 마을]를 한자로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수주'의 뜻 또한 '주부토'나 '장제'와 같이 '님의 땅' 또는 '임금(왕)의 땅'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안남(安南) : '안남(安南)'은 우리말을 한자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한자의 뜻 그대로 '남쪽(南)을 편안하게(安) 다스린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의 남쪽인 부평 땅을 편안하게 다스린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① '안(安)'은 '나라'(주인, 임금)를 뜻하는 '아라'라는 말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며, ② '남(南)'은 앞의 '주부토'에서 설명한 것처럼 '님[주(主)]'을 뜻한 고대어 '나마'를 발음이 비슷한 글자 '남'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따라서 '안남(安南)'의 뜻 역시 앞선 지명들과 마찬가지인 '주인의 땅' 또는 '임금(왕)의 땅'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안(安)'을 주인이나 임금이 아니라 '크다'는 뜻을 나타낸 말로 보는 해석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안남(安南)'은 '큰 (주인의) 땅' 또는 '큰 (임금의) 땅' 정도가 된다.

• 계양(桂陽) : '계양(桂陽)'은 이 고을의 진산(鎭山)인 계양산과 관련된 이름으로 이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이 산에 계수나무[桂]가 많아서 생긴 이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계양산에는 계수나무가 많지 않으며, 이전에 많았다는 기록도 없어 그 해석에 타당성이 적다. 이 보다는 언어학적 측면에서 '계양(桂陽)'의 ① '계(桂)'는 우리 옛말 '돌'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고구려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 '돌'은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리고 ② '양(陽)'은 땅 이름에서 흔히 바다나 강 같은 '물의 북쪽에 있는 땅'을 말할 때 쓰거나 '높은 곳'을 뜻할 때 쓴 글자이다. 옛 기록을 보면 '높은 언덕을 양이라고 했다[高丘曰陽]'고 하였다. 한편, '양(陽)'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 이렇게 보면 '계양'은 '달'이나 '달벌' 또는 이와 비슷한 어떤 발음으로 불리던 우리말 이름이 한자로 바뀌어 생긴 이름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뜻은 '높은 곳(산)'이나 '산이 있는 마을' 정도가 된다. 이 역시 '주부토'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지명이 되겠다.

• 길주(吉州) : '길주(吉州)' 고려 후기 때 충렬왕이 이곳에 매 사육장을 만들어 놓고 사냥을 즐긴 '길(吉)한 땅(州)'이라 해서 붙은 이름이라는 설명이 있다. 충렬왕이 매 사냥을 즐겨 부평 일대에 매를 관리하는 '응방(鷹坊)'을 설치해 놓고 이곳에 자주 왔던 사실은 확인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면 '길한 땅'이라는 해석은 나름 타당성이 있으나, 언어학적 입장에서는 길주 역시 '큰 고을'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길(吉)'이 '대(大)', 즉 '크다'는 뜻을 가지는 것으로 기록된 데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길주(吉州)'라는 이름 역시 '주부토'의 뜻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부평' 지명 유래

'부평(富平)'의 지명 유래는 이곳이 넓은 곡창지대여서 '수확이 많은(富) 넓은 들(平)'이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해방 이후 부평 일대에 비교적 넓은 평야가 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곳곳에 바닷물이 밀려들어 왔던 이곳 들판이 그 옛날에 마냥 풍요로운 평야였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1872년 지방지도」 부평부

1872년에 제작된 『부평부지도』를 보면 부평의 동쪽 지역에 평지가 펼쳐져 있지만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논으로 개간하기 위해 쌓은 방축(防築)이나 지나다니기 위한 다리를 놓은 곳들이 여러 곳 표시되어 있다. 그런 만큼 이곳이 고려 충선왕 시대에 풍요로운 농경지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부평'이라는 이름이 뜻도 단순히 한자 뜻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적다. 따라서 이 역시 언어학적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단서를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찾을 수 있다. 강원도 지역의 김화군(金化郡)을 말하면서 "부평군은 본래 고구려의 부여군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김화현이다[富平郡 本高句麗夫如郡 景德王改名 今金化縣]"라는 내용이 나온다. 지금의 인천 부평과 똑같은 한자 이름이 신라시대 김화군의 옛 지명이었던 것이다. 이 기록을 따르면 '富=金'이라는 관계가 성립된다. 그리고 우리말 땅 이름에 쓰인 '金'은 흔히 '신(神)'이나 '거룩한 존재' 등을 뜻하는 우리 옛말 '금'을 한자로 바꿔 쓴 것일 때가 많고, '金化'의 '金'도 이 같은 사례로 해석된다. 이렇게 보면 '富=金'이라는 관계에 따라 '富' 역시 '金'과 같은 뜻을 가진다. 따라서 부평(富平)은 '거룩한 땅', '높은 사람이 다스리는 땅'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부평'은 그 이전 시기의 지명인 '길주', '계양', '안남', '수주', '장제' 등과 마찬가지로 '주부토'와 뜻이 같은 셈이 된다.

4 삼국시대 해양 방어의 요충지였던 '계양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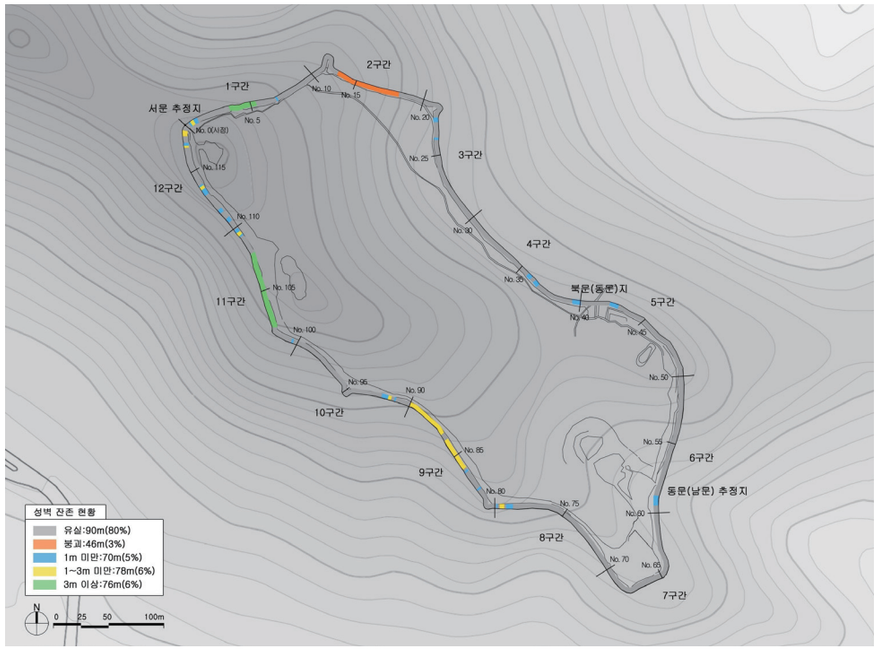
1) 계양산성의 현황과 옛 기록

계양구 계산동에는 계양산(해발 395m)이 위치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부평도호부의 진산(鎭山)으로 '안남산(安南山)'이라고도 하였다. 계양산에는 예로부터 고성(古城)으로 전해오던 '계양산성(桂陽山城)' 터가 있다. 계양산성은 인천 및 부평 지역의 고대문화를 상징하는 삼국시대의 산성으로 둘레가 1,180m, 면적이 6만 2,863㎡에 달해 삼국시대의 산성으로는 비교적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1992년 5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된 계양산성은 잘 다듬은 돌로 성벽을 쌓아 올려 만들었는데, 성벽이 잘 남아 있는 곳은 그 높이가 7m에 이른다. 성곽은 계양산 정상이 아닌 동쪽의 낮은 봉우리를 중심으로 축조되었다.

산성의 형세는 동남에서 서북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놓인 장타원형에 가까운데, 서남쪽이 튀어나오고 북동쪽이 들어간 모습이다. 성벽은 동문지 주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체성부가 대부분 온전히 남아 있지만, 외벽은 면석이 80% 가까이 유실되어 남벽과 서벽, 북벽의 일부 구간에서만 간간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공중에서 내려다본 계양산성

현재까지 진행된 10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북문지와 치성 2개소, 집수시설 3개소, 대형건물지 1개소, 건물지 9개소, 제사유적 1개소 등의 성내 잔존 유적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유구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제2차 발굴이 이루어진 곳이 '동문지', 그리고 북쪽 최정상부의 산불초소 일대와 남동쪽 끝의 육각정 일대가 '장대지(將臺址)'로 추정되고 있다.



❖ 계양산성 성벽(외벽)의 잔존 현황

계양산성에 대한 기록 중 가장 시기가 앞서는 것은 1530년(중종 25)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권9 '부평도호부' <고적>조에 실린 내용이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6세기 전반)
  "계양산(桂陽山)의 고성(古城)은 돌로 쌓았고 둘레가 1,937척이다. 지금은 모두 무너졌다."

이 기록을 통해 계양산성이 돌로 쌓은 성이며, 둘레 1,937척의 규모라는 사실, 그리고 당시에도 무너져 '고성(古城)'으로 불린다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후의 자료들도 대부분 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17세기 중엽)
  "계양산의 고성(古城)은 돌로 쌓았고 둘레가 1,937척이다. 삼국시대 쌓았다고 전해지는데 지금은 모두 무너졌다."

- 『경기지(京畿誌)』(19세기 전반)
  "계양산의 고성(古城)은 돌로 쌓았고 둘레가 1,937척이다. 지금은 모두 무너졌고 최상부에 흔적이 남아있다."

- 『대동지지(大東地志)』(19세기 중엽)
  "고성(古城)은 안남산(安南山)의 동남쪽에 있는데, 둘레가 1,937척이다."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20세기 초)
  "부평의 계양산성은 삼국시대에 설치한 것으로,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1,937척이다. 지금은 폐성(廢城)이다."

그런데 17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국여지지』와 대한제국기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에서는 계양산성이 삼국시대에 쌓았다고 성의 연혁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이상의 문헌 기록으로 미루어 계양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나, 16세기 이전에 이미 폐허가 되어 이후 '고성(古城)'으로 칭해지며 그 터만 전해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2) 계양산성의 역사적 가치

삼국이 각축을 벌이던 고대사회에서 계양산성은 서쪽으로 서해와 강화도 일대, 서북쪽으로 한강 하류와 북동쪽으로 김포평야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따라서 계양산성은 한강 하류 지역을 군사적으로 제어하고 주변의 넓은 평야지대를 통제하기 위해 축조·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양산성은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에 이미 폐허가 된 '고성(古城)'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산성을 처음 쌓은 시기와 그 주체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한 역사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하는 역사 기록은 대부분 계양산성의 초축 시기와 주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삼국시대에 쌓은 것이라고만 전하고 있다. 때문에 계양산성의 세부 연혁과 역사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일찍부터 문화

재 지표조사와 여러 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유적에 대한 조사자료와 1,000여 점의 유물이 체계적으로 확보됨으로써, 계양산성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확인되었고 그 평가를 둘러싼 학계의 논의가 촉진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추정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1~3차 발굴조사에서는 성벽조사와 집수정 출토 목간의 탄소연대 측정값 등을 근거로 계양산성이 한성백제의 유적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② 제4차 발굴조사에서는 현문식 문 터와 보축성벽, 왜성(倭城)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③ 제5~6차 발굴조사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후 고려시대까지 사용된 다수의 건물 터와 생활공간이 확인되었다.
④ 제7차 발굴조사에서는 후대에 '토심석축' 기법으로 2개소의 치성을 추가 설치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⑤ 제8~9차 발굴조사에서는 두꺼운 판축 벽체를 지닌 대형 건물 터와 제사유적, 집수지가 확인되어 계양산성이 통일신라시대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 제4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북문 터

그러나 초축 시기와 주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학술조사 초기에는 제1~3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성벽의 축조방식과 목간, 토기편, 원저단경호 등 백제계로 판단되는 출토유물을 근거로 한성백제 후기(5세기)에 축조된 산성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반면 4차 발굴조사 이후 계속 이어진 학술조사에서 후기 신라(6세기)와 통일신라(8세기)의 것으로 보이는 유구와 유물이 다량 확인되면서 계양산성을 6세기 후반 한강 유역으로 진출한 신라에 의해 축조된 후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이 지역의 '치소성(治所城)'으로 활용되었다고 보는 또 다른 견해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다만, 계양산성이 한강 하류와 서해안 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싼 삼국의 치열한 각축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적이었고 주 사용시기가 통일신라시대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중심부에 흙을 쌓고 외부에 돌을 쌓아 올린 '토심석축기법'을 사용한 치성, 판축 벽체를 사용한 대형건물 터 등 축성법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고대 산성이라고 평가되었다.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이 각축을 벌이던 고대사회에서 부평의 계양산(桂陽山)은 서쪽으로는 서해와 강화도 일대, 서북쪽으로는 한강 하류, 북동쪽으로 김포평야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때문에 한강 하류 지역을 군사적으로 제어하고 주변의 넓은 평야지대를 통제하기 위해 이른 시기에 산성을 축조·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고려시대까지 지방의 거점으로 활용되던 계양산성은 조선시대 들어와 관방시설로서의 용도가 폐기되면서 '옛성'[古城]으로 퇴락해 갔지만,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전란이 발생하게 되면 개축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5 세종 임금에게까지 숨긴 부평 온천(溫泉)

임금이 온천을 찾은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8, 성덕왕(聖德王) 11년(712) 4월 기사("왕이 수레를 타고 온천에 행차하였다")에서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그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임금의 온천 행차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적잖이 확인된다. 온천욕은 질병 치료나 휴양을 위해 효과가 있었던 때문이었다.

그런데 고려 말 기록을 보면 황해도에 위치한 평주[平州, 1413년에 평산(平山)으로 지명

변경] 온천으로 자주 임금이 행차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조, 태종 임금 때도 마찬가지였다. 고려 때는 수도가 개성에 있었기에 평주 온천으로의 행차가 지리적으로 큰 불편이 없었을 것이나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조선에서는 임금이 평주까지 행차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양과 가까운 곳에 온천의 존재가 필요하였다. 그곳이 바로 옛 부평 땅이었던 온수동(溫水洞)이었다.

행정구역상 구로구에 속해 있는 온수동은 원래 조선시대 때 부평 수탄면에 속해 있었으며, 그 지명 유래는 한자 이름 풀이 그대로 온천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온수동이 그 역사의 진원지였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여하튼 부평 땅에 있었던 온수동, 즉 온천 때문에 부평이 '도호부'(종3품)에서 '현'(종5품 현령)으로 그 읍격이 강등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1434년(세종 16) 추운 겨울인 11월 29일(음력)에 처음 시작되었다. 세종 임금이 봉상시의 관료 이사맹(李師孟)을 부평에 보내 온천을 찾아보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부평에 있다는 온천은 쉽게 찾지 못한 것 같다. 온천 조사 지시로부터 무려 4년이 지난 1438년(세종 20) 10월 4일에 세종은 다시 이조(吏曹)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 이조(吏曹)에 명령을 내리기를, "온수(溫水)가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자못 신비로운 효험이 있으므로, 내가 이를 구하는 것은 실로 백성을 위하는 것이지, 옛 사람들이 신선을 구하는 뜻과는 다르다.
> 부평부(富平府)에 온수가 있다는 것은 비단 안팎으로 떠들 뿐만 아니라 그 고을 사람들도 역시 그 실정을 숨기지 못하나, 단지 그 소재처를 분명히 말하지 아니할 뿐이다.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 찾아보게 하였으나 관료나 아전이나 백성들이 나의 뜻을 받들지 아니하고, 혹시 장래에 번거롭고 소요스러운 폐단이 있을까 염려하여 한 목소리로 감추거나 숨기니, 어그러짐이 심한 것이다.
> 이제 만약 전처럼 굳이 숨기면 고을의 명칭을 깎아내려서 그 죄를 징계할 것이요, 만일 다른 고을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영 명칭을 회복시킬 리가 없을 것이니, 이런 사의(事意)로써 공문을 보내어 효유하게 하라"하였다.

위 기사 내용을 보면 세종은 분명 부평에 온천이 있다고 확신하였는데, 부평의 관료 및 아전, 백성들이 온천 발견 시 그 폐단을 염려하여 숨기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온천이 위치한 고을에서는 임금의 행차를 반가워하지 않았다. 임금의 온천 행차 시 수천 명이 움직였는데 그 비용을 해당 고을에서 일정 부분 감당해야 했고 경호 문제도 적잖이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민심을 챙기기 위해 온천 행차 시 임금이 고을의 노인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거나, 별시라는 과거를 열었고, 세금을 감하라는 교지를 내려주기도 하였다.

그러지만 세종은 그 징벌로 계속 온천의 존재를 숨기면 고을의 명칭, 즉 읍격을 깎아 내리겠다는 공문을 내려 타이르라고 명령하였다. 이후 부평에 온천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나타나 관료와 수백 명의 일꾼들을 보냈으나 역시 온천을 찾지 못하였다.

> 승(僧) 신조(信照)라는 자가 부평에 온천이 있다고 말하므로, 사재감(司宰監) 정(正) 이사맹(李師孟)과 경기 경력(京畿經歷) 권준(權蹲)을 보내 역군(役軍) 2백 명을 데리고 땅을 파서 찾았으나 열흘이 지나도록 찾지 못하였다.

이에 세종은 앞서 공문을 내려 밝힌 대로 1438년(세종 20) 11월 8일 부평을 종3품 수령이 부임하는 '도호부'에서 종5품 현령이 부임하는 '현'으로 강등하였던 것이다. 이른바 부평 고을에 괘씸죄가 적용된 사례였는데, 이는 단지 읍격의 강등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인적인 징벌도 동반하였다.

이로써 부평 온천 사건은 그대로 끝나는 듯했으나, 처음 온천 조사의 책임을 맡은 이사맹은 조사를 끝낼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1439년(세종 21) 2월 12일 실록 기사를 보면, 부평 사람들과 아전들이 온천의 존재를 감추고 숨기므로 그들에게 온천을 고하게 할 방안을 세종에게 아뢰었다. 즉, 해빙기를 기다려 부평의 온천을 굴착하겠는데, 부평 사람들과 아전들이 왕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천 존재 사실을 감추거나 숨기고 있으니 기한을 정하여 그들에게 묻고 기한이 지나도록 고하지 않는 자는 다른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되, 고하는 자는 포상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은 춘분(春分)까지 기한을 주어 굴착을 끝내고 온천을 찾아내어 고하는 자는 포상을 주되, 감추고 숨겨 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드러나게 된 자는 중하게 징벌하겠다는 뜻을 고을에 알리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온천을 찾아내어 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 방침이었다.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효과 때문인지 열흘이 지난 2월 21일에 조서강(趙瑞康)이 부평 남쪽 마을에 온천이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찾아보자고 세종 임금에게 아뢰었던 것이다.

❖ 조서강 묘.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호
인천시 서구 석남동 산119-2번지(출처 : 문화재청)

❝ 조서강이 아뢰기를, "부평현(富平縣)에 사는 사노 어리종(於里宗) 등이 말하기를, '본현 남촌(南村)의 순지(蓴池) 서남쪽으로 온천이 있다'하오니, 청하건대 찾아보게 하옵소서"하였다.
이에 즉시 경차관 이사맹(李師孟)에게 전교하여 찾아보게 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 ❞

조서강(1394~1444)은 부평 출신의 중신(重臣)으로 부평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세종의 신임이 두터웠던 인물이었다. 이에 세종은 즉시 이사맹에게 부평 온천을 다시 찾아보게 했으나 그 결과는 이전과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세종은 같은 해 윤2월 18일에 부평 온천을 찾아내는 데에 이사맹이 가져간 <사목(事目)>에 의해 시행하라고 경기도 관찰사에게 명하였다. 그 <사목>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여럿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승복하여 대지 않는 자에게는 고문하고 심문할 것.
- 온수(溫水)가 나오면 그 고을의 호칭을 승격시키고, 그들의 부역을 면제하며 노비를 넉넉하게 줄 것.
- 품관(品官), 아전, 백성이고 간에 능히 찾아 묻는 자가 있으면 모두 포창할 것.
- 아전 중에 그 족속이 강성한 자로 삼반(三班)의 수리(首吏)로 정하여 다시 온천 있는 곳을 찾게 하되, 그래도 보고 듣는 데에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함경도의) 4진(鎭)으로 들여보낼 것.
- 여러 차례 기한이 지나도 고하지 아니하면, 그 고을의 호칭을 혁파하고 아전은 타도의 각 고을로 분속시킬 것.
- 유향품관(留鄕品官)이나 토성품관(土姓品官)과 누대로 살던 백성도 아전의 예에 의하여 기한을 정하고 찾게 하되, 기한이 지나도 관가에 고하지 않는 자는 또한 타향으로 옮기게 할 것.

이 사목은 그전에 이사맹이 제안한 방침을 좀 더 다듬으면서도 온천이 나오면 그 보고자나 발견자에 대한 포상은 물론 고을을 승격시키고 부역(賦役) 면제 및 노비 하사의 혜택까지 규정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여러 차례 기한이 지나도록 온천 사실을 고하지 않을 경우 고을의 이름을 아예 없애겠다는 징벌도 추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세종은 부평 온천을 찾아내는 데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1440년(세종 22) 8월 27일 기사를 보면, 부평 온천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나, 결과는 찾아내지 못하였다. 포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다투어 온천을 보고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알게 해준다.

이후 1441년(세종 23) 1월 7일과 2월 2일 등의 기사 내용을 보면, 정해진 기한이 지났는데도 부평 온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은닉했다는 이유로 부평의 아전들을 쇠잔하여 망

해가는 역(驛)의 아전으로 보내거나, 의금부로 잡아와 조사하고 신문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마련한 <사목>의 규정을 실천에 옮긴 것이었다.

해를 넘겨 1442년(세종 24) 11월 27일에도 온천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병조(兵曹)에 명하여 300명의 군인들을 동원시켜 20일 동안 땅을 파보게 하였다. 실록 기사에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으나 역시 찾아내지 못했던 것 같다.

부평 온천에 관한 세종 때의 기사는 1443년(세종 25) 7월 11일의 내용이 마지막이다. 세종은 예조에 다음과 같은 명을 내렸다.

> 예조에 명하기를, "경기도 부평현의 향리로 온정(溫井)의 소재처를 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일찍이 함길도에 입거(入居)시키고, 또 쇠잔하고 망해 가는 역(驛)의 아전으로 정하였던 자를 모두 방환(放還)하며, 이제부터는 온정의 소재처를 고하지 않는다고 논죄(論罪)하는 법을 거행하지 말게 하고, 다만 찾아내는 사람을 포상하는 법만을 신칙해 밝히라"하였다.

즉, 온천의 소재처를 고하지 않아 징벌을 받은 부평의 향리들을 모두 풀어 돌려보내고, 이후로는 온천의 소재를 고하지 않았다고 징벌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대신 온천을 찾아내는 사람에게 포상하는 방침은 그대로 지속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유지해온 '징벌'이라는 채찍 방침을 버리고 '포상'이라는 당근 방침으로 변하였다고 하겠다. 근 10여 년에 걸친 부평 온천 조사에 대한 집념과 의지를 사실상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3년여 후 부평은 현에서 원래대로 도호부로 승격하게 된다.

고을 읍격의 강등까지 불러온 '온천 사건'은 조선시대 내내 부평 지역 사회에 많은 이야기 거리를 생산하였을 것이다.

표 3 세종 때의 '부평 온천 소동' 추이

연월일	내 용
1434년(세종 16) 11월 29일	봉상시(奉常寺)의 소윤(少尹) 이사맹(李師孟)을 부평 지역에 보내 온천(溫泉)을 찾아보게 함.
1438년(세종 20) 10월 4일	부평 사람들이 온천의 존재 사실을 숨겨 그 소재처를 말하지 않을 경우, 고을의 명칭을 깎아 내려서 그 죄를 징계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라고 명을 내림.
1438년(세종 20) 10월 29일	사재감 정(司宰監) 이사맹과 경기 경력(經歷) 권준(權蹲)을 보내 역군(役軍) 200명을 데리고 땅을 파서 찾았으나, 열흘이 지나도록 온천을 찾지 못함.
1438년(세종 20) 11월 8일	임금이 부평에 온천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여러 번 조관(朝官)을 보내어 찾아보았으나, 아전과 백성이 숨기고 말하지 아니하므로 부평을 도호부(都護府)에서 현(縣)으로 강등함.
1438년(세종 20) 11월 13일	사재감 부정(司宰監(副正) 이사맹이 부평의 아전과 품관들이 온천의 소재지를 정직하게 말하지 않아 조사하기가 어렵다고 임금께 아뢰니, 즉시 의금부에 명령하여 전 판사(判事) 남급(南汲)과 향리(鄕吏) 김우(金雨) 등 5인을 국문(鞫問)하게 함.
1439년(세종 21) 2월 21일	조서강(趙瑞康)이 부평현에 사는 사노(私奴) 어리종(於里宗) 등이 부평 남촌(南村)의 순지(蓴池) 서남쪽으로 온천이 있다고 말하니 찾아보게 하자고 아뢰자, 즉시 경차관 이사맹에게 전교하여 찾아보게 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함.
1439년(세종 21) 윤2월 18일	경기 관찰사에게 부평 온천을 방문하여 찾아보는 일은 부평 지현사(知縣事) 이사맹이 가지고 간 '사목(事目)'에 의하여 일체 시행하라고 지시함.
1440년(세종 22) 8월 27일	전 부사정(副司正) 기복관(奇復觀)이 부평현의 부강(富强)한 향리(鄕吏)의 집이 곧 온천의 옛터라고 아뢰니, 임금이 기복관에게 옷 한 벌을 하사하고 온천을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함.
1441년(세종 23) 1월 7일	부평에서는 이미 기한이 지났는데도 온천을 발견하여 알리지 못했으니, 그 삼반(三班)의 우두머리 되는 아전을 경기도의 쇠잔하여 망해가는 역(驛)의 아전으로 정하게 하되, 가을까지 기다려도 여전히 알리지 못한다면 함경도의 4진(鎭)으로 옮기라고 임금이 부평 지현사 이사맹에게 명을 내림.
1441년(세종 23) 2월 2일	부평현의 아전들이 온천을 은닉하므로, 의금부 도사 김계(金啓)에게 명하여 가서 그들을 국문(鞫問)하게 함.
1442년(세종 24) 11월 27일	어떤 사람이 부평의 옥원(玉院)에 온천이 있다고 말하니, 이듬해 2, 3월에 그 부근의 각 고을 선군(船軍) 300명으로 20일을 기한하여 땅을 파서 시험하게 하라고 병조에 명을 내림.
1443년(세종 25) 7월 11일	부평현(富平縣)의 향리로 온천의 소재처를 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일찍이 함경도에 입거(入居)시키고, 또 쇠잔하고 망해 가는 역(驛)의 아전으로 정하였던 자를 모두 방환(放還)하고, 이제부터는 온천의 소재처를 고하지 않는다고 논죄(論罪)하는 법을 거행하지 말게 하고, 다만 찾아내는 사람을 포상(褒賞)하는 법만을 신칙해 밝히라고 예조에 명을 내림.
1446년(세종 28) 11월 10일	부평현(富平縣)을 승격시켜 다시 도호부로 삼음.

6 조선 후기 부평 지역의 인구 양상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전국 각 군현별로 인구와 농지 규모를 파악하여 지리지 및 읍지에 기록하는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이 절에서는 조선시대 부평 지역의 사회적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인구(호수와 구수) 규모 및 그 특징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살펴보려 한다.

먼저 조선 전기 부평 지역의 인구수는 15세기 전반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수록된 내용이 유일하다. 호수는 429호이며, 인구수는 954명으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1호당 평균 인구수는 2.2명에 불과하다. 한 집당 2명이 조금 넘는 가족이 거주하였다는 셈인데, 이 수치가 상식적인 이해가 어렵다. 이렇게 인구수가 적게 나타난 까닭은 여성 인구수를 제외한 남성 인구수만 파악하여 기록한 때문이었다. 그러다보니 수치상으로 아버지와 아들 각 1명씩만 거주하는 모양을 취했던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인구수가 실제 수치와 큰 차이가 있었음은 자료 내에서도 고백하고 있다.

> (경기도 전체) 호수가 2만 882호, 인구가 5만 352명이다. 조선은 인구의 법이 명확치 않아 호적(戶籍)에 적힌 것이 겨우 10의 1, 2가 되므로 나라에서 매양 바로잡으려 하나, 너무 인심을 잃게 되어 그럭저럭 이제까지 이르렀다. 각도, 각 고을의 인구수가 이렇게 되었고, 다른 도들도 모두 그렇다.

인구 조사의 법이 명확치 않아 호적에 적힌 인구가 10분의 1, 2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록 그 누락율이 과장되었기는 하나 15세기 전반기 당시 상당수의 인구가 호적 조사에서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1) 18세기 중엽

호적 조사의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임진·병자의 양란을 겪고 약 반세기가 지난 17세기 중엽이었다. 조선 후기 각 고을별 인구 규모를 알려주는 첫 자료는 『여지도서(輿地圖書)』이다.

표 4 18세기 중엽 부평 지역의 면별 호구 규모

(단위 : 호·명)

面	위치	坊(洞里)數	戶數	口數		
				남	여	계
부내면(府內面)	-	2	214	380 〈51.8〉	353 〈48.2〉	733
동면(東面)	동쪽 5리	8	163	265	296	561
당산면(堂山面)	동쪽 10리	5	136	197	209	406
주화곶면(注火串面)	동쪽 15리	5	173	310	323	633
상오정면(上梧亭面)	동남쪽 20리	7	126	273 〈53.8〉	234 〈46.2〉	507
하오정면(下梧亭面)	동남쪽 20리	7	184	303	350	653
수탄면(水呑面)	동쪽 30리	12	185	316	370	686
옥모면(玉毛面)	동남쪽 30리	7	164	297	319	616
석천면(石川面)	남쪽 15리	6	196	370 〈51.5〉	349 〈48.5〉	719
동소정면(同所井面)	남쪽 20리	5	162	290 〈45.6〉	346 〈54.4〉	636
서면(西面)	남쪽 5리	7	155	280 〈49.9〉	281 〈50.1〉	561
마장면(馬場面)	남쪽 10리	3	96 (3.3)	146	166	312 (3.0)
석곶면(石串面)	서남쪽 20리	8	326	565	646	1,211
모월곶면(毛月串面)	서쪽 20리	8	357 (12.2)	571 〈45.5〉	683 〈54.5〉	1,254 (11.9)
황어면(黃魚面)	북쪽 15리	7	288	463 〈42.7〉	622 〈57.3〉	1,085
합계	총 15개 面 / 97개 坊		2,925 (100) [2,923]	5,026 〈47.5〉 [4,928]	5,547 〈52.5〉 [5,970]	10,573 (100)

비고 : ① 면의 위치는 부내면의 관아를 기준으로 한 것임.
② [ ] 안의 수치는 원 자료에 기재된 합계임.
③ (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④ 〈 〉 안의 수치는 남녀별 비율임.

이 자료는 18세기 중엽 영조 때에 왕명에 의해 편찬된 전국 규모의 지리지이다. 이 자료에 수록된 부평도호부의 호수는 2,923호이며, 인구수는 남성이 4,928명, 여성이 5,970명이다. 이 호구수는 '기묘'년, 즉 1759년(영조 35)에 작성된 호적대장의 수치라고 하였다.

그런데 15개 면의 호구수 합계는 2,925호와 남성 5,026명, 여성 5,547명으로 자료에 기

재된 통계치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호수에서는 그 차이가 2호밖에 되지 않으나 인구수에서는 남성의 경우 98명이 적게 기재된 반면 여성은 무려 423명이 더 많게 기재되었던 것이다. 여하튼 정정된 통계치를 적용하면 18세기 중엽 부평의 1호당 평균 인구수는 3.6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47.5% 대 52.5%로 나타나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약 5%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면별 양상을 보면, 인구(주민)가 가장 많은 곳은 모월곶면으로 전체 부평 지역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였고, 가장 적은 곳은 마장면으로 약 3%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다음 성비 양상을 보면 부평 지역 전체로는 여성이 더 많았으나, 읍치 지역인 부내면과 상오정면, 석천면 등 3개 면에서는 남성이 더 많은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2) 18세기 말

부평 지역의 호구수를 상세히 알려주는 자료가 1789년(정조 13)의 호적 조사 결과를 수록한 『호구총수(戶口總數)』이다. 앞에서 살핀 『여지도서』와 마찬가지로 총 15개 면이 수록되었는데, 『여지도서』에는 수록되지 않은 동리(총 76개 里와 3개 島) 명칭이 기록되어 있어 조선 후기 부평 지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표 5 18세기 말 부평 지역의 면·리와 호구 규모

(단위 : 호·명)

面	洞里 및 島	戶數	口數		
			남	여	계
읍내면 (邑內面)	상리(上里) 〈1개 리〉	242	409	356	765
동면 (東面)	이막동(里幕洞), 용종리(龍宗里), 방축리(坊築里), 광정리(廣井里) 〈4개 리〉	174	321	311	632
당산면 (堂山面)	야리(野里), 굴현리(掘峴里), 양지리(陽之里), 동리(東里) 〈4개 리〉	150	276	273	549
주화곶면 (注火串面)	장산리(章山里), 오곡리(五谷里), 오금리(五金里), 대장리(大壯里) 〈4개 리〉	165	319 〈55.1〉	260 〈44.9〉	579
상오정면 (上梧亭面)	약대리(若大里), 삼정리(三井里), 내촌리(內村里), 두지촌(斗之村), 도당리(都堂里), 외우리(臥牛里), 마오정리(馬梧亭里) 〈7개 리〉	186	341	311	652
하오정면 (下梧亭面)	화력리(禾力里), 고리동리(古里洞里), 언담리(偃談里), 성곡리(成谷里), 여월리(余月里), 작동리(鵲洞里) 〈6개 리〉	201	377	324	701
수탄면 (水呑面)	온수동리(溫水洞里), 궁리(宮里), 오류동리(梧柳洞里), 천왕리(天旺里), 가사리(加沙里), 백사리(栢寺里), 고척리(高尺里), 개봉리(開峯里) 〈8개 리〉	192	346 〈54.9〉	284 〈45.1〉	630
옥산면 (玉山面)	소사리(素沙里), 당하리(堂下里), 조종리(曹宗里), 범박동리(凡朴洞里), 과안리(果安里), 벌응절리(伐應節里) 〈6개 리〉	200	411	363	774
석천면 (石川面)	상리(上里), 중리(中里), 구지리(仇之里), 검대리(檢垈里), 목자리(木子里), 심곡리(深谷里) 〈6개 리〉	233	452 〈56.9〉	343 〈43.1〉	795
동소정면 (東所井面)	귀산리(龜山里), 항동리(項洞里), 마분리(馬墳里), 대정리(大井里) 〈4개 리〉	191	379	323	702
서면 (西面)	가현리(佳峴里), 화전리(化田里), 갈월리(葛月里), 후정리(後井里) 〈4개 리〉	181	336 〈55.4〉	271 〈44.6〉	607
마장면 (馬場面)	효성리(曉星里), 청천리(淸川里) 〈2개 리〉	83 (2.6)	133	117	250 (2.2)
석곶면 (石串面)	봉현리(蜂峴里), 가정리(佳亭里), 신현리(新峴里), 포촌리(浦村里), 번작리(番作里), 가좌동(加佐洞), 율도(栗島) 〈6개 리, 1개 島〉	305	554 〈54.6〉	461 〈45.4〉	1,015
모월곶면 (毛月串面)	공촌리(公村里), 연희리(延希里), 고잔리(古殘里), 검암리(黔巖里), 시천리(始川里), 백석리(白石里), 청라도(靑蘿島), 난지도(蘭芝島) 〈6개 리, 2개 島〉	354 (11.2)	640	556	1,196
황어면 (黃魚面)	독실리(纛實里), 목상리(木霜里), 갈산리(葛山里), 역동리(驛洞里), 오류동리(五柳洞里), 이화리(梨花里), 선지곶(先地串), 노오지리(老吾之里) 〈8개 리〉	312	815 〈46.8〉	927 〈53.2〉	1,742 (15.0)
합계	총 15개 面 / 76개 里, 3개 島	3,169 (100)	6,109 〈52.7〉	5,480 〈47.3〉	11,589 (100)

비고 : ① (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② 〈 〉 안의 수치는 남녀별 비율임.

이 자료는 1789년(정조 13)에 호구 조사한 결과를 책자로 작성한 것인데, 부평 지역 전체의 호수는 3,169호이며, 인구수는 1만 1,589명으로 1호당 평균 인구수는 3.7명이다. 그리고 전체 인구 중 남성이 6,109명, 여성이 5,480명으로 나타나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52.7% 대 47.3%로 나타나 남성 인구가 여성보다 약 5%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년 전 『여지도서』에서 확인된 것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 것이다.

한편 면별 양상을 보면, 인구(주민)가 가장 많은 곳은 모월곶면과 황어면으로 전체 부평 지역 인구의 약 11%(모월곶면 호수 기준)~15%(황어면 인구수 기준)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역시 마장면으로 그 차지하는 비율이 약 2% 정도였다.

다음 성비 양상을 보면 14개 면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나, 황어면은 여성(53%)이 남성(47%)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탄면에 속한 마을 명칭을 보면 '온수동리(溫水洞里)'가 발견된다. 이 지역이 바로 세종 때 발생한 부평 '온천 사건'과 관련된 지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3) 19세기 후반

1871년경에 편찬된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에 수록된 부평 지역 전체의 호수는 2,757호이며, 인구수는 7,996명으로 나타난다. 80년 전인 1789년과 비교하면 그 수치가 적잖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1호당 평균 인구수도 2.9명이라는 비정상적인 수치를 보였다.

표 6 19세기 후반 부평 지역의 면별 호구 규모

(단위 : 면·방·호·명)

面	위치	坊(洞里)數	戶數	口數		
				남	여	계
부내면(府內面)	-	2	250	385	330	715
동면(東面)	동쪽 5리	5	111	190	163	353
당산면(堂山面)	동쪽 15리	4	113	171 〈48.9〉	179 〈51.1〉	350
주화곶면(注火串面)	동쪽 15리	5	110	159	120	279
상오정면(上吾丁面)	동쪽 20리	5	163	290	205	495
하오정면(下吾丁面)	동쪽 20리	7	232	452 〈60.3〉	298 〈39.7〉	750
수탄면(水呑面)	동쪽 30리	6	159	274	192	466
옥산면(玉山面)	남쪽 30리	7	223	317 〈59.1〉	219 〈40.9〉	536
석천면(石川面)	남쪽 15리	5	179	267	220	487
동소정면(同所井面)	남쪽 20리	4	145	249 〈61.0〉	159 〈39.0〉	408
서면(西面)	남쪽 5리	6	169	250	211	461
마장면(馬場面)	서쪽 10리	2	94 (3.4)	163 〈59.1〉	113 〈40.9〉	276 (3.5)
석곶면(石串面)	서쪽 20리	8	218	387	298	685
모월곶면(毛月串面)	서쪽 20리	10	335 (12.2)	572 〈59.3〉	392 〈40.7〉	964 (12.1)
황어면(黃魚面)	북쪽 15리	9	256	452	319	771
합계	총 15개 面 / 85개 坊		2,757 (100)	4,577 〈57.2〉 [4,578]	3,419 〈42.8〉 [3,418]	7,996 (100)

비고 : ① 면의 위치는 부내면의 관아를 기준으로 한 것임.
② [ ] 안의 수치는 원 자료에 기재된 합계임.
③ (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④ 〈 〉 안의 수치는 남녀별 비율임.

남녀별 비율은 남성이 약 57%(4,577명), 여성이 약 43%(3,419)로 나타나 성비의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호적에서 더 심하게 누락하였던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면별 양상을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역시 모월곶면으로 전체 부평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마장면과 동면·당산면·주화곶면 등이었으며, 전체 부평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4%에 불과하였다.

다음 성비 양상을 보면 14개 면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나, 당산면에서만 여성(51%)이 남성(49%)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20세기 초

20세기 초 부평 지역의 인구 규모를 알려주는 자료는 『한국호구표(韓國戶口表)』이다. 이 자료는 1907년 5월에 일제의 통감부에서 경찰력을 동원하여 전국의 호구를 조사한 내용을 편찬한 일종의 보고서이다. 특히 이 자료에 기재된 호구 내용은 이전 시기에 작성된 호구 기록보다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7 20세기 초 부평 지역의 면별 호구 규모

(단위 : 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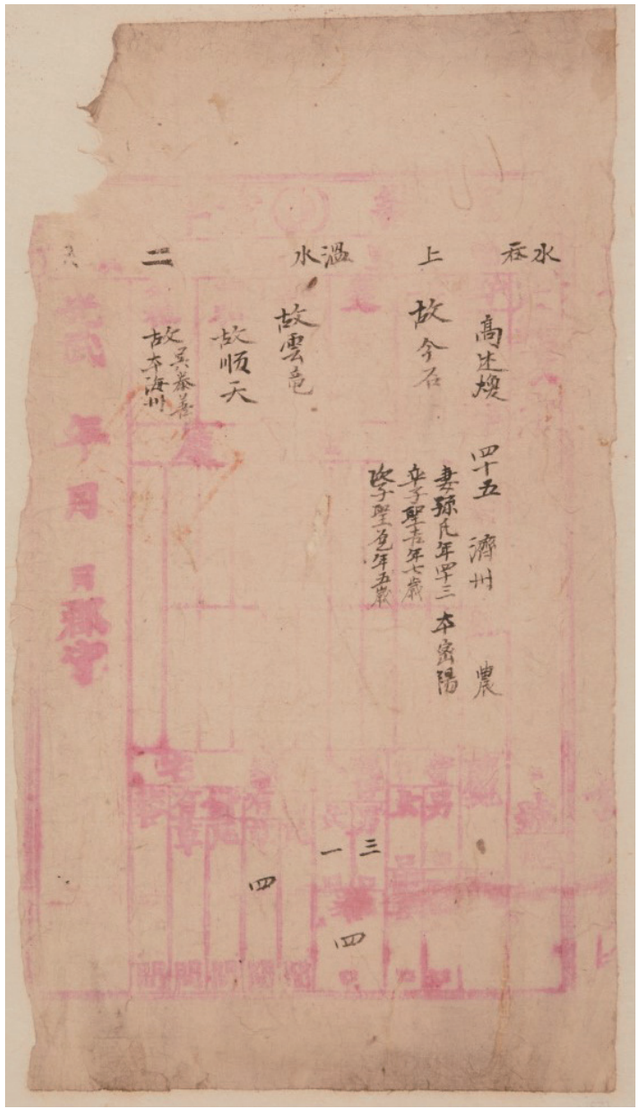
面	戶數	口數		
		남	여	계
군내면(郡內面)	246	420	347	767
동면(東面)	154	295	238	533

面	戶數	口數		
		남	여	계
당산면(堂山面)	144	246	191	437
주화곶면(注火串面)	133	309 〈57.0〉	233 〈43.0〉	542
상오정면(上吾丁面)	190	319	287	606
하오정면(下吾丁面)	256	564	436	1,000
수탄면(水呑面)	231	491 〈49.1〉	509 〈50.9〉	1,000
옥산면(玉山面)	261	616	508	1,124
석천면(石川面)	231	526	403	929
동소정면(同所井面)	208	508	421	929
서면(西面)	213	477 〈57.3〉	356 〈42.7〉	833
마장면(馬場面)	124 (3.8)	243	186	429 (3.4)
석곶면(石串面)	260	582	496	1,078
모월곶면(毛月串面)	387 (11.8)	747	580	1,327 (10.6)
황어면(黃魚面)	241	515	414	929
합계	3,279 (100)	6,858 〈55.0〉	5,605 〈45.0〉	12,463 (100)

비고 : ① (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② 〈 〉 안의 수치는 남녀별 비율임.

전체 부평 지역의 호수는 3,279호이며, 인구수는 1만 2,463명이었다. 1호당 평균 인구수는 그 이전 시기에 조사된 것보다 높은 3.8명이었다. 남성 인구수는 6,858명(55%), 여성 인구수는 5,605명(45%)을 보여 역시 남성 인구가 10%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별 양상을 살펴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여전히 모월곶면(전체 부평 인구의 약 11%)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도 여전히 마장면과 당산면이었다(부평 전체의 약 3%). 한편, 유독 수탄면에서만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약 1%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평 수탄면 온수동 거주 고술환(高述煥) 호적표(1907년) (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다음, 1910년에 5월에 조사한 내용을 편찬한 『민적통계표(民籍統計表)』 자료를 통해 20세기 초 부평 지역 주민들의 인구 규모와 함께 직업 분포 양상도 살필 수 있다.

먼저, 인구 규모는 3,726호에 17,777명을 보여 3년 전(『한국호구표』)에 조사한 내용보다

호수와 인구수 모두 적잖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호당 평균 인구수도 3년 전 수치보다 약 1명이 더 많은 4.8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성비는 남성이 52%, 여성이 48%로 나타나 3년 전에 비해 여성 인구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한편 면별 양상을 보면, 모월곶면이 가장 인구가 많았으며(전체 부평 인구수의 약 13%), 마장면과 동면·당산면·주화곶면 등이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었다(전체의 약 4%). 그리고 성비에서는 서면 한 곳만이 여성(55%)이 남성(45%)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직업 분포를 보면 농업 종사자가 9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밖에 상업 종사자가 3.5%, 관공리가 0.7%를 보였다.

면별 분포에서는 상오정면·하오정면·수탄면·옥산면·동소정면·서면·마장면 등이 상대적으로 농업 종사자가 많은 곳이었으며, 농업이 우세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상업 종사자가 많은 곳은 군내면과 동면·모월곶면·황어면 등이었다.

특히 모월곶면은 직종에서 분류하지 못한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비율이 무려 21%로 높게 나타나는 특이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7 조선시대 부평 출신 과거 합격자들

1) 부평 출신 과거 합격자의 규모

조선왕조는 문과 시험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과(小科, 일명 '사마시')와 대과(大科, 일명 '문과')의 이원체제를 운영하였는데 소과는 생원과 진사 각 100명씩을 선발하는 시험이었다. 물론 소과는 관리 선발을 목적으로 한 시험이 아니었고, 이에 합격해야만 중앙의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成均館)의 상재생(上齋生)으로 입학하거나, 대과(33명 선발)에 응시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예비시험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사마방목』과 『문과방목』에서 확인되는 부평 출신 과거 합격자는 소과(사마시)가 68명, 대과(문과)가 18명이다. 소과의 종류별로는 생원(生員)이 26명(38.2%), 진사(進士)가 42명(61.8%)이었다.

사마시 합격자

사마시 합격자의 등위(等位)별 합격자의 분포를 보면, 전체 68명 중 1등이 2명(2.9%), 2등이 19명(27.9%), 3등이 47명(69.1%) 등이었다. 대체로 사마시가 1등 5%(5명)·2등 25%(25명)·3등 70%(70명)의 비율로 선발하는 게 규정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부평 출신 합격자들은 1등 비율은 조금 저조했던 반면, 2등은 다소 높았고, 3등은 규정과 거의 일치했음을 알 수 있다.

표 8 부평 출신(거주) 사마시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생원				진사				전체			
1등	2등	3등	계(A)	1등	2등	3등	계(B)	1등	2등	3등	계(C)
-	8 〈30.8〉	18 〈69.2〉	26 〈100〉 (38.2)	2 〈4.8〉	11 〈26.2〉	29 〈69.0〉	42 〈100〉 (61.8)	2 (2.9)	19 (27.9)	47 (69.1)	68 (100)

비고 : ( ) 안의 수치는 '계(C)'에 대한 백분비이며, 〈 〉 안의 수치는 '계(A, B)'에 대한 백분비임.

시험 종류별로는 진사시에서만 1등에 2명이 합격하였는데, 이들은 1795년(정조 19)에 합격한 양성묵(梁性默, 본관 남원)과 1798년(정조 22)에 합격한 류지익(柳之翊, 본관 진주)이다.

문과 급제자

문과(대과) 급제자의 등급별 분포를 보면, 전체 18명 중 갑과 급제가 1명(5.6%), 을과 급제자 5명(27.8%), 그리고 병과 급제가 12명(66.7%) 등이었다. 갑과에 급제한 인물은 생원 신분으로 1469년(예종 1)에 급제한 이종호(李宗顥, 본관 부평)였다.

표 9 부평 출신(거주자) 문과(대과) 급제자 현황

(단위 : 명)

갑과	을과	병과	전체
1 (5.6)	5 (27.8)	12 (66.7)	18 (100)

비고 : ( ) 안의 수치는 '전체'에 대한 백분비임.

2) 과거 합격자의 연령

사마시 합격자

부평 출신 사마시 합격자의 연령을 보면, 최저 16세에서 최고 65세까지 나타났는데, 이를 5세 간격으로 파악해 보면 30대 전반(30~34세)이 17명(25.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20대 후반(25~29세)이 13명(19.1%), 30대 후반(35~39세)이 9명(13.2%), 40대 전반(40~44세)이 8명(11.8%), 50대 전반(50~54세)이 5명(7.4%) 등의 분포를 보였다. 한편 이를 10세 간격으로 살펴보면 30대가 26명(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20대가 15명(22%), 40대가 11명(16%), 50대가 8명(12%), 10대와 60대 각 1명(1.5%)씩이었다. 따라서 20~30대 연령의 합격자 비율이 무려 60%(41명)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생원과 진사별로 합격자의 연령 분포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생원의 경우 20대 후반과 30대 전반, 40대 전반 연령이 모두 5명(19.2%)씩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후반이 4명(15.4%)으로 그 다음 분포를 보였다. 이에 반하여 진사의 경우는 30대 전반이 12명(28.6%)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후반이 8명(19.0%), 30대 후반이 5명(11.9%), 50대 전반이 4명(9.5%) 등을 보였던 것이다. 즉, 생원에 비하여 진사 합격자의 연령 분포가 다소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문과 급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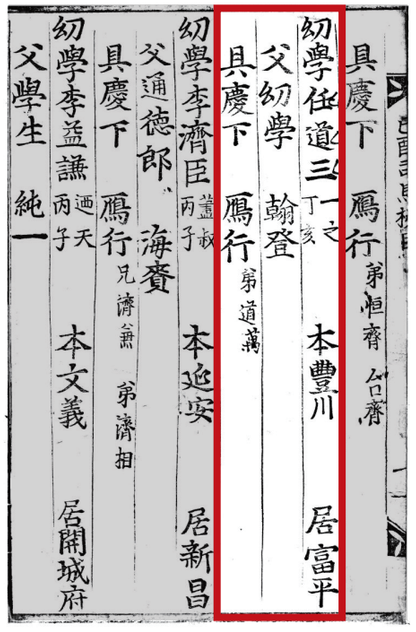
부평 출신 문과 급제자의 연령을 보면, 최저 24세에서 최고 54세까지 나타났는데, 이를 5세 간격으로 파악해 보면 20대 후반이 4명(22.2%)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후반이 3명(16.7%), 그리고 20대 전반·30대 전반·50대 전반이 각 2명(11.1%)씩이었다. 한편 이를 10세 간격으로 살펴보면 20대가 6명(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가 4명(22%), 30대가 3명(17%), 50대가 2명(11%) 등의 분포를 보였다.

3) 과거 합격자의 전력(前歷)

사마시 합격자

부평 출신 사마시 합격자의 합격 직전의 경력을 보면, 조선시대 벼슬하지 않은 양반유생에 대한 일반적 식별인 '유학(幼學)'이 90%로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학 이외의 전력으로는 훈도(訓導)·내금위(內禁衛)·허통(許通)이 각 1명씩이었다.

소수 전력 가운데 훈도(정9품 및 종9품)는 실직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한 문반 계열의 품계는 지니고 있었던 자로 보이며, 허통은 양반의 서자로 문과 응시에 허락된 자를 말한다. 그리고 내금위는 조선시대 궁궐을 지키고 국왕을 호위하는 일을 맡았던 관청을 말하는데, 사마시 합격자의 전력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내금위에 소속된 정병(精兵)이었지 않나 여겨진다. 내금위 정병은 양반의 자손 가운데서 선발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시대 사마시에 합격한 전체 생원·진사의 전력에서 내금위는 단 2명뿐이었는데, 그 가운데 1명이 바로 부평 거주 합격자였던 것이다.



❖ 『기유식년(1669년) 사마방목』 중 '임도삼'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문과 급제자

부평 출신 문과 급제자의 전력을 보면, 사마시에 합격하여 문과 응시 자격을 획득한 생원과 진사가 9명(50%: 생원 5명 28%, 진사 4명 2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유학이 8명(44%)이었다. 이밖에 을과에 급제한 자 가운데 전(前) 참봉(參奉)이 한 명이 확인되었다.

한편, 급제 등급에서는 을과와 병과 간에 커다란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유학 전력자의 경우 을과(40%)에 비해 병과(50%)에서 그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4) 과거 합격자의 성씨

그러면 인천 지역에서 합격한 생원·진사는 과연 어떤 가문의 인물들이었으며, 또 어떤 가문에서 많이 합격했는가를 성씨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자.

사마시 합격자

부평 출신 사마시 합격자 가운데 양시(兩試, 생원과 진사 두 시험)에 합격한 3명의 경우를 계상한 전체 65명의 성씨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全州 李(12명. 18.5%), 晉州 柳(10명. 15.4%), 海州 鄭(6명. 9.2%), 宜寧 南(5명. 7.7%), 淸州 韓(4명. 6.2%), 原州 元(3명. 4.6%), 驪興 閔·密陽 朴·密陽 卞(이상, 각 2명. 3.1%), 晉州 姜·仁川 貢·綾城 具·慶州 朴·昌寧 成·平山 申·南原 梁·海州 吳·坡平 尹·慶州 李·廣州 李·全義 李·미상 李·平澤 林·豊川 任·東萊 鄭·稷山 趙·미상 蔡·慶州 崔(이상, 각 1명. 1.5%)

전주 이씨가 12명(18.5%)으로 가장 많았고, 진주 류씨가 10명(15.4%), 해주 정씨가 6명(9.2%), 의령 남씨가 5명(7.7%), 청주 한씨가 4명(6.2%), 원주 원씨가 3명(4.6%), 여흥 민씨와 밀양 박씨·밀양 변씨가 각 2명(3.1%), 이밖에 진주 강씨 외 18개 성씨가 각 1명(1.5%)씩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한 5대 성씨를 들면, 전주 이·진주 류씨·해주 정·의령 남·청주 한씨 등으로 나타났다.

문과 급제자

다음 문과 급제자 18명의 성씨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晉州 柳(4명. 22.2%), 安東 權(3명. 16.7%), 全州 李·豊川 任(각 2명. 11.1%), 驪興 閔·高靈 朴·密陽 朴·大邱 徐·慶州 李·富平 李·海州 鄭(이상, 각 1명. 5.6%)

진주 류씨가 4명(22.2%)로 가장 많았고, 안동 권씨가 3명(16.7%), 전주 이씨와 풍천 임씨가 각 2명(11.1%), 그리고 여흥 민씨 외 7개 성씨가 각 1명(5.6%)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주 류씨의 경우 사마시 합격자의 양상과 유사하게 문과 급제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마시에서는 단 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한 안동 권씨가 문과 급제에서는 그 비율이 17%나 높게 나타난 점은 특징이라 하겠다.

8 일제의 인천 개항 강요와 부평의 방어 시설 설치

1) 연희진과 포대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서해 연안 지역을 개항장으로 개설하기 위한 일본과의 교섭이 전개되었다. 조선정부는 장차 일본이 인천 제물포를 개항장으로 제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따라 이에 대한 방비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인천과 이웃한 부평을 강화도에 못지않은 해문 요충지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부평 연안에 대한 방비책은 1878년(고종 15) 8월(음력)에 이르러 진을 창설하여 포대를 설치하자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고, 이듬해 7월 1일(음력) 인천 화도진(花島鎭)과 부평 연희진(連喜鎭)의 창설로 완성되었다. 아울러 화도진 소속으로 제물포 포대·북성곶 포대·묘도(괭이부리) 포대, 논현(호구포) 포대 등을 두었고, 연희진에는 연희(용두) 포대·가정포대·원창 포대·가좌 포대 등을 두어 관할하게 하였다.

❖ 연희진 터 기념비

부평 지역에서의 연희진 설치는 두 차례의 양요(1876년 병인, 1871년 신미)와 운요호 사건(1875년) 이후 인천·부평의 연안 방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비롯되었다. 특히 '조일수호조약'(일명 '강화도조약'. 1876년)에 따라 조선의 개항이 결정된 후, 일제가 인천 제물포를 개항 후보지로 거론하자 인천과 부평 연안에 대한 방비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에, 1878년(고종 15) 8월 27일 조정에서는 인천·부평의 연안 방비 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결과 인천·부평의 연안에 포대를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듬해 7월 1일 인천과 부평지역의 역사(役事)가 마무리되자 고종 임금은 신설된 진의 명칭은 각각 '화도진(花島鎭)'과 '연희진(延喜鎭)'이라 하였다.

하지만 일제의 강압에 의해 1880년(고종 17)에 인천의 개항을 허용하기로 결정되자 연안 방비의 목적을 위해 설치했던 두 군진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1882년(고종 19) 6월 28일(음력) 화도진은 훈련도감으로 이속되고 연희진은 혁파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연희진이 폐지될 당시에 소속 포대도 함께 혁파되었는지는 기록을 찾을 수 없으나,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을 부평에 설치하기 전인 1883년(고종 20) 12월에 기연해방영 소속 포군(砲軍)의 훈련에 대한 내용을 사목(事目)으로 작성할 것을 지시한 기록이 확인되고 있어, 연희진 혁파 이후에도 그 소속 포대들은 부평부 또는 기연해방영에서 관할하며 일정기간 존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희진은 존속 기간이 3년으로 짧았기에 소속 포대에 관한 기록도 미비하다. 현재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희 포대' 3곳과 '가정 포대' 1곳, '원창 포대'가 2곳, '가좌 포대' 1곳 등, 총 7개 정도의 포대가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희진의 주요 역할은 외국 선박이 부평 해안으로 상륙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었기에 포대는 해안 및 갯골, 수로 등에 입지하였다. 이러한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포대 설치가 유력한 지역을 추정했을 뿐, 현재로서는 포대와 관련한 유구(遺構)가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확정할 수는 없다.

표 10 연희진 소속 포대 현황

명칭	소재지	특징
연희 1포대	서구 경서동 343번지 일대	• 공촌천 수로 방어 • 포좌 방향: 남동쪽
연희 2포대	서구 연희동 산 124번지 일대	• 공촌천 수로 방어 • 포좌 방향: 서북쪽 • 연희 1포대와 교차 사격 가능
연희 3포대 (용두 포대)	서구 연희동 423번지 일대	• 양끝 돌출부 사이로 만을 형성하는 지점에 설치 추정 • 공촌천 수로 방어 • 포좌 방향: 서북쪽
가정 포대	서구 가정동 69-1번지 봉우재 일대	• 그동안 연희(용두)포대로 잘못 알려짐 • 심곡천 수로 방어 • 포좌 방향: 서남쪽
원창 1포대	서구 원창동 산 1~4번지 일대	• '환자곶뒷산'이라 불리는 곳에 포대 설치 추정 • 심곡천 수로 방어 • 포좌 방향: 서북쪽
원창 2포대	서구 석남1동 산 125-1번지 일대	• 주변 공업단지 조성으로 원지형 상실 • 포좌 방향: 서쪽 추정
가좌 포대	서구 가좌동 329번지 일대	• 간석오거리로 이어지는 수로를 방어(현재는 육지화) • 포좌 방향: 남서쪽 추정

한편, 연희진이 혁파된 이후에도 조선 정부는 외세가 부평을 통해 도성으로 진입하는 것을 대비해야만 하였다. 따라서 연희진 혁파 1년 후인 1883년(고종 20)에 연희진에서 부평도호부로 가는 길목인 경명현에 중심성(衆心城)을 축조하였다.

2) 중심성(衆心城)

중심성(터)의 현황

계양산 정상에서 경명현[景明峴. 징맹이고개]을 지나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은 1883년에 쌓은 중심성의 옛 터이다. 중심성은 경명현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성을 쌓아 해안에서 도성으로 향하는 중요 관문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성곽이었다. 행정구역상으로 계양구와 서구의 경계를 이루는 경명현 생태통로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계양산 정상, 남으로는 중구봉에 이르는 능선의 등산로와 그 주변에 해당된다.

과거의 학술조사에서 현재의 경명현 생태통로 자리에 성문의 초석과 사적비가 있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무너진 성돌이 산재해 있음이 보고되었으나, 오랜 기간 자연적·인위적 훼손이 계속되어 현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중심성의 축성 배경

부평 지역은 외적이 해안에 상륙하면 하루 만에 도성에 접근할 수 있어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으나, 오랫동안 왕실의 피난처인 강화도를 외곽에서 방어하는 역할에 치중되어 있었다. 부평이 도성 방어의 전초기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고 일본과 인천 등의 개항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1876년(고종 13) 이후 부터였다.

어영대장 신정희는 "인천·부평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진을 신설하라"는 어명에 따라 1878년(고종 15)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7월 1일 제물포의 화도진(花島鎭)과 더불어 부평 해안에 연희진(延喜鎭)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때 연희진을 설치한 것은 일본 등 열강의 군사 도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비가 부실했던 부평 해안에서 도성으로 향하는 육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개항으로 인해 해안 방어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임오군란 후 군제가 개편됨에 따라 연희진은 1882년 폐지되고 말았다. 그 후 제물포 개항에 따라 1883년(고종 20) 10월 경명현에 중심성(衆心城)을 축조해 유사시 부평에서 도성으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게 하고, 이듬해 1월에는 부평에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을 설치해 경기 연안에 대한 군사적 방비를 강화해 나갔다.

중심성의 축성 경위와 사적비

중심성의 축성 과정은 <중심성 사적비(衆心城事蹟碑)>의 비문을 통해 살필 수 있다. 중심성 사적비는 우리나라 성곽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화강석 귀부(龜趺) 위에 오석(烏石)으로 된 비신(碑身)을 갖춘 높이 151㎝, 폭 46㎝, 두께 25㎝의 규모였다고 전한다. 본래 중심성의 공해루(控海樓) 서쪽에 세워져 있었는데, 1949년에 만국공원(현 자유공원) 내 인천시립박물관으로 비신을 이전하였다. 그러나 6·25전쟁 중 인천상륙작전의 포화 속에 비신이 소실되어 지금은 당시 인천시립박물관의 이경성 관장이 조사한 비문의 내용만이 글로써 전해지고 있다.

'중심성사적비'의 비문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축성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중심성 사적비 귀부(인천광역시 서구청 화단 내 소재, 현재 계양산성박물관 이관)

첫째, 성은 고종 20년(1883) 9월 29일 조칙에 따라 축성공사가 시작되었다.

둘째, 상동(上洞)과 하동(下洞)의 부호가 60금을 공사비로 출연하고, 마을 주민들이 동원되는 등 부평부의 주민이 공사에 적극 참여하였다.

셋째, 성은 한 달 만에 완공되었다.

넷째, 성의 서쪽으로 장대를 조성하여 병사를 조련하였고, 해안의 포대에 병사를 재배치

하여 연안 방비를 강화하였다.

다섯째, 성의 이름은 부민의 뜻을 모아 축조했다 하여 '중심성(衆心城)'이라 이름 붙였으며, 공사가 완료된 후 부사 박희방이 사적비를 세웠다.

중심성의 철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계양산 일대 조사(1916년)와 총독부 산림국의 『조선성지실측도』(1911~1924년)에 중심성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중심성은 일제의 「읍성폐지령」에 따라 1914년경에는 이미 철거되어 성곽으로서의 면모를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축성에 대한 전문성이 낮은 주민이 짧은 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한 탓에 성곽이 견고하지 않아 성의 붕괴와 훼손이 급속히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이후에도 문루 등 중심성의 핵심 시설이 잔존하던 경명현 정상부는 1980~1990년대에 걸쳐 진행된 도로 개설과 확장 과정에서 높이가 30m 낮아지고, 성곽의 중심부는 도로 공사 과정에서 모두 사라졌다. 현장에 남아 있던 사적비의 귀부도 이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 옮겨져 현재는 중심성이 있던 과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9 20세기 초 부평 지역에 설립된 사립학교들

1) 부평의 근대 최초 사립학교 '보명(普明)'

1900년 부평 지역에서 근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황성신문』 1900년 11월 1일자 기사 내용을 보면, 「富平設校」(부평에 학교 설립)이라는 제목에 다음과 같은 짧은 기사가 게재되었던 것이다.

> 富平郡 玉山面居李彰珪氏가 該洞에 待立私立學校를 設始ᄒᆞ고 農家俊乂를 募集敎育ᄒᆞᆫ다고 學部에 請願ᄒᆞ얏더라.

부평군 옥산면에 거주하는 이창규(李彰珪)가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농가 뛰어난 인재들을 모집하여 교육하겠다는 뜻을 학부에 청원했다는 기사이다. 그런데 실제 학교 설립은 당장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자료에 부평 지역에서의 사립학교 설립 사실에 관한 기사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부평 지역 사립학교 설립에 관한 최초의 기사는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7년 9월 29일자에 「普明有望」(보명에 희망이 있음)이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기사 내용이다.

> 富平郡 毛月串面 黔巖里 私立普明學校ᄂᆞᆫ 有志人士 諸氏가 今年 正月 分에 設立ᄒᆞ엿ᄂᆞᆫ대 校長 鄭洪錫 監督 沈相德 敎師 鄭泰憲 諸氏가 熱心敎育ᄒᆞᆷ으로 學徒가 日益漸進에 必有前進之望이라고 該郡人에 贊頌ᄒᆞᆫ다더라.

1907년 1월에 부평군 모월곶면 검암리, 즉 현 서구 검암동에서 지역 유지들이 힘을 모아 사립 '보명학교'를 설립하였으며, 교장에는 정홍석이 선임되었고, 감독에는 심상덕, 교사로는 정태헌이 직무를 맡았다는 기사이다. 그리하여 이들에 의해 교육 사업이 번창하여 학생 수가 날로 늘어가 반드시 문명의 진보가 있게 될 것이라는 보도이다.

2) 부평의 또 다른 사립학교들

개화기 부평군에는 앞에서 살핀 보명학교 외에 또 다른 사립학교들이 있었다. 역시 근대 신문 자료에서 그 내용들이 확인된다.

사립 '계양(桂陽)'학교

『황성신문(皇城新聞)』 1908년 2월 20일자 신문에 사립 계양(桂陽)학교의 설립 취지서가 실려 있다.

❝ 부평군의 뜻 있는 신사(紳士) 이규룡(李圭龍), 박희병(朴熙秉), 조용배(趙龍培), 박빈병(朴斌秉), 공면주(孔冕周), 박제병(朴濟秉), 정행원(鄭行元) 등과 각 면장 모두가 사립학교를 창설하였다. 각 인, 각 처에서 기부 청구한 금액이 약 50원 이상에 달하였다고 하는데, 그 취지서는 다음과 같다더라.

"슬그머니 생각하니 … 무릇 학교는 인민 개진의 창호요, 국가 수용의 기관이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것과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이 모두 이에서 나온 것을 따르니, 학교의 효력이 진실로 중대하다. 생각하건데 우리 대한이 개국 517년이고, 통상(通商)이 30여 년인데, 인문이 오히려 많지만 열리지 않고 형세를 자못 가까우나 풀지 못하여 국가의 흥륭(興隆)을 다만 자연 성립하기를 바라고 중대한 효력의 발생 원인에 이르러서는 마치 갈대 울타리 변사의 일과 같이 인식하여 이에 시들어 일어나지 못하니, 진실로 지극히 원통하다. … 돌아보건대 우리 부평군은 면에 재능 있는 자가 15명이고, 가구 수는 불과 3,000인데, 또한 국민 일부분이다. 솥 또한 귀가 있거늘 하물며 국민이 된 자가 열방에 국가 부강과 인재 발달한 원인이 학교에 있는 줄을 어찌 들리지 않았으며 조칙이 지극한 의미와 성대한 뜻과 가르치는 말씀에 격절함에 대하여 감동하여 깨달음에 정이 없으리오. 우리 동지 인사로 인하여 사립학교 설립에 의를 제기하며 일경이 부합하여 각기 스스로 기부한 뜻에 기본금으로 만들고, 학교 명칭을 '계양(桂陽)'이라 하며, 임원을 조직하고 교사를 초빙하여, 총명하고 준수한 자제를 성심으로 교육하여 장차 크게 씀에 기구를 만들어 줄 것을 깊게 생각하니, 이는 특별히 한 고을의 행복은 아닐 것이고, 또한 국가의 행복이 될 것이요, 사회의 행복이라 하노라." ❞

이 기사를 통해 1908년 초 부평군의 뜻 있는 인사 이규룡(李圭龍), 박희병(朴熙秉), 조용배(趙龍培), 박빈병(朴斌秉), 공면주(孔冕周), 박제병(朴濟秉), 정행원(鄭行元) 등과 각 면의 면장들이 힘을 모아 사립학교를 창설하고 그 이름을 '계양(桂陽)'이라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앞서 살핀 모월곶면 검암동에 설립했다는 보명학교에 이어 부평 지역 내 두 번째로 설립한 사립학교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립 '계창(桂昌)'학교

부평 지역에 '계창(桂昌)'이라는 사립학교가 있었던 사실도 개화기 신문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1908년 4월 28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富平郡私立桂昌學校義捐氏名」(부평군 사립 계창학교에 의연금을 낸 명단)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면, 부평군수 전국환(全國煥)를 비롯하여 군내면(郡內面)과 동면(東面), 서면(西面), 마장면(馬場面), 석곶면(石串面)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연금을 납부하였던 것이다.

납부자 명단을 보면 부평 군수를 비롯하여 대다수 면의 지사들이 계창학교의 설립을 위해 의연금을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명단 중에는 같은 해 계양학교의 설립을 주도한 인물이 발견된다. 바로 이규룡·박희병·조용배·박빈병·박제병 등이다. 이들은 계창학교의 교장과 총무, 감독 등의 중추적 직무를 맡고 있었다.

계창학교는 부평에 설립된 사립학교 중 가장 많은 신문 기사가 게재된 학교이다. 부평군수 전국환이 학교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이후 학교 발전에도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부평군 사립 계창학교는 지역 내 뜻있는 인사가 의연금을 내어 설립한 지 몇 달 만에 학생이 50명에 달하였는데, 다가오는 (1908년) 5월 3일 춘계 운동회를 거행하기로 예정하고 부평 군수 전국환 씨도 공·사립학교에 두루 행차하여 격려한다고 하더라. ❞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30일자 기사인데, 설립한 지 몇 달 만에 학생이 50명에 달하였다는 내용에서 계창학교가 늦어도 1908년 초에는 설립되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아울러 부평 군수 전국환이 학교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부평 지역 각계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계창학교는 날로 번창하게 되었다.

> 1908년 9월 19일, 계창학교가 크게 번창하다,
> 부평군 계창학교가 점차 흥왕(興旺)함은 본보에 누차 게재하였거니와 그 학생들이 성심껏 수업을 받아 장취지망(將就之望)이 있을 뿐만 아니라 초아목동(樵兒牧童)까지도 낮에는 전주(田疇)에 종사하고 밤이면 학교에 와서 학습하는 까닭에 야학을 차리고 국한문과 각 과정을 교육하는데 야학도가 70여 명에 달하였으니 이는 부평 군수 전국환 씨와 임원 모두가 열심히 권면하는 효력이라고 한다.

이에, 1909년 1월에는 '1년 속성과정'의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교육의 성과를 이루었다.

> 부평군 계창학교에서 1년 속성과 졸업시험을 치렀는데 우등(優等)은 박태병(朴泰秉), 급제(及第)는 박용선(朴容璿)·박용원(朴容元) 등이다. 교장과 교감 박희병(朴熙秉) 씨가 우등생을 시상하였다더라.

그러나 계창학교는 사립이라는 특성상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학교를 설립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난 1910년 5월 말의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 '폐교'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 어려움이 컸음을 엿볼 수 있다.

> 부평군 사립계창학교가 폐지할 지경에 이르러서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에서 권유위원(勸喩委員)으로 파송하였던 유병필(劉秉필) 씨는 권유의 사무를 완료하고 어제 서울로 돌아갔다더라.

이에, 기호흥학회에서 파견된 유병필 위원의 권유로 부평 군수가 계창학교 유지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스스로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각 면장과 이장에게 교육 진흥 방침을 위한 밝히고 있다.

> 부평 계창학교 권유위원 유병필 씨가 입경함은 앞과 같거니와 유병필 씨가 권유한 결과로 부평 군수 정운구(鄭雲龜) 씨가 계창학교 유지에 대하여 흔쾌히 스스로 부담하고, 각 면·리장에게 교육 진흥의 방침을 간명히 효시할 차로 오늘 내일 중 훈령(訓令)한다더라.

그런데 이후 신문 자료에서 계창학교에 대한 기사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결국 재정적 어려움으로 폐교에 이르렀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사립 '계남(桂南)'학교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17일자에 실린 「桂南日進」(날로 발전하는 계남학교)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에서 부평군 옥산면 소사리에 '계남(桂南)'이라는 사립학교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된다.

> 부평군 옥산면(玉山面) 소사(素砂)리의 사립 계남학교(桂南學校)는 서상대(徐相大), 이계현(李啓賢), 윤백헌(尹百憲) 씨 등이 힘을 합쳐 설립하여 인허까지 받았는데, 교장 이하 일반 임원이 열심히 권장(勸奬)한 결과 학생이 날로 증가하여 현재 60여 명에 달하였다더라.

학교가 설립한 명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위 기사가 실린 시기가 1909년 11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909년 초에 설립되지 않았나 추정해 본다.

사립 '계산(桂山)'학교

부평 지역에 또 다른 사립학교 '계산(桂山)'학교가 있었음은 『황성신문』 1910년 4월 3일자 기사에서 발견된다.

> 부평군 당산면(堂山面) 면내의 뜻있는 신사(紳士) 강인규(姜寅圭), 권승규(權昇奎), 강정규(姜定圭), 강완규(姜完圭), 강필규(姜必圭) 등이 열심히 출자하여 계산학교를 설립하고, 교사 한성희(韓聖熙) 씨가 열심히 교육하여 학생이 30여 명에 달하야 진취의 희망이 있다 하더라.

부평군 당산면 면내 뜻있는 신사(紳士) 강인규(姜寅圭), 권승규(權昇奎), 강정규(姜定圭), 강완규(姜完圭), 강필규(姜必圭) 여러 명이 열심히 출자하여 계산학교를 설립하고, 교사 한성희(韓聖熙) 씨가 열심히 교육하여 학도가 30여 명에 달하였다는 것이다.

사립 '부명(富明)'학교

부평군 주화곶면(注火串面) 내촌에 거주하는 유지 신사 한기서(韓基瑞), 한묘학(韓墓鶴), 한익선(韓益善), 박제우(朴濟祐), 한기정(韓基正) 등 여러 명이 1910년에 부명학교(富明學校)를 설립하였다는 사실도 『황성신문』 1910년 5월 10일 기사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부평군 주화곶면(注火串面) 내촌(內村)에 거주하는 뜻있는 신사 한기서(韓基瑞), 한묘학(韓墓鶴), 한익선(韓益善), 박제우(朴濟祐), 한기정(韓基正) 등이 부명학교(富明學校)를 설립하고, 교사 이찬의(李贊義), 이구연(李龜淵) 씨를 초빙하여 열심이 교육함으로 생도가 40여 명에 달하였는데, 부평 군수 정운구(鄭雲衢) 씨도 열심히 찬성하여 그 면내 인사를 집합한 후 교육을 진흥케 할 목적으로 상세히 설명한 후 보조금을 넉넉히 의연함에 일반 인사도 각기 과다한 금액을 힘을 보태 기부함으로 이 학교가 한층 확장하여 진취의 희망이 상당히 많다 하더라.

이 사실은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10일자에서도 확인되었다. <富明設立>(부평학교를 설립함)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이다.

> 부평군 주화곶면(注火串面)에 사는 한기서(韓基瑞), 박제우(朴齊佑) 등이 협력하여 부명학교(富明學校)를 설립하고, 이찬의(李贊儀), 이구연(李龜淵) 두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여 학생 40여 명을 열심히 가르친다 하더라.

그렇지만 부명학교 역시 위 두 신문 기사 외에 더 이상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상, 개화기 부평 지역에 설립된 근대 사립학교들을 신문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비록 많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부평 지역에도 나름 적잖은 사립학교가 설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군수는 물론 뜻있는 인사들이 주도하여 설립하였고, 부평 지역 내 각계의 관심과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표 11 개화기 부평 지역의 근대 사립학교

학교 명칭	설립 시기	위치	설립 주도 인물
보명(普明)학교	1907. 1.	모월곶면 검암리	정홍석(鄭洪錫), 심상덕(沈相德), 정태헌(鄭泰憲)
계양(桂陽)학교	1908. 2.	미상	이규룡(李圭龍), 박희병(朴熙秉), 조용배(趙龍培), 박빈병(朴斌秉), 공면주(孔冕周), 박제병(朴濟秉), 정행원(鄭行元), 각 면장
계창(桂昌)학교	1908년 초	미상	부평 군수 전국환(全國煥) 등
계남(桂南)학교	1909년(?)	옥산면 소사리	서상대(徐相大), 이계현(李啓賢), 윤백헌(尹百憲)

학교 명칭	설립 시기	위치	설립 주도 인물
계산(桂山)학교	1910년(?)	당산면	강인규(姜寅圭), 권승규(權昇奎), 강정규(姜定圭), 강완규(姜完圭), 강필규(姜必圭), 강복규(?)
부명(富明)학교	1910년 초	주화곶면 내촌	한기서(韓基瑞), 한묘학(韓墓鶴), 한익선(韓益善), 박제우(朴濟祐), 한기정(韓基正)

다만, 아쉬운 점은 이들 사립학교가 초반에는 날로 번창하다가 점차 재정의 어려움, 특히 일제의 압력과 식민교육 정책으로 1910년 8월 일제강점기 이후 대부분 폐교되거나, 일부 공립학교에 흡수되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였다고 본다.

10 우리나라 최초로 천일염전이 설치된 부평

우리나라는 삼면을 바다와 접하고 있어 고대로부터 해수(海水)를 이용한 소금 생산이 연안 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해안 만입이 깊고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넓은 간석지(干潟地)를 품고 있는 서남해안에는 유수의 염산지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경기만의 연안 및 섬 지역 역시 예로부터 염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온 지역 중의 하나였다. 최대 10m에 이르는 조수 간만의 차와 160여 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섬들이 해류의 흐름을 교란·완화시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거대한 간석지를 만들어 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만곡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 낮은 수심의 바다, 높은 일조량과 적은 강수량 등은 염전이 입지하기에 최적의 자연적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특히 그 무엇보다 갯벌의 토질이 제염에 적합한 토성(土性)을 갖추고 있었다.

전통시대 경기만의 제염지를 대표하는 곳은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남양만 일대의 염전이었지만, 남양과 더불어 인천과 부평의 염전도 경기만의 제염지로서 빠질 수 없는 곳이었다. 1790년(정조 14) 7월 경기만의 북부 해안을 강타한 해일로 부평의 석곶면과 모월곶면에 있는 염분 20개소가 파괴되었다는 기록(『정조실록』 권30, 정조 14년 7월 10일조)을 보건대, 18세기 후반 부평 지역에 적잖은 염전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08년에 간행한 『한국염업조사보고(韓國鹽業調査報告)』 경기도편에는 부평 지역의 면별 염전 소유자 및 소작인의 성명과 주소, 종업원 수, 염정[鹽井: 소금을 만들기 위하여 바닷물을 모아 두는 웅덩이] 수, 부옥[釜屋: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드는 가마 시설) 수, 염전의 면적과 연간 생산량 등이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이를 통해 1907년 당시 부평 지역의 제염업 실태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12 부평군 각 면의 제염업 실태

(단위 : 명·개소·정보·근)

면명	소유자 수	소작인 수	종업자 수	鹽井 數	釜屋 數	면적	생산고
석곶면	22	0	46	62	23	6.9115	664,226
모월곶면	42	2	88	158	44	21.0719	2,011,260
합계	64	2	134	220	67	27.9904	2,675,486

위 표에 따르면 부평 지역에는 총 67필지의 염전(27町 9反 9畝 4步)을 64명이 소유하고 있고, 1필지당 평균 면적은 0.4178정보이다. 번작리, 가좌리, 신현리, 가정리 등에 위치한 석곶면의 염전은 면적이 0.2~0.4정보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 염전이 대부분이고, 고잔리, 백석리, 거월리로 이어지는 모월곶면 쪽에 좀 더 큰 염전들이 많았다. 물론 부평 지역에 있었던 염전은 자염(煮鹽) 방식에 위한 제염지였다.

그런데 해수를 끓여서 만드는 전통방식의 자염은 생산을 위해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끓여야 하는 속성 때문에 연료비나 인건비 등의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이런 연유로 인천 개항 후에는 청국의 값싼 천일염이 조선에 수입되어 시장을 장식하고 있었다. 이에, 일본은 조선에 천일염전을 개발하고 이를 전매체제로 통제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려 하였다.

1906년 11월 「염세 규정」의 반포를 통해 염세를 중앙집중식 과세 체제로 통일함으로써 안정적인 식민 통치의 재원을 마련하려 했던 계획이 실패하자, 일제 통감부는 제염업에 근대적 생산시설과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다. 즉, 기존의 재래식 제염업으로는 임금 및 연료비의 상승으로 인해 더 이상의 이윤 창출이 힘들고, 청국염 등 수입염의 압박에 의해 결국 폐절하고 말 것이라고 예측하여, 결국 생산체제의 개편을 통한 제염 생산의 증대를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가장 먼저 실행된 것이 대만의 천일제염시험장의 설치였다.

1907년 9월 우리나라 최초로 현 부평구 부평구 십정1동 558-7번지 서울제강 인근에 천일염전(天日鹽田)을 시험적으로 축조하여 그 이름을 '주안 천일제염 시험장'이라 하였다.

바로 인천 천일염전 역사의 시작이었다. 시험장은 증발지(蒸發池)와 결정지(結晶池), 저수지(貯水池) 등을 포함하여 총 2정보(6,000평)의 규모로 축조되었다.

표 13 주안천일제염시험장의 면적 비율

(단위 : 평)

구역명	면적	구역명	면적
蒸發池	2,388	貯水池	1,350
結晶池	320	堤防敷地	1,650
鹹水溜	100		
畦畔·水路	192		
합계	3,000	합계	3,000

천일제염 시험장이 주안 지역에 세워진 이유는 전통적인 소금 생산방식인 자염이 생산될 정도로 넓은 간석지를 가지고 있었고, 경인철도의 개통으로 최대 소비시장인 서울로의 신속한 운송이 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제물포 항구를 통해 일본으로의 소금 이송이 유리하다는 점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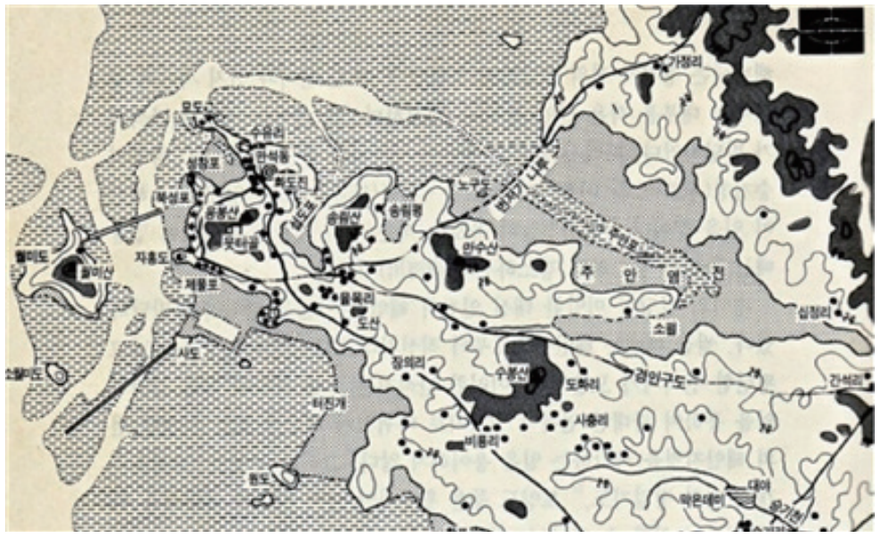
채염 작업에 들어간 주안천일제염시험장의 제염시험 결과는 일본 전매염의 1~2등염에 상당하는 좋은 품질이었고, 색깔 등에 있어서도 청국염이나 대만염에 비해 손색이 없었다. 실제로 1907년 10월에 조사한 주안염전 천일염의 분석성적표에는 염화나트륨(NaCl) 함유량이 무려 96.316%에 달하고 있어, 88~93%로 나오는 청국염의 성적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었다. 19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험염전에서 채염한 천일염 생산량은 아래 <표 14>에서 보듯이 총 7만 8,731㎏에 달하였다.

표 14 1908년 주안천일제염시험장의 천일염 생산량

(단위 : 斤·日)

월별	채염량	채염 일수	1일당 평균 채염량	1일당 평균 최고량	1일당 평균 최저량
4월	25,352	22	1,150	2,128	40
5월	25,850	15	1,720	2,408	643
6월	25,141	14	1,800	2,862	264
7월	15,634	11	1,420	2,018	617
8월	11,417	11	1,040	1,800	337
9월	14,883	17	870	1,799	198
10월	12,941	18	720	1,822	213
합계	131,218 (78,731㎏)	108	-	-	-

이후 '시험장'은 1909년 2월 폐지되었으나, 주안 '염전'은 3단계에 걸쳐 규모가 확장되었다. 제1기(1908~1911)에 26만 4천 평, 제2기(1917~1918)에 37만 2천 평을 증축하였고, 마지막 3단계 확장 후인 1932년에는 주안 염전의 총면적이 무려 326만 2천 2백 평에까지 이르렀다.



❖ 1910년대 인천지도에 표시된 주안염전

주안 염전의 성공을 계기로 인천 지역의 염전은 남동, 소래 등으로 빠르게 확장하였고, 1933년경 인천 지역의 염전은 전국 소금 생산량의 절반인 15만 톤을 생산해 낼 정도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일제강점기 주안 염전

11 일제가 토지조사를 처음 실시한 부평

조선시대의 부평은 계양산 아래 도호부가 위치하고 남동쪽으로 넓은 평야 지대가 펼쳐져 있던 곡창지대였다. 그 외곽의 산간과 구릉지대는 밭작물과 과수 재배, 그리고 목축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1899년 경인철도가 놓인 이후 서울과 인천의 한국인 및 일본인의 부평 지역에 대한 농업 투자가 본격화되었다. 마장면에는 목양(牧羊) 농장이 설치되었으며, 소사의 구릉 지역에는 과수원이 개발되었고, 부평평야는 미곡 생산지로 각광을 받았던 것이다.

일제의 산업 정책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에 의한 수리조합의 설치, 1930년대 이후 공업화의 과정을 밟았는데, 이들 산업 정책이 순차적으로 한 지역에 그대로 적용된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부평 지역이었다. 그럼 점에서 부평 지역은 일제 산업 정책의 전개 과정을 한 지역에서 일목요연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토지조사사업의 시험 조사, 부평수리조합의 설치, 경인공업단지의 설치가 모두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일제는 식민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토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식민지마다 지리적 역사적 관행적 사정이 다르므로 토지조사사업을 똑같이 시행할 수는 없었다. 해당 지역의 토지제도와 관행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본격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토지시험조사(土地試驗調査)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 바로 부평군 군내면·서면·동면이다. 이곳은 조선시대 부평도호부의 중심 구역이었으며, 오늘날 계양구에 대부분 포함되고 동면의 일부가 부평구에 포함되어 있다.

부평군 '토지시험조사'는 통감부 통치를 통해 준비해 온 토지조사사업을 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험해 본 것이다. 그 목적은 토지조사에 대한 민심의 동향을 살피고 측량의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탁지부 임시재산정리국에서는 1909년 11월부터 1910년 2월에 걸쳐 경기도 부평군 군내면·동면·서면에서 시험적 토지조사를 실시하였다. 1909년 6월부터 이미 국유지로 간주한 역둔토에 대한 조사를 1년 기한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것은 1910년 9월에 일단락되었다. 부평군 토지시험조사는 민유지뿐만 아니라 당시 진행 중이던 국유지 측량과는 관계없이 국유지도 포함하여, 산림을 제외한 한 지역의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 점에서 부평 지역에서 시행한 토지시험조사는 조선토지조사사업(1910~1918)의 '기원'이라 할 만하다.

토지시험조사를 실시한 부평군 군내면·서면·동면의 토지소유 실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부재지주와 재지지주의 토지소유 실태를 정리해 보면 <표 15>, <표 16>과 같다.

표 15 부재지주의 토지소유 실태

(단위 : 정보·%·명)

구분	면적과 비율		인원과 비율	
	면적	비율	인원	비율
0~0.5	4.32	1.0	19	25.9
0.5~1.0	5.50	1.3	8	10.8
1.0~1.5	14.76	3.4	12	16.2
1.5~2.0	5.59	1.3	3	4.0
2~3	15.05	3.5	6	8.1
3~5	23.76	5.4	6	8.1
5~10	67.78	15.6	10	13.5
10~20	88.88	20.4	7	9.4
20~50	42.99	9.9	2	2.7
50~100	0.00	0.0	0	0.0
100~170	166.48	38.2	1	1.3
계	435.10	100	74	100

비고 : 면적단위는 정보(町步), 1정보는 3,000평.

표 16 재지지주의 토지소유 실태

(단위 : 정보·%·명)

구분	면적과 비율		인원과 비율		소유 구분
	면적	비율)	인원	비율	
0~0.5	36.22	3.3	194	39.6	과소지주
0.5~1.0	66.88	6.1	94	19.2	소지주
1.0~1.5	59.15	5.4	50	10.2	
1.5~2.0	43.71	4.0	25	5.1	중지주
2~3	108.83	9.9	45	9.2	
3~5	124.26	11.3	32	6.5	
5~10	205.91	18.7	31	6.3	대지주
10~20	144.08	13.1	11	2.3	
20~50	166.66	15.1	6	1.2	
50~100	144.49	13.1	2	0.4	
100~170	0.00	0.0	0	0.0	
계	1100.19	100	490	100	

부재지주의 수는 전체의 13.1%, 재지지주는 86.9%인데 그 면적은 부재지주가 28.3%, 재지지주는 71.7%로서 부재지주의 1인당 평균소유면적이 훨씬 넓었다. 부재지주는 5.88정보, 재지지주는 2.25정보로 부재지주의 평균 소유면적이 2배나 넓었고, 10정보 이상 소유한 부재지주가 10명이나 되었다. 재지지주의 경우 39.6%의 과소지주가 3.3%의 소유, 29.4%의 소지주가 11.5%의 소유, 20.8% 중지주가 25.2%의 소유, 10.2%의 대지주가 60.2%를 소유하였다.

한편, 일본인도 부평 지역의 토지 소유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표 17>). 특히 마쓰오[松尾元之助]는 미간지를 포함하여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는데, 일본인 개인이 무려 166정보나 소유할 정도로 일본인의 토지 잠식이 활발히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일본인의 토지소유 실태

(단위 : 필지수(평수))

성명	거주지	소유지	전	답	대	잡종지	계	신고월	인천부 소유지
松尾元之助	경성부	도두리, 하동		1(75,674)		3 (423,752)	4(499,426)	1913.09.	
田鍋安之助	부평군	후정리		1(105,567)		5 (4,449)	6(110,016)	1909.11.	
管田豊次郎	경성부	후정리		4(45,417)			4(45,417)	1909.11.	11,654
松永達二郎	경성부	박촌리		4(40,028)			4(40,028)	1909.11.	
福田又兵衛	경성부	갈월리, 작정리, 후정리		16(22,497)			16(22,497)	1909.11.	
川本逸造	인천부	병방리, 박촌리, 방축리, 하동		5(8,493)			5(8,493)	1914.03.	
樋口平吾	인천부	하동		1(3,399)			1(3,399)	1909.11.	27,367
馬場淸七	인천부	하동, 화전리	2 (2,488)	1(530)			3(3,018)	1909.11. 1910.06.	
西川音吉	부평군	가현리, 상동	1 (1,262)		1(30)		2(1,292)	1909.11.	
계	-	-	3 (3,750)	33(301,605)	1(30)	8 (428,201)	45(733,586)	-	39,021

<표 17>을 보면 경성부와 인천부에 거주하는 일본인 부재지주가 많은데 경성부 거주자들의 투자가 훨씬 활발하였다. 간다[管田豊次郎]는 경성에 거주하면서 인천과 부평 지역의 토지를 사들였는데 수도권 일대에 많은 토지를 소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히구치[樋口平吾]는 부산을 거쳐 1883년 인천으로 이주한 뒤, 잡화상, 수출상, 거류민회 상임의원, 청일전쟁 지원, 일본상업회의소 상임의원, 미두거래소 감사·이사장, 계림장업단 평의원, 조선신탁합명회사 사장으로 토지가옥 매매와 대부업, 대곡파 본원사의 인천자선회 회장 등을 역임한 인천의 유지였다. 마쓰오[松眉元之助]는 논뿐 아니라 잡종지를 대량으로 확보했는데 미간지 개간을 목표로 국유미간지를 대부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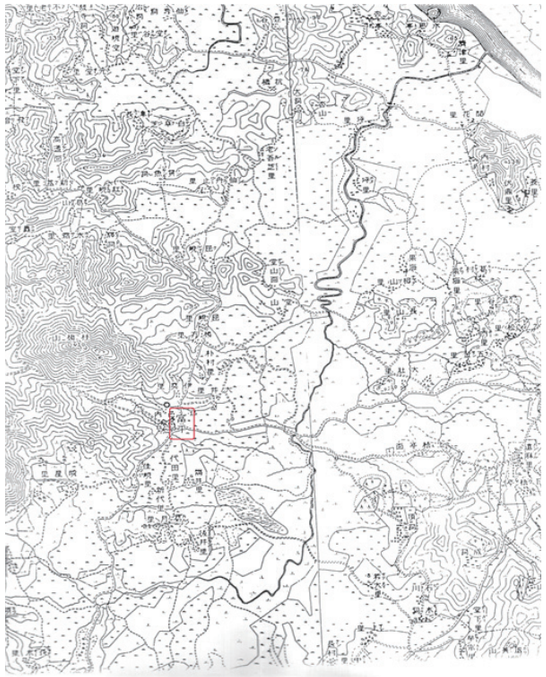
특히 일본인 9명 중 4명이 10정보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점을 보면, 부평 지역은 지리·교통·경지분포 등에서 볼 때 외국인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개항 이후 일본인의 토지집적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 부평의 수리조합 결성과 농민운동

1) 부평의 농업실태와 수리조합의 결성

경인철도가 놓인 뒤 부평 지역은 인천과 서울 사이에 끼어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국내외 지주, 자본가의 투자 대상이 되었다.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허용되지 않던 대한제국기에 이미 많은 일본인이 잠매(潛賣), 도매(盜賣), 전당(典當)의 방법으로 이곳의 토지를 확보해 나갔다. 부평 지역은 이미 논농사를 중심으로 농업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농업지대로서 바다와 강의 연안에 많은 미 개간지가 있어 수리관개시설을 완비하면 경작지를 얻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부평평야 지역을 굴포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굴포천 좌우에 넓게 평야가 펼쳐져 있었다. 오늘날의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비롯하여 부평구, 부천시, 그리고 서울시의 강서구와 양천구, 김포군에 걸쳐 있는데, 부평구의 동북쪽이 부평평야이다.



❖ 1895년경의 부평평야

부평평야는 일찍부터 수해와 한해가 심하여 농업생산을 위협하였다. 굴포천 인근의 논을 제외하면 천수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데 한해(旱害)를 자주 입었을 뿐 아니라, 또 한강에 비하여 저지대였기 때문에 한강 홍수의 수해를 자주 입었다. 따라서 수리시설을 완비하여 한강의 범람을 막고 적절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면 비옥한 논을 개간할 수 있었다.

이에, 일제는 1920년 12월부터 시작된 조선산미증식계획(朝鮮産米增殖計劃)을 통해 토지개량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그것은 곧 미곡 생산을 위한 관개(灌漑) 개선에 집중되었다. 관개 개선을 위해 종래의 수리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제의 정책에 부응하여 부평 지역에서도 일찍이 수리조합이 결성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미곡 생산을 강요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특히 부평평야는 경성에 근접해 있으며, 면적이 광대하여 수리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이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에서 1919년 말 직접 실측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부평평야의 수리사업은 산미증식계획 이전부터 주목되었던 것이다.

1920년 말 산미증식계획이 개시되자 이 실측조사에 기초하여 1921년 곧바로 황해사(黃海社)에 수리조합 실시설계서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황해사는 수리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고 이어 1922년 5월 22일 부평수리조합 설립을 신청한 뒤 1923년 4월 9일 조합 설치인가를 받았다. 창립 당시 부평수리조합은 부평평야의 3,872정보(답 75%, 전 5%, 초생지 20%) 가운데 3,601정보를 몽리[蒙利: 저수지나 관개 시설 따위로 필요한 물을 얻음] 면적으로 했는데, 이는 당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였다. 그 지역은 부천군의 계남면(1931년 소사면), 부내면, 오정면, 계양면, 김포군의 양서면, 고촌면 내 35개리에 걸치는 지역이었다.

부평수리조합에서는 한강 하류의 물을 양수기로 끌어올려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하였다. 김포군 김포면 신곡리의 한강 변에 중앙 배수 갑문을 건축하고 거기에 300마력 전동기 3대와 펌프 6대를 설치하여, 동서 간선수로, 지선 용수로, 지선 배수로 및 굴포천을 통하여 용수 및 배수를 하였다. 수리관개사업에 전기를 사용한 것은 부평수리조합이 처음이었다. 또 한강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김포군 양서면 개화리에서 고촌면 전호리까지의 동방수제(東防水堤)를 신축하고 고촌면 전호리에서 김포면 신곡리에 이르는 서방수제(西防水堤)를 개축하였다.

❖ 부평수리조합 구역

부평수리조합 구역의 한 가운데 흰색 부분이 부평수리조합 구역이다. 구역의 중심을 굴포천이 흐르고 그 좌우에 수로를 만들어 양수기로 퍼 올린 한강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굴포천의 서쪽 부분이 계양구에 속하는 부분이다.

2) 부평 지역 지주제와 농민운동

수리조합구역의 농업생산은 주로 지주제(지주소작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주제는 조선사회의 관행적 토지소유관계로 형성되어 왔지만, 식민지 지주제는 1908년 일제 통감부가 왕실과 정부기관 소유의 토지를 역둔토(驛屯土)=국유지(國有地)로 통합하고 여기에 역둔토관리규정, 역둔토소작료징수규정을 두어 역둔토를 5년간의 소작 계약에 의거하여 경영하면서 시작되었다. 지주제는 1912년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의 임대차관계규정에 의하여 제도화되었다. 1910~1918년 조선토지조사사업의 결과 토지의 상품화가 활성화됨으로써 지주제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에 의한 수리조합의 결성은 지주제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지주소작관계가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산미증식계획에 의한 수리조합의 설치는 수세, 소작료, 조합비 등 조선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농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하였다. 미곡 수출량의 급증으로 농민의 춘궁이 일상화되었다. 증산정책이 조선 내부의 사회적 분업의 발전에 기초한 본래적인 상업적 농업의 전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해체를 초래하였다. 농민은 조세 부담, 비료 부담, 고율 소작료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아 농민층은 전반적인 몰락을 강요당하였다. 수리조합에 대한 조선 농민의 반대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이처럼 수리조합의 결과가 조선인 소작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이었다.

부평 지역에서도 수리조합시설에 편입된 지역의 지가 보상 때문에 소규모 지주의 저항이 일어났다. 1923년 6월 29일 기공식을 거행한 부평수리조합에서는 수리조합터를 매수하면서 지가를 결정하기도 전에 공사를 먼저 시작하여 농사를 금지하였다. 이에 소지주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조합은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부천군 계양면 지주 60여 명은 기명날인하여 부천 군수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부천군의 중재를 통해 겨우 조정되었다. 그렇지만 땅을 팔지 않겠다는 지주를 조합에서는 강제 매수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공사 하자와 부정 사건으로 인한 공사비의 추가 부담 문제가 불거졌다. 부평수리조합은 1925년 3월 공사를 준공했으나 그해 여름 소위 '을축년(乙丑年) 대홍수'로 인해 한강이 범람하면서 수리시설이 크게 파손되면서 거액의 수선비가 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황해사의 사장이 초대 조합장이 되어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 재료를 부정 사용하는 등 공사의 부정이 드러났던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는 지주인 조합원이 내는 수세 등 조합비, 소작인이 지주에게 내는 소작료의 부담 문제였다. 1927년 10월 5일 지주회에서 풍작을 빙자하여 구답(舊畓) 6할, 신답(新畓) 5할의 소작료였던 것을 각각 6할 5푼, 6할로 인상하고 기타 여러 조건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사비 추가부담으로 인한 조합비의 상승 요인이 소작료 인상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소작농들은 지주의 소작료 인상에 대항하여 '농민조합'을 조직하여 강력하게 대항하였다. 1927년 10월 15일 중리의 소작인 10여 명이 농민조합을 조직하여 대항하기로 결의하고 발기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소작인들은 10월 28일 오후 2시 반 부천군 계남면 소사에서 부평농민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창립대회장에는 조선공산당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일본노동농민당에서 파견되어 경성에 체류 중인 변호사 후루야[古屋貞雄]를 비롯하여 경성농민총동맹 중앙위원 인동철(印東哲), 조선노농총동맹 집행위원 조경서(曺景敍), 노동대중사 권태휘(權泰彙), 서울청년회 이상학(李相鶴), 경기도청년연맹 고일(高逸), 인천노공친목회(仁川勞工親睦會) 권충일(權忠一), 그리고 각 신문사 기자가 참석하였다. 부평농민조합은 경기도에서

처음 조직되어 농민조합 결성의 기폭제가 된 소작인들의 저항운동으로 주목되었다.

농민조합의 기세가 높아지자 지주 27명은 10월 31일 오후 2시 반 경성구락부에서 소작인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각 지주가 소작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지주의 자발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조선총독부의 조정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원래대로 지주 6할, 소작인 4할을 수취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런데 지주 측도 불만이 적지 않았다. 공사부정 사건으로 조합비가 증가하였고 소작료 인상도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지주 측은 지주대회를 개최하고 조선총독부에 진정하는 등 조직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1930년 3월 30일 지주 400여 명이 지주대회를 열어 지주의 부담을 경감할 대책을 마련하였다. 지주회는 조합비 경감과 조합 간부 불신임이 포함된 이러한 결의사항을 조선총독부 당국에 강력하게 진정하였다. 만장일치로 간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고 집행위원 20명을 뽑았다. 현재의 간부를 사퇴시키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주대회를 상설로 할 것도 결의하였다. 이렇게 지주회와 조합 측은 갈등을 빚었다.

부평수리조합의 경우 과다한 공사비로 인한 조합비 인상으로 지주측의 수익성은 악화되었고, 소작료를 인상하려는 지주 측의 압력으로 소작농의 생활은 피폐해졌으며, 조합 간부들은 조합 운영과정에서 지주 측과 갈등을 빚어 충돌하였다. 부평과 김포에 걸친 수천 정보의 전답에 수리관개 개선 효과를 가져왔으나 토지소유와 농업생산을 둘러싼 조합-지주-소작인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었다. 그리고 그 갈등은 고스란히 사회문제로 노출되었다.

부평의 수리조합과 농민조합운동을 통해 볼 때 산미증식계획이 원만하게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은 파탄 일로에 놓였다. 일제도 농촌 갱생을 위해 농촌진흥운동을 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렸다. 오늘날의 부평구 지역 일대를 공업단지로 개발함으로써 농업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13 부평구 각 동(洞)의 이름 유래

1) 갈산동(葛山洞)

갈산동은 '갈우(葛隅) 마을'이라 불리던 곳이었다. 지금 부평정수장이 있는 이 마을의 주산(主山)이 갈산인데, '갈우(葛隅)'란 글자 그대로 '갈산의 모퉁이'라는 뜻이다.

이곳 갈산에 대해서는 산에 원래 굵고 오래된 칡(葛)넝쿨이 많아 이렇게 불렸다는 설이 있으나, 이곳에 실제로 칡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갈산, 갈메마을, 갈재…'처럼 '갈'자를 쓴 땅 이름이 무척 많으며, 상당수가 '葛(칡 갈)'자를 쓰고 있으나, 실제 칡과 관련되어서라기보다는 우리말 '갈'에 그냥 이 한자를 갖다 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말의 어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 대체로 '갈'을 우리말 '가리'에서 나온 말로 해석한다. '가리'는 어떤 땅이나 산, 물줄기 등이 갈라진 곳을 뜻한다. 둘째, '갈'을 '높다'는 뜻의 우리말로 해석하기도 한다. 결국 '갈산'은 '갈라진 산' 또는 '높은 산'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구산동(九山洞)

구산동은 "이 동네의 산(山) 모양이 마치 거북이(龜)의 등허리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구산(龜山)'이라 불렀다고, 그 산기슭에 생긴 마을이라서 구산리라 불렀다고 전한다. 그런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龜山'을 '九山'으로 기재하면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 굳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산동의 산 모양이 거북이를 닮았다고 볼 객관성은 없다.

반면 언어학에서는 우리말 '앞'이 잘못 전해져 '구'가 되었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 따라서 '구산'은 원래 우리말로 '앞산'이었는데, 그 이름이 '아홉산'으로 바뀌고 이를 한자로 '九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九山'보다 좀 더 뜻이 좋은 동음 '龜山'으로 바뀐 것이라 해석한다. 결국 구산동은 '앞산 마을'이 되며 계양산(桂陽山)이 앞쪽에 있었기에 생긴 것이라고 추론해 본다.

3) 부개동(富開洞)

부개동은 조선시대를 거쳐 1930년대까지도 '마분리(馬墳里)'라 불리던 동네다. '말(馬) 무덤(墳) 마을'이라는 뜻인데, 흔히 여기에 죽은 말들을 가져다 묻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해석한다. 부개동에서 그리 멀지 않은 청천동·산곡동·효성동 일대에는 조선시대에 군사적 목적에서 말을 기르던 마장(馬場)이 있었다. 그래서 말이 죽으면 이곳에 가져와 묻었기 때문에 '마분리'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 '말-' 또는 '마(馬)-'가 들어가 있는 땅 이름은 말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때 '말(마)-'은 동물이 아니라 '크다'는 뜻을 가진 우리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경우도 많다.

'말'이라는 단어는 본래 왕이나 추장·우두머리 등의 뜻과 함께 '크다'는 뜻으로도 많이 쓰였다. 이를테면 지금도 큰 벌[즉 왕벌]을 '말벌'이라고 부르는 것과 큰 잠자리를 '말잠자리'라 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에 따르면 '말무덤'은 '우두머리의 무덤' 또는 '큰 무덤'이라는 뜻이 된다. 부개동도 옛날에 큰 무덤이 있어 이렇게 불리다가 그 뜻을 잘못 해석해 '말(馬)의 무덤 마을'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부개동은 1946년에 이전의 마분리와는 전혀 관계없이 새로 지어 붙인 이름으로 "이곳에서부터 부평(富) 땅이 시작(開)된다"라는 뜻이다.

4) 부평동(富平洞)

부평동은 이 지역의 오랜 이름인 '부평'에서 나온 마을 이름인데, 그 유래에 대해서는 '거룩한 땅', '높은 사람이 다스리는 땅'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을 앞에서 하였기에 여기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5) 산곡동(山谷洞)

산곡동은 지금의 효성동·청천동 일대와 함께 고려시대부터 '마장(馬場)'이나 '마장뜰' 또는 이 발음이 조금 바뀐 '마제이[마재이]' 등으로 불리던 곳이다. 땅이 억새풀만 우거지고 농경지로는 쓰기에 적합하지 않아 나라에서 풀밭을 만들고 말을 먹여 기른 곳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산곡동은 마장면(馬場面)에 속해 '뫼끝말', '뫼꼬지' 또는 '장끝말' 등으로 불리던 곳이었다.

'뫼끝말'은 이 마을의 서쪽 뒷산인 원적산[元積山 또는 元寂山]의 한 줄기가 동쪽으로 흘러 내려오다 이 마을에서 작은 동산을 이루고 끝나기 때문에 '뫼(산)의 끝 마을'이라 해서 붙은 이름이다.

또 다른 이름인 '뫼꼬지'도 '뫼가 불쑥 솟아 있어' 붙은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꼬지'는 '꽂아 놓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말의 뿌리로 좀 더 내려가면 '두드러지게 솟아 있음'을 뜻하는 말로 이어진다. '꼬지'가 나무나 풀에서 가장 돋보이게 솟아 있는 '꽃(花)'이나 땅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삐죽이 뻗어나가 있는 '곶(串)'과 같은 뜻에서 출발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끝말'은 '마장의 끝 쪽에 있는 동네'라는 뜻이다. 이 마을은 이렇듯 산과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근세에 와서 부평부(富平府)가 동리 이름을 새로 지을 때 '산(골)마을'이라는 뜻에서 '산곡리'라 했고, 이것이 1946년에 그대로 산곡동이 되었다.

6) 삼산동(三山洞)

삼산동의 예전 이름은 '후정리(後井里)'로 그대로 해석하면 '뒤에 있는 우물 마을'이라는 뜻이다. 한자 이름보다는 당연히 우리말 이름이 먼저였을 테니 순 우리말로 '뒤우물말' 정도로 불리던 것이 한자로 바뀌어 후정리가 되었을 것이다.

옆 동네인 갈산동(葛山洞)은 갈산(葛山) 아래에 있어 갈월리(葛月里)라 불리던 곳이었는데, 삼산동은 그 갈산 동쪽 등성이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광복 뒤인 1946년에 동네 이름을 새로 지을 때 삼산동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그 뒤로 갈산동에 속해 있다가 1992년에 갈라져 나와 삼산동으로 독립하였다. 이 동네에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 땅 모양이 마치 삼태기의 안쪽처럼 구릉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옛날 사람들이 큰 우물을 파고 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곳보다 먼저 사람이 살았던 갈월리의 입장에서 이를 보면 산등성이 뒤쪽(後)에 우물(井)을 만들고 생긴 동네이니 '뒤우물말'이라 불렀던 것이다.

하지만 '후정리'는 '뒤우물말'이 아니라 그냥 '뒷마을'이라는 말을 한자로 바꾼 이름일 가능성도 있다. 우리 땅이름에서 '井(우물 정)'자는 마을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 자주 썼던 글자이기 때문이다.

7) 십정동(十井洞)

십정동은 원래 '열우물'이라 불리던 우리말 이름이 한자로 바뀌어 생긴 것이다. 지금의 경인전철 백운역과 동암역 사이 고개의 비탈에 있는 마을을 예로부터 열우물이라 불렀는데,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는 옛날 이 일대의 마을들 가운데 한 곳에 열(十)개가 넘는 우물(井)이 있었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라는 것이다. 이 지역은 물이 귀해서 한 곳을 몇 달씩은 파야 겨우 물이 나왔

는데, 이 고개 너머 산 중턱에 있던 마을 한 곳만은 우물이 잘 나와서 사람들이 열 개도 넘는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이다.

한편에서는 이곳에 큰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물의 양도 많고,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따뜻해 '열(熱)이 나는 우물'이라는 뜻에서 열우물이라 불렀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이 이름을 한자로 바꿀 때 열(熱)을 숫자 열(十)로 잘못 옮겨 '十井'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는 전혀 다르게 '十井'을 '十丁(십정)'의 잘못으로 보면서 "이곳에서 산맥이 십자(十字)로 교체되며 크게 꺾이었다(丁)"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경기도 화성 광교산에서 시작한 산맥이 소래산을 거쳐 이곳 주안산에서 크게 꺾인 뒤, 계양산의 남쪽 줄기인 원적산 자락과 교차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 세 가지 해석은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다. 다만 조선시대 말 지도에 이곳 고개가 '십정현(十井峴)' 또는 '정항현(井項峴: 우물목고개)'이라 나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동네 이름이 실제로 우물과 관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십정동'은 '우물이 많은 동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十[열 십]'은 꼭 10개라는 뜻보다 그냥 꽤 많다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한결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땅 이름에 쓰인 '정(井)'자는 '우물'이라는 뜻 말고도 그냥 '마을'을 나타내는 데도 많이 쓰인 글자이다. 이는 동네 이름에 쓰인 '谷(골 곡)'자를 '골짜기'로 해석하기보다 그냥'마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밖에 '峴(고개 현)', '泉(샘 천)', '坪(들 평)'자 등도 그 자체의 의미 외에 '마을'의 뜻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십정'의 '정(井)'은 마을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十[열 십]'에서 '열'은 '열다', '열려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에 동네 모양이 '(산비탈 앞쪽으로) 열려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십정동은 산비탈에 있는 동네이니까 '(높은 곳에서 앞쪽으로) 열린 마을'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구역상으로 이곳은 구한말을 거쳐 일제 강점기 때까지 '십정리'였고, 1946년 동 이름을 확정할 때 그대로 십정동이 되었다.

8) 일신동(日新洞)

일신동은 예전에 '항굴', '황굴' 또는 '항동(航洞)'이라 부르던 동네이다. 이곳 항굴은 옛날 지금의 부개산(富開山) 능선을 따라 골짜기에 길게 들어앉아 있던 동네였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그 기다란 동네의 모양이 마치 항해하는 배처럼 생겼기에 '항[航: 배 항]'자에 마을을 뜻하는 우리말 '골[굴]'이 붙어 '항굴'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해석은 "마을 안에 우물을 파면 동네가 망한다"라는 이 동네의 오랜 속설로 이어진다. 동네의 생김새가 배의 모양이니 그 밑창에 구멍[우물]을 파면 가라앉는다[망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주민들은 마을 입구 밖에다 우물을 파놓고 물을 길어다 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항굴'이나 '황굴'은 우리나라 곳곳에 많이 퍼져있는 지명으로 국어학적 입장에서는 여기서의 '항'을 '크다' 또는 '많다'는 뜻의 우리 옛말 형용사 '하다'의 관형형인 '한'의 발음이 바뀐 변형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이 '한'이 말머리에 들어가는 땅 이름은 한강을 비롯해 한들, 한개, 한골, 한내, 한뫼 등 무척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그리고 '한강'이 '큰 강'이라는 뜻인 것처럼 이들 이름에서의 '한'은 대부분 '크다'는 뜻을 갖는다.

또한 이'한'은 발음이 바뀌어 '항'이나 '황'이 되기도 하였다. 뜻은 같은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발음만 바뀐 것이다. 이런 예는 우리말의 일반 단어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 큰 새를 뜻하는 '한새'가 '황새'로 바뀐 것이 대표적이다. 큰 소를 뜻하는 '한소'가 '황소'가 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이곳 '항굴'이나 '황굴'도 원래 '큰 동네'나 '큰 골짜기 마을'을 뜻하던 '한골(한굴)'에서 발음이 바뀌어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 청천동(淸川洞)

청천동은 구한말 부평군 마장면 청천리였다. 인근 효성동, 산곡동 지역과 함께 고려시대부터 나라에서 목장을 만들고 말을 먹여 기르던 곳이다. 그래서 이 일대를 마장(馬場)이라 불렀는데, 청천동은 그 마장면의 중심이었던 곳이다.

청천동이라는 이름은 이곳에 흐르는 개천 '청천'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청천'은 계양구 효성동과 서구 가정동·심곡동 일대에 걸쳐 있는 천마산과 계양산 사이의 골짜기에서 시작된 개천이다. 이 물줄기가 이곳까지 흘러오는 것인데, 물이 맑아 '맑은내'라 불렸다. 그 맑은내가 그대로 한자로 바뀌어 '청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청천이 흐르는 곳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청천리가 된 것이다.

참고문헌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연안의 어업과 염업』,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1.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 5: 인천의 지명(상)』, 2015.

최재용, 『역사와 어원으로 찾아가는 우리 땅 이야기』, 21세기북스, 2015.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 10: 인천의 관방유적(상)』, 2019.

박광성, 「인천개항과 연안방비책에 대하여」, 『기전문화연구』11, 인천교육대학 기전문화연구소, 1980.

임학성, 「조선시대 '仁川'지역 거주자의 과거급제 양상: 生員 · 進士 합격자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5,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6.

이영호, 「일제의 조선식민지 토지조사의 기원, 부평군 토지시험조사」, 『한국학연구』 1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이영호, 「부평의 수리조합과 지주소작관계」, 『박물관지』 16, 인하대학교 박물관, 2013.

류창호,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제염업의 교류와 네트워크」, 『한국학연구』 5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한권으로 읽는 부평사

제 2 장

부평의 문화와 예술

富·平·史

제2장 부평의 문화와 예술

정 연 학(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1 도심 한복판에서 즐기는 신명, 부평두레놀이

현재 부평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부평평야'의 명성이 사라졌지만, 황해도 연백평야, 충청도 내포평야, 전라도 호남평야와 더불어 조선을 대표하는 평야로 인식하였다(『세종실록』18년(1436) 7월 21일).

한강(漢江)으로 통하는 굴포천(掘浦川) 주위에는 여러 개의 방죽이 있었고, 장포들[長浦坪]·삼거리들[三街坪]·만석이들[萬石坪] 등의 지명이 전해지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교사가 "부평평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것도 당시 부평평야가 넓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삼산동 일대의 156ha의 논이 택지로 개발되면서 부평평야의 마지막 위상은 사라지고, 1955년부터 자리 잡은 자동차 공장, 수출공단(1968) 등으로 인해 부평은 공업도시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1) 8차선 대로를 무대로 한 부평풍물대축제

부평풍물대축제는 2020년에 24회를 맞이하였다. 부평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지만, 인천과 구별되는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다. 바닷가에 가까운 옛 인천 지역은 개항장으로서 항구와 부두가 존재하지만, 부평은 오랜 시간 부평평야를 중심으로 농업에 기반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 왔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부평은 원래의 인천 지역과 다르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부평풍물대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도 이 같은 부평 지역의 역사적 특성과 현재적 조건을 고려한 이유가 크다. 부평풍물대축제는 농경문화에 토대를 둔 부평 전래의 풍물을 되살려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시도된 것이었다.

부평풍물대축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세 번째 해인 1997년 9월 30일에 처음으로 거행되었다. 그 해 축제는 '풍물'이라는 문화를 통한 지역 정체성 제고라는 목표 아래 부평의 문화적 '뿌리 찾기'를 중심에 두고 기획되었다. 축제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간이었다.

부평풍물대축제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지역'과 '풍물'을 주제로 축제의 장을 펼쳐나갔다. 축제가 10년간 이어오는 동안 인천을 대표하는 것은 물론 '지역축제의 발전 모델'로 평가받는 등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하였다. 여기에는 22개 각 동(洞)별로 조직된 풍물단의 활약이 밑바탕이 되었고, 1999년 인천에서 개최한 제80회 전국체전 개막식에 부평의 동(洞) 풍물단이 대거 참가함으로써 부평풍물대축제를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 부평풍물대축제에 참여한 부평두레놀이

2000년부터 부평풍물대축제는 부평대로를 축제의 무대로 삼았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약 900m에 달하는 왕복 8차선의 대로를 차 없는 거리로 선포했을 때는 교통 대란의 우려도 있었으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축제 참여와 다양한 예술행사로 오히려 호응이 좋았다. 이때부터 축제를 운영할 전문적인 민간 상설기구의 설립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뒷받침 할 조례 제정을 검토하였다. 사실 2000년까지는 관에서 주도하는 종합축제라는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다른 지역의 축제와 비교할 수 있는 차별성을 갖춘 것도 아니었다. 그 결과 2000년 이후에는 6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지역대표공연술제'(2014~2019)로 지정될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2) 축제를 통해 뿌리를 찾은 부평두레놀이(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6호)

부평풍물대축제는 부평 두레의 뿌리를 찾는 계기가 되었다. 부평문화원은 2004년부터 부평 두레의 원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던 중 국립문화재연구소 장서에서 경기·충청지방 고사소리 9편 중 인천 경서지방 고유의 고사 소리, 즉 비나리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구전되어 오는 구비전승 문학을 정리한 『한국구비문학대계』(1~8) 경기도 인천시 옹진군 편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부평평야에서 불렀던 비나리는 전문 예인이 아닌 민간의 순수한 원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축제위원회에서는 2007년 삼산동 영성마을 야막 간 터에 전승비를 세우고(현 삼산1동 미래타운 4단지 도두리 공원), 부평구와 국립국악원 협조로 재현, 시연하였다.

또한, 2007년 1월에 부평구립풍물단을 창단하여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초청공연, 부평풍물대축제 메인 공연, 부평구 지역문화행사 등에 참가하며 부평구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전국경연대회에서도 참가하여 각종 상을 수상하며 풍물도시 부평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

부평두레놀이는 2015년 3월 16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었다. 그 배경에는 부평풍물대축제와 22개 동 풍물단의 오랜 활동이 근간이 되었다. 그런데 과거 부평의 두레놀이 추적은 현재의 부평구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부평은 과거 광활한 지역으로 지금의 부평구를 비롯해 계양구, 서구, 부천시, 구로구와 강서구 일부가 모두 관할이었다.

1914년 이전 부평 지역의 두레는 여러 명칭과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즉, 계양구는 과거 계양면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두레계와 농기싸움, 서구는 석곶면과 모월곶면을 중심으로 한 들노래(서곶들노래, 인천광역시지정 제18호, 2012), 부천시는 오정면과 계남면 지역의 농기싸움(석천농기고두마리놀이, 부천시 향토문화재 제5호, 2016)과 중리 풍물놀이, 김포 통진 두레놀이(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 1998) 등이 바로 그것이다.

부평풍물대축제는 연인원 100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축제의 성공적 운영은 이 지역의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1997년 부평풍물대축제가 시작되면서 큰 문제로 제기되었던 점이 바로 부평 지역에 전승되는 두레 단체가 없다는 사실이다. 즉, 지역적 정체성을 담은 풍물을 제대로 전승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풍물 축제를 주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다. 부평구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평을 대표하는 풍물을 찾아 내세우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평문화원과 부평풍물단은 삼산동에서 전승되는 농악을 교육하고, 원형 복원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부평문화원에서는 삼산동 두레 농악에 대한 복원을 위해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년 동안 역사적 자료를 추적하고, 2008년에는 '부평삼산두레농악 복원 및 재현 사업'(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통해 삼산1동 노인회원 20여 명의 인터뷰 및 주변 지역의 두레 농악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2월 7일 부평역사박물관에서 부평삼산두레농악 복원 및 재현 실연 공연을 하였다. 현재 부평두레놀이의 <농기놀이>, <우물고사>, <두레놀이>, <백중 호미걸이>, <판굿> 등의 연행 과정은 그 당시의 공연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 부평 삼산동 모내기(사진 홍승훈)

부평 두레놀이의 재연은 1993년 삼산동을 중심으로 '상우회'라는 풍물 조직이 태동하면서 시작되었다. 1997년에는 삼산동 대동풍물단의 결성을 시작으로 부평구 22개 동에서 각각 10명씩 모여 풍물단을 결성하였다. 2011년 11월 17일 향토민속보존회 명칭을 2013년 부평두레보존회로 변경하고, 인천대교나 인천공항 착공식 등 다양한 행사와 2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부평풍물대축제에 참여하고 있다. 그간 부평두레놀이를 인천광역시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수많은 시연을 펼쳤지만, 탈락의 고배를 맛보는 아픔을 겪다가 2015년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았다. 그 고된 과정 속에서 원로 회원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일부 회원이 이탈하여 현재 회원 수는 39명이다.

현재, 부평두레놀이는 보존회 회장 윤정순을 비롯해 부회장(2명), 이사회(11명), 감사(2명)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연팀은 단장, 총무, 운영위원(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평두레놀이보존회 38명은 비록 농촌에서 도심으로 바뀐 환경 속에서 부평구민의 공동체 정신을 새기고, 나아가 지역의 즐겁고 견고한 문화콘텐츠로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유산이 되어버린 두레놀이가 지금까지 남아 새롭게 전해질 수 있던 것은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21년 11월에는 전수장학생 2명을 배출하였는데, 앞으로 이수자 등을 양성하여 두레놀이보존회의 지속성을 담보하려고 한다.

또한, 부평두레놀이의 지역사회 전승을 위한 노력은 보존회의 중요한 역할이자 의무이다. 보존회에서는 2016년부터 부평서초등학교를 비롯한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수학교'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3회까지만 진행되었고 현재는 잠정 중지된 상태이다. 앞으로 전승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중심에서 중고등학교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부평두레놀이 공연이나 시연 때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부평두레놀이의 미래의 전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3) 부평 대표 두레, 삼산동 두레

두레는 조선 후기 이앙법 보급과 함께 조직되었으며, 적당한 시기와 단기간 내에 대규모의 노동력을 집중해야 하는 모내기와 김매기 등의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다. 두레는 마을공동체를 대표하며, 상부상조의 유구한 전통과 함께 풍물, 민요 등으로 대표되는 농민문화를 선도하였다. 따라서 두레 성원은 김매기 등의 공동노동뿐만 아니라 마을 길 관리, 마을 제사(동제), 지신밟기 등의 마을 행사를 주도하였다.

『계양사』에 따르면, 부평의 두레는 마을 호수가 50호 이상 되는 곳이라면 으레 조직되었다고 한다. 특히 고종 원년인 1897년부터 1915년도 사이에 두레가 왕성하게 조직되고, 세벌 김매기가 끝나는 백중에는 면 단위로 농악놀이를 즐기었다. 1960년대까지 두레가 지속된 삼산동 후정리 두레도 농기의 연조에 단기 4224년(1891)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단기 연호가 1910년 이후 사용되기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농기에 대한 고증이 필요하다.

두레는 모든 가구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어 두레패 인원을 통해 마을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두레패에는 수장인 상좌(영좌)를 비롯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한 마을의 모내기와 김매기 순서, 결산 등을 담당한다. 특히, 김매기는 세 벌매기를 하였다. 이때 두 벌은 호미로 매고, 세 번째는 손으로 훔친다. 초벌은 모내고 보름 정도 지나서 하며 다시 보름 있다가 두 벌을 맸다. 마지막에 손으로 훔치는 것은 뿌리를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매기는 한사람이 보통 하루에 200평 정도를 한다.

두레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성인의 대접을 받는 것이다. 어린 머슴이 상머슴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힘도 있고 기술도 겸비해야 한다. 삼산동의 송 씨에 따르면 보통 20살은 되어야 성인으로 품을 받았고, 쟁기 부리는 기술이나 방석 짜는 일 등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여겼다.

부평두레놀이는 삼산동의 두레를 근간으로 만들어졌다. 그것은 과거 농경지였던 부평평야 일대가 일제에 의하여 대부분 공업지대로 바뀌었지만, 삼산동의 논농사 경작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 해방 이후에도 두레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두레패의 상쇠였던 고(故) 신현길(남, 1919생) 씨에 따르면, 삼산 두레가 인근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영좌(領座) 두레이었으며, 후정, 까치말, 도두마리, 된밭 등의 마을 두레패들이 받들었다고 한다. 또한 풍물 기량도 가장 뛰어났다고 한다.

❖ 삼산동 두레(사진 제공 부평문화원)

❖ 삼산동 두레 북장이 故 신현선 씨

삼산 두레는 두레의 역할은 물론 마을의 동제(도당제, 산고사, 마을굿)나 우물고사, 정월대보름 지신밟기를 거행하는 주최 세력이기도 하였다. 특히, 지신밟기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4일간 인근 마을까지 행하였다. 가가호호에서 추렴한 돈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였고, 1974년 지신밟기를 통해 얻은 기금은 마을회관 건립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사월 초팔일 마을주민들이 즐기는 날에는 두레패들이 풍물을 치며 흥을 이끌었다.

두레 일을 시작할 때는 아침 일찍 '태징'을 울렸다. 태징은 마을 풍물패의 징수가 두레꾼들을 모으기 위해 치는 징을 일컫는 말이다. 본래 태징이란 '큰 징'의 의미였으나 기능상의 의미가 부여되어 일반 명사화된 것이다. 태징 소리를 들은 두레꾼들은 마을회관으로 모여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였다. 사람들이 다 모이면 풍물을 치면서 일할 논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농기를 가장 앞에 세우고 이어 상쇠, 징, 장구, 반고가 순서대로 서서 연주한다. 두레를 연주할 때에는 많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출하게 악기 1개씩을 들고 연주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단잽이'라 부른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과 일 할 사람들이 모두 평상시의 복장을 하며, 특별히 상모나 띠를 두르지는 않는다. 그리고 농기를 들고 논으로 갈 때 행진은 주로 길군악 장단을 연주하는데, 그 모습은 일대 장관이었다고 한다. 농기는 농신(農神)이 좌정한 깃발이기 때문에 절대로 땅에 내려놓거나 눕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논에 도착하면 농기를 논두렁에 세워두어 농신의 수호 아래 농사를 짓게 된다. 모내기나 김매기 때에는 농악을 연주하지 않으며, 다만 영좌가 북을 치며 선소리를 하면 일꾼은 소리를 받았다.

들을 지날 때는 다른 마을의 두레패와 만나는 경우도 있다. 농기의 위계가 정해진 경우에는 큰 마찰 없이 기세배를 받는 것으로 충돌을 피하지만, 위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격렬한 기싸움이 이어진다. 삼산 두레는 인근 6개 마을에서 가장 큰 형님 깃발이기에 다른 마을에서 기세배를 올렸다고 한다. 삼산 두레의 농기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면, 아우 두레인 인근 마을의 두레 농기가 앞으로 나아와서 기를 숙여 세배를 하였다. 그러면 알았다는 듯이 더욱 힘차게 농기를 흔들어 화답하였다. 이러한 기세배가 있게 되면 두 마을 두레가 함께 합굿을 벌여서 한바탕 어울려 놀며 마을 간의 화합을 도모한다.

삼산리에는 우물이 세 군데 있었다. 특히 주민들은 우물고사를 도당제보다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물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도당제에서 돼지 1마리를 잡았다면, 우물고사 때는 소 1마리를 잡아 제를 지냈고, 온 마을 사람들이 골고루 나누어 먹었다. 소는 마을주민들이 모두 각출한 비용으로 마련하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싸게 소고기를 먹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물고사를 지내는 시기는 칠월 칠석으로 마지막 논매기가 끝날 즈음이다. 이때 농군들은 논매기에 사용했던 호미를 씻어서 걸어 놓는다고 하여 '호미걸이'를 하고 1년 농사를 무사히 마쳤다는 것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제를 지내고 한바탕 놀았다. 결국 삼산동의 호미걸이는 마을의 우물고사와 연계된 독특한 행사임을 알 수 있다. 호미걸이 때 연주하는 것을 '풋굿'이라고 불렀는데, '풋'의 의미는 아직 여물지 않은 곡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물고사는 아침에 가운데 우물 한 곳에서만 지낸다. 우물고사에 앞서 세 곳의 우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운데 우물에 제물을 진설한 후 간단하게 제를 지낸다. 제를 마치면 소고기를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 뒤, 두레꾼들은 점심을 먹고 다시 우물로 모여 샘굿을 거행하였다. 샘굿은 세 개의 우물 중 제의를 거행한 가운데 우물에서 먼저 진행하고, 위쪽, 아래 우물 순으로 이동한다. 샘굿을 할 때는 '단물 나오라'고 기원을 했고, 상쇠는 '뚫어라 뚫어라'와 같은 선소리를 하였다. 후정리 공동우물은 1980년대 중반 폐쇄되었고, 우물 틀은 삼산 노인회관 앞에 놓여 있다.

❖ 井자 우물틀과 우물고사 재연(2021)

2 한국 최초, 부평 최고

1) 한국 최초 천일염 시험장, 십정동 주안염전

십정동(열우물)에 한국 최초의 천일제염 시험장(부평구 십정동 558-7번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이를 알리는 표지석도 사람들 왕래가 거의 없는 폐공장인 서울철강 담장 안에 있고, 오래 세월 먼지와 잡풀로 가려져 있어 행인들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표지석에는 "한국 최초의 천일염전(天日鹽田)지"라는 제목 아래 "구한말(舊韓末) 융희(隆熙) 원년(1907년) 나라에서 천일제염을 계획하고 주안에 1정보(3천 평)의 천일시험염전을 만든 것이 시초가 되어, 1911년에는 99정보의 천일염전을 완성함으로써 이곳이 한국 최초의 천일염전지가 되었다."라고 적혀 있다. 당시 십정동은 인천부 주안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염전 이름이 자연스럽게 '주안염전'으로 정해졌고, 주안염전이 212정보(1~8구)까지 확대된 후 십정동 염전시험장은 제1구로 호칭하였다.

❖ 한국 최초의 천일염전지 표지석

십정동에 천일염전 조성은 통감부(統監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7년 탁지부(度支部)는 인천의 주안(朱安)에 천일제염, 부산의 용호(龍湖)에 자염(煮鹽) 시험염전을 설립하고, 그 결과 주안의 천일제염 시험장이 양호하여 대만식 천일염전 축조 방식 도입을 결정하였다. 주안면 십정리를 시험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넓은 간석지와 자염의 주요 생산지였고, 경인선 개통으로 서울로의 신속한 운송이 가능하며 항구를 통해 일본으로 천일염 이송이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천일염전 조성의 대의적 목적은 한국의 전통 자염이 중국의 천일염과 가격, 생산 등에서 경쟁을 할 수 없어 조선에서의 안정적 소금 공급을 위한 것으로 두었으나, 일본은 자국의 화학과 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대량의 소금 수요가 절실한 상황이라서 일본과 가까운 조선을 천일염 공급지로 택한 것이다. 1918년 조선총독부 전매과장 히라이(平井三男)는 조선에서 천일염전 조성 이유로 첫째, 청국염과 경쟁을 위해 오직 천일염만이 그 대안이고, 둘째, 부족한 조선 내 식염을 천일염으로 대치할 수 있으며, 셋째, 일본 화학공업에 필요한 원료로서의 천일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주안염전 축조에는 많은 중국인 기술자와 인부들이 동원되었고, 제염 방식이나 제염 기구는 대만식을 사용하였다. 제염 시험 결과, 품질은 중국 천일염보다 뛰어나고 대만 천일염과 비슷하였으며, 생산비 및 생산량은 청국염이나 대만염에 뒤지지 않았다. 1908년 채염량

은 13만 2,000근에 달하였다. 이에 통감부는 1908년 주안 천일제염 시험장을 20정보의 염전으로 확장 계획을 세우고, 후에 1919년까지 총 8구역 212정보의 대염전 조성으로 계획을 바꾸었다. 그 결과 주안 간석지를 사이에 두고 십정동 쪽에는 1, 2, 3, 5, 7구역, 주안동에는 4, 6, 8구역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조선전매국 주안출장소의 청사도 주안역 뒤에 설치하였다.

주안염전은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 등 3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해수를 받은 후 20일이 경과하면 첫 소금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매일 소금을 채염할 수 있다. 저수지의 해수는 음력 초하루 바닷물이 많이 밀려오는 사리 때 수문을 통해 받으며, 증발지 함수의 염도가 20도면 결정지로 보내 염도 25가 되면 소금이 결정된다. 소금은 채취 후 주안역 앞 대형창고로 보내고, 그곳에서 포장 후 철도와 배를 통해 조선 전역으로 유통되었다.

1907년 주안염전에서 처음 생산된 천일염의 짠맛은 오랫동안 자염에 익숙한 조선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 천일염은 자염에 비해 염화나트륨 성분이 높아 그 맛이 짜며, 흰빛의 자염과 달리 소금 빛깔이 개흙이 붙은 검은색이라서 거부감을 보였다. 또한 천일염의 결정체가 커서 그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워 소금을 분쇄하는 과정을 거쳤다. 1910년 주안염전 분쇄 공장에는 2대의 분쇄기로 하루 약 3만 근 정도로 갈았다.

1925년 주안염전의 염부장 배치표를 보면, 총 11개 구역 중 한국인 염부장은 성창성(成昌成), 한사익(韓士益), 이응준(伊應俊), 성유경(成有京) 등 4명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성씨가 성창성, 성유경 등 성(成)씨인데, 십정동 열우물에 이른 시기에 정착한 가문이기 때문이다. 성씨는 500여 년 전 영월군수를 지내던 성습지(成習之)가 다섯 가구의 인척을 거느리고 열우물에 정착하여 성씨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성씨가 번창하게 된 것도 자염과 관련이 깊다. 열우물 김씨에 따르면 "성씨가 윗열우물에 번창하게 된 것은 염전을 운영했기 때문이야. 염벗을 만들어서 바닷물을 가지고서 소금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이지"라고 한다.

주안염전은 1963년 소금 전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의 대행 기관인 대한염업주식회사(1963~1991)가 운영하였다. 그러나 주안염전은 공업화를 주창한 3공화국의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행에 의해 1968년 폐전(廢田)되고, 그 자리에 1973년 주안수출5·6공단이 조성되었다. 대한염업주식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한 고(故) 김명국(1928년생, 평북 개천군) 씨에 따르면, 회사 내부에서는 주안염전 가운데 주안염전 시험장인 십정동 1호 염전만큼은 역사적 상징성이 있어 보존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부 입장을 거스릴 수 없어 그대로 염전을 폐전하게 되어 아쉬었다고 당시를 회상하였다.

십정동 하동 주민 대부분과 상동 일부 사람들은 주안염전에서 소금생산을 하는 염부로 고용되었다. 2010년경 만난 염부들은 "당시에는 먹고 살길이 막막하여 염부로 일을 하였고, 임시 염부도 염부장에게 잘 보여야만 가능하였다.", "자다가도 비가 오면 뛰어나가 함수를 걷는 작업을 하였다."라고 염부의 고된 삶을 회상하였다. 또한 주안염전에는 천일염 이외에도 함수로 소금을 굽는 제염소가 별도로 있었다. 십정동 김용수 씨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제염소에서 염전 기술자로 1949년까지 근무하였으며, 그곳에서 생산된 소금은 일본군의 군수품 공장에 납품하였다고 한다. 염도가 높은 소금일수록 화학, 공업제품 제작에 사용하기 좋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십정동은 과거 부촌으로 인식되었다. 그것은 십정동의 상당수 주민들이 염전에 종사하면서 현금으로 월급이나 일급을 받아 현금 유통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염부의 수익이 농민보다 높았으며, 농민들도 농번기가 아닌 여름철에는 소금생산이 한참이라서 염전 잡부로 일하면서 수익을 올렸다. 소금이 가장 많이 채취되는 시기는 5월 단오에서 장마철 이전인 7월 사이이다.

이젠 주안염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당시 염부들도 세상을 떠나면서 그 기억도 묻히고 말았다. 다만, 주안 공단이 조성된 이후에도 염전 둑방길을 따라 갯지렁이를 잡아 판매한 십정동 부녀자들의 기억만 남아 있다.

2) 부평 신촌, 한국 최초 클럽 오픈

신촌의 클럽

신촌(新村)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롭게 생긴 마을이다. 1930년대에 부평 신촌은 한적한 곳이었고, 외지인들이 모여들어 새롭게 마을을 형성하면서 새마을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이후 신촌으로 바뀌었다. 1910년대 지적도를 보면, 신촌은 대지 보다 전답으로 이루어진 농촌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신촌은 일제시기 무기 제조 조병창 건설 완공(1941)과 해방 후 미군부대 정문과 마주하면서 이주민에 의해 점차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클럽은 신촌에서는 홀이라고 불렸다. 홀은 백인과 흑인 전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음악도 그에 따라 다르다. 흑인이 많이 가는 곳은 일명 "검댕이홀"이라고 비하해서 부르나, 신촌에는 백인보다 흑인홀이 더 많았다. 또한 흑인 고객이 많으면 백인 전용 홀도 음악 등을 바꾸어 흑인 미군을 유도하였다.

또 클럽마다 백인과 흑인의 인종별 선호도가 다르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달랐다. 즉, 백인은 재즈, 흑인은 소울 음악을 즐겨 들었다. 이처럼 클럽을 통해 미국의 인기 노래가 수용되었다. 음악 선곡도 가게주인이 영어가 능숙하지 않더라도 인기 레코드판을 진열해 놓으면 미군이 듣고 싶은 판을 골라 곡 번호를 가리켰다. 그러면 그 음악을 전축으로 틀어 주었다. 신촌의 클럽은 부평 미군은 물론 김포, 서울의 미군부대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매우 성행하였다.

홀은 입구에 들어서면 한쪽에 주방이 있고, 앞쪽으로는 원탁 의자, 춤 무대, LP판 음악실 등이 자리를 잡았다. 물론 아리랑이나 드림보트처럼 큰 홀의 경우 밴드가 있어 직접 연주를 하였지만 대부분은 음악실에서 음악을 틀어주었다. 홀 내부에는 보통 원탁이 놓여 있는데, 큰 홀의 경우는 20개, 보통은 10개가 정도가 비치되어 있다. 미군들은 대부분 면세용 OB, 크라운 등 국산 맥주를 병채 들고 마셨으며, 별도의 안주는 시키지 않았다. 국산 양주를 마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맥주가 주종이었다. 홀은 일반 한국인은 들어갈 수 없는 면세지역이지만, '양공주'들은 미군과 합석하여 맥주나 양주를 마시거나 춤을 추고 잠자리를 같이하였다. '양공주'들은 대개 양장을 입고 있어서 일반인의 눈에 손쉽게 띄었다.

❖ 송도홀

❖ 드림보트(김식만 소장)

홀의 벽면은 타일로 외벽을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옛 송도홀 사진을 보면 외벽은 타일이나 지붕은 기와이다. 입구는 벽면 한쪽에 달았고 '양공주' 3명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응시하는 모습이다. 송도홀 옆 사진에는 SEVEN이라는 영문이 보이는데 또 다른 클럽이다. 두 클럽 사이의 간격은 한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골목길이 보인다. 그리고 송도홀과 드림보트 사이에는 벽면이 붙어 있어 연이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 드림보트는 3층으로 된 건물로 1층은 클럽, 2~3층은 마루로 된 룸임을 간판을 통해 명기하고 있다. 결국 2~3층은 무대가 없는 방으로 된 술집임을 알 수 있다. 2~3층은 1층에 비해 그 공간이 좁고 시멘트 외벽을 마감하고 지붕은 기와이다.

1979년까지 송도홀(40평)을 운영한 이 씨에 의하면, 홀은 BAR의 형태로 긴 탁자가 8개 정도 있었고, 춤추는 작은 무대, 음악실로 이루어져 있다. 음악실은 동네에서 음악에 관심 있는 친구가 DJ를 보았고, 음반은 동대문, 종로3가에서 구입한 백판을 틀어주었다. 음악은 주로 락앤롤을 많이 틀었는데, 미군의 주문을 받아 음악을 틀어주었다. 1970년대 미군부대 이전 후 신촌에는 3개의 홀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흑인, 백인 따로 구분이 없었으며, 더러 9공수 군인들도 왔었다. 그러나 홀 내부는 음악이 시끄러워 말소리도 잘 안 들렸다고 한다.

최근까지 유일하게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던 홀은 드림보트인데, 이곳에는 부일식당이 자

리를 잡고 있었다. 부일식당은 1983년 개업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1층은 제품 공장, 2층은 교회 살림집, 3층은 교회 공간으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부일식당 주인은 이곳을 인수하면서 약간의 개조를 하였으나, 과거 홀의 바닥재와 기둥 등은 그대로 남아 있어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드림보트홀은 송도홀(40평)에 두 배 정도의 규모였고, 송도홀은 길을 내면서 사라졌다.

신촌 클럽거리

신촌의 클럽은 6·25전쟁 이후 부평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생기기 시작하였다. 6·25전쟁이 휴전된 지 2년 남짓 지난 후에 애스컴 미군을 대상으로 클럽 및 '양공주'가 등장하였다. 1962년에는 신촌 일대 클럽이 11개소에 이를 정도로 성업 중이었고, 애스컴이 캠프 마켓으로 축소되었던 1970년대 중반까지 17개소로 늘었다. 즉 1960~1970년대 중반 시기는 신촌 클럽거리의 전성기였다.

신촌의 클럽은 애스컴 정문과 마주하고 있던 신촌의 대로변(현 경원대로)을 중심으로, 일부는 이면 도로에 자리를 잡았다. 클럽에는 미군과의 사랑을 꿈꾸며 날마다 치장하고 기다리는 '양공주'들이 있었고, 클럽 사이사이로 미군과 관련된 양복점, 각종 잡화점, 음식점, 사진관 등 크고 작은 샵(shop)들이 포진해 있었다. 또한 '양공주'와 관련하여 미용원, 목욕탕, 의원, 양장점 등이 자리를 잡아, 당시로서는 인천의 여타 마을과 다른 도시 풍경이었다.

대로변뿐 아니라 남쪽의 이면 도로에도 부산홀, 하니문클럽, 키클럽, 뉴컨츄리클럽, 수도클럽, 평양홀 등 6개소의 클럽이 자리를 잡았다. 이 중 평양홀은 본래 가정집이었던 건물을 클럽으로 고쳐 썼기에 다른 클럽들과는 구조가 사뭇 달랐다. 평양홀은 당시의 모습 그대로 현재도 남아 있다.

클럽의 상호는 주인의 출신지를 따서 붙여졌다. 평양홀, 화이트로즈홀[송도홀], 부산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송도홀 클럽을 운영하던 윤 씨는 본래는 여자인데, 남장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였다. 송도홀은 1970년대 중반 주인이 바뀌었지만 1990년대 중반 도로 확장으로 폐업할 때까지 여전히 송도홀로 불렀다. 이렇게 신촌의 클럽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손에서 번성하였다. 1960년대 후반 무렵, 신촌의 클럽은 다음과 같다.

표 1 1960년대 신촌의 클럽

상호	무대 유무	미군 인종	기타
아리랑클럽	있음		신촌 최대 규모 클럽
드림보트클럽	있음	백인 선호	
세븐클럽	있음		
키클럽	없음	백인 선호	1990년대까지 영업
화이트로즈홀(송도홀)	없음		송도 출신. 1990년대까지 영업
그린도어클럽	없음	백인 선호	1990년대까지 영업
홍콩홀	없음		
신일홀	없음		
신장홀	없음		
서브달러클럽	없음	흑인 선호	
맘보홀	없음	흑인 선호	
신세계클럽	없음		
부산홀	없음		부산 출신(추정)
하니문클럽	없음		
뉴컨츄리클럽	없음		
수도클럽	없음		
평양홀(뉴욕홀)	없음		평양 출신

※ 그 밖에 1970년대 중반에는 소울브라더클럽, 레몬트리클럽도 있었다고 전함

❖ 부평 신촌 지역 소재 클럽 분포도

❖ 신촌로 초입에 Key Club 등의 간판이 보인다.(사진 Tim Norris)

❖ 아리랑클럽 간판이 멀리 보인다

술을 팔고 미국 음악을 튼다는 점에서 신촌 일대 클럽의 영업 방식은 대동소이하다. 신촌의 클럽에서는 대체로 음반을 트는 정도였고, 무대가 있는 몇몇 대규모 클럽에서는 밴드를 고용해 라이브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밴드 연주자들은 신촌보다 삼릉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였고, 현 동수역 인근에 음악인의 인력시장도 있었다. 그 이유는 삼릉의 클럽이 미군 장교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사병이 드나드는 신촌보다 규모가 더 컸기 때문이다. 1950~1960년대 한국 경제상황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클럽은 유흥산업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애스컴이 축소된 후 신촌의 클럽도 쇠퇴하였다. 1990년대까지도 몇몇 클럽이 남아 영업을 하며 옛 신촌 클럽의 영화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한국 최초의 기지촌이었던 신촌 클럽거리의 화려한 풍경은 오늘날 당시를 살았던 지역 주민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뿐이다.

신촌의 클럽 문화

신촌의 클럽은 전성기에 20여 곳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 클럽도 장사이기 때문에 개업과 폐업이 시시때때로 일어나므로 그 숫자는 언제나 유동적이다. 그럼에도 이 일대에서 청년기를 보낸 지역 주민 세 명의 기억을 따라 신촌 거리 일대의 답사를 진행하여 1960년대 후반 무렵의 신촌에서 영업했던 클럽의 상호와 위치를 복원해 본 결과, 신촌의 클럽은 17개소 남짓으로 종합해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2001아울렛 건너편 경원대로 전면에 있었던 클럽은 홍콩홀, 그린도어클럽, 아리랑클럽, 신일홀, 신장홀, 세븐클럽, 화이트로즈홀, 드림보트클럽, 서브달러클럽, 맘보홀, 신세계클럽 등 11개소로 파악되었다.

신촌에서 무대를 마련하고 라이브 연주를 하는 클럽으로는 신촌에서 가장 대규모 클럽이었던 아리랑클럽, 한국인 가수도 연주차 출입했던 드림보트클럽, 그 인근에 있었던 세븐클럽 정도가 신촌 주민들의 기억에 가장 강렬히 남아 있다. 그 밖의 신촌 클럽은 대체로 20~30평 규모로 작은 테이블 몇 개를 갖추고 있는 중소규모 클럽이 대부분이었다. 별도의 댄스홀 공간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신촌의 클럽 대부분에서는 테이블 사이로 적당히 움직이며 춤을 추고 음악을 즐기는 정도였다. 연주 공간이 없는 클럽에서는 라이브 연주 대신 LP판 등 음반을 전축으로 틀었다. 대다수 신촌의 클럽은 당시로서도 영세한 규모의 클럽이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클럽은 조명이 있었지만 어두웠다. 카페 싸리재 대표 박차영 씨는 클럽의 내부 모습을 전해주었다.

> 클럽 안은 담배 연기가 안개처럼 자욱한 게 소리도 엄청나게 커서 못 앉아 있겠더라구요.
> 클럽에는 한국인은 못 들어가요. 앞에 기도가 서 있어요. 한국인들은 일절 안 받아요. 우리는 친구가 공연을 하니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 무렵에는 다들 CCR 노래를 많이 불렀죠. 나중에 신촌 옆에 아폴로란 클럽이 생기는데 한국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인천에서도 많이들 갔어요.

신촌의 아리랑클럽은 오픈밴드 연주자들이 무대에 서기도 하였고, 미8군 출입 밴드였던 스타더스트 밴드의 드러머 박현오(남, 1942생) 씨에 따르면, 삼릉의 경찰악대 연주자가 일과 후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 삼아 저녁에 이곳에서 연주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드림보트에도 무대가 있어 보컬과 연주를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었다. 이 클럽에는 미군 공병대 인사들이 자주 드나들었으며, 이들을 만나고자 한국 장교도 간혹 드림보트를 찾을 때가 있었다. 신촌에서 자라고 평생을 살아 온 김영식 씨는 청소년 시절 드림보트를 찾은 백인엽 장군을 목격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김 씨에 따르면, 드림보트의 내부에는 중앙에 무대가 있었고 악단과 가수가 연주를 할 때에 플로어에서는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출 수 있는 구조였다. 또 공 형태의 구멍마다 다양한 빛을 뿜어내는 조명이 화려하였다고 한다.

신촌 클럽은 미군의 계급, 인종별에 따른 주 고객의 차이에 의해 성격이 달랐다. 즉, 백인과 흑인, 장교와 하사관 및 사병의 계급별로 출입하는 클럽이 달랐던 것이다. 삼릉 쪽의 인터내셔널클럽(International Club)과 유니버셜클럽(Universal Club)은 장교 클럽이었다면, 신촌의 클럽거리는 주로 하사관과 사병을 대상으로 하였다. 1973~1974년 20대 초반의 나이로 부평 애스컴에 복무했던 전직 미군 팀 노리스(Tim Norris)의 자전적 소설 『Seasons in the Kingdom』에 따르면, 백인 군인은 드림보트클럽, 그린도어클럽, 키클럽에 다녔고, 흑인 클럽에 가거나 다른 군인의 여자('양공주')를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서브달러클럽와 맘보홀은 흑인 클럽이었다.

애스컴이 대규모로 주둔했던 1960~1970년대 중반은 미국에서 흑인 인권운동이 전개되었던 시기였다. 1960년까지도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레스토랑에서 흑인과 백인의 칸을 분리했었고 흑인의 인권 신장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였다. 흑인 인권운동과 관련해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도 1963년의 일이었고, 1964년에야 미국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인종차별이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애스컴이 부평에 주둔했던 시기는 바로 이런 흑인 인권운동이 한창이었던 무렵이었다.

신촌에도 1960년대 전개되었던 미국의 인종차별 철폐 운동 기류가 영향을 미쳤다. 팀 노리스의 소설에 나타난 인종별 출입 클럽 구분에 대한 언급은 1970년대 중반 상황이었음에도 신촌에서 여전히 인종을 구별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 당시 신촌 클럽의 인종별 분화는 백인에 의한 흑인 차별보다는 흑인 인권운동의 여파로 두 인종 간의 갈등이 불거지자 서로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960년대 신촌에 거주했던 임종우 씨의 증언에 따르면, 신촌에서도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되었던 1968년 이후 흑인 병사들의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미군을 각별히 조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인종별로 차이를 보였던 클럽 선호도도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흐려졌다. 이 무렵 화이트로즈홀을 인수해 1990년대까지 운영했던 이종숙(여, 1938생) 사장의 기억에 신촌 클럽에서 인종별로 클럽을 다르게 다니는 풍경은 낯설다고 하였다.

부평 지역 기지촌의 위상 차이가 나게 된 것은 계급이 높은 미군과 낮은 미군이 왕래하는 지역의 외화 유입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신촌의 클럽 문화가 삼릉의 클럽이나 미군부대 내 클럽보다 한수 아래로 여겨진 것은 출입하는 병사들의 계급이 낮아 지역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외화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었다. 부평에서 '양공주'를 했던 고모 씨(여, 1934생)는 신촌의 '양공주'는 하위 등급에 속하였고, 그런 이유로 화장이나 머리가 야하게 되면 "신촌년 같이 되었다."고 농담을 하였다고 한다. 고모 씨의 증언처럼 신촌은 하사관과 사병을 상대로 하다 보니 클럽의 외화 유입이 적어 부평 기지촌 중에서도 그 위상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신촌에 사병이 주로 출입하게 된 데에는 신촌의 지리적 입지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촌은 애스컴 정문에 바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사병들이 신속히 부대에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는 점도 이러한 계급별 클럽문화의 차이를 야기한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마지막 신촌 클럽, 송도홀

애스컴은 1969년부터 1974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되다가, 물자 저장·영창·제빵 기능만 남기고 1973년 6월 30일자로 공식 해체되었다. 애스컴의 해체는 신촌 클럽에도 영향을 끼쳤으나, 클럽 운영의 전반적인 체계는 변함이 없었다. 다만, 신촌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미국 음악에 밝아 이들을 전문 DJ로 고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은 이전 시기와 조금 달라진 점이다.

신촌 클럽거리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던 화이트로즈홀은 송도홀이라는 이칭이 있었으며, 그린도어클럽, 키클럽과 함께 1990년대 중반까지 영업해 신촌 클럽거리를 마지막까지 지켰다. 화이트로즈홀은 현재 부일정육식당으로 바뀌었지만, 식당 내부 기둥과 바닥 장식, 2층 공간은 당시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화이트로즈홀의 규모는 대략 40평 정도였으며, 홀은 칸막이 없이 넓게 뚫린 구조로 구석에 무대가 있었다.

애스컴 축소 직후인 1970년대 중반 화이트로즈홀[송도홀]을 인수한 이종숙 사장(여, 1938생)은 뮤직박스를 갖추고 DJ가 활동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 음반은 사장이 직접 동대문시장이나 종로3가 등지에서 구매를 하였고, LP판 정품은 물론 불법 복사본인 빽판을 사는 일도 많았다. 1980~1990년대 초반 송도홀 음악은 주로 락앤롤 위주였고, 아하(A-Ha, 1985년 데뷔 노르웨이 그룹)나 비틀스의 음악도 틀었다.

1980년대 송도홀에는 손님들이 춤추는 공간은 따로 있지 않았고, 홀에 있는 테이블 사이 공간에서 흥이 나면 춤을 추곤 하였다. 싸이키조명이 하나 있었지만, 홀의 조명은 전반적으로 어두컴컴하였다. 홀의 한쪽 면 바에서는 웨이트리스 7~8명 정도가 서서 술을 팔았다. 그런데 안주는 별도로 팔지 않았다. 미군을 상대로 안주를 팔아볼 요량으로 김치나 땅콩을 무료로 서비스해 주면, 무료일 때는 잘 먹는데 사서 먹지는 않기 때문에 메뉴에 올리지는 않았다. 한창 때에는 맥주 10짝(1짝에 20병), 즉 200병 정도를 팔 때도 있었다.

1980년대 후반 무렵에는 댄서를 고용해 흥을 돋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댄서는 용산 미군부대 댄서 중 프로덕션을 통해 오디션을 거쳐 신촌으로 데려왔다. 간혹 한국 댄서가 있기는 했지만, 대개 필리핀 아가씨가 댄서로 많이 활동하였다. 댄서는 수시로 오디션을 통해 새로운 댄서로 교체하였는데, 동일한 사람이 계속 춤을 추면 인기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하였다. 댄서는 보통 사장 집에서 숙식을 하였다.

애스컴 규모가 대폭 축소된 후에도 신촌 클럽의 주요 고객은 미군이었다. 신촌의 클럽은 특수관광업종에 속해 한국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가끔 미국 헌병과 한국 경찰이 순찰을 돌며 내국인 출입금지가 잘 지켜지는지 관리·감독하였다. 신촌 클럽을 외화벌이의 장으로 삼았던 제도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이미 신촌 클럽이 애스컴 주둔 시기처럼 성업이 되지 않아서, 미군만을 상대로 해서는 매출이 너무 안 좋을 때도 있었다. 소위 맥주 값도 벌 수 없을 정도로 영업이익이 낮을 때에는 암암리에 내국인을 입장시키기도 하였다. 이때에도 내국인이 원화로 산 술값은 암달러상을 통해 달러로 교환해 정부의 관리 감독에 대처하였다. 내국인 손님을 받기는 하였지만 신촌 클럽의 주 고객은 미군이었다. 간혹, 미군이 클럽에서 파티를 하고자 문의를 해 올 때가 있었는데, 매장의 매출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미군 파티 장소로 대여하였다. 이처럼 1980~1990년대 송도홀은 미군을 주 고객으로 내국인도 가끔 출입하는 클럽이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휴일이 모두 성수기이기 때문에 휴일은 별도로 없었다.

클럽의 면세주는 일반에 공급되지 않고 특수관광업종 지정 업장에만 공급되었고, 이는 한국특수관광업협의회를 통해야 하였다. 면세주는 한국주둔 미군으로부터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었으므로, 외국산 술은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흔히 미군 상대 클럽이라 하면 외국산 맥주 등 주류를 팔았을 것으로 상상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적 이유로 관광협의회를 통한 국산 주류를 주로 유통하였다. 판매했던 주류는 맥주(오비·크라운), 스카치, 버번, 인삼주 등 술 이름이 너무 많아 외울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하였으며, 정부 인가를 받은 서울중앙협회가 인천이나 평택 등 전국에 지부를 거느리고 면세주를 독점 공급하였다.

면세주 판매가 클럽의 주 수입원인데, 면세주는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 나중에 미군 수입이 줄어 한국인을 받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어려웠다. 즉, 면세주 100만 원 어치를 팔은 장부가 있으면 그것을 달러로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였다. 그래서 미군이라도 한국 생활을 오래 해 원화로 술을 사 먹게 되면 그것을 달러로 바꿔 보고해야 면세주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편법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외화벌이를 하라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영업이익을 면제해 주고 주류도 면세주를 공급받는 것이었으므로 따라야 하였다.

신촌 클럽의 술은 면세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술값은 그다지 비싼 편이 아니었다. 1970년대 중반 무렵 술값은 대개 100원이나 150원 선이었고, 1990년대 중반에 2,000원까지 올랐다. 송도홀 이종숙 사장은 1970년대 자장면 한 그릇과 술값이 비슷하였다고 한다.

1990년대에는 신촌의 클럽도 영업이 예전 같지 않았다. 미군부대 인근 지역이 아니어도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클럽이 여러 곳에 생겨났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클럽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클럽은 식당 등 다른 용도 건물로 바뀌게 되었다.

3 사택과 주거 문화

1) 일제강점기 사택의 등장

부평 지역의 주거환경은 1940년대 이 지역이 군수공업의 중심이 되면서 집단 주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영단주택, 검정사택, 미쓰비시(삼릉) 줄사택, 다다구미(평화촌), 철도관사, 자동차사택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영단주택은 산곡동 근로자주택이라고도 하며, 경인기업회사라는 건설업체가 주도하여 지어진 집단 주택이다. 특히 한옥 형태의 사택을 건설하여 1940년 인천육군조병창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공급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광복 후에는 부평미군기지 관련 종사자들이 머물렀고, 이후 부평수출공단을 비롯해 한국베어링, 대우자동차의 근로자들이 자리를 채워갔다. 부평의 여러 근로자 주택지들 가운데 건설 당시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으면서 규모면에서도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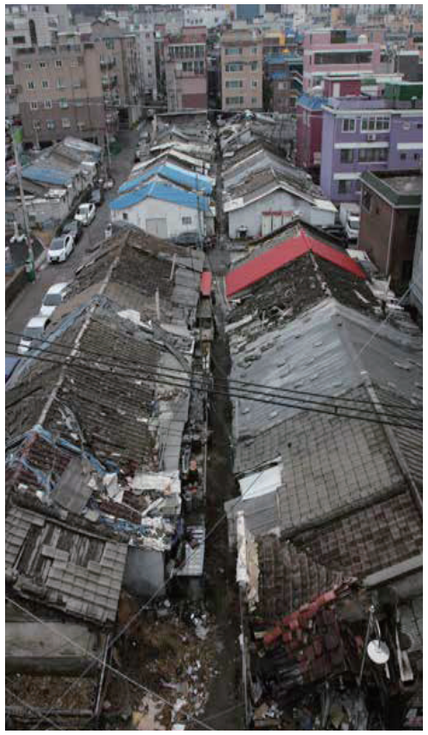
검정사택은 1940년대 초 66여 호 규모로 건립된 도쿄제강의 사택으로, 지붕 또는 외벽에 검은색 칠을 해 검정사택으로 불렸다. 도쿄제강은 부평조병창 민간 하청 공장이었으며, 1940년대 초반 경기도 공업용지 조성 문서 도면에 표기되어있다. 검정사택은 한 지붕에 4집이 사는 연립형 주택이며, 한 가구당 방 2개,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구조는 산곡동의 영단주택과 유사하며, 안방에는 부엌이 딸리고 다락이 있고, 건넌방은 안방과 별도의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청천1동 검정사택과 산곡동 영단주택 모두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산곡동의 영단주택이 대단지로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이라고 한다. 즉 산곡동의 영단주택은 대규모 주택지로 조성된 반면 청천1동 검정사택은 소규모 규모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검정사택 인근을 한때 도깨비시장이라고 하였는데, 과거 미군부대의 미제 물건을 거래할 때 단속이 나오면 게 눈 감추듯 순식간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 검정사택 골목은 트럭이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넓었으나, 해방 이후 서로 길 쪽으로 집을 내어짓는 바람에 골목은 좁아졌고,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담벼락은 허물어졌다. 검정사택은 미쓰비시 사택과 마찬가지로 연립 형태(4호·2호)로 부엌,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7년 항공사진에서 4호 사택이 12동, 2호 사택이 6동, 1호 사택이 6동이 확인되는데, 줄사택과 같은 모습이다. 동간의 간격이 제법 넓어 건립 당시 소방차 출입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가옥 확장으로 인하여 길이 협소해져 사람만 다닐 수 있게 변화하였다. 각 호당 면적은 4호 사택이 가장 협소하고, 2호 사택이 큰 편인데, 이곳에 오래 살았던 주민들은 4호 사택은 작은사택, 2호 사택은 큰사택이라고 불렀다. 4호 사택은 작은사택이라고 불렸지만, 삼릉(미쓰비시) 사택보다는 크다. 부평역사박물관에서는 2020년 7월 철거 전에 4호 사택 중 2개소, 2호 사택 중 1개소를 실측하여 자료로 남겨둔 것은 다행이다.

미쓰비시 줄사택은 삼릉사택(三菱舍宅) 또는 홍중사택(弘中舍宅)이라고 한다. 부평 2동을 삼릉이라고 부르는데, 삼릉은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회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1938년 히로나카쇼코(弘中商工)라는 일본계 기계제작회사가 사업 확장을 위하여 부평의 철도 변에 들어서서 제조를 시작하였다. 철로를 사이에 두고 공장의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사택이 들어섰는데 이를 히로나카상공사택[弘中商工社宅]이라 불렀다. 히로나카상공는 경영난에 빠지면서 일본 중공업인 미쓰비시회사가 부평 공장과 함께 인근 사택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고, 이때부터 이 지역을 미쓰비시의 한자 표기인 삼릉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 히로나카상공주식회사부평공장 사택촌 전경(부평역사박물관 소장)

1942년 7월의 미쓰비시 부평공장의 사택 용지는 5만 4,664평이었으며, 직원 사택이 88동 1,389평, 공원 사택이 26동 1,197평, 그 외에 합숙소와 공동목욕탕이 50동 1,221평 등 모두 합쳐 164개동 3,807평이나 되었다. 삼릉 줄사택은 동쪽의 부영로 760-1과 760-2번지의 구사택지와 서쪽의 760번지의 신사택지로 나뉜다. 구사택은 10호 연립으로 약 10동가량이 건설되었으며, 신사택은 단독 사택을 비롯하여 2호 연립 11동, 4호 연립 4동, 6호 연립 4동, 10호 연립 8동 등이 건립되었다.



❖ 미쓰비시 신사택

❖ 미쓰비시 구사택(부평역사박물관)

구사택지의 경우 도로의 확장으로 일부가 철거되었으며 많은 건물이 공가로 남아있다. 사택 내부에 화장실이 없고 건물의 한쪽 끝 간에 공중화장실을 배치하였다. 신사택지의 단독주택과 양성소 건물은 철거되었으며, 2동의 연립이 남아있다. 연립사택 중 6호는 모두 철거되었으며, 5호와 10호 연립사택 일부도 최근 사라졌다.

다다구미는 지금의 롯데백화점 앞 원통천(元通川) 복개변 일대를 가리킨다. 인천육군조병창 확장공사 때, 하청업자인 다다구미(多田組)의 현장 사무소가 있었던 곳이라서 붙여진 명칭인데, 광복 후 다다구미에는 빈한한 사람들이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였는데, 과거 다다구미가 있었던 곳이라서 마을 이름을 그대로 부르다가 1960년대 초에 평화촌이라 고쳐 불렀다.

1899년 서울과 인천 사이에 경인철도가 개통되면서 부평역이 설치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부평역이 들어선 곳은 부평도호부의 남쪽 지역으로 주막과 외양간이 있었던 빈한한 농촌이었다. 1940년 부평 지역이 군수공업의 중심이 되면서 부평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1일 2,000명에 달하게 되고 역사도 4배 이상 크게 개축하여 이전하였다. 부평역의 근무하는 직원도 1명에 2명으로 늘어났고, 관등도 5등 서기에서 1939년 이후에는 3등 서기로 올라갔다. 부평의 남쪽 부평동 697-22번지와 725-9번지에 철도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철도 관사가 들어섰다. 철도 관사는 2호 연립의 관사 16동 32호로 건설되었다, 당시 부평역의 직원은 2명이었으므로 철도 관사는 인천과 부천 지역에 근무하는 철도 종사자가 함께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관사는 목조구조물이며 외벽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고 지붕은 시멘트기와로 덮었다. 방은 6조 다다미방 2개, 4조 반 다다미방 1개 등 3개였으며 주방, 욕실, 화장실 등이 배치되었다. 방에는 모두 반침을 두었으며, 한 곳만 도꼬노마를 함께 두었다. 현재 철도 관사는 1호씩 2동이 남아 있으며, 상가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조선영단주택과 주거 문화

영단주택의 유형은 규모와 형태에 따라 갑(甲, 건평 20평)·을(乙, 15평)·병(丙, 10평)·정(丁, 8평)·무(戊, 6평) 등 5종류로 나뉘며, 병(丙)·정(丁)·무(戊) 형은 2호 연립으로 지어 블록을 구성하였다. 갑형(甲型)은 주로 중상층 시민을 위한 주택이었고, 을형(乙型)은 중층, 병형(丙型)은 중하류층, 정형(丁型)과 무형(戊型)은 하층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갑형은 분양을 원칙으로 삼았고, 을형은 희망자에 따라 분양하고 병형 이하는 모두 임대 주택으로 하였다. 그런데 영단주택의 공급정책은 일본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차별하여 갑형은 주로 일본인 관리나 사원들에게 분양되고, 을형은 일본인과 한국인이 반반 정도, 병·정·무형은 주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분양되었다. 그리고 욕실은 갑형, 을형, 병형에는 내부화되었으나 정형, 무형의 경우는 욕실은 없고 화장실은 가옥 안에 설치하였다. 위의 내용에 근거하면, 산곡동의 영단주택은 무형에 해당되고, 분양 이전까지 임대 형식으로 매달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현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산곡동 영단주택 가운데 현지주민들이 신(新)사택으로 호칭하는 곳은 부엌-방 등의 구조로만 이루어진 연립 형태이며, 주민들은 집 밖 공중화장실을 사용한 점에서 일반적인 영단주택의 유형과는 다르다.

❖ 상공에서 본 산곡동 노동자 주택 (홍승훈 작가)

산곡동 영단주택의 당초 건설 계획은 8가구(街區) 1만 3,013.8평의 부지에 조선식 목조 기와지붕 한옥으로 48동 704호를 배치하고, 각 가구는 6동 88호로 구성하는 것이었다. 현재 영단주택의 가곽(街廓)은 총 1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사택은 8가곽(주택)과 1가곽(학교·합숙소·후생복지시설) 등 9개 가곽, 신사택은 3가곽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사택은 총 8가곽에 48개동 704호로 배치되어 있고, 신사택은 총 3가곽에 36개동 216호로 배치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영단주택의 당초 건설 계획은 구사택만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신사택은 조선주택영단의 가장 작은 무형보다도 더 작은 규모였다.

산곡동 영단주택은 조병창 근로자를 위한 한옥형 가옥으로 ㄱ자형과 ㅡ자형으로 구분되고, ㄱ자형은 구(舊)사택, ㅡ자형은 신(新)사택이라고 현지에서 불리고 있다. 구사택은 글자 그대로 먼저 지어진 사택이고 신사택은 후에 지어진 것으로 구사택은 1943년에 완공하였다. 조선주택영단은 1944년 8월 부지에 대한 정지공사를 끝낸 후 건축 공사를 시작했으며 목표 수량은 500호 중 우선 연내에 214호 준공을 계획하였다(『매일신보』 1944년 8월 25일).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현재 신사택 호수(216호)와 비슷한 것을 보면 그곳으로 추정된다. 또한 당초 계획했던 500호는 해방과 함께 무산된 것으로 보이며, 연내 214호 준공계획도 해방 이후에 신사택이 완공되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근거하면 미처 완성하지 못하였다.

해방 이후 영단주택은 1948년 설립된 대한주택영단(大韓住宅營團)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후 6·25전쟁이 끝나고 1954년 주택에 대한 개인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1960년 개인에게 불하되었다. 이에 대한 사실적 내용은 최종욱의 「주택분양계약증서(住宅分讓契約證書, 1954)」, 「토지불하계약서(土地拂下契約書, 1961)」, 「등기권리증(登記權利證, 1962)」등을 통해 알 수 있다(최계순 소장). 「주택분양계약증서」에는 최종욱 소유의 주택(산곡동 474, 495호)은 1954년 10월에 분양 계약금 5만 1,600원을 지불하였는데, 계약 갑(甲)이 대한주택영단(大韓住宅營團)이 아닌 조선주택영단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1954년에도 조선주택영단에서 지은 집에 대한 명의는 여전히 존속한 것으로 여겨진다. 1961년 산곡동 87번지의 404호 「토지불하계약서」에도 갑(甲)이 조선주택영단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8평 토지에 대해 2만 8,000원에 불하를 하였고 계약금 5,800원을 먼저 지불하고 6개월 이내에 잔고 2만 2,200원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영수증은 대한주택영단(大韓住宅營團)에서 발행하였다.

「등기권리증」은 1962년 10월 17일 인천지원(仁川支院)에서 접수한 것으로, 산곡동 87번지 403-404의 14평 대지에 대해 대한주택공사가 최 씨에게 매도하였다는 증서이다. 「등기권리증」에는 발급 비용으로 3,600원을 받았음도 명기하고 있다. 위의 문서 등을 통해 보면, 1948년 대한주택영단(大韓住宅營團)이 설립되었지만, 제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산곡동 영단주택의 경우 해방 이후 미군이 조병창과 함께 접수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한편, 산곡동 영단주택의 경우 해방 이후 불법 증축과정이 심화되어 건평 6평의 건물이 14평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대한 개인 소유권 인정은 1961년 토지불하계약을 통해 해소되었다. 현지의 원주민들도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에 대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합법적으로 금액을 주고 인수하였다는 증언을 여러 곳에서 들을 수 있었다.

구사택과 신사택은 가옥 평면 구조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구사택의 경우는 조선 전통기와에 2개의 방과 부엌이 딸려 있으나, 신사택의 경우는 양기와에 방 1개와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신사택은 방과 부엌을 합쳐 9자(2700㎜)이고 그 사이에는 미닫이문을 설치하였다. 구사택은 집 내부에 뒷간이 있고, 좁지만 안마당이 있는 반면, 신사택은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안마당이 없는 ㅡ자형 가옥이다. 구사택의 공용화장실은 1가곽마다 1개씩 총 3개소가 있었다고 현지 주민들은 증언한다. 화장실 내부는 대변과 소변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재, 영단주택은 6·25전쟁 때 파괴되어 공터로 남기도 하고, 신축 건물로 개조를 하였지만 여전히 예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산곡동에 전통기와 판매점과 한옥유지보수 업체가 존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빈집이 증가하면서 불량주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20년사』에 의하면 "부평 산곡정의 조병창 근로자 사택에는 한국 사람만이 살았으며, 그 곳에는 오오가베(大壁)식의 공법을 피하고 종전의 한국식 심벽(心壁)으로 지었다. 이 단지는 도로가 넓은 것이 특징이며 그것 때문에 그 후 부평시가지 건설에 중심역할을 했고, 슬럼화를 면해 현재도 비교적 깨끗한 서민 주택가로 남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인 건축가 곤와지로(今和次郎)도 "이 주택지야말로 재래의 풍습이 그대로 들어있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있는 걸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점에서 어제의 신규계획 주택지(경성 도림동 영단주택지)를 견학한 것과 다른 유쾌함과 아름다움을 느꼈다. 조형적인 면이나 공간 계획적인 면도 만족스럽다. 다시 말하면 관습적 미의식에도 만족을 주면서 또한 습관적인 기능을 어떤 마찰도 없이 수행하는 무대로서 작은 불편도 없음을 통감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위의 지적처럼 영단주택은 당시 초가가 일반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건축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가 언급한 글은 1979년으로 이미 35년이 지난 현재 주택의 노후화와 불량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으며, 하나의 지붕과 담으로 지어진 연립 가옥으로 이웃집에 사생활이 노출되고, 같은 꼴로 지은 집이라서 자신의 집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

산곡동 영단주택지는 일제 말 건설 때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대문, 창 등 입면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기와지붕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각 주택의 형태나 전체 거리 풍경도 예전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구사택은 대문으로 진입을 하면 왼쪽에 뒷간이 위치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마당이 있고, 안마당을 통해 문간방과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 부엌공간은 안방과 문간방 사이에 위치하고, 아궁이의 불은 안방 온돌로 전달되며, 문간방은 아궁이를 통해 불을 지핀다. 신사택은 부엌과 방으로만 이루어진 평면구조로 부엌을 통해 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산곡동 영단주택은 한옥 형태를 가졌다고 하지만, 연립형태를 취하면서 전형적인 한옥과는 차이를 보인다. 현지주민들이 주택이라는 용어 대신 사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물론 조병창에서 근로자를 위해 지은 집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불렀겠지만, 일반적 주택과 다른 구조적인 특징을 지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사택은 많은 인력을 집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벽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 구사택의 경우 주택의 형태는 한옥처럼 꾸몄지만, 한 지붕에 벽면을 사이에 두고 윗집, 뒷집, 옆집을 배치하였다. 신사택의 경우는 부엌-방으로 배치하고, 7호를 병렬로 배치하여 과거 염전사택을 연상케 한다.

영단주택은 가곽을 중심으로 가옥을 배치하고, 1가곽에 6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동에는 보통 14호가 생활을 한다. 공중 대중시설로는 공중우물과 공중화장실을 들 수 있다. 공중우물은 구사택 지역에 1곽당 1개의 우물을 설치하여 6개동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최근까지 우물터 3개가 남아있었으나 나머지 우물터는 가옥에 포함되어 그 터가 사라졌다. 공중화장실은 화장실이 가옥 내부에 없는 신사택 지역에서 각 동의 가장자리에 한 개소씩 설치하여 14호가 같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침이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이 일상이었다고 한다. 인원에 비해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영단주택은 산자락을 따라 일렬 형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집 안으로 진입하기 용이하게 대문 앞에 계단을 설치하였다. 계단 수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그 단이 많아진다. 현재, 대문 앞 계단을 설치한 가옥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구사택의 안방과 문간방에는 각각 툇마루를 달았다. 안방과 문간방은 별도의 공간으로 각자의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툇마루를 통해야만 한다. 결국, 안방과 문간방에 기거하는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기 위해서는 안마당을 통해 각각의 툇마루를 이용해야만 한다. 이것은 영단주택이 부부 중심이 아닌 조병창의 젊은 근로자를 고려해서 방을 분배하였기 때문이다. 구사택은 벽면을 사이에 두고 앞집, 뒷집, 옆집 등 3호가 인접되어 있는데, 옆집의 경우 각각의 안방이 벽면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꼴이다. 안방은 집주인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데, 영단주택의 경우는 상대방의 사생활이 손쉽게 노출될 수 있다. 영단주택 사람들이 이웃집 상황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이며, 심지어 대화도 한다고 할 정도이다.

영단주택의 대문은 크기는 작지만 쌍여닫이문을 달았고, 방문은 미닫이문이다. 그리고 모든 안방에는 부엌 방향으로 다락을 설치하였고, 부엌은 방의 지면보다 1.5m 낮게 설치하였는데, 이런 구조는 한국 전통가옥의 형태를 그대로 따랐다고 볼 수 있다. 다락방은 가족구성의 수가 늘어나면서 아이들이나 노인들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영단주택은 해방 이후 평면상의 변화와 증축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해방 이전 일제라는 명확한 소유자가 있는 반면 해방 이후 그들이 사라졌고, 가족 수의 증가와 6.25전쟁, 공업화 등으로 인한 심각한 주택난은 대지 내 공지인 도로를 중심으로 증축이 이루어졌다. 주택의

증축은 한, 두 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영단주택에서 이루어졌고, 대로와 인접한 지역은 골목에 인접한 주택보다 증축 폭이 2배에 해당된다. 도로에 면한 주택들은 전면을 점포로 개조하거나 주거공간으로 확충하여 셋방이나 수납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점포들은 현재 경기불황으로 폐업을 한 경우도 많지만, 지금도 과거 점포를 알리는 간판 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의 증축을 통해 방의 공간을 확장시키고 마루를 달아 생활의 편리성을 제고하였다.

주택의 증축은 생활의 편의를 가져왔지만, 소방도로의 폭이 좁아져 차량은 물론, 두 사람이 지나가면 꽉 찰 정도이다. 산곡동 영단주택 도로는 남측의 20m 도로는 그대로 남아 4차선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단지를 남북으로 가르던 12m 도로는 도로 양쪽으로 상가들이 증축되어 들어오면서 8m 정도의 폭으로 줄어들었고, 단지 내의 주 구획도로 만든 24개의 소도로의 폭도 8m, 6m에서 각각 6m, 4m 정도의 폭으로 줄었다. 결국 과거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소도로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졌다.

주택의 증축과 점포의 형성은 기존의 건축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공동시설물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8개에 이르는 공동우물은 신축과 증축 과정을 통해 사라졌거나 복개되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우물은 바가지우물이었으나 후에 수도꼭지가 1개 달린 공동수도로 바뀌었다고 한다. 공동수도도 집안에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자연스레 사라졌다. 현재 예전 우물터 가운데 1곳만 수도를 설치하여 생수를 받고 있다. 시장 상가로 바뀐 영단주택은 앞을 모두 터서 상품 전시에 유리하게 만들어서 그 원형을 찾기 어렵다.

산곡동 영단주택지는 한때 지대의 높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산곡동 영단주택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연탄을 주원료로 사용하면서, 연탄재를 도로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지대가 높아지게 되었다. 결국, 아랫집은 도로보다 낮아졌고, 윗집은 도로와 높이가 같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 버린 연탄재의 높이가 1m 정도였는데, 도로에 보도블럭을 깔 때 연탄재를 파내어 본래의 높이를 되찾았다고 한다.

1980년대부터 영단주택의 실내가 현대식으로 개조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기와 밑에 흙이 떨어지면 아예 흙을 제거하고 함석으로 지붕을 교체하거나 벽면, 바닥 등을 시멘트로 고쳤다. 그러나 1980년대 가스 도입과 더불어 입식 부엌으로 개량되면서 공간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마당 부분을 거실과 부엌 공간으로 꾸미면서, 거실 공간이 가족의 담소와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안방과 문간방의 공간 구조가 확대되었고, 대문 입구 증축에 따른 화장실 이외의 별도 공간을 보일러, 세탁기 등 다용도실로 사용하게 되었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주민들은 집을 새로 현대식으로 짓거나 일부는 2~3층을 올리기도 하였다.

영단주택의 일부 주택은 6·25전쟁 때 폭격으로 사라졌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과거 조병창 양성소 식당은 6·25전쟁 때 화재로 전부가 소멸되어 현재 산곡1동주민센터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 이외의 소실된 주택지는 텃밭이나 닭, 돼지 등의 가축을 키우는 공간으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6·25전쟁 때 함포사격으로 파괴된 그 자리에 다시 집을 지으면서 주택의 형태가 바뀌기도 하였다. 현재 노인회관 옆 공터도 폭격으로 인한 것이며, 일부 공터는 교회나 주민센터, 의원 등 대형시설이 들어섰다. 한편, 영단주택 가운데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옆집이나 이웃집, 아랫집을 구입한 경우가 많다. 이때 반채를 구입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중간 벽을 사이로 집이 두 채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한채가 아닌 것으로 본 것이다. 반채를 구입한 주민 상당수는 벽을 터서 공간 구조의 변화를 통해 넓게 쓰거나 현대식 가옥으로 개조를 하였다. 반채 3개를 구입한 사례도 보인다.

최근에는 주택을 구분하기 위해 벽면의 색깔을 각각 달리 칠하기도 한다. 주택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엽립 형태이기에 고령의 주인이나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이 제집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단주택 주민의 가장 큰 수입은 임대와 점포 수입이다. 영단주택은 일제 말기 조선주택영단에서 인천조병창의 임대주택으로 관리했으며, 임대인들은 집세를 매달 지불하였다. 그런데 임대인들은 또다시 방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고 수익을 챙겼다. 그래서 한 집에 몇 가구씩 사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재임대를 받은 사람들은 조병창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 위주였다. 결국 임대인은 한 방에 여러 명에게 월세를 주고 임대료를 챙긴 것이다.

해방 이후 개인들에게 영단주택이 불하된 이후에도 집주인들의 주요 소득은 임대 수입이었다. 주인들은 쪽방을 만들고 화장실을 증설하는 등 집의 개조를 통해 임대수익을 높였다. 1973년 미군부대 애스컴이 산곡동을 떠나기 전까지는 미군을 상대로 하는 '양공주'나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챙겼고, 후에는 부평공단(1970~1980년대)·한국베어링공업(1973, 산곡동) 근로자와 공수부대(5공수와 9공수) 군인 등을 통해 임대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수부대와 공장 등의 이전, 인근 주변의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해 임대수입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그간 임대수입이 생활 수입의 중요한 원천이었던 주택소유자들은 더 이상의 소득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20년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상당수의 원주민들이 산곡동을 떠났고 그들의 집들은 서울 등 도시민들에게

팔려나갔다. 빈집 수의 증가와 주택의 불량화가 가속화되면서 임대수입은 아예 사라지게 되었다. 결국, 영단주택의 경기는 오래전부터 임대료 수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조병창에 근무한 사람들에 따르면, 일제시기 영단주택 내에는 점포가 없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조병창 근로자들은 조병창 내 상점을 통해 생필품을 구입하였는데, 그곳에서 배달을 해주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미군이 조병창을 접수하고 애스컴 부대가 들어오면서 영단주택을 중심으로 한 산곡1동에는 수많은 점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점포는 미군은 물론 미군부대와 공단 근로자, '양공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다.

미군이 떠난 후 미군부대 종사자와 '양공주'들도 함께 산곡동을 떠나갔지만, 공수부대와 부평공단 근로자들을 상대로 영업은 지속적으로 흥행하였다. 그러나 영단주택의 점포 영업은 공수부대와 공단 이전 이후 위축되었고, 대형 마트가 인근에 자리를 잡으면서 영단주택 내의 상당수의 점포가 폐업을 하게 이르렀다. 현재 영업을 하는 점포도 과거에는 늦게까지 장사를 하였지만, 현재는 손님이 없어 오후 7시면 문을 닫는다. 그런데 새우젓 점포는 인근 대형 마트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소래 등 멀리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영업이 유지되고 있다. 새우젓은 김장철이나 보쌈, 국 등에 양념으로 먹는다.

영단주택의 점포는 1960년대에 대로변을 따라 천막 노점상이 줄을 지어 장사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노점상은 산곡동에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공수부대, 베어링공장, 전남방직, 신한제분, 동양철강 등이 있어 장사가 잘되었다. 이들 노점상은 오늘날 점포와 시장을 구성하는데 밑거름이 되었고, 현재 시장과 대로(大路)에는 채소·생선·김·기름·곡물·계란·소금·곡물·과일·양파·고기·신발·옷·보석·이불·속옷·이발소·지업사·만두집·옷수선집·포장마차·꽃가게 등 다양한 점포가 있다. 점포마다 상품이 겹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현재 영단주택지 내 점포주는 서울 등 도시민이 다수이며, 어느 야채가게는 보증금 300만 원에 매달 15만 원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 과거 롯데마트가 자리를 잡기 전에는 장사가 잘되어 월세로 30만 원을 주었다고 한다.

점포 장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외상이다. 1960~1970년대에는 외상 장사가 일반화되었고, 월급날이면 외상값을 갚는 사람들로 붐벼 이날이 상인들에게는 대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외상을 가져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제대로 외울 수 없어 점포 주인들은 그 사람의 특징을 새겨 장부에 올렸다고 한다. 가령 둥뚱보, 딸 두집, 대머리집, 눈 한 짝 없는 사람, 새벽 아줌마 식으로 장부에 적었다. 당시에는 식품을 포장해서 팔지 않고 비닐에 직접 담아서 팔았다.

2014년 현재, 영단주택 내 점포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영업점이다. 즉, 음식점, 의류점, 슈퍼·잡화점, 미용실, 식품점, 학원, 학교 등이다. 그러나 지역 면적에 비해 독특한 업종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점은 고려할 만하다. 건축과 관련하여 자재 판매, 설비와 수리 등이 높은 비중(3번째)을 차지하는 것은 영단주택이 60년이 넘어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축을 손 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전통기와 판매점이 존재하는 것도 한옥으로 영단주택이 지워졌기 때문이다.

수많은 업종이 휴업을 한 것도 영단주택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미군부대와 공수부대 철수, 주민들의 이탈과 재개발에 따른 빈집 증가, 대형마트 입점 등의 요인으로 영업점 운영이 힘들어 폐업이나 장기간 휴업을 한 상가가 눈에 띄게 보인다. 특히 현재, 음식점 32곳 가운데 14곳이 폐업을 하였고, 슈퍼·잡화 20곳 가운데 7곳, 미용실 15곳 중 6곳, 부동산 8곳 중 2곳, 의류 매장 25곳 가운데 7곳, 건축자재점도 25곳 중 5곳, 전자(수리, 설치) 10곳 중 2곳이 폐업을 하였다. 그밖에 영업점 수량도 많지 않은 컴퓨터게임장, 이사 업체, 세탁소, 사진관, 이발소, 방앗간, 식품, 학원, 문구매장, 청과물 등 각각 1곳이 폐업이나 휴업을 한 상태이다. 1970년도 미군감축설이 나왔을 때 산곡동의 집·땅값이 급격히 떨어졌고, 흥청거리던 접객업소도 방매가 나붙었다. 또한 외상값을 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한 업소가 많았고 실제로 외상값을 떼어먹고 떠난 미군도 많았다. 당시 산곡동 33개 점포 중 22개가 문을 닫고 전업을 하였다는 기사도 보인다(『동아일보』, 1970. 7. 11). 한편, 일부 여성은 동거한 미군과 결혼을 하기 위해 국제결혼상담소에 결혼 수속을 위임하였으나 수속비를 떼어먹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하였다(『매일경제』, 1970. 12. 11).

마지막으로 영단주택의 영업점은 대로와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9~12통의 대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중요한 영업점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곳의 집값은 과거 다른 영단주택보다 2배 정도 비쌌으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주택 가격 차이가 사라졌다. 영단주택은 곧 개발을 목적에 두고 있어, 이후 아파트 단지로 바뀔 것이다.

4 외국인 묘지가 부평 인천가족공원에 자리 잡은 이유

부평구 부평2동 광학산 북사면에 위치한 인천가족공원은 인천 유일의 화장터와 납골당, 무덤이 조성된 장례공원이다. 인천가족공원은 도시계획에 의해 1970년 165만 ㎡의 부평묘지공원이 결정되었고, 1975년 주안에 있는 시립화장장이 이전, 신축되면서 1976년 묘지공원이 조성되었다. 1979년 장묘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묘지를 관리하다가 1996년 한국장묘관리연구회 인천광역시지회에 민간위탁 관리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인천가족공원은 승화원, 봉안당(납골당)과 묘지, 외국인 묘역, 자연장, 장사문화홍보관, 세월호추모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외국인 묘역에는 9,330기가 있으며, 여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이다. 1883년 개항 후 외국인들이 그 어느 곳보다 많았던 인천에 외국인 묘지가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이권을 노린 일본, 청국, 러시아, 미국, 영국, 독일 등 열강들이 물밀 듯 인천 땅에 상륙한 뒤 외국인 특정거류지역인 조계지가 설정되고, 외국인들은 그 곳에서 치외법권의 특혜를 누리며 생활하였다.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자연히 노환 또는 각종 사고로 사망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그러자 외국인들은 유해를 본국으로 보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 거주지 인근 야산을 골라 공동묘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청인 묘지(의장지), 각국 지계 외국인 묘지, 일인 묘지가 자리 잡기 시작해 현재 인천가족공원에 이장하게 이르렀다.

중구 북성동 8,000평에 달하는 외국인 공동묘지는 1883년 7월 첫 매장이 이뤄진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공동묘지였다. 외국과의 수교 이전에 인천에서 활동하던 외국인들이 숨지면, 일단 바다 인근 언덕에 묻었다가 나중에 공동묘지로 옮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다 1914년 지계제도가 철폐된 후 각국의 영사관이 관리를 하던 외국인 묘지는 1941년 3,000여 평만 남긴 채 5,000여 평을 철도 부지로 수용당하게 된다. 6·25전쟁 중에 일부 묘가 파괴되거나 유실되었던 것을 복원·관리하다가 주변이 개발되면서 1965년 연수구 청학동에 4,000여 평의 묘역을 조성해 이전하였다. 1986년부터 외국인묘지관리소가 운영하였으나 1997년 폐지되었고, 이후 기본적인 관리·운영만 하다가 2017년 5월 인천가족공원 내 외국인 특화묘역으로 이전하였다.

청학동 외국인 묘지 주인들은 개화기에 인천에서 체류하다가 숨진 선교사·의사·군인·세관원 등이다. 미국인 17기, 독일인 11기, 영국인 9기, 러시아인 5기, 이태리인 3기, 호주인·네덜란드인 각 2기씩, 프랑스·캐나다·스페인·폴란드·체코·중국인 각 1기씩, 미확인 11기 등 66기의 외국인 묘가 안치되었다. 그 가운데 인천에서 의료 선교로 널리 알려진 성공회의 엘리 랜디스 박사, 세창양행의 핸켈, 타운센드상회의 월터 타운센드 등 인천과 인연을 맺은 인물도 이곳에 안장되었다.

의장지(義莊地)라 불린 청국인 공동묘지는 1884년 3월 7일 정부와 청국이 맺은 「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契章程)」에 의해 생겼다. 장정에는 제물포에서 10여 리 떨어진 지대 안에 청상(淸商)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산을 골라 공동묘지를 만들 수 있다고 명기되었고,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넓고, 묘지를 지킬 수 있는 집을 지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청인들은 중구 내리에 임시 매장지를 만들었다. 그 이후 남구 도화동 인천대학교 자리, 만수동, 부평공동묘지로 세 차례 이전하였는데, 그때마다 정부 당국이 내세운 이유는 하나같이 개발이었다. 내리에서 도화동으로 이전할 때에는 일본의 식민지건설에 따른 시가지 정비가 그 구실이었다. 또 1959년 도화동에서 만수동으로 이전할 때에는 인천도시계획에 따른 개발, 1988년 만수동에서 부평가족공원으로 이전할 때에는 만수동 택지지구 조성 및 구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부평 공동묘지로 이전한 중국인 묘역은 우리의 묘제와는 달리 방형토광묘 형식을 취하고, 묘비와 봉분 사이도 적벽돌로 담장을 쌓았다. 묘비의 앞쪽 좌우에 지전(紙錢)을 태우는 화로가 조성되어 있다.

초기 한반도 거주 화교들의 경우, 대부분 삶의 터전은 고향인 중국에 그대로 둔 채 홀로 조선에 건너와 돈벌이를 하는 이른바 단신 출가(單身出稼)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따라서 인천에서 사망하면 시신은 배를 통해 고향인 산동성으로 되돌아갔다. 현재 인천파라다이스 호텔 근처에 위치했던 과거 산동동향회관(山東同鄕會館) 한쪽에는 배에 실어 고향으로 운구해 갈 시신을 보관하는 임시안치소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 시체안치소에 시신을 쌓아두는 것은 위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의 상례관에도 맞지 않았다. 그들이 시신을 고향으로 운구해가기 전까지만이라도 가매장할 수 있는 임시 매장지를 중구 내리(內里) 일대에 꾸렸다. 언제든 기회가 닿으면 고향으로 옮겨갈 시신이었기에 특별히 묘비를 세우지는 않고 간단한 표식 정도만을 해둔 일종의 가묘(假墓)였다. 인천 화교들이 기존의 내리 묘역을 반납하는 대신, 지금의 도화동 인천대학교 자리로 무덤을 옮겼을 당시에도 매장의 목적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59년 도화동에서 만수동으로 화교 묘지를 이전할 때에는 인천시는 50년간 무상임대 조건으로 만수동의 토지 2만여 평을 중국인 공동묘지 용도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에 인천 화교 사회는 만수동으로 묘지를 이전하기로 하고, 기존의 도화동 터를 매각해 화교 학교를 신축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만수동으로의 묘지 이전을 확정한 시점에 남은 도화동 공지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인천의 성광학원(선인학원의 전신)과 문제가 발생하였고, 급기야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일명 '부르도자 사건'이라 부른다. 성광학원이 도화동 화교 묘지의 토사를 무단으로 채굴해 간 것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아예 불도저로 무덤을 밀어버리고 그곳에 교사(校舍)를 신축했다는 데에서 비롯된 별칭이다.

인천 화교사회는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국에 진정서를 냈고 인천시는 이를 받아들여 성광학원의 신축 교사를 불법 건축물로 규정하고 자진 철거토록 명령하였다. 하지만 성광학원은 인천시의 시정조치에 불응하고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에는 화교사회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결국 이번 소송은 성광학원 측의 승소로 끝이 났고, 결과적으로 화교사회는 자신들의 공공재산을 눈앞에서 빼앗겨 버린 셈이 되고 말았다.

이후에도 중국인 공동묘지를 둘러싸고 화교들의 수난은 계속되었다. 심지어 그동안 독자적인 묘역을 조성해왔던 중국인 공동묘지가 지금의 부평 인천가족공원으로 옮겨가면서부터는 한국인묘역, 일본인묘역과 함께 공원 한쪽에 중국인 묘역이란 조그만 간판만 내걸리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금 무덤을 철거하고 납골당으로 개장(改葬)되었다. 인천시는 인천가족공원의 재정비를 통해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생태를 복원하여 궁극적으로 시민공원화 하는 작업을 서둘렀다. 이에 화교들에게도 중국인묘역에 자리한 봉분을 모두 없애고 화장을 통한 납골을 요구했던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인천 화교사회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인천시와 힘겨운 줄다리기를 벌여왔으나 지금은 중국식 봉안당과 사당[廟]을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일본인 공동묘지는 1884년 인천 중구 신흥동과 경동 사이의 작은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때 목숨을 잃은 자들로 1888년 2월 1일 신흥동에 일본인 전용 묘지와 화장장을 설치하였다. 1902년 여러 곳에 있던 묘를 법부대신 이하영 소유였던 율목동 야산으로 옮겼고 이때 화장장도 이전하였다. 화장장은 그 이후 지금의 인천소방소 자리로 옮겼다가 1933년 다시 주안으로 이전·신축하고, 1976년 지금의 부평공동묘지에 화장장을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인천가족공원 외국인 특화 묘역에 일본인 묘비군 50여 기가 모여 있으며, 승려, 순사 등 여러 계층임이 확인된다. 일본인의 상장은 대부분 화장을 하기 때문에 봉분 없이 묘비를 세우는데, 광복 이후 연고가 없던 무덤이므로 묘비만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5 영화와 문학 속에 비친 부평

극장은 시대에 따라 공연, 연극, 영화, 행사, 교육 등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단지 영화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용도로 이용되었다.

극장은 빡빡했던 학창시절 숨 쉴 틈을 제공했던 공간이었을 테고, 누구에게는 아련한 첫 데이트의 장소로 기억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나이를 속이거나 가발, 화장 등 특별한 방법을 찾아 그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누구나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특히 1984년은 교복자율화로 고등학생들이 어른 흉내를 내며 성인 영화 관람이 용이하였을 때 현장지도 나온 교사에게 걸려 끌려 나온 경우, 교사가 눈감아 주었지만 죄지은 양 불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본 경우, 반대로 데이트 중인 교사가 영화를 관람하다가 학생과 눈이 마주쳐 서로 민망한 경험 등이 있다.

1) 부평 최초의 영화관, 부평영화극장(富平映畫劇場)

영화 관람은 여가생활이지만 개개인의 감정을 움직이게 한다. 슬픈 영화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공포 영화를 보면 눈을 감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폭력물을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주먹에 힘이 가고, 부패한 자들을 다룬 영화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한다. 사랑을 다룬 영화를 보다 보면 자신이 그 속에 빠져들기도 한다. 또한, 사람들은 저마다 선호하는 영화가 있기에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아는 극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영화를 주기적으로 상영하고 사람들로부터 늘 관심을 유도한다.

인천의 극장은 일제강점기 개항장 주변으로 애관과 표관(瓢舘), 동방극장, 인천영화극장이 문을 열었다. 부평에는 한참 후인 1940년 극장 설립과 관련한 당국과의 협의가 진행되었다.

> [仁川] 부평의 공장지대는 날로 발전을 보게되야 일취월장의 발전상이다 이제 기인구(其人口)는 월평균 칠팔천 명씩 증가하는 비례로 본다면 금년 내에 능히 오만을 돌파할 것도 무난한 사실이다.
> 이 발전상에 착안(着眼)하야잇든 모모재벌(某夕財閥)에서는 발서(벌써) 대규모의 극장을 설계하야 방금 당국에 교섭중이라 한다.(『매일신보』 1940. 6. 22. 「부평역전에 대극장출현」)

> [富平] 약진도상에 있는 신흥도시 부평에 그 문화선양을 위하여 상설극장 설치 문제가 오랫동안 숙제로 되어 있던 지난 21일부로써 부평 아베 씨에게 경기도 당국으로부터 극장 설치 인가가 내리고 24일에는 건축허가가 내렸다.
> 기구는 아베 씨의 독영이며 장소는 부평 소화정(昭和町) 중앙시로 공비는 약 3만 원인데 근일간 착공할 것이라 하며 극장명은 부평영화극장(富平映畫劇場)이라 하고 뉴스문화영화 등을 매일 상영하게 되어 부평 발달사 상에 새 기록을 남기고 늦어도 오는 12월에는 개관될 예정이다. (『매일신보』 1943. 7. 27. 「상설극장 부평에도 설치」)

위 기사에 나온 모 재벌의 이름은 아베 타이스케(安部泰輔)다. 날로 외부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시라면 상공업뿐만 아니라 문화산업도 양적 팽창을 하게 되는데, 사업가라면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극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도 필요하지만 당국의 허가가 무엇보다 절실하였다. 당국과 교섭중이라는 기사가 1940년 여름에 났는데 실제로 설립 허가가 난 것은 그로부터 3년 후인 1943년이다. 당시는 일제가 성전(聖戰)이라는 미명 아래 전시 총동원 체제로 들어선 때였다. 부평영화극장이 설립 허가가 났다는 기사 바로 아래에는 '목재는 전력증강에' 라는 제목의 기사가 등장한다. 개인에게는 목재의 배급을 중단하고 군용시설, 산업방면 등 전력증강에 소용되는 곳에 우선 중점 배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때, 극장 역시 한가하게 영화를 상영하고 자유롭게 관람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는 없었다.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제작된 영화들 대부분이 전쟁 수행을 위한 총동원과 단합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부평영화극장의 설립도 전시체제에서 부평 공장지대 노동자들의 내부 단합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부평은 일제에 의해 군수기지로서 활용되었고 전시 기간 내내 군수물자 생산은 물론 수송에도 최일선에 있었다. 따라서 1943년 말에 설립된 부평영화극장도 1945년 신년에 2일간 벌어들인 수입을 군대에 헌금하는 등 전시 총동원 체제에서 영화관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 [부평] 부평영화극장(富平映畫劇場)에서는 섣달 그믐날과 정월 초하룻날 수입에서 순익금 3백원을 육해군0병금으로 바쳐달라고 2일 본보 부평지국에 헌금 기탁하였다.(『매일신보』1945. 1. 5. 「영화극장서 순익금헌납」)

부평영화극장이 헌납한 금액은 300원이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40년 쌀 80kg 1가마의 가격이 22.68원으로 현재 가치로 152,347원에 해당한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틀치 순이익금은 현재 가치로 2백만 원이 조금 넘는다. 이것으로 당시 부평영화극장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해방 이후에도 부평영화극장은 그 이름을 그대로 간직하고 영업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의미로 여러 회사와 단체의 광고가 신문에 실렸는데, 그중에는 부평영화극장도 있었다. 관주(館主)의 이름은 설립자 아베 타이스케가 아니라 임양성(任梁成)으로 바뀌었다(『대한일보』, 1948. 8. 18.).

2) 쇼도 보고 영화도 보는 부평극장

영화진흥공사(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펴낸 『한국영화자료편람: 초창기~1976년』를 보면, 인천에는 모두 15개의 극장이 소개되었고, 그 가운데 부평에는 4개의 극장이 있었다. 그런데 인천 중구와 동구의 극장은 개봉관인데 반해 부평의 모든 극장은 재상영관이었다.

부평의 4개 극장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부평극장이다. 1949년에 들어서 부평영화극장(1943년)으로 개명한 부평극장은 조선일보 연예란에 실린 1953년 연말과 1954년 연초의 상

연기록을 보면, 연극, 악극, 사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하였다. 공연 기간은 대략 1주일에서 보름 정도이고, 다른 지역 극장에서도 같은 공연을 한 것으로 보아 순회극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극장은 다중 집합시설로 지역의 큰 행사나 국회의원 선거 유세장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이기도 하였다.

부평극장의 정식 허가연월일은 1956년 3월 30일로 보인다. 좌석수는 829개인데, 좌석(776개)과 입석(53개)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좌석 규모는 중구 신흥동의 자유극장 다음으로 큰 규모이며, 앞서 말했듯이 주로 영화를 재상영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이 운영하는 멀티플렉스 극장이 등장하면서 2000년대 초 폐관하였다.

❖ 부평극장(출처 : 국가기록원, 1972년 생산등록)

다음은 1960년 8월 20일에 허가를 받은 금성극장(1963~1996, 인천시 북구 부평동 362)이다. 좌석은 입석 없이 490석이며, 경향신문(1962. 6. 17.) 기사에 짧게 금성극장을 언급하고 있다. 한미친선 강연회에 490석이 정원인 극장에 900여 명이 모였다는 것은 미군부대가 위치한 부평의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한미친선 강연회

[인천] 16일 인천시 부평동에 있는 금성극장에서는 시내 각 동장급 이상의 기관장 등 9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친선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강연회 연사에는 박 경기지사, 차 경찰국장, 재건국민운동본부 경기지부 차장 등 3명이었다. ❞

❖ 금성극장(출처 : 국가기록원, 1972년 생산등록)

금성극장과 부평극장은 도보로 5분 정도로 매우 가까운 거리이지만 경쟁하는 극장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극장으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부평극장이 「아마데우스」를 상영할 때, 금성극장은 「어우동」을 상영하는 식으로 영화팬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백마극장(북구 산곡동 87)은 352석 규모로 원래는 1950년대 후반 산곡시장 안에 서부극장이라는 이름으로 개관을 했다가 1963년 백마극장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백마극장은 1991년 폐업을 하고 1992년부터는 극장 1층 공간을 터서 임대를 주어 1층의 원형을 파악하기 힘

들다. 그러나 극장 2층의 모습이나 1층의 과거 출입문, 영화 간판 등은 예전 영화관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과거 1층에는 매표소 및 휴게소, 현관, 좌우 복도, 객석, 무대, 화장실과 창고, 변전실 등으로 공간 구성이 이루어졌고, 2층은 좌우 복도와 객석, 영사실로 꾸몄다. 영화간판은 한 사람이 그렸으며, 영사실은 5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였다.

백마극장은 부평역 인근이 아닌 산곡동 영단주택단지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영단주택단지는 해방 후 부평 신촌, 삼릉과 더불어 대표적인 기지촌 중 한 곳이었다. 흔히 백마장이라고 부르던 이곳에 극장이 들어선 건, 당시 산곡동 기지촌의 위상이 높았음을 나타낸다. 1973년 부평 미군기지 해체, 1966년 부평수출산업공단 기공식, 1969년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개통 등이 이루어지면서 부평의 성장 동력이 기지촌에서 공단으로 넘어갔다. 따라서 극장의 주요 고객도 공단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그러한 때를 전후해 1960년대 대한극장과 금성극장이 개관하였다. 1970년대 중반 부평은 군사도시에서 공업도시로 면모가 바뀌면서 극장의 주요 고객은 공장 노동자들로 대체되었다. 이 시기 노동자들에게 값싼 오락거리로서 영화 관람은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1980년대 백마극장은 영화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의 공연도 한 달에 한 번 꼴로 하였다. 당시의 연예인으로는 이미 고인이 된 서영춘, 장소팔과 고춘자, 허장강 등인데, 산곡동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공연 시간은 당시 통행금지 시간이 적용되는 시기인지라 11시 30분 이전에 마쳤다.

대한극장(북구 부평동 347)은 동인천의 애관극장이나 미림극장과 더불어 아직도 자기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극장 허가연월일이 1963년 11월 16일이고, 좌석수는 484석이다. 그런데 대한극장 역시 백마극장과 마찬가지로 다다구미라고 부르는 기지촌 맞은편에 위치했고, 부평 신촌이나 삼릉과도 연결된 장소였다. 부평역에 화물열차가 들어오던 시절인데다가 주변에 연탄공장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역 광장에 사람들이 붐비던 때라 다소 어수서한 환경이었지만,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았다. 골목길에 있던 부평극장이나 금성극장과 달리 대한극장은 대로변에 위치하여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이 아니었나 싶다. 대한극장은 멀티플렉스 등장 이전의 지역 극장이 어떠했는가 알고 싶은 사람에게 일종의 박물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극장이다. 매표소와 매점의 모습부터 극장 복도의 대기석까지 그 모습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대한극장에서는 시네마 이벤트라는 것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만든 작은 영화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상영할 수 있다.

대한극장은 현재 두 개의 상영관에서 최대 여섯 편의 영화를 교차 상영하고 있다. 부평역사 근처 대한빌딩 3층과 4층 두 개 층에 한 개씩의 상영관을 갖고 있으며 각 관은 202명을 수용할 수 있다.

부평에서 멀티플렉스 극장은 롯데시네마 부평역사점, 롯데시네마 부평점, CGV 부평점 등 3곳이다. 그러나 최초의 멀티플렉스 극장은 2000년 9월에 개관한 키넥스이었으나, 2007년 11월 「세븐 데이즈」 상영을 끝으로 폐관하였다. 그 자리에 롯데시네마 부평역사점이 리모델링을 거쳐 그 이듬해 9월 4일 개관하였다. 2003년 5월 2일 두 번째 멀티플렉스 극장인 네오씨네플렉스 극장이 청천동에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 극장도 그 다음해인 2004년 6월 19일에 CGV 부평점으로 재개관하였다. CGV 부평점은 현재 화질과 음질 면에서 인천에서 가장 뛰어난 극장으로 손꼽히며, 총 10개 상영관에 좌석은 1,552석이다. 롯데시네마 부평점은 2006년 3월 1일 개관했으며, 전체 상영관은 9개, 좌석은 총 1,523석이다.

3) 영화 속의 부평

일제강점기부터 영화 촬영소로서 부평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부평이라는 도시의 이미지가 화면 안에 들어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 소재는 '양공주', 노동운동, 연애, 취업, 가난한 삶, 인정 등이다.

신상옥 감독의 초기 영화 중에 「지옥화(地獄花)」라는 작품이 있다. 1958년 개봉한 이 영화는 신감독의 부인인 최은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이다. 부인이 주연 배우이고 남편이 감독인 영화였던 것이다. 이 작품은 한편으로는 기이한 로맨스와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감 넘치는 범죄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최은희는 이 영화에서 일종의 팜므파탈 격으로 형제인 두 남자 사이에서 질투를 유발하는 도발적 여주인공으로 연기한다. 그러나 최은희, 극중 이름인 소냐는 엄밀히 말해 '양공주'에 불과하다. 미군에게 몸을 팔아 생활을 영위하는 존재가 '양공주'인데 당시 관점에서는 장교를 상대로 하는 1급 '양공주'로 특별한 존재처럼 등장한다. 그런데 그런 소냐가 원래 동거하던 남자 영식을 배신하고 그의 동생인 동식을 유혹하다가 죽음에 이른다는 점에서 불륜과 치정을 다룬 이야기이다.

다른 한편 이 영화는 미군을 상대로 조직적인 범죄의 계획과 실천을 또 다른 이야기 축으로 하고 있다. 그 범죄라는 것이 다름 아닌 미군들의 보급 물품을 대량으로 훔쳐내는 것이었다. 열차로 이동하는 미군들의 군수품을 열차 통째로 훔쳐내려는 야심찬 계획을 고안해

내지만 결국 이들은 소냐의 밀고로 일망타진 당하게 된다. 영화는 개울이 넓게 흐르는 벌판에서 쫓고 쫓기는 가운데 소냐와 영식의 죽음으로 마무리된다. 살아남은 동생 동식이 자기를 짝사랑한 '양공주'와 함께 버스를 타고 귀향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이렇게 줄거리에 비춰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영화는 미군 부대가 주된 배경이다. '양공주'가 등장하고 미군의 군수 물품을 빼돌리는 이야기이므로 미군 부대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주로 등장하는 곳이 부평의 애스컴(ASCOM)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영화 속에 ASCOM이라는 표지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애스컴 주변의 '양공주'와 범죄 집단이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이고 이들이 살아가는 공간 역시 부대 주변이다. 그런 눈으로 보면 소냐가 살고 있는 집 역시 삼릉의 줄사택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영화는 군부대 내부의 공연장이나 댄스홀도 보여주고 있다. 미군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찍기 어려운 장면들도 많다. 1960년도 훨씬 더 지난 옛날 미군부대의 풍경과 애스컴 주변의 모습이 영화에 담겨있다.

이 영화는 아직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초창기 흑백영화이고 편집 기술이나 장면 처리, 이야기의 세밀한 전개 등의 면에서 어설픈 점이 매우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릴감 넘치는 총격전과 차량 추격신, 동식을 유혹하는 최은희의 고혹적인 연기 등은 지금 보아도 이 영화의 감수성이 최첨단이었음을 실감하게 한다.

그러나 대중 상업 오락영화인 「지옥화」에 등장하는 '양공주'와 미군부대의 풍경은 되새겨 볼 대목이 있다. 영화에서 미군부대는 범죄의 대상인 동시에 욕망을 실현하는 공간이다. 그곳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 역시 세속적 욕망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온갖 물자가 풍족한 미군부대와 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은 모두 욕망의 대상이다. 소냐가 뚜껑을 따 동식에게 내미는 캔맥주도 당시 일반인들로서는 구경도 하기 힘든 물건이었다. 그런 공간에서 소냐는 애욕 어린 눈으로 동식을 유혹한다. 이 역시 욕망의 대상이다. 부평의 미군 부대, 애스컴은 전쟁 이후 궁핍했던 시절의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풍요로운, 그렇지만 우리와는 동떨어진 별세상이었다. 그런 공간이 부평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 「지옥화」는 세속적 욕망에 어두워진 인간의 눈앞에 그런 별세상의 별스러운 이야기를 펼쳐내 보인 것이다.

「파업전야」는 한독금속 부평공장에서 촬영한 영화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노동자들과 이들을 탄압하는 사측과 중간관리자들의 대립과 갈등을 그리고 있다. 이 영화는 1989년부터 제작되었는데, 당시 「파업전야」 촬영을 위해 부평, 인천의 공단지대를 답사하였다고 한다. 이중 부평의 한독금속 공장이 촬영지로 선택된 것은 당시 한독금속 노조위원장이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었고, 노동쟁의로 직장폐쇄가 단행된 상태라고 촬영이 가능하였다. 「파업전야」는 총제작비 2,000여만 원이 투입되었지만 수익금은 예상외로 1억 원 안팎으로 집계가 되었다. 그것은 제도권 상영이 아니라 전국 각지를 돌며 공장과 대학 등지에서 약 80만 명이 관람하였기 때문이다. 한국 독립영화의 전설적인 작품의 배경이 부평공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이는 다시는 있기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21세기 최초의 트랜스 아시아 영화로 손꼽히는 「엽기적인 그녀」(2001)에는 부평 역전이 아주 또렷하게 여러 번 등장한다. 견우(차태현)가 술에 취해 떡이 된 엽기적인 그녀(전지현)를 업고 모텔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장면에서 부평역의 네온사인은 반짝인다. 또한 극중 전지현의 집이 부평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두 청춘남녀의 연애가 1호선을 두고 서울과 인천에서 벌어지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역시 2001년에 개봉한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는 여자상업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다섯 명의 여성이 성인 문턱에서 겪는 일종의 입사식을 그린 이 영화인데, 인천 여러 곳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중 부평지하상가는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장소로 선택되었다.

2010년대 부평 십정동 열우물마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여러 편 나온다. 이곳이 영화 촬영 장소로 선택된 이유는 영화의 내용과 일치하고 인원 통제가 쉽기 때문이다. 민병훈 감독의 「터치」(2012)는 십정동을 배경으로 빈곤과 고단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 감독이 십정동을 촬영지로 선택한 것은 한낮에도 밤처럼 너무 고요해서 자기 영화 내용과 잘 어울렸기 때문이다. 영화 여자 주인공인 수원은 집에 있어야 할 자신의 딸 주미가 보이지 않자 동네를 돌아다니며 찾기 시작한다. 그 동네가 바로 십정동이다. 빈곤의 풍경 속에는 빈곤 때문에 강퍅해진 사람들이 출몰한다. 이상한 소년이 갖고 있는 딸의 강아지 인형을 단서로 추적에 나선 수원은 곧 딸이 있는 곳을 찾아낸다. 문제의 장면은 그 다음이다. 간신히 딸을 찾고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수원은 바로 그곳에서 죽어가는 여자를 본다. 여자의 숨은 붙어 있지만 다리는 괴사 때문에 썩어 들어가고 있다. 누가 봐도 산송장인 여자는 가난한 자는 살기도 어렵지만 죽기도 힘들다는 진실을 드러낸다.

수원은 생활고 때문에 죽어가는 여자를 잊으려 하지만 좁은 방에 갇혀 서서히 몸이 썩으며 죽어가는 여자가 자꾸 떠오른다. 결국 그녀는 자신과 아무 연고도 없는 여자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돕는다. 붕괴 직전의 가정을 이루고 있던 수원과 동식은 각자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새벽에 조우한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돌아오고, 세상은 기적처럼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 영화 「터치」는 수원이 처음엔 보는 것조차 두려웠던 여자의 몸에 손을 대고 고통을 덜 느끼도록 처치를 하는데, 관객은 이 터치에 마음을 움직인다.

「은밀하게 위대하게」(2013)에서 십정동의 장소성이 잘 드러난다. 대중교통에서 내려 동네까지 들어가는 길목은 거리가 멀고 고갯길이 가팔라서 나이든 사람의 출입을 힘들게 한다. 내리막길은 겨울철에 위험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미끄러지기 일쑤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골목은 동네 아이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을 때 사라진 아이를 찾기 위해 동네 주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애를 쓰지만 결국 찾지는 못한다. 그러나 아이를 찾기 위해 온 동네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선다는 설정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갖게 한다. 영화에서는 북한의 엘리트 혁명 전사이자 남파 간첩인 원류환이 동네 주택의 지붕을 거의 나는 듯이 뛰어넘으면서 아이를 찾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십정동의 골목이나 저층의 주택들은 효과적인 세트 노릇을 한다.

「악의 연대기」(2015)는 부산과 동탄 신도시, 그리고 부평에서 촬영되었는데 제작진이 십정동 골목을 선택한 이유는 심리적 압박감을 극도로 올리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뷰티 인사이드」(2015)는 영화보다는 영화 속 주인공의 일터로 나오는 카페 발로(Ballo)가 더 큰 인기를 끌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31에 위치한 이 카페는 이후 각종 뮤직비디오나 화보의 촬영지로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요, 수많은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를 누린다.

4) 문학 속의 부평

근대 이전 부평을 상징하는 문인으로는 고려시대 계양도호부 부사를 약 13개월 정도 재임한 이규보(李奎報, 1168~1241)를 들 수 있다. 이규보가 전통 시대 부평을 상징하는 문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문인에 비해 부평을 다룬 시(詩)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숫자의 문제이기에 앞서 이규보가 노래한 부평 관련 시 중에는 주목해 볼 것도 적지 않다. 좌천된 스스로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부평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이규보의 시에서는 작은 일조차 부사(副使)에게 의지하려는 마을 사람들의 순박한 마음과 그들을 잘 포용하고 보살피려는 시인의 마음도 잘 드러나고 있다.

❝ 나는 본래 서생이라(我是本書生)
스스로 태수라 칭하지 않네(不自稱太守)
이 말을 고을 사람에게 부치니(寄語州中人)
나를 늙은 농부로 여기네(視我如野耄)
억울하면 곧 와서 호소하여(有蘊卽來訴)
어린아이 어미 젖 찾듯 하네(如兒索母乳)
비 내리지 않은 오랜 가뭄(久旱天不雨)
이 또한 나의 죄이네(是亦予之咎)
은근히 부로에게 사과하지만(慇懃謝父老)
속히 벼슬 그만두는 것만 같지 않네(不如速解綬). ❞

이규보를 제외하고 전통시대 부평을 노래한 시인 가운데 특이한 경우를 꼽으라면 조선 정조(正祖)대왕의 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왕이 직접 특정한 고을에 대한 시를 지은 사례가 없는 건 아니고 정조 역시 여러 고을을 시로 읊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개혁 군주라는 정조가 부평을 지정해서 시를 지었다는 것은 의미 깊은 일이다.

정조는 재위하는 동안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현륭원을 자주 찾았다. 행차 도중에는 김포에 있는 장릉(章陵)에 들러 제사를 모시고 가곤 하였다. 장릉은 인조의 생부인 원종과 그의 비 인헌왕후 구씨의 능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왕의 일행은 장릉에 도착하기 전 부평도호부에 잠시 머물며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는데, 이때 정조가 어사대에서 활을 쏘고 욕은지에서 손을 씻은 후 다시 길을 떠났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정조의 시와 문을 엮은 『홍재전서(弘齋全書)』에는 부평에 대한 시가 한 편 전한다.

❝ 계양산 빛 곱고 또 곱구나(桂陽山色極嬋妍)
너른 벌판 좋은 땅에 가을 곡식이 가득하고(百里秋登上上田)
백성은 풍요롭고 정사가 공평하면 그만이니(民富政平斯可矣)
누가 다시 무성현의 고사를 이을런가(誰能更續武城絃). ❞

개항이 되고 일본의 식민지를 겪는 과정에 부평은 점차 농촌이 아니라 공업도시, 혹은 군수기지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다. 부평은 이런 과정에서 조금씩 그러나 확연하게 과거의 옷을 벗기 시작한다. 전에 없던 공장들이 논과 밭 가운데 생겨나고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런 부평의 변화를 드러낸 식민지 시기의 문학작품은 과문한 탓인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신 해방 직후 부평을 배경으로 한, 매우 귀중한 작품이 발표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규원의 「해방공장」이다. 「해방공장」은 1948년 9월 『우리문학』 10호에 실린 단편소설이다. 원래 문학 활동을 했던 작가 이규원이 어떤 이유에서였건 부평의 공장에 취업을 하였고, 그 경험을 토대로 소설을 쓴 것이다. 그런데 「해방공장」은 해방 직후는 물론 식민지 시대에도 흔하지 않은 대공장 노동자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 더구나 1945년 8월 15일 정오부터 10월 1일까지 일본인 관리를 몰아내고 공장자치위원회를 결성하는 과정까지가 역동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더욱 의미 깊다. 실제로 당시에 여느 공장에서 벌어졌음 직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이 작품은 기록적 가치도 갖고 있다. 즉 해방을 맞아 생활의 현장인 공장에서 혼란스러운 과정을 어떻게 정리해갔는가를 매우 실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 무대가 부평 조병창에 위치했던 미쓰비시 제강 인천제작소로 추정되는 곳이어서 더욱 의미 깊다. 이 작품에는 곳곳에서 당시 부평의 모습이 세부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예컨대 도입부에 "서울과 인천을 이어놓은 식민도로(殖民道路)-말하기를 산업도로를 앞에 끼고 부평평야(富平平野)에 풍덩 주저앉은 이 군수공장은……" 같은 대목부터가 심상치 않은 것이다. 게다가 군수공장 노동자들이 해방 직후 재산과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숨어버린 일본인 관리자들을 찾아 나서는 장면 역시 매우 현실적이다. 소설에서는 현재도 일부가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줄사택과 관리자들이 거주하는 주택가가 등장하는데 이른바 삼릉 줄사택이라고 불리는 곳임을 짐작하게 만든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공장도 차량(車輛) 공장, 제관(製罐) 공장, 기계(機械) 공장, 목형(木型) 공장, 포탄(砲彈) 공장, 도장(塗裝) 공장, 창고(倉庫) 등인데 이는 부평의 조병창에 들어서 있던 시설들과 일치한다.

하인즈 인수 펜클(Heinz Insu Fenkl, 1960~)의 『고스트 브라더』 역시 문제작이다. 이 소설은 미국에서 1996년 발표된 미국소설이다. 헤밍웨이 문학상 후보작에 올라갔다고 번역된 책 표지에 인쇄되어 있다. 이름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작가가 한국계이다. 그는 부평에서 성장하였고 이 소설 자체가 작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전적으로 다룬 내용이다. 자연스럽게 부평이 주 무대로 등장한다. 주인공 인수의 아버지가 하인즈라는 미군부대 장교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다. '양공주'의 이야기나 미군부대 주변의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와 어머니, 그리고 그 시절 함께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부평의 모습은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는 자전적 소설이 으레 그렇듯 그리움과 추억의 공간이다. 간난이 누나의 죽음, 미군의 횡포나 궁핍 등 1950~1960년대 부평 미군 부대 주변의 삶에 배어있는 고난한 풍경도 담겨있지만 어린 소년의 시선은 삶의 실체를 파고들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이 소설이 문학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부평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에 대해 중요한 참고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만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에 비해 부평 미군부대가 실제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은 이원규의 일련의 소설들이다. 이원규는 1947년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성장한 작가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서곶에서 살아왔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부평 미군부대 폐품 하치장은 그야말로 보물창고였던 곳이라 회고하고 있다.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미군들이 쓰다가 버린 물건을 모아놓은 미군 폐품 하치장이었다. 요컨대 미군 쓰레기가 우리에게는 보물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소설가의 눈에는 미군의 실체가 그렇게만 보일 리 없다. 그가 형상화한 부평 미군 부대의 모습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우리 삶의 핵심적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깊고 긴 골짜기』(고려원, 1991)에는 이원규가 형상화한 부평 미군 부대와 그 주변에서 살아가는 힘없는 존재들의 모습이 여러 편 등장한다. 「겨울의 끝」과 「겨울새」는 모두 부평 미군부대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양공주'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왜 그들이 '양공주'가 되었는지, 그들이 '양공주'가 아니라 실제로는 한 아이의 어머니로(「겨울새」), 혹은 두 남자의 누이로(「겨울의 끝」) 살아간 삶을 보여줌으로써 '양공주'는 혐오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상처임을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겨울새」는 일제시대에 고등학교까지 나온 여자가 전쟁 통에 '양공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아등바등 애쓰며 살아간다. 혼혈아인 까닭에 외모부터 낯선 그녀의 아들 요섭을 주변에서는 괴롭히고 따돌리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심성이 착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읽는 이로 하여금 더욱 가슴 아프게 한다. 특히 '양공주'로서 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여인의 적나라한 모습과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 요섭, 또 아들에게 그런 장면이 노출된 어머니의 표정을 묘사하는 장면은 매우 충격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또한 비극적이다. 미군부대 주변 기지촌에

서 젊음을 바치고 육신의 병이 들었으면서도 아들만 생각하는 모성애는 절절한 바가 있다. 작가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요섭 어머니의 비극을 그려냄으로써 이것이 개인의 비극이 아닌 우리 공동체가 겪는 공동의 비극임을 역설하고 있다.

부평 미군 부대의 군수품을 훔쳐내기 위해 땅굴을 파 들어가다가 결국 목숨까지 잃는 상이용사의 이야기인 「달무리」는 '양공주'는 아니지만 전쟁의 비극과 전쟁이 불러온 궁핍함의 실체를 미군의 풍족함과 대비하여 그려내고 있다. 이원규는 이런 내용을 부평의 공간에 담아 현실감을 높여내고 있다. 그의 소설이 지닌 장점은 세밀하고도 서정적인 풍경묘사인데 여기에서도 특유의 공간 묘사가 빛을 발하고 있다.

전쟁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애스컴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오늘날에도 부평의 미군부대는 그 시절의 미군부대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신현수의 일련의 시는 이런 현실을 솔직 담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부평은 미군 병참 부대 애스컴 시티가 있던 곳으로 우리가 도저히 도달하기 어려운 세속적인 욕망의 대상이 집적된 곳이었다. 신비스런 물건과 상품들로 가득찬 미군부대, 초콜릿과 치클 껌, 드로프스(drops, 사탕)와 코카콜라로 상징되는 풍요로운 미제 물건이 그득히 쌓여있는 곳이 바로 부평 애스컴이었다. 거기에서 '양공주'들이 자신의 젊음을 돈으로 바꾸며 생명을 갉아먹었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과거와 별로 달라지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음을 부평이라는 공간은 소설과 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보리피리」와 「파랑새」로 유명한 한하운(韓何雲, 1921~1975)은 함경도에서 태어났으나 해방과 분단의 와중에 월남, 부평에 정착하여 살다 간 시인이다. 두루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나병(癩病), 다른 말로 한센병이 발병하여 1959년 완치 판정을 받았다. 완치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1975년 간경화로 타개할 때까지 평생동안 이른바 문둥이 시인으로 유명세 아닌 유명세 속에서 살아갔다.

한하운이 부평과 인연을 맺은 것은 나병환자촌으로 조성된 만월산 계곡에 자리를 잡으면서부터이다. 그는 자작시 해설집 『황톳길』 중에서 불모의 산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은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탓에 깊은 산골이라고 보기는 힘든 지역이다. 현재는 인천가족공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명절 등에는 인파가 몰린다. 그러나 인천과 부평을 가로지르는 산자락이므로 당시로서는 인가가 뜸한 산골이었을 것이다. 오랫동안 이곳은 이른바 문둥이촌으로 불렸던 것도 사실이다. 한하운은 월남한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부평에서 보냈다. 1975년 부평구 십정동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한하운은 부평에서 나환자들을 위한 성계원(成蹊園)의 자치위원장, 부평 신명보육원 원장 등을 지내며 나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그들의 치료를 위해 앞장섰다.

부평은 1960년대부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개발되어 서울 구로와 함께 한국의 근대 산업화를 이끌어가는 공업단지로서 위상을 확고하게 갖추게 된다. 노동운동에 기반을 둔 노동문학은 1980년대 민족, 민중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한국 현대문학사를 훗날 정리한다면 1980년대 민중문학, 그 가운데에서도 노동문학을 빼놓고 이 시기의 문학을 설명하기 어렵다. 예컨대 초기 노동자들의 운동을 수기 형태로 기록한 유동우의 「어느 돌멩이의 외침」의 예를 보자. 이 작품은 일종의 르포 문학으로 시골에서 너무나 가난해 먹고 살길을 찾아 서울로 온 한 청년이 부평공단에 취업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1973년 한국수출산업공단 4단지에 소재한 외국인투자기업 삼원섬유에 취직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다시 해직되는 과정을 그린 이 작품은 초기 노동운동이 부평에서 발아하는 과정에 대한 세밀한 기록이다. 본격적인 노동문학이 출현하기 전 노동자들의 수기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이 부평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넓은 차원에서 봤을 때 부평이 한국 노동문학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노동문학의 발상지로서 부평의 역할을 「어느 돌멩이의 외침」이 온전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작품은 당시 노동운동에 대한 충실한 기록물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초기 기록문학 이외에도 노동문학이 가장 빛을 발하던 시기의 작품도 부평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쇳물처럼」의 작가 정화진의 소설은 대부분 부평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쇳물처럼」도 소설의 내용에는 인천 공단이라고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이곳은 부평공단이라고 작가가 언급하였다고 한다. 그의 다른 작품인 「우리의 사랑은 들꽃처럼」이나 「규찰을 서며」 같은 곳에서는 명백하게 소설의 배경이 부평임을 알 수 있는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온다.

「우리의 사랑은 들꽃처럼」에서 여주인공인 노동자 순임이 자신이 근무하는 영보실업이라는 회사의 계장과 데이트 하는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부평역 주변은 유흥가가 모여있는 곳으로 그려져 있다. 실제로 80년대에나 있을 법한 레스토랑 이름도 그럴 듯하다. 부평역과 그 주변의 유흥가는 이렇게 공단과는 대비되는 공간으로 자주 등장한다. 정화진 소설도 그렇지만 앞의 유동우의 「어느 돌멩이의 외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사랑은 들꽃처럼」은 제목이 암시하고 있듯이 노동자들의 풋풋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 고향 오빠이자 같은 공장의 노동자인 명철은 순임을 남몰래 사랑하고 이를 눈치채지 못한 순임은 회사 관리직인 박 계장과 데이트를 한다. 그러다가 순임은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목격하고 박 계장이 자기와 함께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 명철과

순임은 노조의 단합 야유회 대절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부평역 광장에서 손을 잡고 함께 차에 오른다.

정화진의 다른 작품 「규찰을 서며」는 조금 더 뚜렷한 투쟁 의식과 노동자들의 연대를 드러내는 작품이다. 부평공단 내 공장들의 연쇄 파업 과정에서 구사대와 경찰들이 파업 현장의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를 편성해 일종의 보초를 서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보초를 서는 인물들의 관점에서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파업 투쟁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다시 가다듬는다는 내용이다. 파업 현장의 긴장감이 넘치는 만큼 노동과 자본의 대립은 앞의 작품들보다 훨씬 첨예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도 부평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데 앞의 경우와 조금 다르다. 주인공인 장원이나 종덕의 눈에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공간과 자본가의 욕망이 투영되는 공간은 서로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 호텔의 필요성과 로비를 위한 자본가의 비열한 행태를 연관시키는 것도 매우 의도적이다.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작가는 훨씬 더 목적의식적이다.

『부평 4공단 여공』(2012)을 출간한 정세훈의 시는 투박하지만 솔직하고 직설적이다. 여러 차례 다듬고 수정해서 잘 정련된 시어(詩語)가 아니라 그냥 보이고 느끼는 대로 툭툭 내뱉듯이 쓴 시여서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진다. 비유와 상징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감정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묘하게 절제된 언어로 부평 4공단의 변화상이 확연히 표현되어 있다. 이 시에서는 공장이 떠나가고 있는 공단의 현실과 나이 들어버린 옛 노동자들의 표정이 쓸쓸하게 다가온다.

참고문헌

이원규, 『깊고 긴 골짜기』, 고려원, 1991.

부평구, 『부평사』, 부평구, 1997.

인천광역시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2, 2007.

정세훈, 『부평 4공단 여공』, 푸른사상, 2012.

부평역사박물관, 『부평 산곡동 근로자주택』, 2014.

부평역사박물관,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 2015.

부평역사박물관,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2016.

이규원, 「해방공장」, 『작가들』 67호, 다인아트, 2018.

김현석, 『부평에 새긴 노동의 시간』, 국립민속박물관, 2018.

한만송, 『인천 미군기지와 양키시장』, 국립민속박물관, 2018.

정연학, 『부평두레놀이』, 인천광역시, 2021.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제2권 부평의 문화와 예술), 2021.

제 3 장

부평, 도시가 되다

富·平·史

제3장 부평, 도시가 되다

배 성 수 (인천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

도시란 무엇인가? 정치·경제·사회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교통로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며 촌락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의 부평은 1930년대까지 도시가 아니었다.

조선시대 경기도 서해안에 위치한 두 고을 부평과 인천은 인구와 수령의 지위 등 여러모로 규모가 비슷했던 곳이다. 그러나 1883년 인천이 우리나라 세 번째 개항장이 되면서 두 곳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서울과 가장 가까운 개항장으로 상인과 노동자가 모여들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근대문물의 도입 창구가 되어 근대도시로 성장해 갔던 인천과 달리 부평은 여전히 농업에 기반을 둔 촌락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899년 경인철도가 개통되고 부평역이 설치되었지만 그 모습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다. 부평역의 위치가 인구가 밀집해 있던 부평도호부 읍내(지금 계양구 계산동)가 아니라 5㎞ 이상 떨어진 동소정면 대정리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동소정면을 통과하는 경인철도 노선과 대정리에 설치된 부평역은 '부평'이라는 지명이 이곳으로 옮겨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1930년대 초까지 너른 벌판이 펼쳐져 있고, 일본군의 야포 사격장이 들어설 정도로 한적했던 부평이 도시의 모습으로 변해간 것은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다. 부평역 앞으로 펼쳐진 논과 밭은 공장을 짓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인천항, 서울과 연결되는 기찻길은 물자 공급과 생산품 운송에 편리했기 때문에 무기와 군수품을 생산하던 여러 공장이 부평역 주변으로 들어섰던 것이다. 한적한 촌락에 불과했던 부평 벌판이 각종 공장과 공장 노무자를 위한 주택으로 채워지면서 인구도 급증했다. 그와 함께 극장·은행·공회당·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섰고, 도로망도 확충되어갔다. 1940년 4월 인천부가 행정구역을 확장할 때 부평 지역을 포함시키면서 부평 출장소도 신설되었다. 삼국시대 이후 천년 넘는 시간 동안 줄곧 계산동에 있던 부평의 중심이 부평구로 옮겨오게 된 것이다.

1940년 4월 24일자 『매일신보』에 따르면 그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소화정(지금 부평동)의 인구만 6,000명이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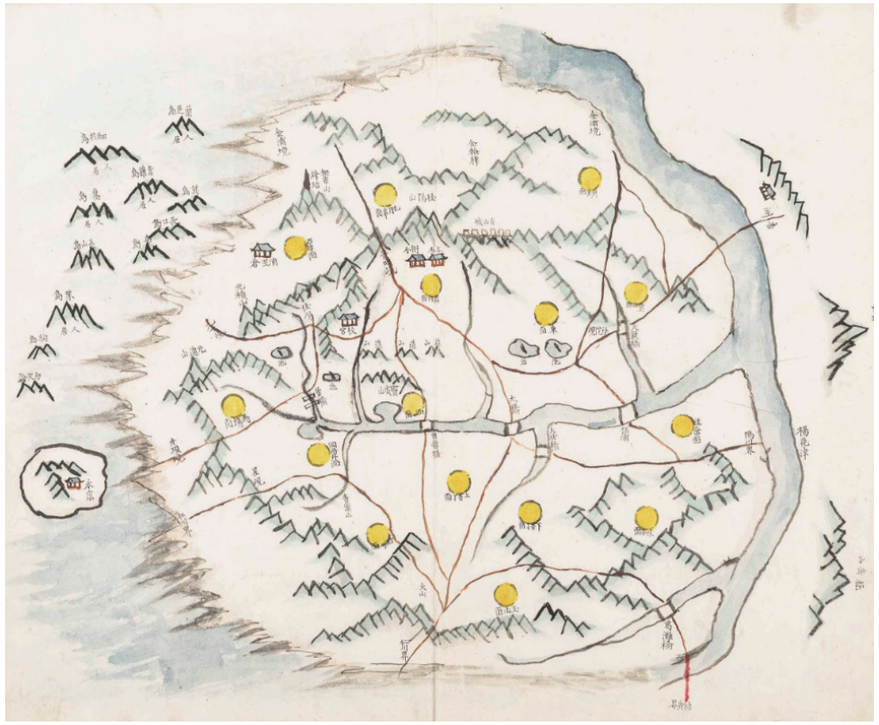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말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던 부평은 광복 후 인천의 또 다른 중심이 되었다. 부평에 주둔한 미군은 일본의 무기공장 조병창에 도시 안의 도시 '애스컴 시티(ASCOM CITY)'를 건설했고, 조선총독부가 조성하고자 했던 공장 부지로는 1960년대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수출 4공단이 만들어졌다. 생산품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수출 공단 인근에 부평 나들목이 설치되었다.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간선 도로망이 확충되고 택지가 조성되었으며, 수도권 전철 개통으로 서울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구제(區制) 실시 이후 북구에 속해 있던 부평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함께 부평구로 독립하게 되어 정치, 경제, 사회적 기능이 밀집하는 명실상부한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다.

1 계획도시, 부평

수도권 대부분의 도시가 그렇듯 부평은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곳이다. 다른 도시가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의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졌다면, 부평은 1930년대 말 조선총독부의 시가지계획으로 도시화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당시 일제는 어떤 목적에서 부평을 도시화 했을까?

1) 한적했던 농촌 마을

조선 후기 부평구의 영역은 부평도호부 남쪽에 위치해 있었고, 행정적으로 동소정면, 마장면, 서면으로 나뉘어 있었다. 원통산 너머의 십정동만 나홀로 인천도호부 주안면에 속해 있었을 뿐이다. 서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석곶면, 인천부와 맞닿아 있었고, 주민들은 원통현과 성현을 넘는 고갯길을 통해 인천을 오갈 수 있었다. 산줄기 아래로는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었으며 주안산(지금의 만월산)과 원적산에서 발원한 굴포천이 동북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 「부평군읍지(1899)」에 수록된 부평 지도(규장각)

경인철도가 개통되던 해인 1899년 간행된 『부평군읍지』에 기록된 인구가 1,904명,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1915년 조선총독부가 조사한 인구는 3,330명이었다. 대략 1,400여 명이 늘어나 43%의 증가를 보였지만, 부평군 전체 인구도 약 4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철도 개통과 부평역 설치에 따른 인구 밀집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부평구 지역은 관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이 많지 않았다. 조선 후기 부평부의 전체 인구는 대체로 1만 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고, 그 중 지금 부평구 지역에 해당하는 3개 면의 인구는 1,500명 안팎이었다. 1899년 동소정면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철길 위로 기차가 달리기 시작하고 대정리에 부평역이 들어섰어도 인구는 크게 늘지 않았다. 다만 <표 1>에서 보듯이 부평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현 부평구 영역(동소정면·마장면·서면)의 인구 점유율은 완만하게 높아지고 있었다.

표 1 현 부평구 영역과 부평도호부 전체 연도별 인구 증가표

연도	현 부평구 영역 (동소정, 마장, 서면)		부평부(군) 전체 15개 면		전체대비 인구 점유율	비고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1760년경	407호	1,509명	2,923호	10,898명	13.8%	여지도서
1899년	490호	1,904명	3,054호	11,534명	16.5%	부평군읍지
1907년	664호	2,191명	3,279호	12,463명	17.5%	한국호구표
1915년	630호	3,330명	3,609호	19,017명	17.5%	경기도지지조서

경인철도 개통과 부평역 설치가 부평의 도시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1910년대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을 병합한 일제는 식민지 통치 자금을 토지세로 충당하기 위해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 조사를, 1916년부터 9년 동안은 임야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 별로 토지와 임야의 지목(地目)과 소유주, 면적 등을 기재한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를 만들었다. 부평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 조사가 시작되어 1910년에 토지 조사, 1916년에는 임야 조사가 실시되었다. 1910년대 부평 지역의 토지 현황과 이용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토지조사부』의 지목에 임야가 있고, 『임야조사부』에도 대지와 전, 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914년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전국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부평구 지역에는 부천군 부내면에 대정리를 포함한 10개 마을이 있었고, 여기에 다주면에 속한 십정리를 포함하면 모두 11개 마을이 있었다. <표 2>는 1910년대 부평구 지역 11개 마을의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에 기록된 지적(地籍) 사항을 더하여 작성한 것이다. 전체 토지 면적 843만 4,267평 중 대정리가 177만여 평으로 가장 컸고, 제일 작은 곳은 45만여 평의 갈월리였다. 논과 밭을 합친 경작지 면적이 가장 큰 곳도 59만여 평의 대정리였고, 마분리와 산곡리, 청천리가 그 뒤를 잇고 있었다. 한편 주택과 상점 부지로 활용되는 대지 면적은 1만 8,000평의 갈월리가 제일 컸고 십정리와 대정리 순이었다. 경인철도가 개통되고 대정리에 부평역이 설치된 지 10여 년이 지났어도 역 주변의 변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2 1910년대 부평구 토지 분포 현황(『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 단위: 평)

지역	전	답	대지	임야	잡종지	분묘	합계
갈월리(갈산동)	245,905	103,698	18,001	32,354	23,392	29,304	452,654
구산리(구산동)	141,284	128,067	3,924	437,873	-	14,802	725,950
마분리(부개동)	144,391	345,209	7,381	110,051	190,362	6,656	804,050
대정리(부평동)	244,909	356,673	10,137	1,095,050	31,242	18,094	1,778,666
산곡리(산곡동)	232,221	266,537	8,164	976,263	39,603	787	1,523,575
후정리(삼산동)	131,679	285,922	7,989	36,155	196,228	8,849	666,822
십정리(십정동)	187,976	165,481	15,629	507,631	92,856	4,592	974,165
항동리(일신동)	150,007	158,900	9,609	204,818	1,653	5,108	530,305
청천리(청천동)	99,780	346,933	8,653	430,130	89,434	3,150	978,080
합계	1,578,152 (18.7%)	2,157,420 (25.5%)	89,697 (1%)	3,830,325 (45.4%)	664,770 (7.8%)	91,342 (1%)	8,434,267 (100%)

부평구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였는데 전체의 45.4%인 383만여 평으로 부평구의 절반 정도가 산이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경작지인 논과 밭으로 각각 215만여 평, 157만여 평이었다. 논과 밭을 합쳐 경작지만 312만 평을 넘는 면적으로 전체의 44.2%에 이른다. 부평구 전체의 약 90%가 산과 논, 밭이었다는 얘기다. 그에 비해 갈대밭 등의 황무지이거나 적치장, 공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인 잡종지가 66만여 평으로 7.8%였고, 건물이나 상점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약 9만 평으로 1%에 불과했다. 대정리에서만 보이는 철도용지 2만 2,540평은 부평역 일대의 땅이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1910년대 부평구 지역은 산줄기 아래로 논, 밭이 펼쳐진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푸른 들판이 펼쳐진 한적한 농촌 풍경의 부평은 1920년대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1924년 4월 14일자 『매일신보』는 부평역 북쪽 도로변에서 주변 농민을 상대로 주막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인 부인을 소개했다. 후쿠오카 출신의 '아끼'라는 부인이 부평 출신의 박자효(朴玆孝)와 결혼하여 아들 둘을 두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자 노모와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 주막을 차렸다는 내용이다. '이족(異族) 결합의 훌륭한 표본'이라는 기사의 일부를 소개해 보자.

> 평화한 농촌에서 주막생활
> 경인선 부평역 앞 평화로운 농촌 부천군 부내면 대정리 북편 길가에 조그마한 초가에서
> 선량한 농군들을 손님 삼는 주막이 있다.
> 이 주막에서 농군을 고객으로 삼고 술구기를 쥐고 있는 여자가 이족결혼의 표본이 될
> 만한 내지(內地) 부인임은 누구나 뜻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기사에서 묘사된 부평은 번화한 도시가 아니라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이다. 그리고 초가 주막을 찾는 손님도 농민이어서 흔히 생각하는 역전 풍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비슷한 부평의 모습이 1926년 3월 8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경인팔경(京仁八景)」이라는 연시조에서도 드러난다. 인천 출신의 미술사학자 우현 고유섭 선생이 지은 연시조로 선생은 당시 경성제대를 다니고 있었다. 경인열차를 이용해 통학하면서 차창 밖의 풍경을 시로 읊었는데 다섯 번째 시조'부평하경(富平夏景)'에서 부평 일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5. 부평하경(富平夏景)
> 청리(靑里)에 백조 나라 그 빛은 학학(鶴鶴)할시고
> 허공중천(虛空中天)에 우줄이 나니 너뿐이도다
> 어즈버 청구(靑邱)의 백의검수(白衣黔首)
> 한 못 푸러 하노라.

여전히 부평역 주변의 여름 풍경은 푸르른 들판에 학이 날아다니는 농촌의 모습 그대로였다. 여름날, 차창 밖으로 펼쳐진 부평의 푸른 들판을 바라보던 청년 고유섭이 풀지 못했던 한은 무엇이었을까?

우현 고유섭(高裕燮, 1905~1944)이 경성제국대학 재학시절 조선일보에 인천 용리(龍里) 고생(高生)이라는 필명으로 투고한 연시조다. 고유섭은 인천 용리(지금 용동)에서 출생하여 인천공립보통학교(지금 창영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 보성고등보통학교를 거쳐 경성제국대학에서 미학과 미술사를 전공했다. 1933년 개성부립박물관장에 부임하여 우리 고미술 연구의 초석을 다졌다.
보성고보에 진학하면서 기차로 통학했는데 당시 기차로 경성까지 통학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경인열차통학생회에서 활동하였다. 고유섭이 경성제대 1학년 재학시절 지은 연시조 「경인팔경」은 열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철도 연변의 풍경을 바라보며 느낀 감흥을 8개의 평시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연시조를 이루고 있는 8개 평시조에는 각각 효창원 춘경, 한강 추경, 오류원두 추경, 소사도원 춘경, 부평 하경, 염전 추경, 북망 춘경, 차중 동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순서가 경인열차 하행선의 방향과 일치한다.

2) 경인 메트로뽀리스 환상곡 - 경성과 인천을 이어라!

1938년 1월 6일자 『매일신보』는 두 면을 할애하여 「경인 메트로뽀리스 환상곡」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기사의 논지는 경성시가지계획에 따라 변모하고 있는 경성의 발전상과 장밋빛 미래에 집중하고 있지만,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성과 인천을 연결해서 더욱 장대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앞서 말한 운하, 전철, 신도로 등의 교통망뿐 아니라 인천과 부평 지역에 건설될 공업지대에 필요한 공업용수도 건설과 관광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경성과 인천을 블록화하여 메가시티를 건설하자는 이야기다.

농촌 마을 부평에 변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후반이었다. 그리고 불과 2~3년 사이에 부평은 도시의 모습을 갖춰갔다. 그 단초가 되었던 것이 1934년 6월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이하 '시가지계획령')」이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토지의 이용, 교통망 확충 등 도시의 공간 배치를 정부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 시대 도읍의 경우 『주례』「고공기」에 나타난 원칙에 따라 공간 배치가 이루어졌고, 근대기 개항장에 설치된 각 나라의 조계지 역시 계획적으로 구획되었지만 두 가지 모두 법령에 따라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시가지계획령은 우리 땅에 실시된 최초의 도시계획법령이라 할 수 있다. 시가지계획령은 1930년대 조선총독부가 추진했던 조선공업화정책으로 도시인구가 급증하자 시가지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뒤이어 1936년 4월 경성시가지계획을 필두로 각 도시별로 시가지계획을 마련하여 도시를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인천은 경성보다 1년 늦은 1937년 4월에야 인천시가지계획을 고시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1937년 7월 일본은 노구교 사건을 빌미로 중국을 침공한다. 중일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사실 일본은 중국과 전쟁을 벌이기 전부터 항구도시 인천을 주목했다. 만주사변 이후 중국과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 본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던 인천을 병참기지로 활용할 경우, 무기를 비롯한 군수품 운송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철도를 통해 조선 전역을 연결할 수 있어 자재 조달이 쉬웠고, 일찍부터 도시화가 이루어져 전기, 수도 등 공업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경성이라는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 노동력 확보도 어렵지 않았다. 그런 이유에서 인천부는 인천시가지계획이 공포되기 전부터 해안 매립과 부역 확장을 통해 부지를 조성하고 공장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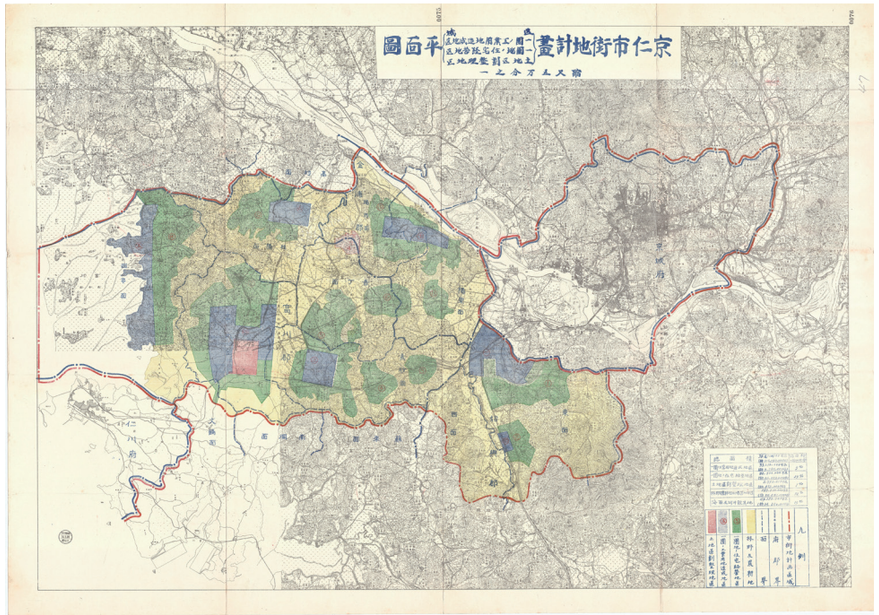
인천시가지계획 공포를 전후해서 경성과 인천을 연계해서 개발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인천과 경성의 유지들은 '경인일체화' 또는 '경인일여(京仁一如)'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언론을 통해 연일 역설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1937년 5월 경기도는 '경인일여조사회'라는 상설 조사 기구까지 설치했다. 이 논의는 경인철도의 전철 복선화나 경인운하 건설, 경인도로 개보수 등 주로 경성-인천 간 교통을 개선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지만, 나아가 교통 개선을 통해 두 도시 사이의 공간을 공업지역으로 개발하자는 구상을 담고 있었다.

3) 경인시가지계획 - 부평을 계획하다

인천시가지계획 이후 공론화된 경인일체화 구상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이 부평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입지 면에서 부평은 이미 도시화된 인천에 뒤지지 않았다. 경성, 인천항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었고, 노량진 수원지에서 인천으로 연결되는 수도관도 지나고 있어 기본적인 공업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다. 공장이 들어설 부지와 잠재적 노동력도 풍부한 편이었다. 일제가 중국과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수 공업지대로 부평을 주목한 이유다. 부평을 군수공업 도시로 개발하는 데 행정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 1938년 9월 조선총독부의 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개정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시가지계획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인 '일단지의 주택 경영'을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및 일단의 주택지 경영'으로 개정했다. 이제 광대한 주택단지나 공업용지 조성도 시가지계획에서 추진하는 시설로 정해서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은 것이다. 중일전쟁으로 군수공업 육성을 위한 공장 부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특정 부지가 공업용지로 조성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투기 수요가 몰려 땅값이 상승할 우려가 있었다. 그렇게 될 경우 정작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가지계획의 시설 중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을 포함시켜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광대한 토지를 일시에 매입하기란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어서 우선 시가지계획의 사업 구역으로 묶어놓고 장기간 매입을 가능하게 했다.

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행정적 장애물이 제거되면서 먼저 나선 것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1939년 2월 부평에 공장용지 100만 평과 공공시설 용지 15만 평, 주거지역 85만 평 등 모두 200만 평의 부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업용지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같은 해 10월 개최된 제5회 조선총독부 시가지계획위원회는 경기도의 계획을 확대해서 경성과 인천 사이 부천, 시흥, 김포군의 11개 면에 걸쳐 1억 6,000만여 평의 광대한 토지를 경인시가지계획의 사업구역으로 결정했다. 부평지구 등 11개 지구에 계획 사업으로 공업용지 약 1,000만 평과 2,480만여 평의 주택지,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지구 83만여 평을 조성

하는 계획이었다. 그 중 오류·괴안·고강·신정 등 4개 지구는 주택지로만, 구로·시흥·소사·서곶·계양·양천 등 6개 지구는 공업용지와 주택지를 모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부평지구는 주택지 436만여 평과 약 295만 평의 공업용지, 83만여 평의 토지구획정리지구 등 모두 814만여 평의 토지가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경인시가지계획 11개 사업 지구 중 세 종류의 계획 사업을 모두 추진하는 곳은 부평뿐이었다. 그만큼 부평은 조선총독부가 경인시가지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었다.



❖ 경인시가지계획 평면도

이러한 사실은 경인시가지계획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다. 1939년 10월 조선총독부 시가지계획위원회에서 계획안이 결정된 경인시가지계획은 1940년 1월 19일 고시되었다. 이어서 7월 9일 '부평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및 일단의 주택지 경영 사업'의 행정청으로 경기도지사를 지정한 데 이어 8월 12일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그리고 1941년 3월 21일 부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행정청으로 인천부윤을 지정한 뒤 사업을 추진해갔다. 경인시가지계획을 고시한 지 1년여 만에 부평지구의 계획 사업이 모두 닻을 올렸던 것이다.

1944년 1월 8일 조선총독부는 경인시가지계획 수정안을 고시했다. 1940년 인천부에 편입된 지역, 즉 부평지구와 서곶지구, 소사지구 일부를 계획 구역에서 제외시켰다. 그 결과 사업 면적은 당초의 63%에 해당하는 6,700만 평만 남게 되었다. 여기서 제외된 3,900만여 평을 인천시가지계획의 사업 구역에 포함시키는 인천시가지계획 수정안도 함께 고시했다. 그에 따라 인천시가지계획 사업 면적은 총 6,981만여 평으로 늘어나 경인시가지계획 사업 면적을 능가하게 되었다. 사실 1940년 4월 부평 지역이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경인시가지계획과 인천시가지계획 구역이 조정되어야 했지만, 그해 7월 조선총독부는 부평지구의 행정청으로 경기도지사를 지정했다. 경기도가 이미 320만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부평지구에 추진하고 있던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전쟁 국면에서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자 1944년에 가서야 두 시가지계획의 사업 구역을 조정하게 된 것이다. 이때 고시된 인천시가지계획 수정안은 기존 계획 구역인 인천지구와 신규 편입된 부평지구를 구분해서 수립되었다.

1940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40호에 의해 경기도 부천군에 속했던 서곶면, 문학면, 남동면과 부내면 등 네 개 면이 인천부에 포함되었다. 이로써 인천부의 영역은 지금 인천광역시의 내륙지역 대부분에 걸쳐 있었으며 총 면적은 기존 면적보다 여섯 배 가량 늘어난 161.7㎢가 되었다.

경인시가지계획은 광역계획이기 때문에 사업 구역을 공업용지, 주택지, 토지구획정리지구, 임야 및 농경지로만 구분했을 뿐 가로망이나 풍치, 공원 지구 등 토지의 세부적인 용도를 정해 놓진 않았다. 그에 비해 인천시가지계획에서는 가로망과 녹지지역 등 초보적이지만 도시기능에 맞는 용도지역을 설정하고 있었다. 부평지구가 인천시가지계획에 편입되면서 부평지구에 대한 용도지역 설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부평지구의 용도지역을 가로, 녹지, 풍치, 공원 등 네 개로 구분하여 설정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1944년 1월 인천시가지계획 수정안 중 부평지구 계획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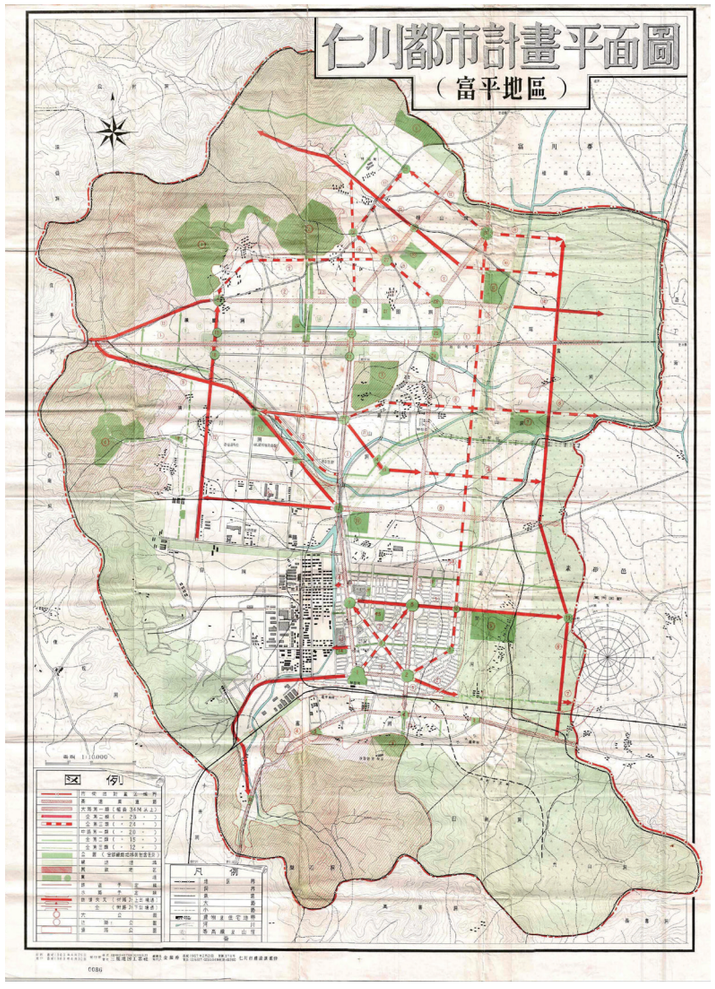
구분	가로								녹지	풍치	공원
	고속	대로(大路)			중로(中路)			교통광장			
		1류	2류	3류	1류	2류	3류				
내용	1선	8선	15선	13선	21선	12선	5선	32개	780만 평	290만 평	23개

부평 대부분이 촌락의 모습을 미처 벗어나지 못했던 1940년 1월 경인시가지계획이 고시되었고, 그렇게 마련된 제도적 틀 안에서 부평은 도시로 변모해갔다. 그러나 곧이어 시작

된 태평양전쟁의 여파로 경기도의 공업용지 조성사업도, 인천부가 시행했던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무엇하나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 그렇게 부평의 도시화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했던 경인시가지계획은 1944년 인천시가지계획에 그 역할을 넘겨주었고, 결국 부평의 도시화는 계획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채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광복 후 미 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곧이어 벌어진 6.25전쟁으로 인해 한동안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추진하지 못했다. 1963년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 정부에 의해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지만, 일제강점기 시가지계획령에서 명시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일 뿐이었다. 그 후 경제 성장에 따른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도시계획법」은 수차례 개정되었고, 일원화된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2년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중복되면서 2003년 1월 1일을 기해 폐지되었다.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광복 후 답보상태에 있던 인천시가지계획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1963년 1월 4일 정부는 건설부고시 제202호를 통해 인천도시계획을 재정비했고, 1965년 건설부고시 제1915호를 통해 상업, 공업, 주거, 녹지의 용도지역과 면적을 지정했다.

부평의 경우 1944년 인천시가지계획에 편입될 때 만든 평면도가 남아있지 않아 가로망과 공원 등의 배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1963년 인천도시계획을 재정비면서 첨부한 평면도를 통해 1944년 당시의 공간 계획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가로망은 격자형으로 계획되었는데 남북 방향으로는 부평역과 굴다리 오거리에서 계양구 계산동을 잇는 대로 1-1호선과 1-7호선이, 동서 방향으로는 지금 경인고속도로가 위치에 계획된 고속도로 1개선과 부평역 남쪽을 지나는 경인국도 대로 1-4호선, 부평구청에서 삼산동을 잇는 대로 1-8호선이 중심축이 되었다. 지금의 지도와 비교했을 때, 공원과 녹지지역은 도시계획이 수차에 걸쳐 수정되면서 큰 폭의 변화가 있지만 가로망의 경우 대부분 1944년의 가로망 계획대로 조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1964년 부평지구 도시계획 평면도(건설부고시 제1005호)

부평의 도시화는 1940년 고시된 경인시가지계획과 1944년의 인천시가지계획 수정안에서 마련한 틀 안에서 추진되었다. 광복 후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현실적인 목적에 따라 부분적인 변경만을 거듭해왔을 뿐이다. 경인시가지계획과 인천시가지계획 수정안, 그리고 인천도시계획에서 구상한 부평의 도시화는 어떤 방식을 통해 실현되었을까?

2 도시를 만들어간 토지구획정리

토지구획정리는 환지(換地)와 부담금 징수를 통해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시가지를 개발하는 도시계획사업 중 하나다. 즉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대신 지주의 소유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부지 조성과 하천과 하수구 정비, 가로망 확충 등의 구획정리를 실시하고, 사업이 끝난 후 정리된 토지를 지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주들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개발 주체는 토지매입에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데다 지주 부담금만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지주 입장에서는 소유토지의 면적이 줄어들지만 개발 후 지가 상승을 감안한다면 재산 증식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시가지 개발이 가능했던 이유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제강점기 이후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주축을 이루었다.

1) 도시 부평의 설계, 소화토지구획정리

1940년 1월 조선총독부가 고시한 경인시가지계획은 부평지구를 포함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광복 때까지 사업이 시행된 곳은 부평지구가 유일했다. 부평지구에서 추진된 사업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및 일단의 주택지 경영'과 '토지구획정리'였다. 조선총독부는 1940년 7월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행정청으로 경기도지사를, 이듬해 3월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행정청으로 인천부윤을 지정했다. 경기도는 부평지구 약 150만 평에 공업용지와 주택지를 조성하고, 인천부는 부평역 앞 83만여 평을 구획정리하여 택지와 가로망이 갖춰진 시가지로 만드는 계획이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경기도가 도채(道債)를 발행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토지매입과 부지 조성을 마무리한 뒤 이를 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이었고, 인천부에서 추진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 소유주가 징수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충당하고 정리된 토지를 지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초기부터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했지만 토지매입-부지 조성-부지 매각이라는 일반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단 재원이 확보된다면 사업 추진이 수월했다. 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매입비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토지소유주와의 협상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체되거나 무산될 우려가 컸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행정청을 경기도지사가 아닌 인천부윤으로 지정한 것은 당시 인천부가 부평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었고, 인천시가지계획의 대화지구(지금 숭의동 일원)와 송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 기간은 1946년 3월까지 5년이었고, 사업 면적은 당초 83만 2,000평에서 약 20여만 평이 줄어든 62만 평, 사업대상지는 지금 부평시장이 위치한 부평동과 부개동 일대였다.

인천부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대상 지역에 대한 기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질은 대부분 점토질 토양이었고 지세는 남서쪽에서 동북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도로는 부평역에서 계산동을 경유하여 김포로 연결되는 폭 8m의 도로와 부평역 앞에서 동쪽을 향하다 경인철도를 횡단해서 경인국도에 연결되는 폭 6m의 도로가 있을 뿐, 나머지는 농로 정도였다. 배수는 자연 방식으로 방치되고 있었고, 민가 밀집 지역에서는 오수 정체로 위생이 좋지 않았다. 필지 구획이 부정형인데다 불규칙했고 대부분 논과 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도로에 면해서 초가가 밀집해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1941년 10월 28일 조선총독부는 기본 조사를 토대로 수립한 인천부의 실시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때 처음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사업명이 등장하는데 부평이 인천부에 편입될 당시 부평동 일대를 소화정(昭和町)으로 이름 붙였기 때문이다. 사업 목적은 "일본 육군인천조병창을 비롯하여 부평 일대에 각종 군수공장이 속속 조업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 부지를 시가지화해서 주거와 교통, 위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당시 부평에는 인천조병창을 비롯해서 히로나카 상공 등의 공장이 이미 가동 중이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업용지 조성사업도 3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인천부는 부평역 일대를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공장 배후단지이자 시가지로 조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시 상황에서 일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던 것인지 인천부는 전체 사업 면적 62만 평 중 약 42만 7,000평을 제1단계 사업 대상지로 결정했다. 사업 기간은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사업비는 150만 원을 책정했다. 지주에게 징수할 부담금 48만 5,000원 외에 100만 원은 부채(府債)을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이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비 전액을 부담금으로 사용해야 했으나, 이를 일시에 징수하면 지주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것을 우려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부담금 일부와 부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공사를 진행하고자 했다.

대상 부지는 국유지 1만 9,060평, 인천부 소유지 892평과 사유지 39만 9,000여 평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논과 밭 등 경작지가 33만 평으로 전체 면적의 78%에 달했다. 실시 계획

가곽(街廓)은 도로에 둘러싸인 가장 작은 단위의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에 있어 가로 구획 단위로 사용된다. 일본이 유럽으로부터 도시계획의 개념을 받아들일 때 블록(Block)이라는 영어를 한자로 바꾼 것이다.

은 크게 가곽(街廓)의 배치, 도로 건설, 택지 분할, 배수 공사, 공공시설 조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전체적인 형태는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방사형 구조로 중앙 로터리를 중심으로 사방에 네 개의 로터리를 두고 그 사이에 가곽과 도로를 배치했다. 부평역 북쪽 방향으로 폭 40m의 도로를 신설하여 공업용지 조성지구에, 동서 방향으로 폭 35m의 도로를 건설하여 경인국도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계획했다. 시가지 조성에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배수 체계이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도시환경이 나빠지고 장마 때마다 침수 사태를 겪어야하기 때문이다. 인천부는 사업 부지의 동쪽과 서쪽에 배수로를 배치하여 굴포천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계획했다. 서쪽 배수로는 육군조병창 및 경기도 공업용지 조성 부지까지, 동쪽 배수로는 부평역에서 부지의 동쪽 끝을 따라 반원을 그리며 굴포천에 흘러들게 했다. 공공시설로는 사업지구 중앙에 소공원을 비롯해서 어린이 공원 4개소와 다섯 곳의 시장을 배치했다. 학교로는 1940년 6월 문을 연 공립 소화동국민학교(지금 부평동초등학교)와, 신설 예정이던 공립 소화서국민학교(지금 부평서초등학교) 부지를 확장하여 어린이 공원과 연결시켰다.

인천부는 실시계획에서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가져올 효과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선 장기적 효과로 '부정형의 전답을 주거지와 상업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평당 1~10전이던 토지임대료가 10~50전으로 증가할 것이고, 배수로 정비를 통해 평상시에도 오수가 정체되는 비위생적 환경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영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일시적으로는 '평당 2~30원이던 토지가격이 15~100원으로 증가할 것이며 도로망이 갖춰져 교통이 편리해지고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처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이 될 것이라 보았다. 결과적으로 소화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구와 가옥이 증가하여 토지의 발전을 초래하고, 인접 지역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 부지(파란선 안쪽이 1단계 사업 대상지다)

경인시가지계획의 하나로 추진된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장지대로 변모하고 있던 부평에 가로망과 배수로, 택지와 상업시설, 공원과 학교 등을 갖춘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도시화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이는 조선총독부가 이 지역을 토지구획정리 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선총독부가 경인시가지계획을 통해 부평의 도시화에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인천부는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을 통해 도시 부평을 설계했던 셈이다.

2) 미완에 그친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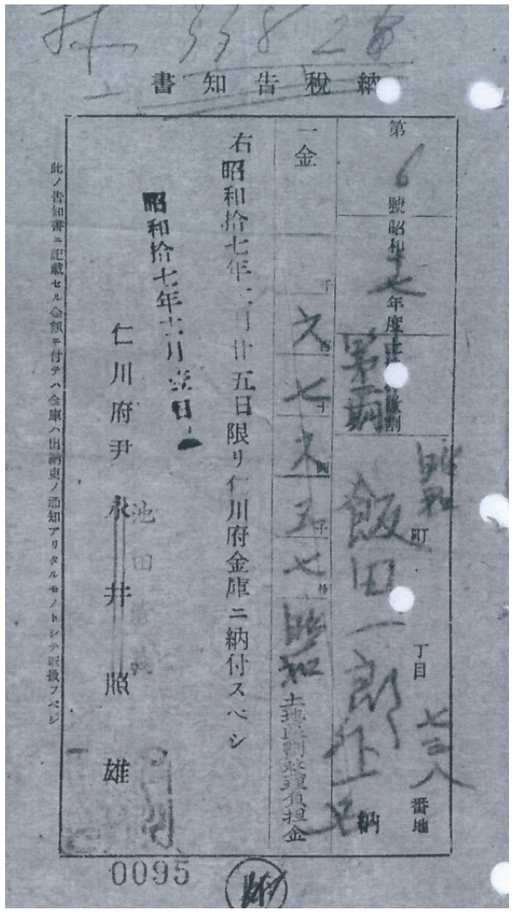
1941년 10월 28일 조선총독부가 인천부의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부평역 앞 42만 7,000평에 대한 구획정리가 시작되었다.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사업 구역의 토지 현황을 파악하고 감정 평가를 거친 뒤 환지(換地) 규모를 결정했고, 그와는 별개로 도로 및 배수로 건설, 택지 및 공공시설 조성 등 건설·토목 공사를 진행시켜야 했다.

인천부는 사업 구역에 해당하는 부평동(소화정)과 부개동(명치정), 갈산동(길야정)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감정평가에 착수했다. 그 결과 대상 토지 39만 6,453평의 총 감정가는 613만 6,087원으로 평당 평균 지가는 15원이었다. 이어서 구획정리 후 예상 토지가격도 산정했는데 총 면적은 25만 2,769평으로 14만여 평이 줄어든 반면, 예상 감정가는 1146만 5,064원으로 약 530만 원이 늘어났다. 평당 평균 지가도 45.3원으로 30여 원이 증가했다. 구획정리 후 전체 면적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의 면적을 도로와 배수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토지 면적이 줄어든 대신 전과 답이 대부분이던 지목을 모두 대지로 전환시키면서 땅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부평역 앞에 위치한 사업 부지가 시가지로 변모할 경우 땅값은 예상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었다. 지주의 입장에서 토지 면적이 줄어들더라도 지가가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표 4 소화구획정리 토지 감정평가 결과

구분	필지(가곽)	총 면적	총 감정가	평당 평균지가	비고
구획정리 전	502필지	396,453평	6,136,087원	15원	
구획정리 후	198가곽	252,769평	11,465,064원	45.3원	

인천부는 사업 대상지의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도로건설과 택지조성 등에 필요한 공사비 150만 원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주들에게 공사 부담금을 징수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어서 부담금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부채(府債)를 발행해서 공사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1941년 5월 17일 개최된 인천부회에서 향후 3년간 총 100만 원의 채권 발행을 의결했지만, 반년이 지난 11월이 되어서야 조선총독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인천부의 실시계획이 10월 말에 인가되었기 때문이다. 부담금을 징수하는 데 법적 근거가 되는 부담금 징수조례 역시 1942년 3월 말에서야 제정되었다. 조례에 따라 부담금은 구획정리 전의 토지 평가액과 구획정리 후 토지의 예상 평가액 간 차액으로 산정하고, 매년 5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징수하는 것으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사업이 시작되는 1941년부터 부담금을 징수해야 했지만, 조례가 이듬해 4월에야 제정되었기 때문에 1942년 1기분부터 징수에 들어갔다. 1943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인천부가 걷어 들인 지주 부담금은 33만여 원으로 계획대로 징수되고 있었다. 그 외에 부채 발행에 의한 차입금도 65만 원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의 문제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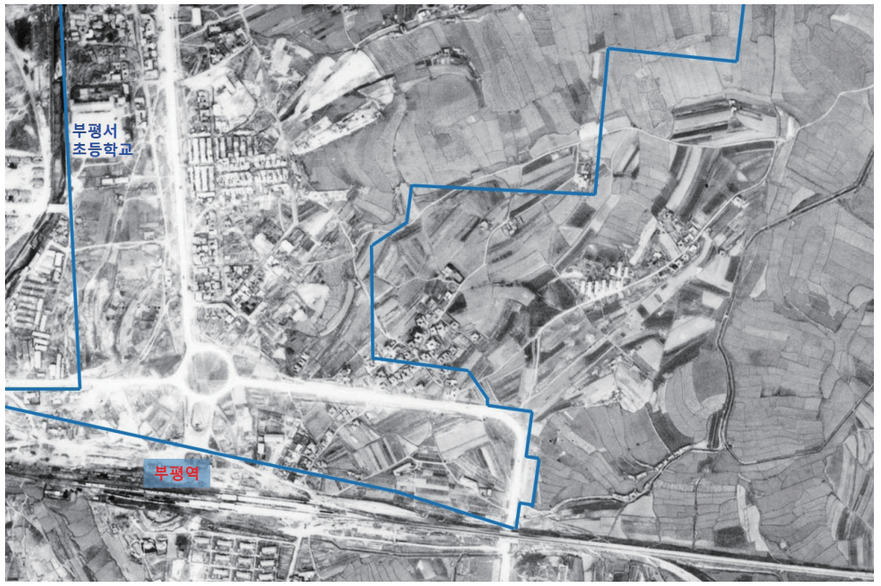


❖ 1942년 2기분 부담금징수 고지서

그러나 재원이 확보되었어도 공사는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직후인 1941년 11월 8일, 인천부는 1941년도 제1기분 공사의 시공사로 주식회사 공영조(工營組)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28만 7,900원, 준공일은 1942년 8월 31일로 공사 기간은 9개월 21일이었다. 아직 부채 발행과 부담금 징수를 위한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공사에 필요한 자금 30만 원을 관계자금 대부로 마련했다. 계약 다음날인 11월 9일 공사에 들어간 공영조는 매달 두 번씩 공정 보고를 제출하면서 공사 속도를 올려갔다. 그러나 전쟁 국면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될 수 없었고, 공영조는 준공을 보름 정도 앞둔 1942년 8월 16일 첫 번째 공기 연장을 신청했다. 토사 운반용 레일이 철도운송 관계로 두 달 가량 늦게 도착했고, 주 노동력이었던 근로보국대가 4월에야 투입된 데다 농번기인 6~7월에는 보국대원 모두를 귀환시켜야 해서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후로도 세 번에 걸쳐 공기 연장을 거듭한 공영조는 결국 광복이 될 때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

소화토지구획정리 공사는 1단계 사업의 제1기분 공사마저도 준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광복을 맞이했다. 그리고 인천부는 8월 23일 공정율 92.3%에 타절(打切) 준공 처리했다. 광복 직후인 1947년 부평역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당시 공영조에서 실시한 구획정리 공사가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우선 부평역 북쪽으로 광장과 로터리가 조성되었다. 여기서 김포로 향하는 남북 간 도로(지금 부평대로), 경인가로로 이어지는 동서 간 도로(지금 경원대로)가 뚫려 있다. 부평역 로터리 동북쪽으로는 가곽 일부와 도로가 구획되어 건물이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공영조가 맡았던 제1기분 공사는 부평역 로터리를 중심으로 광장과 도로, 가곽 일부를 조성하는 공사였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인시가지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은 1기분 공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렇게 광복과 함께 부평의 도시화는 일시 중지 상태가 되었다.

타절(打切)이란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변고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중도에 포기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타절 준공이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공사를 중단해야 할 경우 현 상태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 1947년 부평 지역 항공사진에 표기한 소화토지구획정리 사업 대상지

3)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과 부평 역전의 변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와 인천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은 결국 미완에 그치고 말았다. 실제로 토지구획정리를 통한 부평의 도시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까? 우선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가지계획령」 제10조에 의한 허가신청서류철(이하 서류철)'을 통해 살펴보자. 그 중 소화토지구획정리 부지에 해당하는 신청서는 1941년 5월 8일 인천부가 신청한 상수도 송수 가압펌프실 신축의 건을 시작으로 1944년 12월 27일 가모토 에이이치(駕本榮一)가 운영하는 가모토 철공소의 사택 신축 허가 건에 이르기까지 모두 113건이다. 가로망 조성이나 배수로 건설 등 구획정리에 따른 공사가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환지가 끝난 토지의 소유주들이 이곳에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 등을 위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한 서류들이다.

시가지계획령 제10조는 행정청이 집행하는 시가지계획사업의 부지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또는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수리, 철거가 필요할 경우 등에 있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이 서류철은 1939년 10월부터 1944년 12월까지 5년 3개월간 인천부가 접수하여 경기도에 신청한 것으로 지금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모아둔 서류철이라 할 수 있다. 서류철에 있는 신청서의 종류에는 토지 지목의 변경을 신청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서'와 건물이나 구조물의 신축, 개축, 증축을 위해 신청하는 '공작물 신(증)축허가 신청서'가 있다.

5년 넘는 기간 동안 시가지계획령 제10조에 의한 허가 신청 건이 113건이라면 1년에 20건 남짓한 신청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생각보다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전시 국면에서 자재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리 적은 숫자도 아니다. 신청에 대한 경기도의 허가 여부도 알 수 없고, 설령 허가되었다고 해도 자재난으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어쨌든 신청 서류만 보자면 113건의 신청 건 중에서 인천부와 경성전기가 공공시설 조성을 위해 신청한 서류가 18건이고, 민간에서 점포와 주택, 사무실 건축을 위해 신청한 것이 95건이다. 민간에서 신청한 95건 중 주택이나 사택의 신축과 증개축에 관한 건은 17건에 지나지 않지만, 점포의 신축은 36건에 이르고 있다. 점포와 주택의 기능을 모두 갖춘 점포주택의 신축 건도 27건에 달해 점포를 짓겠다고 신청한 건만 따지면 63건으로 전체 건수의 66%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식당과 극장, 목욕탕, 병원 등 구체적으로 업종을 기입한 신청 서류도 보인다. 서류철에 나타난 대로 허가가 이루어졌다면 소화토지구획정리 사업부지는 상점과 주택이 어우러진 도시로 변모하고 있었을 것이다.

신청 서류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신청 물건의 지번 및 위치도가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일 경우 설계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1942년 5월을 기준으로 지번의 표기 방식에 변화가 생겨난다. 신청 물건의 대상지를 표기할 때 지번을 사용하던 방식에서 가곽의 번호를 쓰게 된 것이다. 인천부가 토지 현황조사와 감정평가를 끝낸 뒤, 각각의 가곽에 번호를 부여했던 시점이 이때가 아닌가 싶다. 게다가 공영조에서 구획정리 공사에 착수한 지 6개월이 지난 시기로 일부 구간의 도로와 가곽 조성이 한창일 때였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가곽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는 것은 신청자가 이미 환지 절차를 마치고 부담금을 납부한 지주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1단계 사업에서 조성되는 가곽은 모두 189개였다. 그 중 서류철에 나타나는 가곽의 번호는 27개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그만큼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음 지도는 27개의 가곽에 113건의 신청 건을 각각 표기한 것이다. 이를 보면 부평역 로터리에서 북쪽으로 뻗어있는 지금의 부평대로를 따라 신청 건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영조가 맡았던 1941년도 1기분 공사는 부평역 로터리를 중심으로 부평대로 및 경원대로 건설과 일부 가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지주들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조선시가지계획령」 제10조에 의한 허가를 신청했을 것이다. 이는 1947년 부평역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과 113건의 신청 건을 가곽에 표기한 지도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부평역 로터리 일대와 부평대로 변으로 건물의 분포 형태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조선시가지계획령」 제10조에 의한 허가 신청 건 대부분이 실제로 건축으로 이어졌고, 부평역 일대가 도시화되어 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소화토지구획정리 대상지역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부평역 주변만 도시화되었을 뿐,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논과 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촌락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 소화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조선시가지계획령」 제10조에 의한 허가 신청 현황

4) 29년 만에 완료된 소화토지구획정리 사업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면서 부평에 있던 인천조병창과 일본 기업이 운영하던 군수공장은 가동을 중지했다. 일본군이 철수한 조병창에는 미군이 주둔했고, 일본 기업이 빠져나간 군수공장은 적산으로 분류되어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이 임시 관리를 맡았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광복 때까지 느린 속도로 추진되던 소화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동력을 잃어버린 채 모두 중단되고 말았다. 6·25전쟁을 겪으면서 도시 시설 일부가 파괴되고, 전쟁이 끝난 뒤 한동안은 전후 복구에 온 힘을 다해야 했기 때문에 부평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는 요원한 일이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정리한 토지를 지주에게 돌려주는 '환지(換地)'절차가 사업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데 광복 후 일본인 지주들이 철수하면서 적산으로 몰수된 토지가 많았고, 1949년 정부의 농지개혁과 6·25전쟁으로 토지소유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부평의 토지소유관계가 혼란했던 상황은 1962년 5월 사업 부지에 속한 세 필지의 논 2,072평에 대해 실소유주에게 환지사무정리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소유권을 포기시켰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될 당시 부평동 182, 185번지의 1,252평은 한국인 김종필, 194번지 820평은 일본인 도쿠야마 이에하라(德山家原)의 소유였다. 광복이 되면서 각각 추금용, 손희순, 이흥창의 소유가 되었고, 1948년 인천시는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가지정해 주었다. 그런데 182번지와 185번지의 지주 추금용과 손희순이 이 땅을 최석희에게 다시 전매했고, 1950년 「농지개혁법」이 실시되자 실경작자인 최석희에게 분배되었다.
그러나 이 토지는 「농지개혁법」 제6조 4항 '정부 등 공공단체가 사용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에 해당되어 매수할 수 없는 땅'이었음에도 전매되었고, 그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환지 지정을 받은 사람과 실소유주가 달라 문제가 되었다. 인천시는 1962년 5월 14일 환지사무정리보상금을 추금용과 손희순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두 사람에게 토지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면서 상황이 정리되었다.

게다가 도시 정비 및 도시 계획을 위한 우리 정부의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남북 분단과 6·25전쟁으로 월남을 택한 북한 주민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몰려들었고, 때마침 불어닥친 교육열로 농어촌의 학생들은 도시에 있는 학교로 향했다. 급속한 도시화 현상과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의 기반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정부는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1월 16일 경상북도 포항과 김천에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적용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1960년까지 전국 24개의 도시에 일제가 제정한 시가지계획령이 적용되었다. 이 시기에 착공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가지의 계획적 조성보다 전후 복구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1954년 인천시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도 '부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되었다. 사업 기간은 1957년 6월 30일까지 2년 9개월이었지만, 이 기간에도 별다른 사업은 실시되지 않았고 1957년도가 되어서야 환지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당시 인천시는 환지를 위해 대상 부지의 지주들을 소집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환지사무비 보조금을 신청했다. 그리고 환지예정지에 대한 설계비용 마련을 위해 체비지(替費地)를 지정하였다. 1960년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측량과 설계에 들어갔다. 이미 도로망과 구획정리의 틀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설계에는 가곽의 조정 등 부분적인 변경 사항이 반영되었다.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공공용지로 사용할 땅을 확보하기 위해 환지예정지에서 제외해 둔 토지를 말한다.

한편, 일부 도로와 가곽만 조성한 채 광복 후 공사가 중단되어버린 부평 역전의 구획정리 사업 대상지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일본군이 철수한 인천조병창 자리에 미군이 주둔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를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군수품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일명 양키시장이 형성되었다. 이처럼 광복과 6.25전쟁으로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던 부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일부는 노점상과 무허가 건축물로 채워져 갔고, 다른 한 쪽은 토지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에서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었다. 사업에 착수했어도 한동안은 노점상과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토지소유권을 정리하는데 힘을 쏟아야했을 것이다.

1961년 인천시는 부지에 대한 행정 정리가 미처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착공했다. 당초 계획은 1965년 12월 31일에 준공하는 것이었지만, 노점 및 불법 건축물 정리와 토지소유권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공사를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공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것이 1966년 1월 1일이어서 그 후에야 제대로 된 공사가 가능했을 것이다. 1970년 1월 1일 인천시가 부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청산가격 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전에 환지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산금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있어서 원 토지와 환지받은 토지 사이의 가격차가 있을 때 사업 시행자가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1970년 4월 14일 부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부지면적 41만 4,028평의 환지처분을 마치고 준공되었다. 1941년 11월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착수한 지 29년만이었다.

당시 인천시가 작성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를 보면 토지소유자 중 일본인이나 국산자동차, 디젤자동차 등 일제강점기 부평에 공장을 두었던 일본 기업의 이름이 자주 보이고 있어 아직 토지소유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 1967년 공사가 한창인 부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5) 산업화 시대의 토지구획정리, 부평을 도시로 만들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50년대 말까지 일제가 제정한 시가지계획령으로 간신히 버텨왔지만 1960년대 들어 새로운 도시계획 관련 법령이 요구되었다. 5·16 군사정변에 따라 들어선 군사정부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고, 이와 함께 건축법도 제정하여 도시계획과 건축에 관한 법률을 분리시켰다. 일제강점기 이후 1950년대까지 도시 정비에 법적 근거가 되었던 시가지계획령 대신 우리 실정에 맞는 법령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의 주축이 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여전히 별도의 법령 제정 없이 「도시계획법」에 삽입되어 있었다. 내용 면에서도 지주들에게 있어 민감한 문제였던 환지에 대한 부분만 보강되었을 뿐, 큰 틀은 시가지계획령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포함된 토지구획정리 조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1966년 8월 3일 건설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계획법」에 삽입되어 있던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항을 분리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했다. 새롭게 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사업 시행자를 토지소유자 및 조합,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으로 세분화하고 시행자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명기하여 사업 시행에서 발생하는 절차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핵심이 되는 환지 절차에 대해서도 계획수립, 환지예정지 지정, 환지 처분, 청산과 권리 조정 등으로 순서에 따라 상세히 명기하여 「도시계획법」의 환지 규정을 보완했다.

196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부평에 대한 도시계획도 새롭게 추진되었는데 그 근간을 이루었던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다. 6·25전쟁 후 국가재정이 좋지 않았던 시기 재정부담 없이 도시의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 10월 인가된 소화지구(부평1지구)를 포함해 부평에서 추진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모두 8건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부평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번호	지구명	대상 지역	인가일	완료일	사업 면적
1	부평1지구	부평동	1941. 11. 5.	1970. 4. 14.	414,022평
2	부평2지구	부평동, 부개동	1963. 12. 12.	1974. 1. 29.	180,050평
3	경인고속도로 연변 고속5공구	청천동, 갈산동 등	1968. 1. 27.	1977. 8. 8.	829,178평
4	부평3지구	청천동, 갈산동 등	1969. 2. 10.	1979. 6. 18.	604,981평
5	부개지구	부개동, 일신동 등	1971. 8. 20.	1981. 4. 4.	268,913평
6	십정1지구	십정동	1979. 7. 20.	1986. 4. 3.	143,922평
7	십정2지구	십정동	1982. 11. 10.	1987. 12. 30.	144,994평
8	십정3지구	십정동	1982. 3. 5.	1987. 11. 13.	92,348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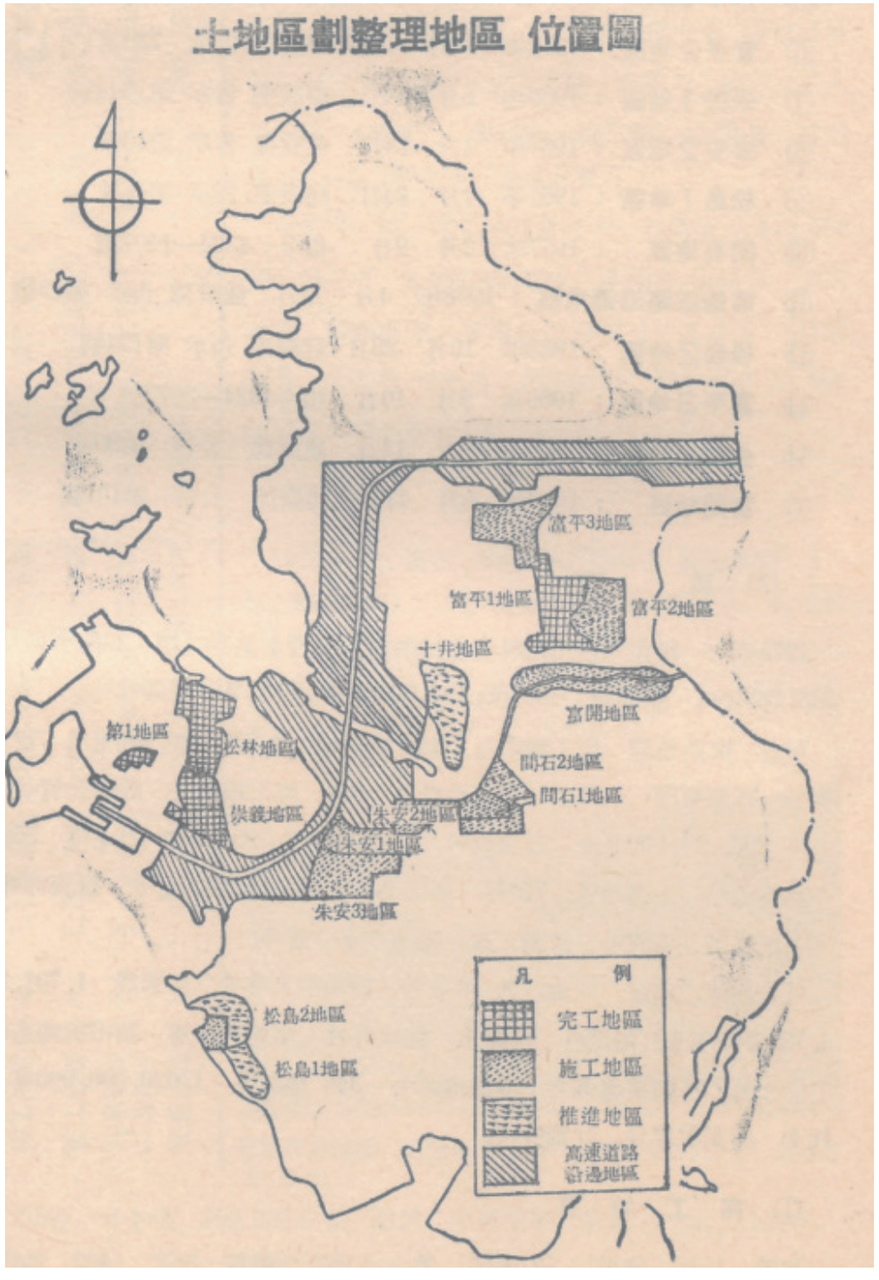
부평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41년 3월 21일 조선총독부가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명령을 내린 사업부지 62만 평 중 인천부가 제1단계 사업으로 인가받은 42만 평의 잔여 부지 20만 평을 대상으로 했다. 1963년 2월 21일 정부는 부평동과 부개동 일대 약 20만 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청으로 인천시를 지정하고 준공 기한은 1966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2일 부평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되면서 사업에 착수했다. 사업 부지는 부평1지구 동쪽 부평동과 부개동의 일부, 사업 면적은 17만 9,441평이었다. 부평1지구의 동쪽 끝선인 장제로를 경계로 남쪽 동수굴다리에서 북쪽의 부광초등학교까지 원호를 그리며 수로를 배치하고 그 서쪽에 가로망을 구획하여 택지 및 공공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부평2지구 사업은 1965년 시작된 인천도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사업에 탄력을 받으면서 비교적 신속하게 추진되었고, 착공 11년 만인 1974년 12월 31일 준공되었다.

「조선시가지계획령」과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작된 부평1·2지구와 달리 부평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66년 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추진되었다. 부평3지구의 사업부지는 일제강점기 경기도가 경인시가지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다 중단된 공업용지 조성사업 부지를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이곳은 1965년 11월 상공부가 청천동과 갈산동 등 21만여 평 부지에 대해 인가한 인천수출공단과 인접해 있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효성동과 청천동 일대의 인천수출공단에서 신진자동차 부평공장을 거쳐 일제강점기 산곡동 일대로 조성된 공업용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공업벨트를 구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유에서 부평3지구는 부평구에서 실시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두 번째로 넓었으며, 주로 택지와 가로망 조성을 목적으로 했던 다른 구획정리 사업과 달리 택지조성 및 공장부지 건설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수출공단 입주가 막 시작될 무렵인 1968년 10월 5일 정부는 인천시 북구 부평·청천·갈산·효성동 일대 60만 평에 대해 토지구획사업 시행명령을 내린 데 이어 1969년 2월 10일 당초보다 5만 평 늘어난 64만 8,000여 평에 대한 인천시의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그러나 이미 공장을 가동하고 있던 기업들의 불만과 진정이 이어지면서 준공이 지연되었고, 착공 10년 만인 1979년 6월 18일에야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부평3지구 사업의 완료는 일제강점기 부평에서 추진된 경인시가지계획의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모두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한다. 1940년대 일제에 의해 시작된 부평의 도시화는 광복과 6·25전쟁,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이미 완료되었던 부평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41년 시작된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부평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39년 경기도가 추진한 공업용지조성사업 부지에서 추진한 사업이었다.

토지구획정리를 통한 택지 조성과 가로망 정비는 1970년대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우선 1971년 8월 정부는 경인철도를 경계로 남쪽에 위치한 부평동과 부개동, 일신동의 26만 7,590평을 대상으로 하는 부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인가했다. 사업 부지는 경인국도라 부르는 국도 46호선을 따라 동서로 길쭉한 형태였으며, 전체 부지의 약 5% 정도만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대부분 논과 수로로 이루어져 있었다. 도로변에 난립해 있던 주택은 대부분 조잡한 건물들이었고, 도로가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데다 하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위생 환경도 열악한 상태였다. 정부는 부개동 일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경인국도를 확장하기 위해 부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부개지구 역시 토지소유 관계의 정리 등을 이유로 계속 지연되다가 인가된 지 10년 만인 1981년 4월 4일 완료되었다.

한편, 1974년 수도권전철 개통 후 부평구 십정동에 동암역이 신설되면서 역 주변으로 상가가 형성되고 차량 통행이 늘어났지만, 가로망이나 주거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였다. 이에 더하여 1973년 7월 주안 수출산업공단의 조성이 완료되면서 공단 노동자를 위한 택지 개발도 시급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동암역 주변의 도로 개설과 택지 개발, 경인국도 확장 등을 목적으로 십정동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했다. 동암역을 중심으로 사업 구역을 세 개 지구로 구분했는데 동암역 북쪽 경원대로에 접해 있는 14만 6,114평 부지를 십정1지구, 동암역과 십정1지구 사이 14만 6,402평의 땅을 십정2지구, 그리고 동암역 남쪽 9만 1,086평의 부지를 십정3지구로 정했다. 1979년 7월 20일 십정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인가한데 이어 1982년 3월에 십정3지구, 그해 11월에는 십정2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을 인가했다. 3년의 시차를 두고 시작한 십정지구 사업은 자금 조달문제와 지장물 제거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세 개 지구 모두 공사 기한을 연장했고, 1987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 1970년대 인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위치도

그밖에 성격을 조금 달리하여 추진된 것이 경인고속도로 연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다.

1967년 3월 경인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착수한 정부는 그해 11월 11일 고속도로가 지나는 경인지역 일대 1,100만 평 부지에 대해 5년 동안 43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광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속도로 연변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통제하고 가로망과 택지를 확충하려는 목적에서 계획했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고속도로 부지와 주변 토지 일부를 무상으로 확보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정부의 발표가 있은 직후인 11월 23일 건설부는 공고를 통해 고속도로가 지나는 부천군과 인천시, 서울시에 시행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불과 두 달 가량이 지난 1968년 1월 27일 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인가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시행명령으로부터 시행 인가까지의 기간은 짧아야 4개월, 길면 1년이 넘게 걸리는데 비해 경인고속도로 연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시행명령이 고시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사업 시행이 인가되었다. 하루라도 서둘러 사업을 추진해야 했던 당시 정부의 입장을 살필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 경기도가 자동차전용도로로 계획한 부지에 건설된 고속도로였다. 당시 경기도는 건설 중이던 김포군 방화리 신경성 비행장에서 부평 공업용지를 거쳐 인천항까지 총 길이 20㎞, 도로 폭 9m의 자동차전용도로 건설 계획을 세우고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포 비행장부터 가정동까지 노반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광복이 되어 더 이상 공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광복 후 노반 공사가 완료된 가정동-김포 구간은 비포장 상태로 도로로 이용되었고, 서곶과 부평 주민들은 이 도로를 국방도로라 불렀다.
경인고속도로가 착공 1년 9개월 만에 개통할 수 있었던 것은 노반 공사가 끝난 국방도로를 고속도로로 활용했기 때문이었다.

인천시는 사업 부지를 모두 다섯 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를 추진했는데 부평구에 해당하는 구간은 삼산동 부천시 경계 지점부터 서인천 IC의 입구인 청천동에 이르는 고속5공구였다. 사업 면적은 122만 1,590평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구간 중 두 번째로 넓었다. 그 중 택지 면적이 87만 8,923평, 도로가 29만 9,672평으로 사업 대부분은 공장용지를 포함하는 택지조성과 도로망을 건설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속5공구는 1965년부터 이미 추진되고 있던 수출공단 조성사업 부지와 겹쳐있어 다른 공구에 비해 사업추진 속도가 빨랐고, 인천지구 고속도로연변 토지구획사업 중 가장 이른 1977년 8월 8일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 경인고속도로 연변 토지구획정리사업 고속5공구 시행 전후 비교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 3월 경인시가지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청으로 인천부가 지정되고, 그해 10월 조선총독부가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부평의 도시화가 시작되었다. 소화토지구획정리는 공업지대의 배후단지로서 부평역 앞을 도시화하려는 시도였지만, 준공을 보지 못한 채 광복을 맞이했다. 광복 후 미완에 그쳤던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은 부평1지구와 부평2지구 사업으로 재개되면서 지금 부평시장 일대를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또, 새롭게 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부평3지구를 시작으로 부개지구, 십정지구 등에서 구획정리가 실시되면서 부평은 도시의 외연을 넓힐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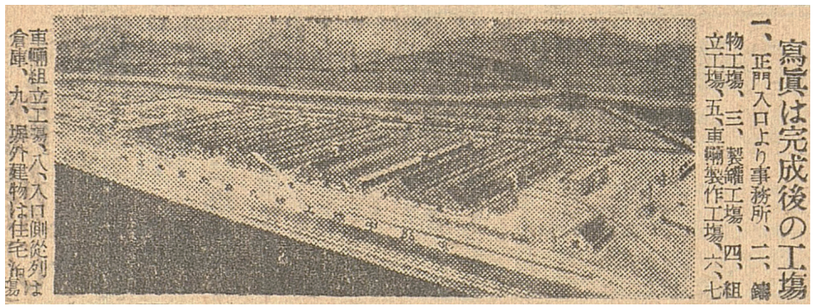
3 침략전쟁을 위해 시작된 부평의 공업화

부평의 도시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산업도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시대에는 드넓은 부평평야 지대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이 주산업이었고,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말부터 일제의 침략전쟁을 지원할 군수공장들이 들어서며 산업구조가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뀌어 갔다. 광복 후 잠시 멈춰서있던 공장의 기계들은 1960년대 들어 다시 활기차게 돌기 시작했고 부평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수출산업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면서 공업도시가 되었다.

1) 부평에 들어선 첫 공장, 히로나카(弘中) 상공 부평공장

1929년 세계를 덮쳤던 경제대공황은 일본 자본주의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일본의 독점자본은 새로운 탈출구가 필요했고, 그들은 세 가지 이유에서 조선을 주목했다. 첫째, 조선은 「공장법」의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니어서 노동력을 무제한 착취할 수 있었다. 일본은 1911년 노동시간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공장법」을 공포하고 1916년부터 적용했지만, 일본 내의 공장을 대상으로 할 뿐 식민지 조선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둘째로 조선 북부지방에 매장된 지하자원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이었다. 지하자원은 공장을 돌리는데 필요한 공업원료였고, 특히 조선에는 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특수 금속이 많이 산출되었다. 셋째, 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조선의 지리 조건이었다. 만주사변 이후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조선을 중국 침략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했다. 특히 1931년 일본 육군대장 출신의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가 제6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뒤 조선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인천부 역시 조선공업화정책에 발맞춰 해안 매립을 통해 공장 부지를 마련하고 일본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1934년 동양방적이 만석동 매립지에 공장을 지어 조업에 들어갔고, 나가이 테루오(永井照雄)가 인천부윤으로 부임한 뒤 만석, 화수, 송현동 일대에 조성한 북인천임해공업지대와 용현, 학익동 공업지대로는 일본 독점자본이 운영하는 공장이 속속 들어섰다. 그런 상황에서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부평은 인천과 함께 병참기지로 주목받는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인천항과 경성을 잇는 철도가 지나고 있어 자재 보급과 생산품의 운송이 편리했기 때문이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넓은 부지가 있고, 경성과 인천에 인접하고 있어 노동력 조달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 『조선신문』에 실린 히로나카상공 부평공장 조감도(1938년 8월 14일)

당시 처음으로 부평에 자리 잡았던 공장은 히로나카(弘中) 상공 부평공장이었다. 일본인 자본가 히로나카 료이치(弘中良一)가 1937년 6월 설립한 히로나카 상공은 용산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착암기 등 광산기계를 생산하던 회사였다. 전국을 휩쓸었던 광산 개발 붐을 타고 채굴 기계의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여서 용산에 있던 공장 시설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회사를 설립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확장을 추진했고, 부평을 그 대상지로 정했다. 1938년 5월 30일 히로나카 상공은 주주총회를 열고 자본금을 300만 원으로 증자해 부평역 서쪽 2만 5,000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공사비 174만 원을 투입해 공장 건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향후 공장부지 2만 평을 추가로 매수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7월에 임시공장을 가설하고 군수품 제조에 착수했으며 벽돌조로 지어지는 본 공장도 건설에 들어갔다. 『조선신문』에 실린 조감도에 따르면 히로나카 상공 부평공장은 주물 공장, 제관(製罐) 공장, 조립 공장, 차량제작 공장, 차량조립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초 건설 계획에서 밝힌 '주물에서 조립에 이르는 일관된 생산체제'를 갖추겠다는 구상과 일치하는 배치였다.

표 6 히로나카 상공 부평공장 건축물 현황 (『조선신문』 1939년 11월 20일, 11월 21일)

번호	건물	구조	면적	기계설비
1	제1주강(鑄鋼) 공장	단층 철근 콘크리트조	1,000평	에르식 전기로, 기중기 등
2	제2주강 공장	단층 철근 콘크리트조	600평	건설 중
3	기계 공장	단층 철근 콘크리트조	1,011평	6~24척 선반 35대 등
4	제련 공장	단층 철근 콘크리트조	588평	
5	차량조립(組立) 공장	단층 철근 콘크리트조	653평	차량조립세트 9기 등
6	차량목(木) 공장	단층 철근 콘크리트조	340평	목공선반기, 각반기 등
7	목형(木型) 공장	단층 철근 콘크리트조	50평	목공선반, 환거(丸鋸) 등
8	목재 건조장	단층 철근 콘크리트조	27평	보일러, 증기 건조시설 등
9	차량분(分) 공장	단층 목조	66평	6~12척 선반 7대 등
10	선반(旋盤) 공장	단층 목조	370평	각종 선반, 연마기 등
11	특종강(特種鋼) 공장	단층 블록조	46평	전기로, 변압기, 건조기 등
12	연구실	단층 블록조	80평	현미경, 분석장치 설비 등
13	사무소	2층 철근 콘크리트조	63평	
14	식당	단층 블록조	203평	
15	기술원 양성소	단층 블록조	170평	
16	공원 양성소	단창 목조		
17	식당	단층 목조	603평	
18	기타 건물	단층 목조	969평	
합계			6,839평	

그러나 철강을 비롯한 원자재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었고, 계획 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갈수록 늘어나 공장 건설도 계속 지연되었다. 공사에 들어간 지 16개월이 지난 1939년 11월 18일 히로나카 상공 측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경성과 인천, 부평의 유지를 초대하여 공장 시설을 견학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공장 남쪽 약 1만 5,000여 평의 부지에 직원 사택 60호와 공원 사택 300호 그리고 240평 규모의 독신자 사택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아직 일부 공장시설이 공사 중이었지만, 낙성식에 버금가는 이 행사를 계기로 히로나카 부평공장에서는 광산용 채굴기계와 광석 운반용 화차(貨車)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자재와 완성된 기계는 부평역까지 연결된 철도 인입선을 따라 운송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화차(貨車)제작 명령으로 전쟁에 동원할 화차와 객차 생산량을 늘려갔으며, 용산공장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채금선(採金船)을 수주하는 등 1940년 3월 말 히로나카 상공의 수주액은 1천만 원을 넘어섰다. 그러는 사이 그동안 도입이 지연되고 있던 독일제 공작기계가 인수되었고, 5월에는 아직 공사 중이던 제2주강 공장의 준공과 동시에 에르식 5톤 전기로를 가동하면서 2년에 걸친 히로나카 부평공장 건설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나아가 히로나카 상공은 청천동과 갈산동 사이 10만 평의 땅을 매입하여 부평 제2공장을 신설하고, 갈산동 2만 평 부지에 사택을 신축하는 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조선신문』은 11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당시 견학행사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기사에 따르면 부지 면적은 3만여 평으로 당초보다 약 5,000평 가량 늘어났고, 공장과 사무실, 기타 부속 건물은 18동에 연면적 6,839평이었다. 주강(鑄鋼) 공장을 비롯하여 공장 건물은 11개 동으로 모두 단층이었고 목조 건물인 차량분 (車輛分) 공장과 선반 공장, 블록 조 건물인 특종강(特種鋼) 공장을 제외한 8개 동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다.
아직 제2주강 공장만 건설 중이었고, 나머지 10개 공장은 공사를 마치고 가동에 들어간 상태였다. 각 공장에는 전기로(電氣爐), 선반, 건조기 등 특성에 맞게 설비가 갖춰져 있었고, 연구실은 무스라 만능시험기, 쇼아 경도계, 프린넬 경도계, 현미경, 사진기, 분석 장치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좋은 기계를 생산하기 위해 연구진이 상주하고 있었다.

❖ 광복 후 미쓰비시 제강 상인천제작소 공장 건물(1948년 Norb Faye 촬영)

하지만, 광산 채굴 기계의 수요가 급감하고, 전시 국면에서 조선총독부의 자금 통제와 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1941년 들어서는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에서 부평공장을 인수 또는 합병한다는 소문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히로나카 료이치 사장이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설확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는 운영난에 빠진 부평공장의 매각 비용을 높이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결국 1942년 6월 말 히로나카 상공은 부평공장을 미쓰비시 중공업에 양도했다. 청산가격은 600만 원이었다. 평양 지역에 전기로(電氣爐) 제철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던 미쓰비시 중공업은 부평공장을 인수해 기계류를 확보할 생각이었다. 히로나카 상공으로부터 부평공장을 인수한 미쓰비시 중공업은 제강부문을 별도로 분리하여 나가사키 제강소와 공사 중이던 평양공장에 부평공장을 합쳐 자본금 5,000만 원의 미쓰비시 제강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부평공장의 이름을 상인천제작소로 바꾼 뒤 11월 1일부터 조업에 들어갔다. 그렇게 논밭이 펼쳐져 있을 뿐이던 부평평야 지대에 들어선 히로나카 상공 부평공장은 미쓰비시 제강 상인천제작소가 되어 부평의 공업화를 이끌었다. 광복 후 미쓰비시 제강이 철수한 뒤 상인천제작소 공장 부지와 시설은 국군에 인수되어 제60병기대대가 들어섰고, 1973년 3군수 지원사령부가 발족하면서 예하 제88정비대로 사용되다가 2002년 4월 12일 부평공원이 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2) 국산자동차 부평공장, 자동차공업의 문을 열다

인천 사람 누구나 '부평'하면 자동차 공장을 떠올릴 것이다. 1960년대 이후 부평의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 왔던 것이 자동차 공업이었기 때문이다. 새나라에서 신진, 새한, 대우를 거쳐 GM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청천동 약 30만 평 부지에 자리 잡은 자동차 공장은 부평을 우리나라 자동차 공업의 메카로 만들었다. 부평의 자동차 공업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말 시작된다. 히로나카 상공이 부평에 부지를 마련하고 공장을 짓기 시작할 무렵인 1938년 2월 조선국산자동차공업 역시 부평에 20만 평의 부지를 매수하고 자동차 조립 및 부분품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조선국산자동차공업은 1937년 3월 일본의 차량기계 제조사 도쿄가스전공(東京瓦斯電工)에서 자본금 200만 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일본고주파공업의 전무인 다카하시 쇼조(高橋省三)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회사는 도쿄가스전공의 자동차 판매를 전담했던 협동국산자동차의 자매회사 성격으로 도쿄가스전공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와 부품의 조선 판매를 독점하고, 나아가 차체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회사 설립 후 두 달 만에 모기업인 도쿄가스전공과 자동차공업주식회사가 합병하여 도쿄자동차공업을 창립했고, 판매회사였던 협동국산자동차회사까지 인수하면서 조선국산자동차공업은 도쿄자동차공업의 자회사가 되었다.

❖ 조선국산자동차에서 독점 판매했던 협동 국산자동차의 94식 화물차

조선국산자동차공업은 사업 범위를 모기업 차량의 독점 판매에 그치지 않고 조선 내에서 자동차 조립 및 차량부품 제작까지 확대했다. 그에 따라 1938년 2월 자본금 1000만 원을 증자하여 부평에 공장부지 20만 평을 매입하였다. 한편, 전쟁 국면에서 일본 육군은 도쿄자동차공업에 가솔린 대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개발과 제작을 주문했다. 조선국산자동차공업은 이를 독점 판매하기 위해 경성에서 성능시험 행진을 여는 등 차량 판매에 힘을 쏟느라 공장 건설이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도쿄자동차공업과의 합병 문제가 부각되면서 부평공장의 착공은 합병 이후로 연기되었다. 1938년 12월 조선국산자동차는 도쿄자동차공업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합병과 동시에 해산 절차를 밟게 되는데 도쿄자동차공업의 독점 판매권과 운수사업을 계승하는 새로운 판매회사를 신설한다는 조건이었다. 다시 말해 조선국산자동차공업의 사업 부문 중 차체조립과 부품생산 부문만 이 회사를 합병한 도쿄자동차공업이 인수하고, 차량판매 부문은 회사 경영진이 신설한 독립법인 국산자동차에서 그대로 이어간다는 계획이었다. 그에 따라 조선국산자동차공업이 부평에 계획하고 있던 자동차 조립 및 부품 생산 공장은 도쿄자동차공업이 건설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국산자동차공업의 대표였던 다카하시 쇼조와 전무이사 야마시타 사타로(山下佐太郎)는 1939년 6월 합병 조건에 따라 별도의 독점 판매회사 국산자동차주식회사를 설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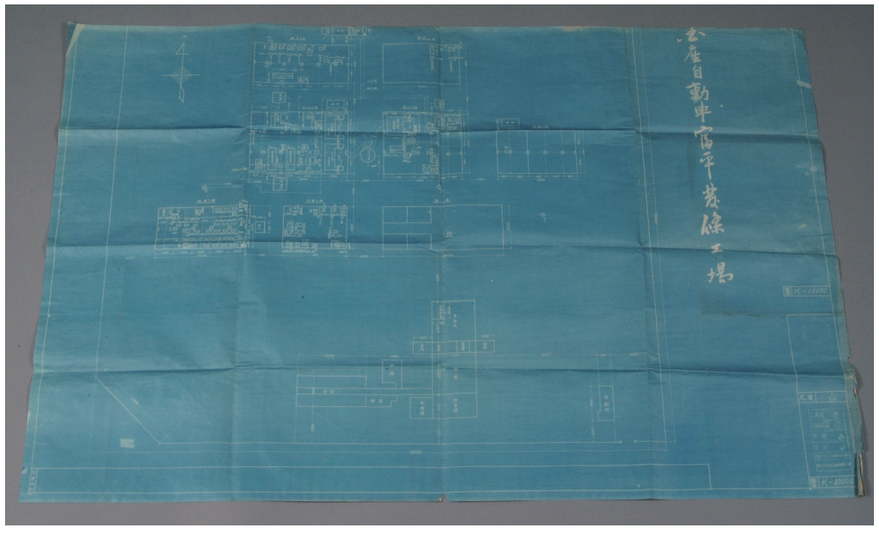
조선국산자동차공업의 부평공장 건설계획을 이어받은 도쿄자동차공업은 1939년 4월 측량기사를 부평에 파견하여 공장 설계를 마치고 건설 준비에 들어갔다. 또 마쓰나가 료죠(松永令三)를 조선지점장에 임명하여 경성에 상주시키면서 부평공장의 건설을 총괄하게 하고 건설업체 시미즈구미(清水組)에 공사를 맡겼다. 지금 부평고등학교 일대 4만 평 부지에 차체 조립 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3단계로 나누어 착공하기로 했다. 이어서 부평공장 설립인가 신청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하고 1939년 10월 27일 공장 부지에서 관계 인사와 지역 유지를 초청하여 지진제(地鎭祭)를 개최했다.

그러나 다른 건설 현장과 마찬가지로 자재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준공은 1940년 여름까지 계속 지연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전쟁을 치르는 데 필수 군수품이었던 군용 트럭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도쿄자동차 부평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할당해 주었고, 8월 14일 드디어 공장의 상량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었으며, 그러는 사이 1941년 4월 도쿄자동차공업은 디젤자동차공업으로 회사명을 바꾸었다. 부평공장의 이름도 디젤자동차 조선제조소로 정해졌다. 1941년 10월 2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디젤자동차 조선제조소는 조업을 개시했지만, 공장 규모는 자재난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1/3 정도로 축소되었다. 준공 후 디젤자동차공업 조선제조소에서는 주로 군용트럭을 생산했는데 1945년 4월 군수회사법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2차로 지정한 56개 군수회사에 포함되기

1940년 10월 13일 도쿄자동차공업 스즈키 시게오(鈴木重康) 사장은 『조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재 수급난으로 부평공장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체로 연말까지는 완공할 예정이다. 부평공장이 완성된다면 이 공장에서 '이스즈[いすゞ]'를 제조하여 일반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스즈'는 도쿄자동차에서 생산하는 트럭의 이름으로 오늘날 일본의 이스즈자동차로 이어진다.

도 했다. 1957년 간행된 『이스즈자동차사(いすゞ自動車史)』에 따르면 광복 당시 디젤자동차 조선제조소(부평공장)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은 소장 호리타 히토시(堀田齋)를 비롯해 대략 200명 정도였으며, 그들은 광복 후에도 청산 절차를 위해 공장에 남아있다가 11월 13일 전원 일본으로 돌아갔다.

한편 조선국산자동차공업이 해산한 후 도쿄자동차 독점판매권을 승계하며 새로 설립한 국산자동차는 1941년 6월 경기도가 조성하고 있던 공업용지에 6만 2,000평 부지를 매입하고 차량부품 공장 건설에 들어갔다. 원래 이 공장에서는 도쿄자동차로부터 원 재료를 공급받아 디젤 엔진을 제작할 계획이었지만, 공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영등포의 조선자동차공업을 매입하여 그곳에서 엔진을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대신 부평공장은 차량용 스프링 등 기타 부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던 것으로 보인다. 광복 후 국산자동차는 적산기업으로 불하되어 1960년대 말까지 차량용 부품을 제작했고, 그 후로는 여러 공장으로 이용되다가 2001년 이 자리에 인천미산초등학교가 들어섰다.



❖ 국산자동차 부평 발조(스프링)공장 설계도(인천시립박물관)

3) 경기도가 조성한 부평 공업단지

1930년대 말 히로나카 상공과 조선국산자동차공업이 부지를 마련하고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서 부평의 공업화가 시작되었고, 부평동과 산곡동 일대 115만 평 부지에 들어선 일본 인천육군조병창이 이를 주도해 갔다. 그리고 부평의 공업화에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 경기도 공업용지 조성사업이었다. 조병창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경기도가 추진했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 살펴보자.

그 외에도 『매일신보』 1938년 5월 27일 기사에 따르면 오사카의 모 철물공장이 부개동(마분리)에 약 3만 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조선 최초의 철사 공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이후 철사 공장과 관련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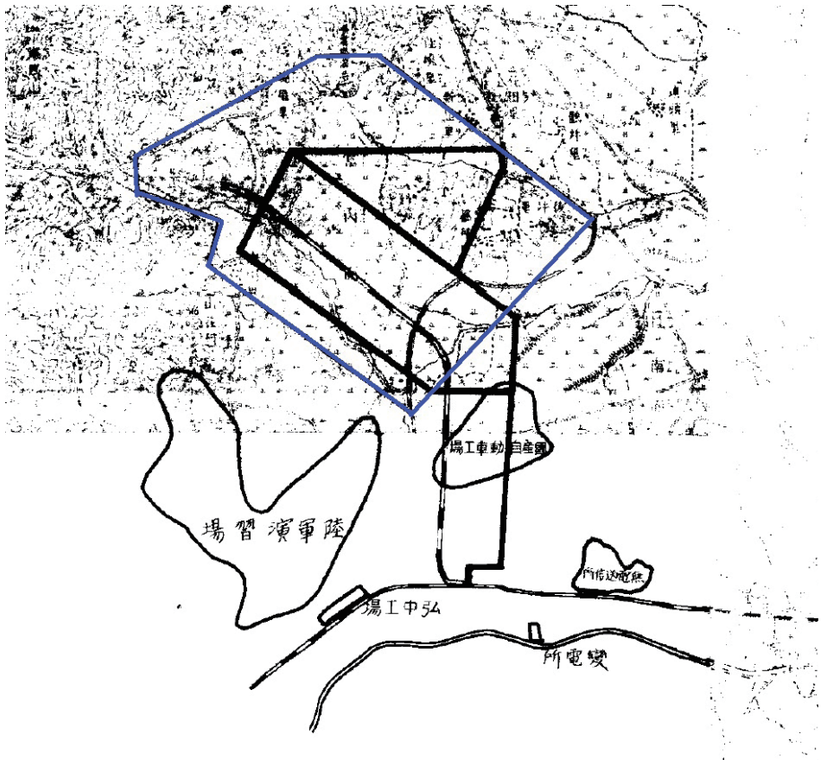
1939년 2월 경기도는 부평의 200만 평 부지를 공업용지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210만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가 경인 지역에 공업용지 조성을 처음 계획한 것은 경성, 인천의 지역 유지들 사이에서 '경인일체화'에 대한 공론화가 무르익을 무렵인 1937년 가을이었다.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된 경기도 산업조사위원회는 국방산업의 발흥과 경인일체화를 구현하기 위해 경인지역에 공업용지를 조성할 것과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그에 따라 경기도는 1938년 4월부터 현지 측량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평에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광역 도시계획인 경인시가지계획에 1년 이상 앞서는 것이다. 당시 히로나카 상공과 도쿄자동차 공업이 부평에 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투기에 따른 땅값 폭등의 조짐이 보이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공업용지 조성계획을 발표하여 부지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계획은 부평동·산곡동·청천동·갈산동·삼산동·효성동·작전동 일대에 공장용지 100만 평과 이에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 15만 평, 그리고 주거지 85만 평 등 총 200만 평을 공업용지로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1939년부터 1943년까지 5년간 모두 320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했는데 초기 단계 3년 동안은 280만 원의 도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조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용지 매각대금으로 사업을 완료해서 도채를 갚아나가겠다는 계획이었다. 1939년 7월 조선총독부는 경기도가 제출안 도채 발행안에 대해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업용지는 조만간 결정될 경인시가지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시가지계획사업으로 실시함이 마땅하지만, 이 지역의 땅값이 계속 폭등

『매일신보』 1940년 6월 13일 기사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430만 원으로 당초 320만 원보다 11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다. 총 면적은 200만 평으로 변함없으나 공장용지 100만 평, 주택지 85만 평, 공공시설 용지 15만 평이던 계획이 공장용지 90만 평, 주택지 50만 평, 공공시설 용지 60만 평으로 변경되었다. 공공시설 용지가 대폭 늘어났는데 도로뿐 아니라 공원, 운동장을 조성하여 공장 노동자들의 휴식와 보건위생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의도였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조속한 완수를 위해 우선 경기도 독자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시가지계획사업의 시행명령이 있을 때 이를 편입시켜 단일 사업화하겠다'는 판단 아래 경기도의 도채 발행을 승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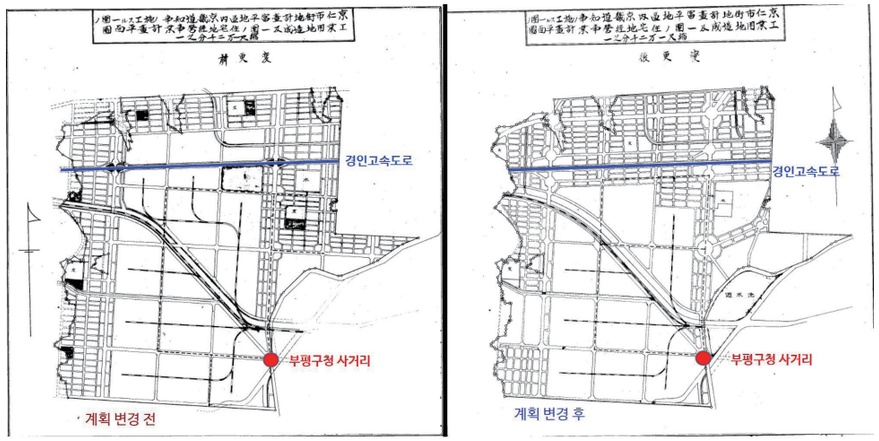
총독부가 경인시가지계획의 고시에 앞서 경기도 도채 발행을 승인하여 사실상 경기도의 독자적인 공업용지 조성을 인정한 것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를 비롯한 각종 군수물자의 생산이 시급했던 당시 상황을 반증한다. 또, 중일전쟁이 시작된 이후 부평 일대가 군수공업지대로 주목받으면서 투기가 성행하고 땅값이 폭등하고 있어 이를 방관한다면 정작 경인시가지계획이 고시된 이후 토지매입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공장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총독부가 경기도의 도채 발행을 승인하여 토지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게 했던 것은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토지매입에 착수해서 공업용지 예정 부지를 가급적 염가로 구입하기 위해서였다.



❖ 1939년 계획 당시 경기도 공업용지 조성 지역(국가기록원)

1940년 1월 19일 총독부는 계획대로 경성과 인천 사이 1억 6,000만여 평의 부지를 경인시가지계획구역으로 결정했다. 그해 7월 9일 '경인시가지계획 부평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및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을 집행할 행정청으로 경기도지사를 지정하고 8월 15일 그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이로써 경기도 독자계획으로 시작된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경인시가지계획에 편입되었다. 총독부나 경기도의 예상과 달리 사업은 시작부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획대로라면 1939년에 용지 매입을 완료하고 도로 공사에 착수해야 했지만, 1939년도 사업예산 210만 원 중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전체의 60%인 124만여 원에 달했다. 책정된 예산의 40% 정도만 사용할 정도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1940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부지 매입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공장용지는 한 평도 매각되지 않았다. 특히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지 외곽 간선 도로와 배수로 건설 등 토목 공사는 거의 추진되지 못했다.

사업종료 시점인 1943년에 들어서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는 4년 더 연장하여 1947년까지 9개년 계속사업으로 변경하고, 공사비를 780만 원으로 증액시켰다. 당초 공장용지와 택지의 정지(整地) 공사는 부지를 매입한 기업과 개인이 실시해야 했지만, 토지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정지 공사까지 마친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부지 조성비와 도로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다. 그와 함께 공장용지 면적을 축소시키는 대신 주택지를 확대시켰다. 전체 부지를 모두 418개 가곽(街廓)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 399개는 주택지, 19개는 공장용지로 배치하였고, 공장용지는 매각이 잘 되도록 다시 149개 필지로 분할하였다.



❖ 1943년 사업계획 변경 전후 도면(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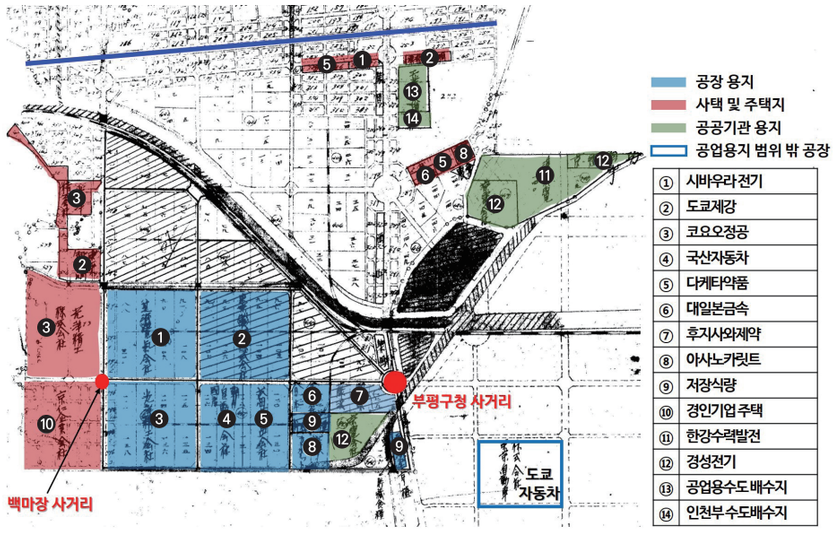
앞의 배치도는 사업계획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한 도면으로 넓고 정사각형에 가까운 가곽이 공장용지, 좁고 직사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주택지이다. 중앙부의 공장용지를 주택지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다. 원래 공장용지였던 경인고속도로 주변이 계획 변경 후 주택지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업용지 매각은 1941년부터 시작했는데 1943년까지 3년 동안 모두 34개의 기업 또는 개인에게 당초 계획면적의 약 30% 정도인 48만 8,000여 평을 매각했고, 거래대금은 모두 239만여 원이었다. 1944년 1월 7일 경기도가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도채 증액 및 계속비 변경 신청서에 그간 매각이 완료된 부지와 그 위치를 표시한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7>과 첨부한 <1941~1943년 경기도 공업용지 매각 위치도>이다. <표 7>에서 보듯이 24만여 평을 118만여 원에 매각한 첫 해의 실적이 가장 좋았고, 그 뒤로는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개인과 기업, 관공서 등 여러 주체가 공장용지와 주택지를 매입했고, 매입 면적도 작게는 40평에서 크게는 11만 3,888여 평까지 다양했다.

표 7 1941~1943년 경기도 공업용지 매각 상황

연도	매입자	매각 평수	금액(원)		수납가액(원)		비고
1941년	니시야마(西山吉兵衛)	2,700평	19,775	00	15,820	00	
	이하라(井原章太郎)	1,391평	10,085	50	8,068	40	
	시바타(紫田國一)	2,353평	17,838	60	14,270	88	
	시바타(紫田勝郎)	2,677평	24,131	90	19,305	52	
	이재갑 외 26명	997.29평	5,004	30	3,854	96	
	구리시마(栗島留次郎)	100평	894	00	715	20	
	관동조(關東組)	1,500평	4,470	00	3,576	00	
	경인기업	34,303평	144,072	60	115,258	08	
	한강수력발전	40,305평	192,024	20	153,619	36	
	부천군 농회(農會)	1,928평	10,604	00	8,483	00	
	국산자동차	30,587평	149,513	20	119,610	56	
	대일본금속공업	6,025평	34,643	75	20,786	25	
	경성전기	40,798평	186,623	20	149,298	56	
	고요(光洋)정공	69,066평	343,092	31	274,473	85	
	아사노카리토(淺野ヵ-リット)	7,225평	40,065	00	32,052	00	
	소계	240,955.29평	1,182,837	56	939,192	62	
1942년	고요(光洋)정공	44,822평	188,252	40	150,601	92	
	아사노카리토(淺野ヵ-リット)	2,324평	20,335	00	16,268	00	
1942년	가와모토(河本吉亢) 외 8명	268.92평	1,498	52	1,198	82	
	이형식	812평	8,396	08	6,716	86	
	도쿄(東京)제강	76,729평	527,154	20	421,755	40	
	시로무라(城村淸正)	310.25평	2,255	30	1,804	23	
	대일본금속공업	1,380평	11,868	00	9,494	40	
	소계	126,646.17평	759,759	50	607,839	63	
1943년 (주택지)	도쿄시바우라(東京芝浦)전기	5,650평	38,985	00	31,188	00	
	시바타(紫田國一)	1,400평	12,180	00	9,744	00	
	도죠(東條誠一)	2,496평	22,514	20	18,011	36	
	구니모토(國本慶用)	40평	212	00	169	60	
	대일본금속공업	1,380평	11,868	00	9,494	40	
	인천부	4,114평	16,456	00	13,164	80	
	저장식량	1,025평	10,598	50	8,478	80	
	소계	16,105평	112,813	70	90,250	96	
1943년 (공업용지)	저장식량	7,865평	50,336	00	40,268	80	
	도쿄시바우라(東京芝浦)전기	57,475평	363,252	50	290,602	00	
	후지타마(藤沃) 상점	14,100평	97,616	25	78,093	00	

연도	매입자	매각 평수	금액(원)		수납가액(원)		비고
1943년 (공업용지)	아사노카리토(淺野カ-リット)	1,718평	8,590	00	6,872	00	
	삼국상회(三國商會)	23,575평	117,657	50	94,126	00	
	소계	104,733평	637,452	25	509,961	80	
합계		488,439.46평	2,692,863	01	2,147,245	01	

1941년 15개 부지를 매입한 개인 또는 기업 중 산곡동 3만 4,000여 평을 매입한 경인기업주식회사는 이곳에 700여 호의 한옥을 건설하여 조병창 근로자들의 주거시설로 활용했다. 경성전기와 일본고주파공업 계열의 한강수력발전은 갈산동에 각각 4만여 평의 부지를 매입해 변전소와 개폐소를 건설하고 공장 지대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했으며, 국산자동차는 산곡동 3만여 평의 부지에 공장을 짓고 발조(發條 : 차량용 스프링) 등 차량 부품을 생산했다. 1941~1942년에 걸쳐 11만 3,000여 평의 가장 넓은 면적을 매입한 고요(光洋) 정공은 산곡동 롯데마트 부평점 자리에 베어링 공장을 건설하고 1944년부터 생산에 들어갔다. 광복 당시 고요 정공의 종업원은 400명에 가까웠고 투자 총액은 200만 원, 공작기계는 약 100대 정도가 있었다. 청천동에 7만 6,000여 평을 매입했던 도쿄제강주식회사는 1943년 3월 10일 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1944년 7월부터 조업을 시작했고, 공장에서 서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부지 1만 2,000여 평에 사택 24동을 건설해서 노무자들의 주거시설을 마련했다.



❖ 1941~1943년 경기도 공업용지 매각 위치도(국가기록원)

<표 7>에 나열된 기업이 실제로 매입한 부지에 공장을 짓고 생산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1944년 이후 얼마의 토지가 매각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청천동 시바우라 전기 북쪽에는 수도용 강관을 생산하던 경성공작 부평공장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성진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했던 일본고주파공업도 부평에 부지를 매입했다는 기사가 있지만 실제 공장이 들어섰는지 알 수 없다. 전쟁이 막바지에 달했던 1944년 12월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군수회사법」에 따라 조선 내의 55개 기업이 군수회사로 지정된 데 이어 이듬해 4월에는 56개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군수회사로 지정된 기업 중 부평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관련이 있었던 곳은 일본고주파공업, 미쓰비시(三菱) 제강, 도쿄시바우라(東京芝浦) 전기, 고요(光洋) 정공, 디젤 자동차 공업, 도쿄 제강 등 6개였다. 일제강점기 말 부평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공장은 조병창을 비롯해 15개 안팎이다. 그 중 40%에 달하는 공장이 군수회사로 지정된 기업에서 운영하던 곳이었고, 그 외의 공장들도 대부분 군수품을 생산하던 곳이어서 부평의 공업화는 일제의 전쟁 동원을 위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일제가 패망하면서 그들이 남기고 간 공업화의 흔적은 대부분 사라졌다. 광복 후 일부 공장만 적산으로 불하되어 재가동되었을 뿐 나머지는 군부대 등 다른 시설로 활용되었다. 그럼에도 부평이 갖는 지리적 조건과 일제강점기 조성된 기반시설로 인해 1960년대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며 부평은 진정한 공업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4 공업도시 부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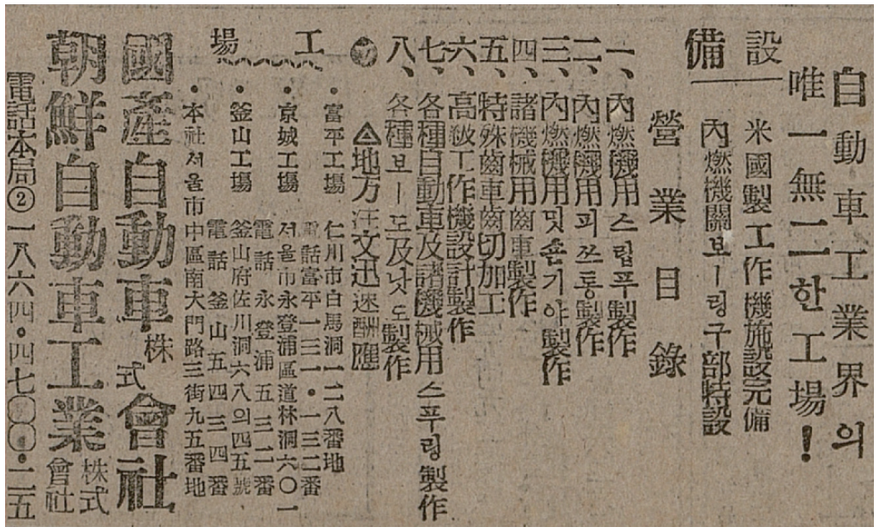
1930년대 말 전쟁 지원을 위해 부평에 들어선 군수 공장들은 촌락에 지나지 않았던 부평의 공업화를 이끌었다. 그와 더불어 공업용지 조성, 토지구획정리 등을 통해 부평은 군수도시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평역전의 신시가지도 산곡동과 청천동 일대의 공업용지도 미완에 그친 채 광복을 맞이하였다. 게다가 광복 후 사회가 안정을 되찾기도 전에 일어난 6·25전쟁으로 부평의 공업화는 완전히 멈춰 서 버렸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후 복구와 재건에 힘을 기울였고, 그러는 가운데 오히려 부평에는 문을 닫는 공장이 늘어나고 있었다. 1960년대 들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청천동 일대에 수출산업공단이 들어섰고, 멈춰있던 부평의 공업화도 다시 추진되었다. 그렇게 부평은 공업도시로 변모해갔다.

1) 일제가 남기고 간 공장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었다. 무기와 군수품을 생산하던 부평의 공장들은 일시적 조업 중지에 들어갔다. 적산(敵産)이 되어 버린 일본 기업의 공장과 시설이 미 군정청에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각 공장의 운영을 맡고 있던 일본인 임직원들은 군사기밀과 관련된 중요 서류를 모두 소각하고, 건물과 기계를 군정청에 인계했다. 군정청 상공부는 각 공장에 한국인 관리인를 임명하고 빠른 시일 안에 공장 정상화를 주문했지만, 갑자기 공장을 맡게 된 관리인이나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공장의 정상 가동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탓에 광복 후 일제가 남기고 간 공장 중 가동에 들어간 곳은 두세 군데에 불과했다. 게다가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의 92%를 북한에서 송전받고 있던 상황에서 부평은 물론 남한 대부분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춘 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평의 경우 부평변전소는 장진강 수력발전으로부터, 갈산동 한강수력발전은 청평과 화천 수력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었다. 장진강과 화천 수력발전소는 38도선 이북에 있었기 때문에 부평의 공장들도 전력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1934년 부천시 약대동에 변전소가 설치되면서 비로소 부평 지역에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인천과 부평에 군수공장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고, 기존의 송전선으로는 공업용 전기를 공급하는데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1939년 경성전기는 수색과 오류동에 변전소를 설치하고 경인국도를 따라 송전선로를 개설하여 장진강 수력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전기를 인천과 부평에 공급했다.
한편, 경기도가 부평에 조성 중이던 공업용지로의 전기 공급을 위해 일본고주파공업에서 설립한 한강수력발전주식회사는 한강의 청평과 화천에 수력발전소를, 갈산동에 변전소를 건설하고 1943년부터 부평 공장지대에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부평에 들어선 군수공장 중 광복 후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공장은 그나마 군청정에서 관리인을 지정했던 산곡동 국산자동차, 고요정공과 청천동 도쿄제강 정도였다. 일제강점기 자동차 스프링을 생산했던 국산자동차공업 부평공장은 광복 후 한동안 미군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1947년 군정청은 조선자동차공업에서 신청한 국산자동차의 명도 이전 요청을 승인하면서 관리인으로 이 회사 사장인 김용주(金龍周)를 지정했다. 조선자동차공업은 1939년 11월 설립하여 영등포와 부산에 공장을 두고 주로 차량용 엔진을 생산하던 회사로 광복 후 한동안 방치되다가 1946년 3월부터 조업을 재개하고 있었다. 조선자동차공업이 군정청에 국산자동차의 명도 이전을 신청했던 것은 엔진과 피스톤, 스프링 등 자동차 부품 생산을 일원화하여 광복 후 자동차공업을 선점하려는 의도에서였다.


自動車工業界의
唯一無二한工場!
設備
米國製工作機施設完備
內燃機關보-링구部特設
營業目錄
一、內燃機用스링푸製作
二、內燃機用피스톤製作
三、內燃機用밋숀기야製作
四、諸機械用齒車製作
五、特殊齒車齒切加工
六、高級工作機設計製作
七、各種自動車及諸機械用스푸링製作
八、各種보-트及낫도製作
△地方注文迅速酬應
工場
・富平工場 仁川市白馬洞一二八番地 電話富平一三一・一三二番
・京城工場 서울市永登浦區道林洞六〇一 電話永登浦五三二一番
・釜山工場 釜山府佐川洞六八의四五號 電話釜山五四三四番
・本社서울市中區南大門路三街九五番地
國產自動車株式會社
朝鮮自動車工業株式會社
電話本局②一八六四・四七〇〇・二五

❖ 국산자동차 광고(『공업신문』 1947년 7월 17일)

1947년 봄 국산자동차는 군정청에서 1000만원의 융자를 받아 부평공장 가동에 들어갔다. 미군 차량기술자가 식산은행 부평지점 본관에서 회당 30명씩 두 달 동안 교육하는 프로그램 마련하여 한국인 기술자를 양성하기도 했다. 당시 부평공장에서 생산되던 스프링과 엔진용 피스톤은 시장 1위를 달릴 정도로 성능이 우수했다. 1948년 국산자동차는 아예 조선자동차공업과 합병했고, 전무였던 천응규를 부평공장장으로 임명하면서 주력 제품인 스프링의 월간 생산목표를 5,000개로 잡을 정도로 공장 가동에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다시 조업이 중단되었고, 폭격에 의해 공장시설 다수가 파괴되었다. 1955년 재무부는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던 7개 기업에 대해 민간 불하를 추진했는데 여기에 국산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었다. 불하받은 사람은 이 회사의 전무였던 김용성이었다. 그와 동시에 전쟁으로 파괴된 경인 지역의 공장 복구를 위해 정부가 선정한 51개 공장에 포함되고, I.C.A(국제협력기구)로부터 22만 5,000달러를 지원받기도 했다. 1958년 10월 국제기구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국산자동차 부평공장은 공장 시설 복구를 완료하고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미군 부대의 중고 자동차 부속품이 싼값에 밀반출되고 있었고, 철강재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장 가격을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1960년대 들어서도 이러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 I.C.A 원조 기업 중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던 34개 기업에 포

국산자동차의 폐업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66년에 있었던 이 회사 경영진의 자금 불법유용 사건이었다. 『경향신문』 1966년 3월 31일 기사에 따르면 국산자동차 부사장 서선하는 정부가 자동차공업 육성을 위해 융자해준 자금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유용했다.
또, 서선하와 전무 조철학 등은 시중 공업사에서 불법으로 조립한 지프 43대를 한 대당 3만 원의 커미션을 받고 국산자동차에서 조립했다는 위조 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 회사 운영진의 자금 유용과 사문서 위조는 그렇지 않아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회사 이미지를 추락시켰고, 결국 국산자동차는 폐업하고 말았다.

1950년 1월 상공부는 귀속사업체(적산으로 국가에서 관리인을 파견한 기업)였던 조선베아링의 관리인 유병선을 김규천으로 교체하였다. 당시 보관 중이던 주석 13톤을 사적으로 매각하여 횡령한 혐의때문이었다. 『상공신문』은 1950년 5월 4일자 기사에서 상공부 자체 감사에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건을 빌미로 사재를 털어 공장 재건에 힘써왔던 관리인을 교체한 일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관리인 교체 문제는 유야무야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회사명을 불이기계공업으로 변경하고 관리인도 박성하로 다시 교체되었다. 한편 전 관리인이었던 유병선은 1953년 조선베아링 부평공장 인근에 신한베아링을 설립해서 베어링을 생산하고 있었고, 1956년 신한베아링은 불이기계공업을 인수합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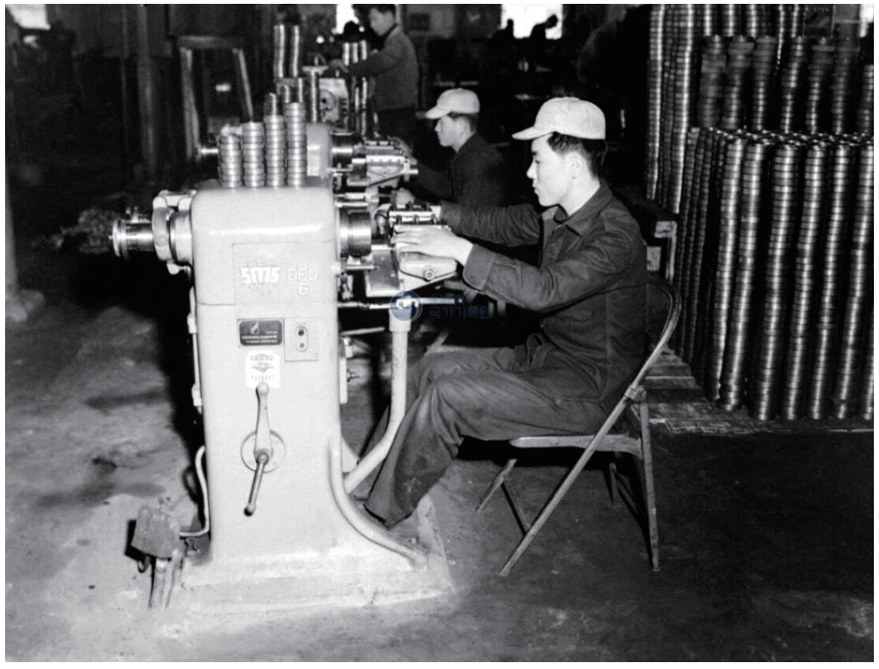
함되기도 했다. 그에 더하여 임금체불 사태와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겹쳐지면서 1960년대 말 결국 폐업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산자동차 서쪽에 위치했던 고요(光洋)정공은 일제강점기 베어링을 만들던 군수기업이다. 광복 후 군정청은 유병선(柳炳善)을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볼 베어링과 로라 베어링을 생산하면서 조업을 재개했다. 1947년 11월 회사명을 조선베아링으로 변경했는데 당시 상공부의 지원으로 산업재건을 위한 계몽영화 「나는 너를 찾았다(감독 유호, 유생영화사)」를 부평공장에서 촬영할 만큼 공장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 공장 역시 6·25전쟁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상공부가 산업시설 및 원자재 도입을 위해 선정한 제2차 특별외화 지원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정부 지원으로 공장 재건을 시작하면서 1955년 회사명을 불이기계공업과 신한베아링으로 바꾸었지만, 여전히 운영난을 겪으며 공장 직원 20여 명의 8개월치 임금이 체불되기도 했다. 국산자동차와 함께 I.C.A의 원조를 받아 시설 확충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준공 기간을 넘겨야 할 정도로 공장 운영이 녹록치 않았다.

謹告
今般光洋精工株式會社를 朝鮮베아링工場으로 社名을變更하는 同時에業務를擴張하고 優秀한技術者를 總網羅하야 建國途上에서 工業再建의重大課業의一翼에이바지하고저하오니 四海諸賢의愛顧와 鞭撻을 비러삼가歸望하오며 註文은多少를不問하고 拜受하겠아옵기玆以謹告하나이다
KYB (舊-KF)
仁川府山谷洞二五 (富平)
朝鮮베아링工場
(舊光洋精工株式會社)
支配人 柳 炳 善
서울市麴町大門通五街二五
朝鮮베아링工場서울事務所
代表電話 (3) 二三二二番
서울市麴町大門通五街二五
大善企業株式會社
代表電話 (3) 二三二二番

❖ 조선베아링 광고(『동아일보』1947년 11월 29일)

1960년 1월 시설확충 공사가 준공되어 공장 가동이 재개되고 각종 베어링을 독점 생산하며 정상화되는 듯 했지만, 크롬강 대신 값싼 연강(鍊鋼)을 자재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했다. 이 사건은 조선베아링의 공장 운영에 큰 타격을 주었고, 결국 1964년 한국화약에 인수되면서 회사명을 한국베어링으로 변경했다. 인수 당시 회사의 종업원은 모두 250여 명이었는데 그 중 80명을 정비 분야로 전환시켜 기계정비에 투입하는 등 품질 개량에 총력을 기울여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값싼 중고품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식을 시장에 각인시켰다. 이러한 노력으로 정상화된 한국베어링은 화약제조업체라는 인식이 강했던 한국화약 그룹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기도 했다. 1987년 한국베어링은 50억 원을 투입하여 부평공장을 증설하고 회사명을 한국종합기계로 다시 변경했다. 1993년 부평공장의 일부 시설을 창원으로 옮기면서 그 자리에 산곡동 한화1차 아파트를 지었고, 1996년에는 모든 공장시설을 이전한 뒤 여기에 한화2차 아파트와 한화마트(지금 롯데마트)를 건설했다.



❖ 1962년 신한베어링 공장 내부(국가기록원)

청천동 도쿄제강은 광복 후 1947년 12월 군정청에서 주종준을 관리인으로 지정하면서 회사명을 동양제강으로 바꾸었다.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1948년 12월 10일 『경향신문』에 "군정청 관재처는 조병창에 보관되고 있던 특수강 3천 톤을 동양제강 공장에 옮겼다가 영국 무역상 텔러상회에 매도했다"는 기사로 보아 공장 부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6·25전쟁 이후 미군 군수지원사령부 ASCOM이 부평에 주둔하면서 동양제강 자리에는 군수보급창 캠프 아담스가 들어섰다. 그밖에 미쓰비시제강 상인천제작소의 경우 기계류를 교통부로 이관시켰고, 일본 인천육군조병창에는 미군 군수지원부대가 자리 잡았다. 부평동의 디젤자동차 조선제작소는 광복 후의 기록은 없지만, 휴전을 앞두고 상공부에서 UNKRA(유엔한국재건단)의 사업계획에 따라 부평 디젤자동차와 국산자동차에 자동차종합수리공장을 증설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어 당시까지는 공장이 존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청천동에 공장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경성공작 부평공장의 경우 주민 구술에 따르면 광복 후 수도 강관을 생산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경성공작 관련 내용은 대부분 서울 원효로에 공장을 두고 광산용 기계나 정미, 제분기계를 생산했다는 것이다. 부평 공장과 관련해서는 1969년 경성공작 박득묵(朴得默) 사장이 사세 확장을 위해 인천제철의 대주주가 되면서 동아금속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청천동에 특수주물 공장을 짓고 있다는 기사가 있을 뿐이다. 당시 박득묵 사장의 무리한 사세 확장으로 경성공작의 경영난이 가중되었고, 결국 부실기업이 되어 1973년 박정희대통령의 조카 박재홍이 설립한 동양철관에 합병되고 만다. 이때 부평공장도 동양철관에 인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양철관 부평공장은 1995년 천안으로 이전했고, 지금 그 자리에는 청천동 푸르지오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1942년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 따르면 경성공작은 1939년 1월 28일 경성부 청엽정(靑葉町)에 본점을 두고 설립한 회사로 군수품과 광산용 기계, 정미·제분 기계를 제작하고 있었다. 이 내용은 회사설립 인가를 고시한 조선총독부 『관보』 제3652호(1939. 3. 25.)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경성공작 부평공장과 관련한 기록은 발견할 수 없었다.

2) 혼란과 재건의 시대

1938년 광산기계를 제작하던 히로나카(弘中) 상공이 부평역 인근에 들어선 이래 대규모 군수공장이 하나둘 자리를 잡으면서 농촌이었던 부평은 공업도시로 변해갔다. 그러나 전쟁 국면에서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공장 건설과 가동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광복을 맞았다. 광복 후 일제가 부평에 남기고 간 공장들은 대부분 정상 가동이 어려웠다. 일본인 임직원이나 기술진들은 중요 자료 폐기와 본인들의 안전한 귀국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공장 시설의 매각이나 기술 이전 등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건설된 공업도시라면 어디든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었겠지만, 대부분의 공장이 일본 자본에 의해 건설된 부평의 경우 상황이 보다 심각했다. 광복 직후 인천 지역의 공장 가동률은 36.9%였는데 부평은 열 개의 공장 중 단 두 곳만 가동되고 있어 20%에 머물고 있었다.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지 못했던 것은 기술 인력의 부족, 자재 수급의 어려움 등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전력과 공업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도 원인 중 하나였다. 군정청에서 일본 자본이 남기고 간 공장 시설에 관리인을 지정하며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무렵인 1948년 5월, 북한은 남한 지역에 대한 송전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대부분의 발전시설이 38도선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단전은 남한의 공장 가동에 큰 타격을 주었고, 장진강과 화천 수력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던 부평의 공장들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공업용수 부족도 공장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1939년부터 시작된 경기도공업용수 건설공사가 준공을 보지 못한 채 광복이 되면서 공장은 물론 주민들도 물 부족 상황에 시달려야 했다. 1947년 군정청 토목부는 부평과 인천의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네 단계에 걸쳐 수도 공급 증설계획을 발표하고 공사에 들어가 이듬해 2월 노량진-부평 배수지 간 수도 공급을 개시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공업 분야도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었지만, 곧이어 시작된 6·25전쟁으로 그나마 정상화되고 있던 공장들은 다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끝난 후 정부는 미국의 원조에 힘입어 전후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는 사이 파괴된 건물의 재건에 필요한 못, 벽돌, 목재 등을 제작, 생산하는 공장들이 부평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표 8>은 1950년대 부평에 위치한 주요 공장들을 정리한 것이다. 14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는데 절반이 쇠못과 목재, 벽돌을 생산하던 공장이었고, 그 중 금속·기계 제작 공장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부평에 들어선 공장들은 무기를 비롯한 군수품을 제작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금속·기계 공장이 많았던 것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은 아닐까? 아무래도 군수공장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익힌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 기술 인력을 구하기 쉬웠고, 방치되고 있던 기계를 다시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39년 경기도는 부평에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장 가동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공업용수도 건설에 착수했다. 기존의 노량진-인천 송현동 배수지 간 수도선로만으로는 공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로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노량진과 부평 갈산동에 저수지를 건설하고 노량진에서 부천 고강동을 지나 갈산동에 이르는 신설 수도선로를 매설하는 공사였다. 그러나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광복을 맞이했고, 1947년이 되어서야 노량진-부평 간 수도선로를 개통할 수 있었다.

표 8 1950년대 부평의 주요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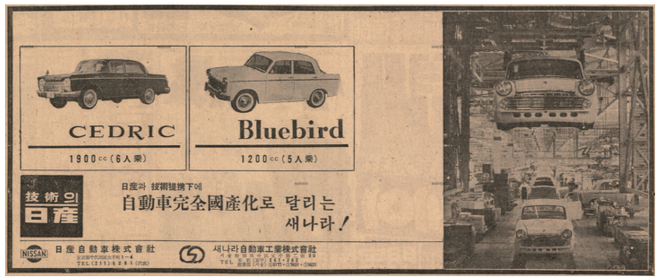
분야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생산품	종업원수
금속제품 생산	부흥제작소	백귀남	부평동 350	경첩 등	15명
	천일제정공업소	조종상	부평동 38	쇠못	38명
	부평기계제작소	김윤옥	부평동 85	쇠못	15명
금속제품 생산	대륙제선공장	홍재우	부평동 101	쇠못	15명
기계 제작	불이기계공업	박성하	산곡동 125	베어링	53명
	신한베아링	유병선	산곡동 125	베어링	확인불가
	국산자동차	김용성	산곡동 128	차량용 스프링	67명
	세광제도사	강대복	청천동 412	그라인더	35명
	삼화연마공업사	유상록	청천동 412	그라인더	35명
	조양금속공업사	김정모	부평동 10	재봉기 동체	확인불가
제재·목재 생산	대성임업	이석구	부평동 319	목재 가공, 생산	20명
	부평제재소	민덕기	부평동 1	목재 가공, 생산	20명
요업	부평연와공업	최성순	부개동 120	벽돌	102명
식음료품 제조	평안양조	김창훈	부평동 326	탁주, 청주	14명

❖ ※『부평사』(2007) 및『전국기업체명감』(1956),『전국기업체총람』(1958),『광업및제조업체명부』(1959) 참고.

3) 부평, 자동차공업의 중심이 되다

1960년대 들어 부평은 자동차공업의 메카로 떠오른다. 그 시작이 되었던 것이 1962년 8월 문을 연 새나라자동차 부평공장이다. 일제강점기 이미 자동차 부속품 공장이나 조립 공장이 있었고 1955년에는 서울 국제차량공업사에서 첫 국산차 시발자동차를 생산하기도 했지만, 새나라자동차는 현대식 시설을 갖춘 공장에서 제대로 된 공정을 거쳐 생산한 첫 자동차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1961년 정부는 「자동차보호육성법」을 제정해서 기업들에게 국산 자동차 생산을 독려하고 저리의 자금 융자도 실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이듬해 2월 재일교포였던 박노정이 설립한 새나라자동차 공업이 일본 닛산자동차와 제휴

협약을 맺고 부평에 자동차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 닛산의 1200cc 소형 승용차인 1961년식 '블루버드 P301형'을 부품 수입방식으로 생산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새나라'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었다. 새나라자동차는 일제강점기 일본 도쿄제강 공장부지 일부와 인근 부지 8만여 평을 매입하여 생산 공장을 지었다. 1962년 11월 생산에 들어가 이듬해 5월까지 2700여 대를 생산하던 중에 당시 세간을 달궜던 4대 의혹사건 중 하나인 '새나라자동차 면세 특혜'사건이 부각되면서 기업 이미지가 나빠졌고, 자금 문제로 닛산 본사로부터의 수입이 어려워지게 되어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 새나라자동차 광고(『동아일보』 1963년 1월 25일)

이 사건은 공화당 창당 자금을 조달하던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 일본에서 재일기업인 박노정을 만나면서 시작된다. 박노정은 정치자금 지원을 대가로 한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에 대한 특혜를 약속받고 중앙정보부의 지원으로 새나라자동차공업을 설립하고 부평에 공장을 건설하였다. 새나라자동차는 닛산자동차의 블루버드 승용차 완제품 400대를 면세로 들여오게 된다. 그와 더불어 1963년 '연구용' 목적으로 일본 닛산으로부터 250대의 블루버드를 면세로 수입하게 되는데 그것이 '연구용'이 아닌 '애프터서비스용'이었다는 내용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밝혀졌다. 재일기업인의 자본을 유치하여 설립한 새나라자동차가 겉으로는 국내 자동차공업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 포장되었지만, 속으로는 정치자금 지원의 댓가로 수입차에 면세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새나라자동차가 도산한 뒤 정부는 부평공장의 부지와 건물, 시설 일체를 경매에 넘겼고, 1964년 2월 한일은행에 낙찰되었다. 이듬해 7월 한일은행은 부평공장을 삼미사에 다시 불하했는데 정부의 자동차공업 일원화 정책에 따라 이미 자동차 생산을 계획하고 있던 신진자동차공업이 이를 인수하게 했다. 새나라자동차가 닛산과 제휴를 통해 자동차를 생산했다면 이 회사를 인수한 신진자동차는 닛산의 경쟁업체인 토요타를 선택했다. 신진자동차는 1966년 3월 토요타로부터 '코로나' 580대를 직수입하려 했으나 상공부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새나라자동차 의혹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정부가 자동차 생산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성차를 직수입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79%의 부속품만 일

당시 상공부는 새나라자동차의 부평공장을 신진공업에 인수시키려 했지만, 한일은행의 공매 입찰에서 삼미사가 낙찰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상공부는 국내 자동차시장이 좁고 투자효율을 고려하여 자동차제작공장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이미 자동차공업에 진출해 있던 신진공업이 아닌 삼미사가 새나라자동차 인수협상 대상자가 되었던 것이다.
결국 삼미사가 인수협상 대상자격을 포기하는 대신 자본을 투자하는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중재가 이뤄져 새나라자동차는 신진공업에 인수되었다.

본에서 수입하고 나머지 부속품을 부평공장에서 제작하여 조립하는 형태로 코로나를 생산하기로 하고 공장 가동에 들어가 5월 26일 부평공장에서 제1호차 공개 행사를 가졌다.

❖ 인천도시역사관에 전시 중인 코로나 승용차

차량 생산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매일 10대 이상의 차량이 조립, 출고되어 3개월이 지난 8월 말까지 모두 760대를 생산하고 있었다. 세련된 디자인의 코로나는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하며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차를 구입하려면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불법으로 차를 구입해준다는 브로커에게 속아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까지 발생하자 회사는 이를 조심하라는 광고를 유력 일간지에 싣기도 했다. 신진자동차는 코로나의 후속으로 중대형 웨건에 속하는 '크라운'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1967년 5월 생산을 시작했다. 비록 일본 토요타자동차의 동일 모델을 그대로 들여와 조립한 차였지만, 크라운 역시 당시 부유층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11월 소형차 '퍼블리카'까지 생산하면서 신

진자동차는 우리나라 자동차공업에 있어 부동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1970년 중국이 일본과 수교하며 내세운 조건, 즉 대만, 한국과 거래 및 투자하는 기업과는 절대 거래하지 않겠다는 요구에 따라 토요타자동차는 1972년 2월 신진자동차와의 업무 제휴를 일방적으로 단절해 버렸다. 대신 신진자동차는 미국 GM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했다.

❖ 1970년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조업 광경(국가기록원)

이번에는 일대일 공동출자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렇게 설립된 회사가 GM코리아다. GM코리아는 토요타 브랜드였던 코로나와 크라운 대신 소형차 '시보레'와 중형차 '레코드'를 출시했다. 그러나 회사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오일쇼크로 자동차 판매가 부진에 빠졌고, 결국 부채가 누적되면서 GM코리아의 신진자동차 보유지분을 산업은행이 인수하였다. 그와 함께 회사명을 새한자동차로 바꾸고 새로

운 자동차 제미니를 출시하면서 회사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힘썼다.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1978년 7월 신흥 재벌로 부각하고 있던 대우실업이 새한자동차의 산업은행 보유지분 1,850만 주를 200억 원에 인수하면서 경영에 참여했다. 대우의 과감한 투자로 새한자동차는 공장시설을 확충해 갔으며, 중형차 '로얄'시리즈와 소형차 '맵시'시리즈를 연달아 히트시켰다. 그와 함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도 부평 및 인근 지역으로 속속 들어서면서 부평은 우리나라 자동차 공업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되었다.

❖ 1976년 새한자동차 부평공장 전경(국가기록원)

1983년 1월 대우그룹은 미국 GM으로부터 새한자동차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하였고 회사명도 대우자동차로 변경하였다. 대우그룹의 주력 기업이 된 대우자동차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1980년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이끌었다. 1986년 마이카 열풍에 힘입어 '프린스', '슈퍼살롱', '르망'을 연이어 시장에 내놓으면서 국내 승용차시장 점유율을 31%까지 끌어올렸다. 1991년 우리나라 최초의 경차로 출시된 '티코'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를 발판으로 대우자동차는 세계시장 개척에 나섰다. 특히 티코는 자동차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을 만큼 성능이 우수하여 당시 대우그룹이 표방했던 세계 경영을 선도한 차종이었다. 자동차 생산에 자신감을 얻은 대우그룹은 1992년 12월 GM과의 합작관계를 청산하고 독자 경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등의 국가에 현지 법인과 공장을 설립하여 신흥 시장을 선점했으며, 자동차 선진국인 영국과 독일에 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리한 확장 경영에 따른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대우그룹이 파산하면서 대우자동차는 워크아웃(Work Out : 기업 개선 작업)과 법정관리를 겪으며 독자 생존을 모색하게 된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뒤에도 누적된 부채와 노동자들의 파업, 매각 지역 등으로 경영 정상화에 실패하여 2000년 11월 최종 부도 처리되고 말았다. 결국 이듬해 2월 경영난이 악화되자 대규모 인력 감축을 통해 생산직 근로자 1,750명을 정리 해고하였고, 과거 사업 파트너였던 미국 GM으로 매각이 결정되었다.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GM은 기존의 브랜드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회사명을 GM대우로 변경하였다. 여전히 유럽 동구권과 동남아시아에서는 대우의 경차와 소형차가 인기 차종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로고도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나 대우자동차의 승용차 부문만 인수하였을 뿐 버스와 상용차 부문은 각각 대우버스와 타타대우상용차로 분리시켰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도 처음에는 대우인천자동차로 분리되어 하청 공장이 되었지만, 2005년 10월 다시 GM대우가 인수하면서 이곳에서 소형차 젠트라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어설프게 붙어있던 대우라는 브랜드마저 2011년 GM대우가 한국GM으로 회사명을 변경하며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1938년 조선국산자동차공업이 첫발을 딛고, 1962년 새나라자동차가 물꼬를 튼 부평의 자동차공업은 신진, GM, 새한, 대우 등 다양한 회사를 거치며 발전해 왔다. 지금 GM 부평공장 종업원과 인근의 하청업체 직원까지 합하면 부평의 자동차산업 종사자는 거의 4만 명에 가깝다. 그렇게 따지면 자동차산업은 한 세기 가깝게 부평의 공업을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4) 산업화를 이끌었던 수출 4공단

일제강점기였던 1939년 경기도가 산곡동, 청천동, 갈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광복이 되면서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다. 일부 조성이 완료되어 공장과 주택이 들어섰던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땅은 매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일제가 일으킨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고자 했던 이 땅에는 그로부터 꼭 30년이 지난 1969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갈 수출공단이 건설되었다.

1962년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업화를 통해 자립 경제를 구축하고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여 수출을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1963년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촉진위원회'를 발족시킨데 이어 이를 토대로 수출공단 조성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10월 12일 '한국수출산업공단'을 창립했다. 정부는 이듬해 9월 공단 조성을 지원하는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이하 수출공단조성법)」을 제정하고 12월 구로수출공단 건설공사를 착공했다. 정부의 수출공단 조성계획이 알려지면서 인천의 상공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수출공단 유치를 최우선 사업으로 결의하고 부평을 후보지로 제안했다. 「수출공단조성법」이 공포되자 부평에 공단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건설부는 1965년 6월 부평지구 효성동, 작전동 갈산동 일원 21만 3,000여 평을 수출공단 예정지로 지정 고시했다. 당시 정부는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공장과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입지 환경이라는 점, 경인지구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평을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평지구가 수출공단 조성지로 지정되자 인천의 기업들은 인천수출산업공단 기성회(이하 기성회)를 발족하고 인천상공회의소 채호 회장을 기성회장으로 선출했다. 기성회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공무원, 언론사 대표, 그리고 기업 대표 등 23명으로 구성되었다. 기성회의 목적은 향후 조성될 수출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최소 20개 이상의 입주 업체를 확보하는 것과 그를 통해 수출공단 조성과 운영을 전담할 인천수출산업공단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기성회는 서울 구로수출공단의 조성을 주도하던 한국수출산업공단이 법인체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천수출산업공단을 독립된 법인체로 만들고자 했고, 1965년 10월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기성회를 비롯한 인천 상공업계의 노력으로 11월 23일 인천수출공단은 상공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 부평공단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준비할 발판이 마련된 셈이었다.

공식적으로 출범한 인천수출공단은 용지취득위원회를 조직하여 부지 매입에 나섰다. 대부분이 국유지였던 구로공단과 달리 부평공단의 경우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던 부평공단 조성사업은 엉뚱한 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게 된다. 1966년 1월 22일 윤갑노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수출공단 예정지를 부평지구에서 서곶·가좌지구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거액의 토지매입비가 필요한 부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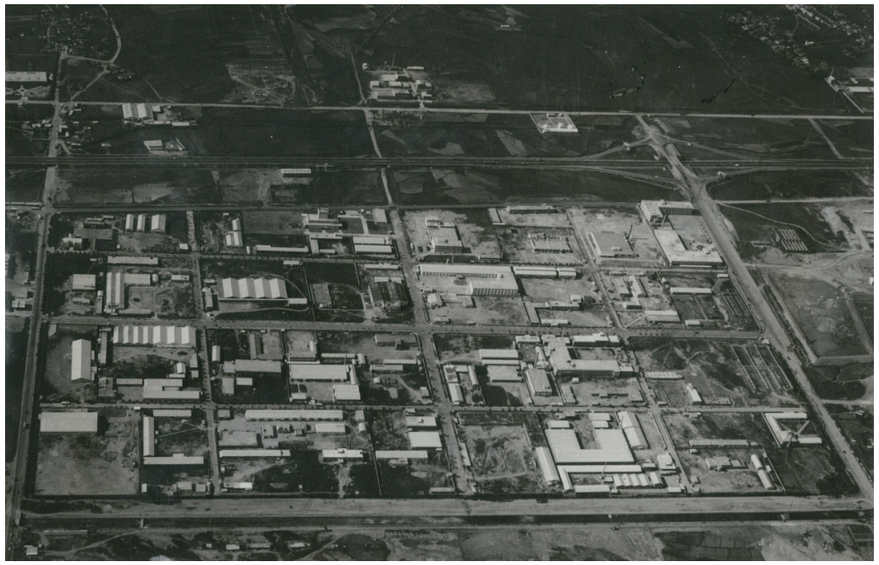
1918년 조성이 완료된 주안염전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1963년 10월 정부는 국영기업체인 대한염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전매청이 관할하던 인천 주변 염전의 운영과 소금 판매를 전담하게 했다. 대한염업은 1966년 주안염전의 소금 생산을 중단했고, 정부는 이곳을 공장지대로 건설하고자 했다. 당시 인천시는 주안염전 부지가 국영기업체였던 대한염업의 소유였기 때문에 별도의 토지매입비가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구보다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끝난 서곶·가좌지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부평 지역사회는 크게 반발했다. 부평 지주 모임인 '부평진흥회'의 유지 30여 명은 부평출장소에서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시장에게 예정지 변경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후원회'를 조직하고 부지 매입에 필요한 모금활동을 전개해갔다. 후원회는 부지 매입에 필요한 1,500만 원을 모금하겠다는 의사를 인천시에 전하는 한편, 모금 운동에 들어가 1966년 2월 11일 1차 모금액 750만원을 인천시장에게 전달했다. 그 자리에서 나머지 모금액은 3월 20일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정서를 교환하면서 인천시장은 수출공단 부지 변경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 인천수출산업공단 단지조성공사 기공식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66년 3월 31일 인천수출공단은 사유지 17만여 평의 매수를 완료하고 4월 8일 청천동에서 기공식을 거행하면서 공단 조성공사에 착수했다.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어 착공 4개월 만에 30%의 정지작업을 달성했는데 이처럼 빠른 진척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총 8만 5,000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를 투입한데다 미8군 제2공병단에서 건설장비를 지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자금지원이 늦어지면서 준공을 7개월 앞둔 1968년 5월 말까지 공단 조성공사의 공정율은 57%에 불과했고, 그해 연말까지 완공한다는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야만 했다. 결국 1969년 10월 30일 인천수출공단 부평지구 조성공사가 마무리되고 공장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공단 운영은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한편, 조성공사가 한창이던 1968년 5월 인천수출공단은 입주희망업체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그에 앞서 정부는 부평공단의 입주대상 업종을 정했는데 금속 제품을 비롯해서 합성수지와 섬유 등 12개 경공업 분야가 포함되었다. 정부는 구로와 부평 수출공단에 재일교포가 운영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내 자본이 열악했던 상황에서 재일교포 기업의 유치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투자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그들이 가진 기술까지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상공부가 부평공단의 첫 번째 입주 기업으로 재일교포 홍대희가 운영하는 한국크리스탈 공업을 지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부평공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재일교포 기업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1968년 지정된 29개 업체 중 재일교포 기업은 6개뿐이었다. 그럼에도 공단 조성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40개 기업이 입주를 확정지었고, 1971년 인천수출공단이 한국수출산업공단과 통합될 때까지 모두 72개의 기업이 부평공단에 입주하거나 입주를 예정하고 있었다. 심각한 경기불황으로 도산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부평공단은 준공 이듬해인 1970년 입주가 확정된 공장 47개 중 20개가 가동에 들어가 4만 6,000명의 노동자가 근무하면서 2만 3,000여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이는 인천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1971년 11월 정부는 수출산업 진흥의 일원화를 위해 인천수출공단을 한국수출산업공단에 흡수, 통합시켰다. 그리고 부평공단의 공식 명칭은 인천 제1수출공단에서 한국 제4수출공단(수출4공단)으로 변경되었다. 부평 수출4공단은 서울 구로의 수출1~3공단, 주안염전 자리에 들어선 수출5, 6공단과 함께 경인공업지대를 이루며 1970~198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다.



❖ 1972년 부평 수출4공단 항공사진(국가기록원)

5 주거의 변화 : 노무자 주택에서 아파트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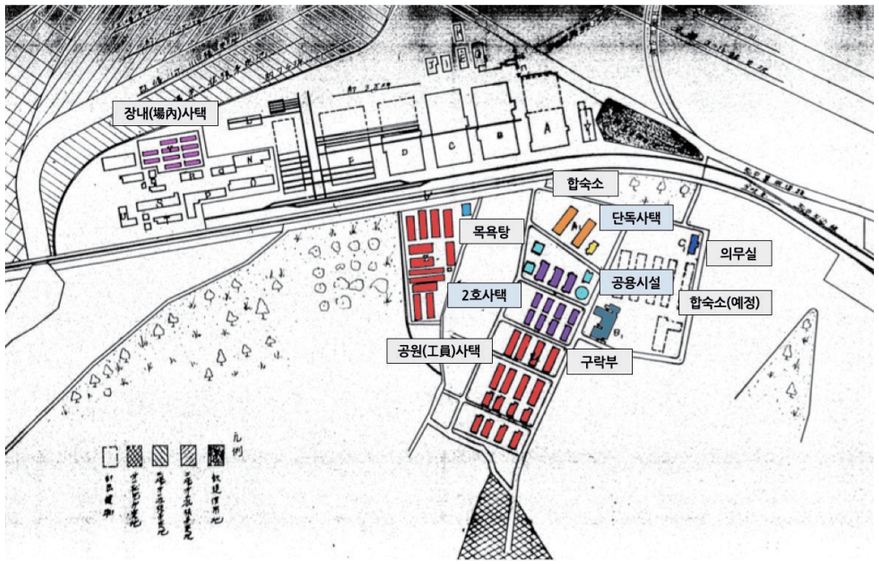
전통시대 우리나라 촌락의 주거 형태는 흙을 다져 벽을 세우고 짚을 엮어 지붕을 얹는 초가(草家)였다. 1930년대까지 촌락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던 부평의 주거 형태도 초가가 대부분이었다. 1938년 히로나카(弘中) 상공이 부평에 기계 공장을 건설하면서 공장 노동자를 위한 사택단지를 조성한 이래 광복 때까지 이곳의 보편적인 주거 형태는 사택과 관영 주택이었다. 광복 후 토지구획정리를 통해 택지와 도로망이 정비되면서 단독주택이 들어서는가 싶더니 1980년대부터 대단위 아파트가 부평이라는 공간을 지배해 갔다.

1) 사택, 공업화가 가져온 주거의 변화

여기서 말하는 노무자(勞務者)란 1930년대 말부터 부평에 들어선 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와 임직원, 또 조선인과 일본인을 통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무자 주택은 외지에서 유입된 노무자들이 부평살이를 위해 거주했던 공간을 말한다. 당시 부평에 공장을 지었던 기업들은 공장에서 근무할 노무자의 주거 공간, 즉 사택을 마련해야 했다. 일본인이 주를 이뤘던 간부와 기술진을 위한 주택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숙소도 필요했다. 부평에 처음 사택을 지었던 기업은 1938년 부평역 서쪽에 약 4만 5,000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짓기 시작한 히로나카 상공이었다.

❖ 2005년 부평2동 미쓰비시 신 사택지 전경(부평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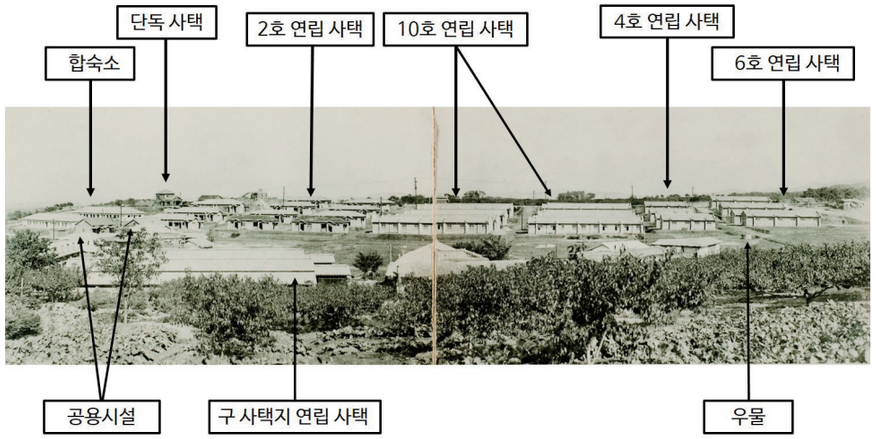
공장 건설이 막바지에 다다른 1939년 11월 18일 히로나카 상공은 관계 인사 및 지역 유지 500여 명을 초대하여 공장 시설을 견학시켰다. 이 자리에서 히로나카 료이치(弘中良一) 사장은 공장부지 남쪽 약 1만 5,000여 평의 땅에 사택 용지를 마련하여 사택을 짓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 사택 60호, 공원 사택 300호와 240평 규모의 독신자 사택을 비롯해서 공동목욕탕, 구락부, 의료실 등을 갖춘 대규모 사택촌이었다. 1940년 본격적인 공장 가동에 들어간 히로나카 상공에는 직원 123명, 계원 144명과 공원 980명, 기술 양성원 118명 등 모두 1,36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직원 대부분이 일본을 비롯한 타 지역 출신으로 회사는 작업 능률을 올리기 위해 그들이 거주할 사택을 마련해야 했다.



❖ 1940년 히로나카 상공 사택 배치 현황
(이연경·홍현도, 「부평 미쓰비시 사택의 도시주거로서의 특징과 가치」, 『도시연구』22, 2019, 69쪽.)

위 지도는 히로나카 상공에 자금을 대출해 주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1940년 기록에 첨부된 부평공장 배치도이다. 배치도에 표시된 사택은 공장 내에 있는 장내(場內) 사택과 철길 남쪽에 건설된 외부 사택으로 구분된다. 공장 서쪽에 위치한 장내 사택은 연면적 197.5평으로 모두 10개 동을 지었는데 규모와 형태로 보아 독신자 사택, 즉 합숙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공장 남쪽 2만 3,000평의 부지에 지어진 외부 사택은 단독 사택과 2호 연립 등 연립 사택, 합숙소 등 다양한 형태로 지어졌으며, 사택 단지 내에 구락부, 목욕탕, 의무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미쓰비시(三菱) 제강이 히로나카 상공을 인수했던 1942년의 기록에 따르면 사택지 면적은 총 5만 4,000여 평으로 3만 평 이상 늘어나 있었고, 여기에 직원 사택 88개 동과 공원 사택 26개 동, 합숙소 및 공동욕탕 등이 들어서 있었다. 이로 미루어 1940년 이후 대규모의 사택 부지 확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미쓰비시 제강은 1943년 직원 사택 3개 동과 공원 사택 6개 동, 합숙소 및 공동욕장 2개 동을 더 지었고, 1944년에는 직원 사택 6개 동과 공원 사택 10개 동을 추가로 건축하였다.

아래 사진은 부평역사박물관이 소장한 히로나카 상공 부평공장 사택촌 사진엽서다. 왼쪽 언덕 고지대에 단독 사택이 위치하며, 그 옆으로 2호 연립부터 10호, 4호, 6호 연립의 순으로 사택이 지어졌다. 사택의 형태는 건물 한 동을 오롯이 한 가구가 사용하는 단독 사택과 하나의 건물에 두 가구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연립 사택으로 구분된다. 단독 사택의 경우 공장장 사택이었을 것이고, 연립 사택 중에서도 2호 연립은 간부급 직원, 4호 연립부터는 하급 직원이나 공원(工員) 사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4~10호 연립 사택은 한 건물에 네 가구에서 열 가구의 단위 세대가 일렬로 연속해서 배치되는 '나가야(長屋)' 형태로 지어졌는데 기다란 건물이 줄지어 서 있다고 해서 '줄 사택'이라고도 부른다. 공장 간부나 직원이었던 일본인들은 대부분 단독과 2호 연립 사택에 거주했다. 14~21평의 비교적 넓은 면적이었던 2호 연립 사택은 동일한 평면을 갖는 두 가구가 한 건물 안에서 대칭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었다. 복도식 마루를 중심으로 다다미방 2개와 하나의 온돌방이 있었고, 방 안에는 붙박이장인 '오시이레(押入)'와 장식용 공간인 '도코노마(床の間)'가 설치되었으며 부엌과 화장실, 욕실이 건물 내부로 들어와 있는 구조였다. 그에 비해 주로 조선인 노동자들이 거주했던 4~10호 연립 사택은 한 가구당 여섯 평 정도의 크기로 현관 겸 부엌을 지나 4평 규모의 방이 배치되는 단순한 구조였다. 방에는 오시이레가 앞뒤로 설치되어 두 가구가 한 개씩 사용하는 구조였으며, 서쪽으로 창을 내었다. 나가야형 사택(줄 사택) 북쪽 끝으로 공용화장실을 두었다.



❖ 히로나카 상공 부평공장 사택촌 시설 분포(부평역사박물관)

광복 후 미쓰비시 제강 상인천제작소의 자산은 미군에 접수되었다가 1956년 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사택의 경우 각 세대별로 필지가 분할되었고 1960년대 대부분 일반에

불하되었다. 주민들은 이곳을 미쓰비시의 한자인 '삼릉(三菱)'또는 '삼릉마을'이라 불렀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주도했던 전범(戰犯) 기업의 이름이 마을에 붙어버린 것이다. 그 후 연립 사택들의 증·개축으로 건물 사이의 도로가 대부분 사라졌으며, 2004년에는 신 사택지의 10호 연립 1개동이 철거되어 공원이 되었다. 2017년 10호 연립 사택 2개 동이 철거되면서 그 자리로 경로당, 독서실, 체력단련실로 구성된 3층 규모의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들어섰고, 2022년 3월 '부평2구역 재개발 사업'착공과 함께 대부분의 사택들이 전면 철거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미쓰비시 사택은 10호 연립사택 2개 동과 4호 연립 1개 동뿐이다. 그렇게 부평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미쓰비시 사택촌은 80여 년 만에 일부 건물만 남긴 채 사라져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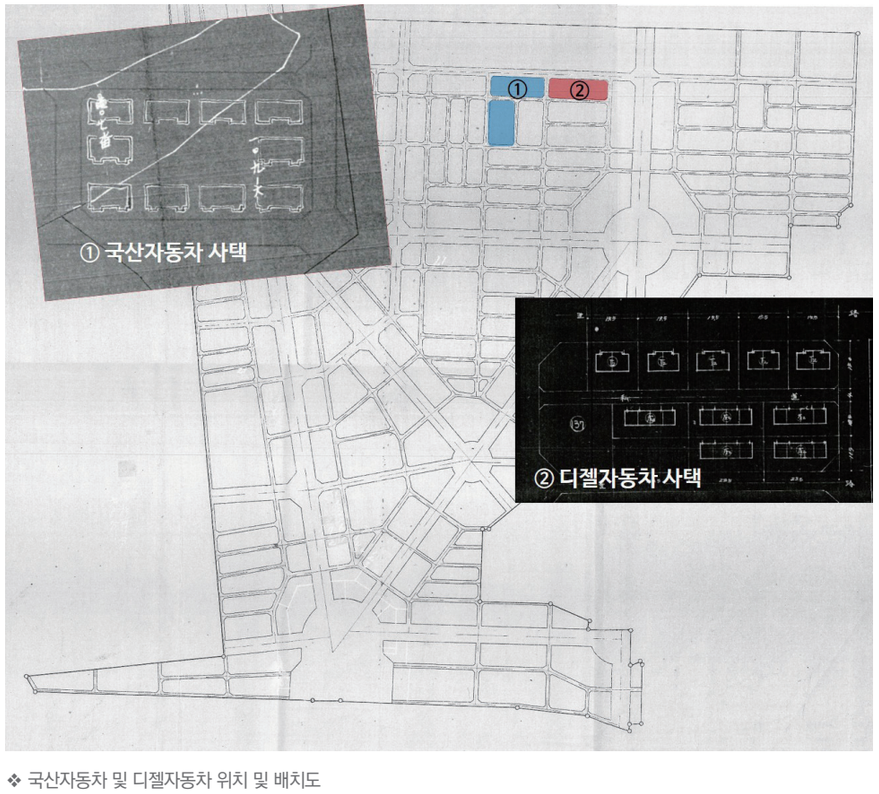
'부평2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미쓰비시 사택 철거를 목전에 두고 있던 2019년 11월 인천고등학교 학생 519명은 미쓰비시 사택 철거를 중지하고 수탈의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관을 조성해 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부평구청에 전달했다. 당시 이 학교 2학년생이던 김다준 학생을 비롯한 30여 명은 미쓰비시 사택을 답사하고 보존의 필요성을 다른 학생에게 알리는 '수탈당한 청춘'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했고,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학생들이 입장문에 서명했던 것이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사택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개발 사업으로 전면 철거되었다.

미쓰비시 사택촌이 전면 철거에 들어가기 1년 6개월 전인 2020년 가을, 산곡동의 이른바 '검정사택'이 철거되었다. 검정색 코르타르가 칠해져 있어 검정사택이라 불리던 주택들은 1942년 도쿄제강에서 건립한 사택이었다. 당시 도쿄제강은 경기도가 조성하고 있던 공업용지에 7만 6,000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과 사택을 건설했다. 공장 부지는 청천동 한국 GM 부평공장 자리로 6만 3,000평이었고, 사택지 면적은 1만 2,000평으로 공장에서 북서쪽으로 약 1㎞ 떨어진 산곡동 45-6번지 일대였다. 히로나카 상공과 마찬가지로 장내 사택과 외부 사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도쿄제강 100년사』에 따르면 공장 동쪽으로 두 동의 장내 사택이 있었다.

외부 사택은 단독 사택과 2호 연립 사택, 그리고 4호 연립 사택 등 세 종류가 있었는데 공장에서 가까운 동쪽에서부터 단독 사택, 2호 연립, 4호 연립 순으로 배치하여 직급에 따른 배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모두 24동의 사택이 남쪽을 향해 지어졌고, 단독 사택과 2호 연립 사택은 각각 6개 동씩 2열로, 4호 연립 사택은 3개 동씩 4열로 배치되었다. 2020년 부평역사박물관의 조사에 따르면 2호 연립 사택의 면적은 가구당 약 15평, 4호 연립 사택은 9평 정도였다. 그러나 산곡동 도쿄제강 사택은 청천1구역 재개발 공사로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된 가운데 단독 사택 3개 동과 2호 연립 사택 1개 동만 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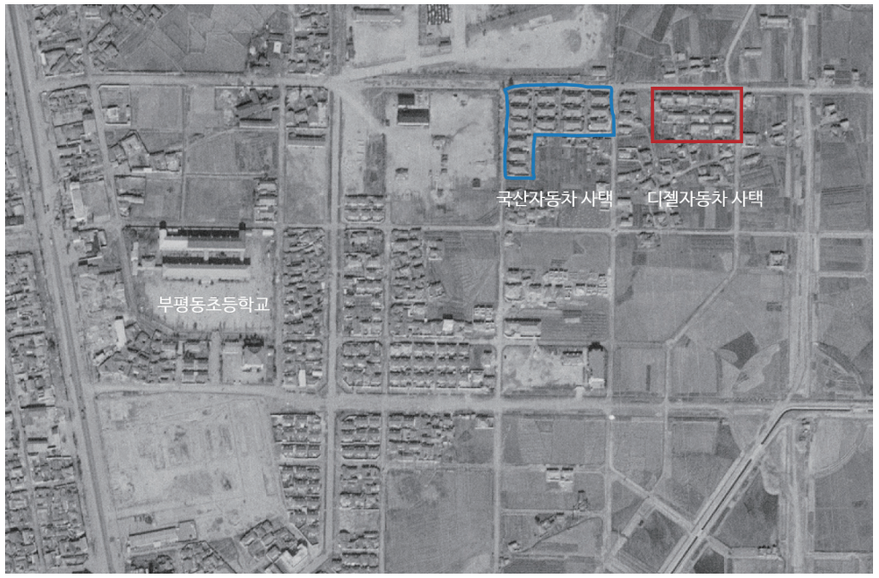
❖ 1967년 도쿄제강 청천동 사택 항공사진

일제강점기 부평에 공장을 건설했던 두 개의 자동차 관련 기업, 즉 국산자동차와 디젤자동차공업의 사택은 부평4동 부평고등학교 남쪽에 나란히 건설되었다. 아마도 두 기업의 뿌리가 조선국산자동차공업이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먼저 사택을 건설한 회사는 국산자동차주식회사였다. 이 회사는 1937년 3월 설립한 조선국산자동차공업이 아닌 1939년 6월 도쿄자동차공업과의 합병 조건에 따라 신설된 국산자동차였다. 도쿄자동차공업의 부평공장 건설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사이 국산자동차는 경기도가 청천동에 조성중이던 공업용지에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차량용 스프링 공장 건설에 착수했는데 1941년 5월 경기도에 사택 건축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이곳은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의 107번 가곽으로 지금 부평동 406번지 일원이다. 처음에는 2호 연립으로 추정되는 건물 10개 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1954년 항공사진을 보면 107번 가곽에 2개 동, 109번 가곽에 3개 동의 건물이 추가되어 모두 15개 동이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 국산자동차 및 디젤자동차 위치 및 배치도

디젤자동차공업은 그보다 3년 늦은 1944년 6월 137번 가곽에 사택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공사는 7월 1일 착수하여 10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었다. 1942년 설립된 조선주택영단의 표준평면 '정(丁)'형과 '무(戊)'형 평면을 차용했으며 두 형태의 주택 모두 북쪽으로 출입구를 냈다. 사택은 동서 방향 2열로 건설되었는데 총 10개 동에 30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가구당 8평 규모의 '정'형 주택은 다다미 4장 반 규모의 방 두 개와 부엌과 화장실이 배치되는 구조였고, '무'형 주택은 다다미 2장 규모의 방 하나와 온돌방 하나, 부엌과 화장실이 배치된 구조였다. 지금 디젤자동차공업 사택은 모두 멸실되었고, 국산자동차 사택의 경우 3개 동 정도가 남아있으나 변형이 심하여 원형을 알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1967년 항공사진을 통해 본 국산자동차와 디젤자동차 사택

2) 주택난 해결을 위해 건설된 관영 주택(官營住宅)

관영 주택은 사택과 달리 정부나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에서 지은 주택을 말한다. 일제강점기 인천의 관영 주택에는 인천부에서 지은 부영주택과 공공기관의 관사, 그리고 조선주택영단에서 건설한 영단주택 등이 있었다. 부평에도 부영주택과 관사, 영단주택이 지어졌다. 부영주택은 1920년대 주택난이 심화되자 지방관청에서 도시 빈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건축한 주택을 말한다. 인천부에는 1930년대 후반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주택난이 심화되자 1940년 도원동에 도산주택(桃山住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건설되었다. 이어서 1941년 숭의동, 용현동, 금곡동, 주안동, 부평동 등 다섯 곳에 8,800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모두 300개 동의 부영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 중 부평에는 미쓰비시 사택 남쪽에 표준형 3호 주택(부지면적 30평, 건축면적 12평) 30동과 표준형 4호 주택(부지면적 24평, 건축면적 8평) 70개 동 등 모두 100개 동의 부영주택을 지을예정이었다.

인천부는 부영주택의 1호에서 4호까지의 표준평면을 마련하여 건설에 속도를 높이고자 했다. 설계에 필요한 시간을 제하고 부지가 확보되는 즉시 표준평면에 따라 시공에 들어갈 수 있었다. 1호에서 3호까지는 다다미가 설치되는 개량 주택이었고, 4호 평면은 'ㄱ'자 한옥이었다. 1호와 2호의 건축 면적은 15평, 3호와 4호는 각각 12평과 8평이었다.

1941년 12월 인천부는 부평동 756번지 일대 2,508평을 매입하여 59개의 필지로 분할하였다. 분할된 필지 중 일부는 회사 혹은 개인에게 매각되었고, 매각되지 않은 약 30%의 필지가 인천부 소유로 남아 있었다. 1943년 2월 18일자 『매일신보』의 부평 미곡배급소 설치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인천부 소유의 부지에 59동의 주택이 건설되었고 모두 5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부평의 부영주택은 1943년 이전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부영주택은 모두 8개의 가곽으로 이루어졌는데 가곽은 다시 6~8개 필지로 구획되었다. 지금 부영주택지의 가곽과 필지는 처음 건설 당시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2000년경 부영주택지 동쪽으로 안남로가 개통되면서 동북쪽 가곽이 절반 이상 잘려나갔다. 주택의 형태도 1990년대 이후 다세대주택들이 집중적으로 건축됨에 따라 현재는 4~5층 규모의 빌라들로 가득 찬 주거지가 되었다.

❖ 1947년 부평2동 인천부 부영주택 일대 항공사진

관사(官舍)는 관공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위해 지은 주택을 말한다. 1940년대 들어 부평의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인천부청 부평출장소 등 관공서도 하나둘 들어서게 된다. 여기서 근무할 직원들의 숙소였던 관사는 관공서 부지 내 또는 인근에 지어지는데 현재 관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관공서는 소화정우체국, 경성전기 부평영업소, 그리고 부평역이다. 대개 근무 인원이 많지 않았기에 건물 한 동 정도를 지었지만, 부평역의 경우 1940년 역사 건물과 시설을 확장하면서 직원이 늘어나 모두 16동의 관사를 신축했다.

부평역은 경인철도 10개 역사 중 1934년까지 유일하게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낙후된 역사였고, 근무 인원도 한 명뿐이었다. 1934년 역사를 신축한 후 1940년 화물까지 취급하면서 전체 규모가 4배로 늘어났다.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역무원의 수도 늘어났을 것이고, 그들의 숙소를 해결하기 위해 관사를 신축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평역 철도 관사는 부평역 남쪽에 2호 연립의 7등 관사로 지어져 모두 32가구가 거주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7등 관사는 주로 주임, 부역장, 선로장이 거주하던 곳으로 한 가구당 면적은 16~20평 규모였으며, 다다미나 온돌이 설치된 방이 세 개, 화장실과 욕실, 부엌이 갖춰져 있는 구조였다. 부평역 철도 관사가 지어질 당시 주변은 대부분 논밭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다세대주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관사도 하나 둘 철거되어 다세대주택으로 변해갔다. 현재 남아있는 관사는 부평동 697-22번지의 1개 동뿐으로 여전히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집은 해방 이후 계속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지붕과 외부 마감재를 교체하였고, 내부 공간 역시 일부 증·개축이 있었으나 비교적 원래의 공간 구조와 내부 미닫이문 등 창호가 잘 남아있는 편이다.

❖ 부평동 697-22 철도관사 내부 복도

3) 조병창 노무자를 위한 경인기업주택

일제강점기 부평에는 민간 주택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영 주택의 범주에 넣기도 모호한 대단위 주택이 있었다. 백마장 영단주택이라 알려진, 산곡동 노무자 주택단지가 그것이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였던 740개 동이 4년에 걸쳐 건설되었는데 그중 704개 동은 민간 기업인 경인기업에서, 36개 동은 조선주택영단에서 지었다. 건설 주체가 다르다 보니 건물의 구조나 형태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경인기업 주택은 한옥이었고, 조선주택영단에서 지은 주택은 나가야형 일식 주택이었다. 이곳을 백마장 영단주택이라 한 것은 1940년 경인기업이 처음 건설을 시작했지만 자금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뒤 조선주택영단이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일본 인천육군조병창은 중국 심양의 남만육군조병창과 함께 일본 육군이 해외에 건설한 무기 공장으로 1941년 5월 5일 개창식을 갖고 광복 때까지 소총과 탄약, 총검 등을 생산하고 있었다. 조병창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조선상공회의소 소장을 역임했던 가다 나오지(賀田直治)와 경성부 의원 조병상(曹秉相) 등 30여 명은 1940년 7월 18일 경인기업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경인기업은 부평에 조병창 노무자 주택과 일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자본금 200만 원으로 경기도에서 조성하고 있던 공업용지 3만 4,000여 평을 매입했다. 여기에 저리로 융자를 받아 공사비용을 확보한 뒤 노무자 주택 1,000개 동의 건설에 들어갔다. 공사가 70%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다시 저리 융자를 통해 공사자금을 추가로 마련하려고 했지만, 융자가 불허되는 바람에 자금난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1943년 이미 건축이 끝난 주택 704개 동과 부지를 조선주택영단에 일괄 매각하였다. 경인기업주택은 한 가구당 13.8평의 부지에 6.25평 규모의 'ㄱ'자형 한옥을 이어붙인 형태로 단지를 조성해 갔다. 가옥 구조는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부엌을 두었고, 화장실은 대문 옆에 배치하여 본채와 분리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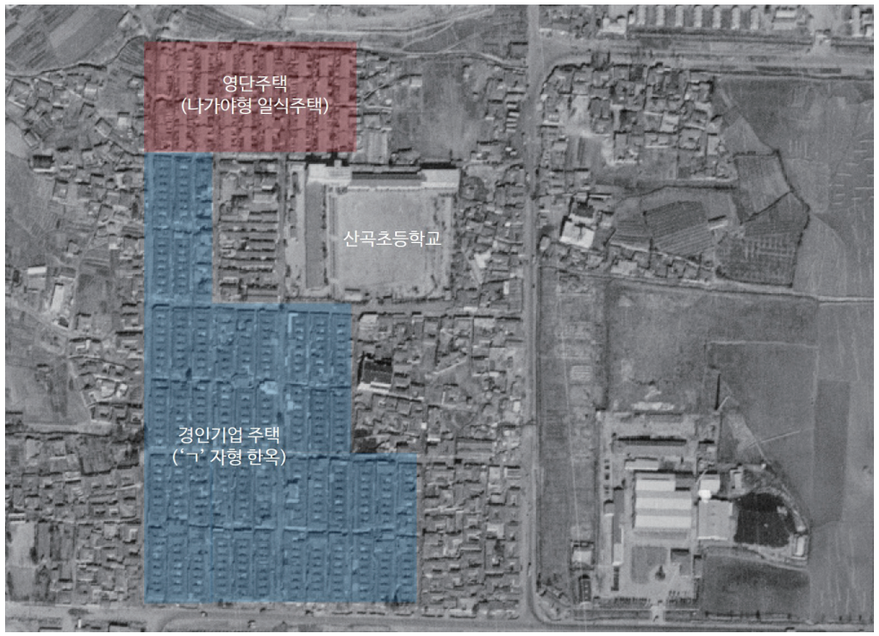
❖ 1950년대 산곡동 노무자주택단지 전경

1930년대 조선공업화정책으로 도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면서 주택난이 심각해졌고, 조선총독부는 1941년 5월 창립한 일본주택영단을 본보기로 하여 그해 7월 특수법인 조선주택영단을 설립한다. 조선주택영단은 설립과 동시에 주택건설 4개년 계획을 세워 서울을 비롯한 19개 도시에 4년 동안 2만 채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전쟁 상황에서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광복 때까지 영단이 건설한 주택은 1만여 채에 불과했다. 1944년 8월 25일자 『매일신보』기사에 따르면 주택영단은 부평 산곡동에 총 500호의 노무자 주택을 2년에 걸쳐 건설할 계획이었는데 당시는 정지(整地) 공사를 끝낸 상태였고, 10월까지 214개 동을 준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실제로 건설된 영단주택은 6호 연립주택 36개 동으로 모두 216가구의 노무자 주택이 건설되었다. 가구당 면적은 4평 안팎으로 매우 열악한 주거 형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방 하나에 복도 겸 마루와 부엌이 있었고, 외부에 공동화장실을 두었다.

조선주택영단은 노무자뿐 아니라 일반 서민의 주택 공급을 위해 20평 이하 규모의 다섯 개 표준형(갑형~무형) 주택을 공급했다. 갑형~병형은 서민 주택, 정형과 무형은 노무자용 주택으로 계획되었고, 갑형과 을형은 분양을 통해, 병형 이하의 주택은 임대로 공급했다.

광복 후 조선주택영단의 소유였던 산곡동 주택지는 1945년부터 1973년까지 미군 군수지원사령부 애스컴에 근무하는 한국인 종업원들의 거주지가 되었다. 1973년 애스컴이 해체

되면서 대우자동차와 한국베어링에서 일하는 공장 근로자들이 거주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주택들이 노후화되어 2000년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결성된 후 재개발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며 2019년 4월 산곡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철거될 예정이다.



❖ 1967년 산곡동 노무자주택단지 항공사진

4) 광복 후 부평에 들어선 주택들

부평 동아아파트 입구 모다백화점에서 부평구청 사거리에 이르는 공영주차장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굴포천을 복개해서 조성한 것이다. 복개되기 전부터 굴포천의 동쪽 변으로는 낮은 지붕의 판자집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주민들은 이곳을 다다구미(多田組)라 불렀다. 다다구미는 1916년 서울에서 창업한 토목청부업회사 다다(多田) 공무점(工務店)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의 가네가후치(鐘淵) 방적 공장, 미쓰코시(三越) 백화점 등을 지었고, 히로나카 상공 부평공장의 제3기 확장공사와 조병창 건설에도 참여하였다. 조병창 건설에 참여했던 다다구미는 현재 모다백화점 부평점 동쪽 굴포천 일대에 현장 사무소와 노무자 합숙소를 두었다. 합숙소는 1개 동에 여덟 가구가 들어가는 건물로, 약 60개 동이 있었는데 지붕을 아스팔트 루핑으로 덮을 정도로 열악한 구조였다고 한다. 광복 후 다다구미가 철수한 뒤 조선인 노무자들이 사용하면서 판자촌을 이루고 있었지만, 6·25전쟁 당시 집중 폭격을 받아 건물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폐허가 된 이곳에 다시 판자집이 들어섰고, 그렇게 형성된 마을을 사람들은 여전히 다다구미라 불렀다. 다다구미 주민들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원조 물자를 판매하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한때 이곳은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들로 홍등가를 이루기도 했다. 2022년 봄 굴포천 복원사업으로 다다구미 판자집은 모두 철거되었다.

그 외 1950~1960년대 부평에는 상이용사나 한센병 환자들의 집단 주거지도 형성되었다. 산곡3동 화랑농장과 부평2동 부평농장이 그것이다. 1950년대 함봉산 기슭으로 북한 출신의 상이용사들이 모여 살며 형성된 집단농장을 화랑농장이라 불렀다. 1953년 2월 미제1해병대 종군목사 존 밀러가 이곳에 화랑교회를 설립한 뒤 미8군 후방기지사령부에서 1만 5,000달러를 지원받아 영농축산 시설인 농업기술지도소, 합숙소, 식당, 창고 등 13개 동을 지었는데 처음 공사에 들어갈 당시 192명의 상이용사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 아래로는 1975년 서울의 중랑구 철거민을 수용하기 위해 국민주택지가 들어섰다. 1991년경 마장로가 이 일대까지 연장되면서 기존 화랑주택이 있던 마을은 잘려나가고, 산곡3동은 동서로 나뉘게 되었다. 이때 1950년대 건설된 화랑주택 다수가 철거되었으며, 화랑농장 내 기존 옛길 또한 사라졌다.

부평농장은 부평 가족공원 서남쪽 만월산 기슭에 위치한다. 광복 후 한센병 환자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돼지나 닭을 키우며 농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부평농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1947년 한센병 환자들의 요양원인 '동인요양소'가 이곳에 세워져 한센병 환자들이 집단 이주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이곳이 한센병 환자 요양소로 결정된 것은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50년 「파랑새」, 「보리피리」 등의 시로 유명한 시인 한하운(韓何雲)이 약 600명의 한센병 환자와 함께 이곳에 정착하면서 이름을 성계원(成蹊園)으로 고쳐 불렀다. 그는 한센병 환자의 자녀 교육을 위해 1952년 인근에 신명보육원을 설립했다. 당시 정부는 성계원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아기 갖는 것

한하운(韓何雲, 1919~1975)은 함경남도 함주군 태생으로, 1936년 17살 때 한센병 확정 진단을 받았다. 1948년 월남 후 서울 등지에서 유랑생활을 이어가다 이듬해 4월 「전라도 길」 「파랑새」 등 10여 편의 시를 「신천지」에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1950년 부평에 정착한 뒤 한센병 환자의 자활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1959년 한센병 음성 판정을 받고 사회로 복귀했지만, 1975년 2월 간경화증으로 부평 십정동 자택에서 영원히 눈을 감았다.

을 금지했고, 아이가 있으면 부모와 서로 만날 수 없도록 격리해 수용했다. 따라서 성계원과 신명보육원 사이에는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었다. 아이가 보고 싶은 부모와 부모가 그리운 아이들이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몰래 만났다고 한다.

❖ 1950년대 부평농장

1961년에 성계원은 양성과 음성을 구분해 양성 환자는 그곳에 그대로 남게 하고 음성(치유) 환자는 자립을 위해 십정동과 청천동 등지로 이주시켰다. 천주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십정동으로, 개신교 신자는 청천동으로 이주했는데 이들의 집단 주거지를 각각 십정농장, 청천농장이라 불렀다. 그들은 사회에 냉대 속에서도 부지런히 양돈과 양계 사업에 종사하며 사회에 완전히 정착해서 한때 인천의 모든 달걀은 그들 손에서 공급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한센병 환자 수용소마다 '농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한편 197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부평동과 부개동, 일신동, 십정동 등은 논밭이 도로와 택지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환지 절차를 통해 전답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뀐 땅에 상가나 주택을 지었다. 개인이 집을 짓는 경우도 있었지만 싼값에 토지를 매입해 필지를 분할한 후 여기에 집을 지어 되파는 집장사 주택도 많이 들어섰다. 그래서인지 유독 비슷한 형태의 집들이 나란히 서있는 모습이 눈에 자주 띈다. 당시 십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신축된 십정동 주택들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이미 철거되어 아파트

로 변해버렸다. 이처럼 부평의 주택들은 일제강점기의 사택이나 관영 주택은 말할 것도 없이 1960~1970년대 지어진 주택들도 이제 재건축 대상이 되어 하나둘 사라져 가고 있다.

❖ 부개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내 유사한 형태의 주택

5) 부평, 아파트 시대를 맞이하다

현대 도시인들은 아파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아파트는 대한민국 도시의 보편적인 주거 형태가 되어버렸다. 아파트는 한 건물 내에 독립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1960년대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주택난을 해소하고 지가 상승에 대비한 효율적 주거시설 마련을 위해 아파트 건축을 장려했다. 초기에는 대단위 단지형 아파트보다 1개 동 내지 2~3개 동의 건물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는 소규모로 지어졌으나, 1970년대 들어 강남 개발 등 대단위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1,000세대 이상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건물 높이도 5층이 일반적이었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10층 이상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갖춘 고층 아파트가 지어졌고, 최근에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일반화되고 있다.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망과 택지가 조성되고 여기에 개인 또는 회사(일명 집장사)가 지은 단독주택이 들어섰다. 그와 함께 이른바 '연립주택'이라고 부르는 다세

대 공동주택도 들어서기 시작했다. 보통 2~4층 규모의 벽돌조 건물인 이 시기 연립주택은 1969년 조성된 수출4공단 인근이자 부평3지구 토지구획정리 구역인 청천동과 부개지구 토지구획정리 구역인 부개동, 일신동을 중심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1978년 부평에도 아파트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부평 청천아파트 분양안내

1. 위 치 인천시 북구 청천동 16~8, 30~15
2. 규 모

16평형	전용 면적	12.897평
	공용 면적	2.615평
	계	15.512평
	서비스면적	0.845평
	대지 면적	10.55 평

모델하우스 공개 중

3. 분양면적및 대지면적은 지적공부정리상 약간의 차이가 있음
4. 주택자금 : 저리융자 180만원 (1년거치 19년상환)
5. 신청자인 자격 : 평당가격이 있는 세대주 (1세대 1주택)
6. 추가분양 : 2차분 신청접수
   6월 일부터 선착순 (당사 모델하우스)
7. 신청에 필요한 부대서류 : 주민등록 등본 1통 인감

<단위 : 천원>

층별	분양금	계약금 78. 6	1 회 중도금 78. 7. 20	2 회 중도금 78. 8. 21	3 회 중도금 78. 9. 20	잔 금 (융자)	입주지실입주금
1	6,634	1,356	1,830	899	749	1,800	4,834
2	6,934	1,356	1,830	899	1,049	1,800	5,134
3	6,984	1,356	1,830	899	1,099	1,800	5,184
4	6,784	1,356	1,830	899	899	1,800	4,984
5	6,584	1,356	1,830	899	699	1,800	4,784

8. 특. 호수추첨
   가. 자격 : 제 1회중도금 불입자에 한함 (단. 1회 중도금을 불입치 않을시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사에서 임의로 처분함)
   다. 일시 : 1978. 7. 22. 오후 1시
   다. 장소 : 당사 모델하우스
9. 교 통 편
   ①시내버스 2번 청천아파트앞 하차
   ②서울 부평간 시외버스및 시내버스 ①번은 백마장하차 도보 7분거리

※입주예정일 1978년11월초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통보)

분양안내: ☎ 9121
(모델하우스)

부평 청천동사무소 앞

사업주체: 청천주택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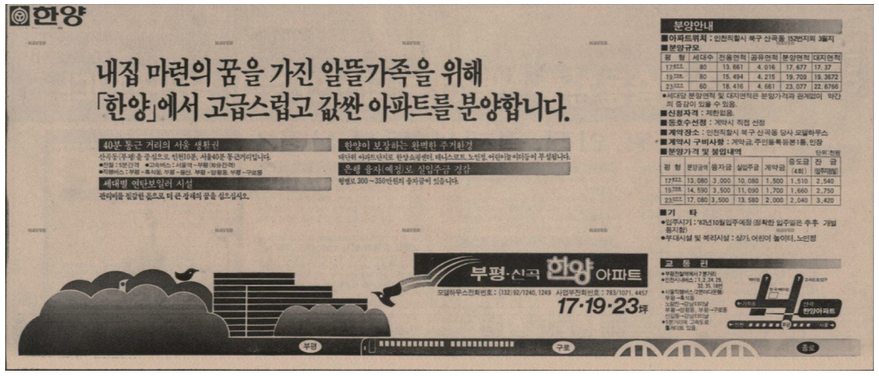
❖ 청천아파트 분양 광고(『조선일보』1978년 6월 18일)

그해 11월 24일 준공된 청천아파트가 그것인데 당시 모델하우스까지 짓고 분양 광고를 했었다. 모두 5개 동 130세대로 구성되었고, 4개 동은 2열로 남쪽을 향해, 나머지 한 동은 동향으로 배치되었다. 초기 분양분은 16평형 4개 동이었고, 1982년 11월 8일 20평형 1개 동이 추가로 준공되어 입주했다. 청천동 한국GM 부평공장과 수출4공단에서 600m 떨어져 있어 공단 근로자 거주용 아파트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부개지구에 속한 부평2동 안암아파트도 청천아파트와 함께 1970년대 말 부평에 건축된 초창기 아파트에 속한다. 안암아파트는 1979년 12월에 준공되었는데 철근콘크리트의 5층 구조로 19평형 90세대, 26평형 20세대 등 모두 110세대로 구성되었다. 근로자 주택이었던 청천아파트에 비해 넓은 평형으로 분양 광고에 '서울 시청에서 30분 거리(부평역에서 도보 9분 소요)', '경인국도변(버스정류소에서 2~3분 소요)'이라고 안내하고 있어 역세권 아파트임을 내세워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입주 대상으로 삼아 홍보하고 있었다. 모두 3개 동이 건설되었는데 2020년 재개발로 철거되어 지금은 부평 중앙 하이츠프리미어 아파트 6개 동이 지어지고 있다.

❖ 청천아파트

1980년대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아파트 지구를 지정하여 민간의 아파트 건설을 독려하던 시기였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부평에는 공단 주변인 청천동을 중심으로 5층 규모의 아파트 2~3개 동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청천아파트와 같이 공장 근로자가 거주하는 작은 평형의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다. 1985년을 전후해서 부평의 아파트는 양적 증가와 함께 주거 규모가 커지고 단지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우선 산곡동 주변에 대단위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1972년 산곡동과 서구 가좌동을 잇는 철마산 관통 도로가 개통되어 청천동 일대 수출4공단과 가좌동 일대 수출5공단으로의 접근이 모두 편리해지면서 산곡동의 부동산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곳은 애스컴 시티를 이루고 있던 미군 부대가 철수하면서 공지로 방치되고 있던 상태였다. 1984년 한양주택, 한국도시개발, 한신공영, 우성건설 등 유망한 건설사들이 이곳에 진출하여 아파

트를 건설하였다. 당시 건설사들이 확보한 부지는 모두 18만여 평으로, 여기에 모두 8,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중 1984년 준공된 한양아파트는 부평에 처음 들어선 대단위 아파트였다.



❖ 산곡동 한양아파트 분양 광고 (『동아일보』1982년 3월 29일)

한양건설은 서울 한양아파트 건설과 분양으로 막대한 수익을 보았고, 지방 도시의 아파트 사업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인천을 주요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1982년 산곡동에 대지 2만 5,000여 평을 확보했다. 곧이어 공사에 들어가 1988년 전체 단지가 완성되었는데 5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1,500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단지였다. 원적사거리 남쪽 마장로를 기준으로 동쪽을 1단지, 서쪽을 2단지와 3단지로 조성하였다. 1단지와 2단지는 1984년에 입주했고, 3단지 8개 동만 1988년에 입주를 완료했다. 평형은 17~31평으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했으며 단지 내에 한양쇼핑이라는 상가 건물을 배치하였다. 1940년대 건설된 산곡동 경인기업주택 단지와 마주보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거 형태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준공된 지 19년 만인 2003년, 마장로 동쪽 1단지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금호이수 마운트밸리 아파트가 들어섰고, 서쪽 2~3단지 720세대 22개 동만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 산곡동 한양아파트(좌)와 1941년 건설된 경인기업주택(우)

한양아파트가 저층 위주의 대단위 아파트였다면 캠프 마켓 주변으로 들어선 현대아파트와 동아아파트는 고층 아파트 단지였다. 산곡동 현대아파트는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통해 아파트 건설에 성공 가도를 달리던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가 조성하였다. 한국도시개발은 현대건설이 아파트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1973년 설립한 회사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성공에 힘입어 이 회사는 지방 도시에도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지가 부평 산곡동이었다. 1978년 건설부는 산곡동 310 일원 12만 5,000㎡를 아파트 지구로 결정했고 인천시는 1984년 이 부지를 33만 7,000여㎡로 확대 지정고시했다. 한국도시개발은 약 10만 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지방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간 아파트 단지 조성을 하고자 했다. 이곳에 주둔하던 애스컴 시티의 캠프 하이예스가 철수한 뒤 한국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제9공수특전여단이 사용하다가 1983년 이전하면서 비어있던 땅이었다.

현대아파트는 산곡동 한양아파트와 달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15층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었다. 처음 계획 당시의 건립 규모는 모두 4,200여 세대로 27평에서 52평까지 다양한 평형을 배치하였으며 대단지인 까닭에 쇼핑·위락·교육 등 모든 생활을 단지 내에서 소화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도시개발은 1984년 10월 분양을 시작하기 전부터 광고를 내보내면서 '서울역에서 39분 거리', '압구정동에 이은 선진 유럽 수준의 종합 시스템타운'이라는 문구를 통해 경인 지역 중산층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더구나 단지 건너

편으로 신설되는 백운역 준공이 그해 1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어 모델하우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10월 30일 1차분 588세대의 분양을 시작한데 이어 12월 11일부터 2차분 336세대를 분양했다. 1, 2차 분양에서 대형 평수인 48평형과 52평형 일부가 미분양되자 회사 측은 1985년 4월 3차 분양부터 대형 평수를 줄이는 대신 소형 평수를 45%에서 69% 수준으로 대폭 늘렸고 당초 4,200세대였던 건설 규모는 총 5,000세대로 늘어났다.

❖ 산곡동 현대아파트

한편 1986년 11월 한국도시개발은 한라건설을 인수·합병하여 사명을 현대산업개발로 바꾸었고, 산곡동 현대아파트 건설 규모도 5,000세대에서 7,000세대로 다시 늘려 잡았다. 그러나 올림픽을 전후해서 중대형 평형의 인기가 높아진 까닭인지 소형 평수가 줄고 대형 평수의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마지막 분양까지 공급된 총 세대수는 4,900세대였다. 편리한 생활공간에 넉넉한 주차장 등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었고, 부동산 투자의 방편으로 아파트 투기가 확산되고 있던 시기였기에 경쟁률도 높아졌다. 특히 1988년 10월 12차분 분양 때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로 서울의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부평 현대아파트가 수도권에서의 마지막 청약 기회라고 판단한 서울 거주자들이 대거 몰려드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1989년 12월 13차분 300세대 분양을 마지막으로 6년에 걸친 산곡동 현대아파트 단지는 분양이 완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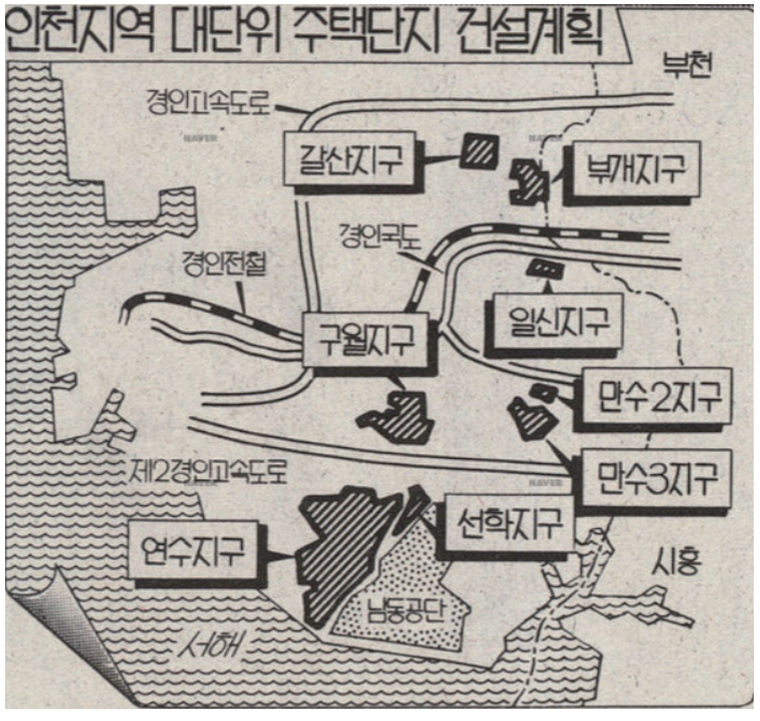
캠프 마켓을 기준으로 서쪽 산곡동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섰다면, 동쪽 부평동으로는 동아건설에서 지은 동아아파트가 자리 잡았다. 동아건설은 처음 계획에서 현대아파트와 비슷한 규모인 4,395세대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평수 조정을 통해 세대수를 늘려 마지막 10차 분양 때 전체 규모는 200여 세대가 늘어난 4,603세대였다. 1985년 8월 1차분 450세대 분양을 시작으로 1993년 12월 10차 분양까지 근 8년에 걸쳐 분양했는데 건물 전체가 15층 높이의 남향으로 지어졌고, 평형은 22평, 29평, 32평형의 중소형에서 43평, 50평, 62평형의 대형 평수까지 다양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만큼, 상가와 공공시설이 함께 건설됐다. 그 외에도 우성, 대림, 한신 등 대형 건설업체가 부평에 1,000세대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였고, 특히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던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아파트 건설 붐에 힘입어 1980~1990년대 부평은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다.

❖ 부평동 동아아파트

1990년대 들어 부평 동부 지역으로는 정부 차원의 공공개발도 추진되었다. 1989년 토지개발공사가 갈산동 일대 22만 평에 7,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여 3만여 명의 인구를 수용하겠다는 갈산지구 택지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에 착수했다. 그리고 개발 중이던 토지를 동산토건, 대동건설 등 인천의 중소건설업체에 분양했다.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일반 분양과 임대 공급을 함께 추진했는데 13~18평형은 임대 주택으로, 23~24평형은 일반에게 분양했다. 공급 물량은 임대 2,410세대, 국민주택 2,940세대, 일반분양 2,800세대였다. 부개지구 개발은 기존 농지였던 부개동 32번지 일대 18만 4,000여 평을 대한주택공사가 택지로 개발했던 사업이었다. 주택공사는 1992년 부개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공아파트 7,000세대, 민영아파트 3,000세대 등 총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모두 7개 블록으로 나누어 개발했는데 1, 3, 5, 7블럭은 18평형 이하의 소형 아파트, 6블럭은 18~25.7평형의 국민주택, 2블럭과 4블럭에는 26평 이상의 민영 아파트를 배분하여 주공과 민간 기업에서 다양한 평형을 공급하였다. 주택공사는 1994년 공사에 들어가 1996년 11월 1단지를 시작으로 1998년 6월 7단지까지 모든 세대의 입주를 마무리 지으면서 사업을 완료하였다.

부평에서 가장 늦게 조성된 공공택지인 삼산지구는 부개지구와 갈산지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1994년 3월 인천시는 삼산, 갈산, 서운동 일원 37만 5,000여 평을 대상으로 하는 삼산택지개발지구를 건설부로부터 지정받고 사업에 착수했다. 이곳에 1만 4,000여 세대의 아파트뿐 아니라 농수산물시장, 체육관, 경찰서 등의 공공시설도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개발이 지연되다가 2001년 3월 대한주택공사에서 삼산1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2개 블록 3만 8,000여 평에 대한 분양을 시작으로 삼산3지구까지 사업을 완료했다. 마지막 남아있던 삼산4지구 17만여 평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은 부평구와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무산된 채 현재 민간 개발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 1990년대 인천 지역 대단위 주택단지 건설계획(『경향신문』1991년 5월 15일)

부평의 주거 변화는 시대에 따라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변화를 보였던 것이 1980년대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건설이다. 산곡동 현대아파트와 부평동 동아아파트의 경우 당시 인천에서는 보기 힘든 50~60평형의 대형 평수를 분양했으며, 인천은 물론 서울에서도 투기수요가 몰려들었던 곳이다. 이는 수도권 전철 1호선의 부평역과 백운역에 인접한다는 접근성도 무시할 수 없었지만, 향후 부평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닐까 싶다. 2000년 이후 부평의 아파트는 1940년대 이후 건설된 주택단지와 1970~1980년대 지어진 저층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증거가 되는 미쓰비시 사택, 도쿄제강 사택은 이미 철거되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으며, 산곡동 경인기업 주택도 올해 안에 철거될 예정이다. 그뿐이랴. 한때 인천 최대단지, 최고급 아파트라 불렸던 산곡동 한양아파트와 현대아파트에도 재건축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하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의 시대. 그것이 다할 무렵 우리는 또 어떤 주거문화를 만나게 될까?

6 시장과 지하상가, 그리고 쇼핑몰

도시를 구성하는 데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 상업시설이다. 도시 특성 상 인구가 밀집하게 되면, 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상업시설도 자연스레 모여들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에는 상업을 천시했던 까닭에 상점과 장시도 크게 발달하지는 못했다. 우리나라에 100년 넘는 가게가 많지 않은 이유다. 개항 후 도시가 형성되면서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면 작은 상점 한두 개는 어김없이 들어섰다. 부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부평역 앞으로 작은 상점 몇 개가 전부였던 이곳에 1940년대부터 상점가가 형성되고, 시장이 들어서면서 점차 상업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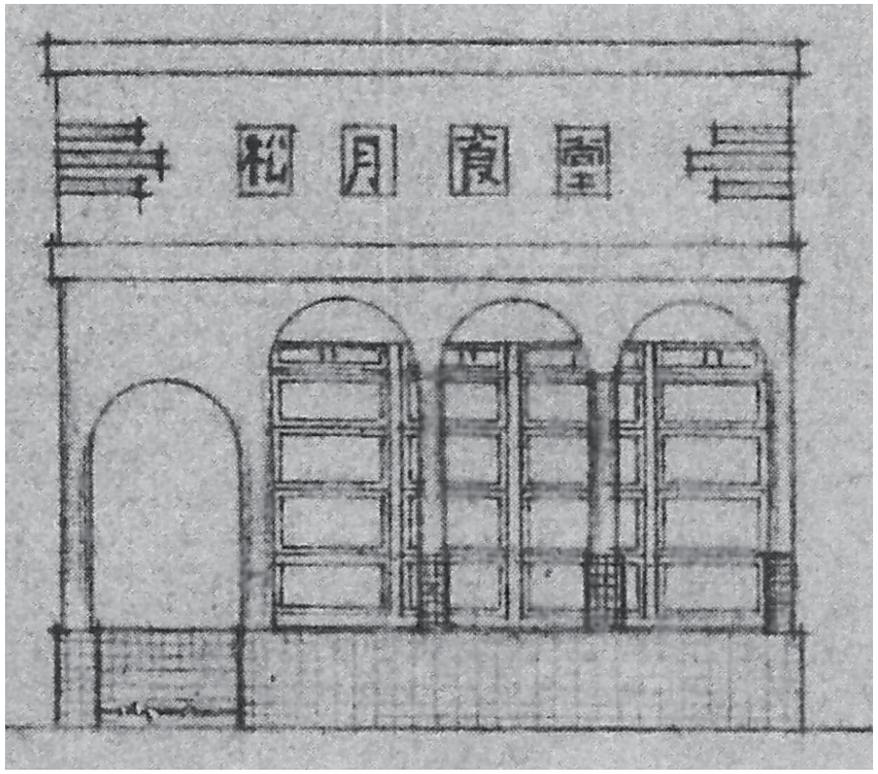
1) 시장이 들어서다

전통시대 시장이었던 장시(場市)는 주로 왕래가 빈번한 읍내나 도로가 교차하는 곳에 5일 간격으로 개설되었다. 부평도호부 관할 지역에는 네 곳에 장시가 섰는데 서구 검암동의 발아장과 계양구 장기동의 황어장, 그리고 서울시 구로구에 있던 기탄장과 부천시에 있던 신기장이었다. 부평구 지역에는 원통이 고갯길과 별리 고갯길이 만나는 구산동에 주막이 있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 장시는 개설되지 않았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은 탓에 장시가 열릴 만한 입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철길이 개통되고 부평역이 들어섰어도 부평의 상업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지 못했다. 대개 역 앞으로 상점가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평역 일대는 술집 몇 곳이 문을 열고 있을 뿐 논밭이 펼쳐져 있는 촌락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었다. 1924년 6월 9일 부평의 유지 아베 다이스케(安部泰輔)가 설립한 아베자동차상회가 부평역에서 계산동 읍내를 거쳐 장기리까지 승합버스 운행을 개시하면서부터 역 앞으로 상점이 하나둘 들어섰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가지계획령」 제10조에 의한 허가신청서류철』에는 1942년 2월 14일 부평의 유지 아베 다이스케가 소화정 229번지에 상설영화관 신축허가를 신청하는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아베는 그 자리에 450석 규모의 단층 극장을 짓고 '부평영화극장'이라 이름 붙인 뒤 1943년 12월 상영에 들어갔다. 광복 후 부평극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부평 지역의 유일한 극장이었던 만큼 1954년 연간 관객이 1만 8,000명을 넘어설 만큼 호황을 이루었다. 1960년대 776석 규모의 2층 건물로 증축했지만, 2000년대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곳곳에 지어지면서 운영난에 빠졌고 결국 2002년경 폐관했다.

부평에 상업시설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군수공장이 지어지기 시작했던 1930년대 말부터다.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시가지계획령」 제10조에 의한 허가신청서류철'에 따르면 1941년 5월부터 광복 때까지 건축 허가를 신청한 106건 중 62건이 점포 신축과 증축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그 위치는 대부분 부평역 앞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다. 당시 이곳에 들어선 상점의 업종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업종을 명기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낸 상점을 보면 영화관, 목욕탕, 병원, 식당 등이 있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식료품이나 일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설 시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1941년 7월 20일 『매일신보』 기사에 따르면, 인천 부세진흥회는 급진적으로 늘어난 부평 주민을 위한 공설시장의 설치를 인천부에 요구하였다. 같은 신문 1943년 6월 18일 기사에도 공설 시장이 여전히 설치될 예정으로 있어 이 건의는 곧바로 실현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 부세진흥회에서 요구한 공설 시장은 부평으로 유입되고 있던 노동자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 부평역전 송월상회 정면도(『조선시가지계획령 10조 허가철』)

1948년 인천시는 드디어 부평동 542번지, 지금 부평서초등학교 북쪽에 공설시장을 설치했다. 하지만 장사가 잘 안되었던 탓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해졌고, 시장 부지에는 주택이 하나둘 들어서게 된다. 비슷한 시기 지금 부평 문화의 거리 인근으로 상인들이 간이 점포를 줄지어 만들어 놓고 이종석을 조합장으로 내세워 부평시장조합을 구성하였다. 상인과 주민의 홀대를 받았던 공설시장과는 다르게 부평시장조합에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들이 많아 점포와 노점이 거리를 가득 채웠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시장은 곧 활성화되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부평시장이라 불렀다. 부평시장의 활성화로 인하여 인천시에서 설치한 공설 시장의 운영은 더욱 저조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해에 인천청과주식회사 부평출장소가 문을 열었다. 인천청과주식회사는 1930년 동인천역 인근 인현동에 설립된 청과물 도매시장을 운영하던 회사다. 따라서 인천청과주식회사 부평출장소가 문을 열었다는 것은 부평에도 청과물시장이 개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1948년 6월 12일자 『대중일보』의 "일제강점기부터 신설되어 운영 중이던 인천청과주식회사의 부평출장소가 폐쇄된 이래 부평 지역에서 청과물을 취급하는 경매시장이 없었는데, 인천시에서 안정적인 청과물 공급을 위하여 부평출장소를 다시 개장하기로 합의하였다"라는 내용에서 부평 청과물시장이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 인천부가 설치한 세 번째 공설시장인 용동 청과물시장의 운영을 위탁받고 있던 인천물산주식회사를 말한다. 인천물산주식회사는 광복 후 인천청과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고 부평에 출장소를 두었다.

광복 후 인천부에서 설립한 공설시장은 주민의 외면 속에 유명무실한 상태였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평시장과 청과시장은 사람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6·25전쟁이 소강상태에 있던 1952년 부평에 새로운 시장이 등장했다. 조종옥이라는 인물이 부평 부평동 360-70번지 일대에 목조 2층 건물 여섯 동을 짓고 여기에 50개 점포를 유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평 주민들은 이 시장을 새시장으로 불렀고, 기존의 부평시장은 자연스레 구시장으로 부르게 되었다. 한편, 6·25전쟁이 끝나고 미군 군수지원사령부 애스컴이 부평에 주둔하자 여기서 흘러나온 군납 물품이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양키시장이 활성화되기도 했다. 양키시장은 애스컴 사령부 출입문 근처인 문화의 거리 북쪽과 부평3동 신촌 일대에 형성되었는데 문화의 거리 인근에 들어선 양키시장을 오늘날 부평시장의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

표 9 2021년 현재 부평구 전통시장 현황 (부평구청 홈페이지 2022. 07.31)

구분	시장명	소재지	개설연도	점포수	판매품목	비고
등록시장	진흥종합시장	부평동	1970년	96개	건어물, 식품, 잡화	
	일신시장	일신동	1982년	80개	농수산물, 식품, 잡화	구) 부일시장
인정시장	부평 깡시장	부평동	1950년	206개	농수산물, 식품, 잡화	
	부평 종합시장	부평동	1950년	430개	농수산물, 식품, 잡화	
	부평 문화의 거리	부평동	1980년	161개	의류, 식품, 잡화	
	열우물 전통시장	십정동	1982년	30개	농수산물, 식품, 잡화	구) 십정종합시장
미등록시장	삼산시장	삼산동	1987년	30개	농수산물, 식품, 잡화	
	갈산시장	갈산동	1992년	46개	농수산물, 식품, 잡화	
	산곡시장	산곡동	1970년	43개	농수산물, 식품, 잡화	
	도깨비시장	산곡동	1990년	45개	농수산물, 식품, 잡화	
	부개종합시장	부개동	1999년	100개	식품, 먹거리	

1960년대 이후 부평동, 부개동, 갈산동 등의 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면서 택지가 조성되었고, 곳곳에 시장이 만들어졌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대형 마트가 없던 시절 주민이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동네 구멍가게가 유일했다. 간단한 식료품이야 구멍가게에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농산물이나 건어물 등은 시장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큰 길 어귀로 크고 작은 시장이 형성되었다. 1950년대 양키시장과 새시장 등이 자리 잡은 부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외에 1970년대부터 부평3지구에 갈산시장, 부개지구에 부일시장, 십정지구에 십정종합시장이 들어섰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노무자 주택단지로 조성되었던 산곡동 영단주택 단지에는 1957년 지어진 서부극장(백마극장) 주변으로 산곡시장이 형성되었다. 이곳은 당시 1,000세대의 집들이 밀집해 있던 부평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택단지였기 때문에 골목마다 상점들이 모여들면서 시장으로 발전해 갔을 것이다. <표 9>는 현재 부평의 전통시장 현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부평구에는 2개의 등록시장과 4개의 인정시장, 5개의 미등록시장 등 모두 11개의 시장이 있는데 430개 점포를 가진 부평종합시장이 가장 큰 규모이고, 깡시장, 문화의 거리, 부개종합시장, 진흥종합시장이 그 뒤를 잇고 있

다. 5개 시장 중 부개종합시장을 뺀 나머지는 부평시장 로터리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부평시장이라 부른다. 2001년 5월에는 삼산동에 농산물도매시장도 들어섰다. 구월동에 위치한 기존 농산물도매시장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인천 북부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설된 시장이다. 삼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도매시장은 삼산동 7-1번지 3만 2,000여 평의 부지에 1만 7,000여 평의 건물을 짓고 채소와 과일을 도매로 판매하고 있다.

❖ 2020년 철거를 앞두고 있는 산곡시장(부평구청)

2) 다섯 개의 시장이 하나로, 부평시장

부평시장은 자유시장, 진흥종합시장, 종합시장, 깡시장, 문화의 거리 등 5개의 시장을 통칭하는 용어로 1941년 인천부가 추진했던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에 위치한다. 1950년대까지 부평역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구획정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이곳의 구획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1960년대 중반이었다.

6·25전쟁을 전후해서 이곳에 들어선 기존 시장들은 구획정리 과정에서 해체되거나 새롭게 조성된 부지에서 다시 운영을 시작했을 것이다. 자유시장은 1950년대 김영길, 서신호 등이 부평동 210번지 일대에 설립한 시장이다. 1962년 6월 7일 인천시는 이 시장을 공설시장으로 인가하면서 '부평시장'이라고 이름 붙였다. 기존 부평시장은 이미 조합이 해체된 상태였다. 부평시장은 주민뿐 아니라 공장 근로자들도 자주 이용하던 곳으로 휴일이나 명절 때면 '궤짝에 돈을 담기 바빴다'고 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1971년 공설시장이던 부평시장이 폐지되면서 이름을 부평 자유시장으로 바꾸고 사설시장이 되었다. 시장 주변으로 포목 가게, 한복 가게 등이 늘어서 있었고, 시장 안에는 주변 상인과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국밥집이 즐비했었다. 그러나 시설이 낙후되고 포목과 한복 시장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2018년 시장 건물이 철거되었고, 지금 그 자리에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 있다.

진흥종합시장은 1971년 부평시장이 부평 자유시장으로 이름을 바꿀 무렵 새롭게 등장한 사설 시장이다. 도로나 공터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시장이 아니라 상가 건물을 짓고 내부 점포를 임대하여 영업하는 형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진흥종합상가라고도 불린다. 1971년 준공된 상가 건물은 가동에서 라동까지 모두 네 개가 있는데, 각 동은 다시 중앙 통로로 나누어져 모두 8개 공간에 점포가 들어서 있다. 1976년 부평 깡시장을 운영하고 있던 부흥실업이 시장을 인수했다. 종합시장이라는 이름처럼 청과물을 제외한 공산품·건어물·육류 등 모든 상품을 도매로 판매해 왔다. 잡화와 식료품을 취급하던 진흥종합시장과 그 옆의 깡시장은 서로 판매 품목을 보완하면서 하나의 종합 도매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 부평 진흥종합시장(부평구청)

부평 깡시장, 진흥종합시장과 맞닿아 있는 부평종합시장은 3개의 시장 중 가장 큰 규모로 400여 개에 달하는 점포가 들어서 있으며 취급 품목은 농수산물에서 공산품까지 다양하다. 시장으로 등록된 것은 2007년이지만, 1960년대부터 이곳에서 노점이 성행하여 단속반과의 마찰이 잦았다고 하는 상인들의 증언에 비추어보면 시장이 형성된 것은 1960~1970년대가 아닐까 싶다. 2000년대 들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대형 마트에 대응하기 위해 상인회를 중심으로 배수관을 정비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시설 현대화에 힘써 왔다. 이러한 상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2019년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부평 깡시장은 속칭 '깡'을 부르던 곳이었다. '깡'이란 경매를 의미하는 순우리말로, 과거 이곳에서 청과물 경매가 열렸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2020년 깡시장의 점포는 직영 10개, 임대 118개, 노점 52개 등 모두 180개에 달했고, 종사자 수는 상인 118명, 종업원 65명, 노점상 52명으로 모두 235명이었다. 평균 1개 매장에 1.3명이 종사하는 셈인데 진흥종합시장 2.2명, 부평종합시장 1.5명, 부평 문화의 거리 1.6명에 비해 점포당 종사자 수가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점포의 규모가 크지 않고, 노점을 비롯한 1인 상점이 많은 까닭이다. 언제부터 깡시장이 형성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인천청과주식회사 부평출장소가 운영했던 청과물시장에서 그 연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청과물시장이 그대로 깡시장으로 연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60년대 부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면서 청과물시장이 있던 자리가 도로와 가곡으로 구획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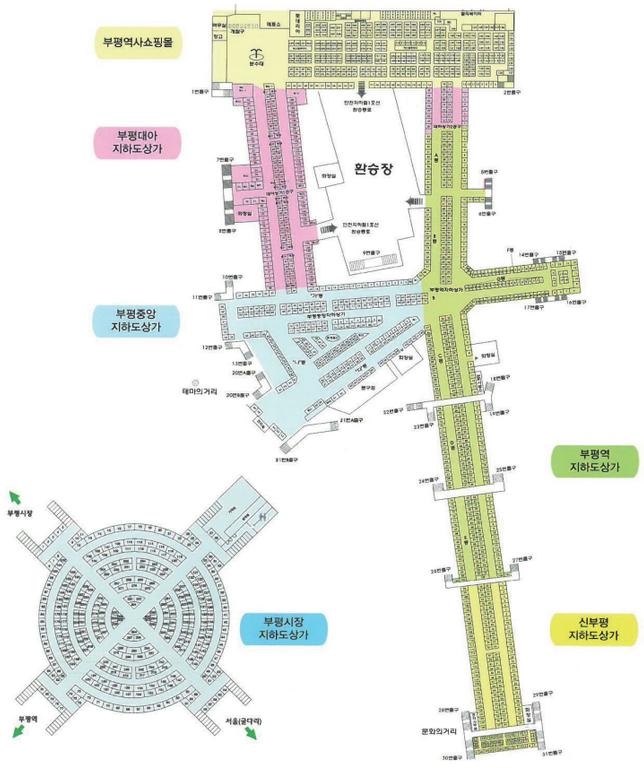
❖ 부평 깡시장(부평구청)

1960년 1월 개장한 인천원예협동조합 부평공판장을 부평 깡시장의 뿌리로 보기도 한다. 부평공판장은 부평시장 로터리 서남쪽에 있었는데 전국에서 집산된 채소, 과일류와 이를 사기 위해 몰려든 상인,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고 한다. 공판장 주변으로 경매받은 물건을 다시 판매하는 상점과 노점상이 모여들면서 주변은 더욱 혼잡해졌다. 이러한 혼잡을 피하기 위해 1971년 인천 북구청은 부평공판장과 노점상을 진흥종합상가로 이전시켰다. 그러나 장사가 잘 안되었던 것인지 불과 3년 만에 지금 인천원예농협 부평시장지점 자리로 다시 이전했다. 1993년 12월 20일 부평공판장 건물을 증·개축했지만, 2001년 4월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하면서 경매 기능은 옮겨가고 지금은 청과물 도매만 취급하고 있다.

깡시장의 또 다른 기원은 1968년 한천길이 설립한 농산물 도소매점 부흥상회에서 찾을 수 있다. 1973년경 부흥상회를 운영하고 있던 한천길은 동업자들과 함께 부흥실업을 설립했다. 부흥실업은 지금 건영캐스빌 아파트 자리에 청과물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청과물 경매를 시작했다. 공설 시장인 인천원예협동조합 부평공판장과 사설인 부흥실업의 청과물 도매시장이 함께 운영되면서 부평에 공급되던 과일과 채소는 모두 이곳을 거쳐야만 했다. 원예조합 부평공판장이 시장로터리 쪽으로 이전하자 부흥실업의 청과물 도매시장은 그 규모를 키워나갔다. 주변으로는 시장에서 구입한 청과물을 재판매하던 상점들이 모여들었다. 1994년 1월 청과물 도매시장이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하면서 깡시장도 문을 닫게 되지만, 2007년 시장 주변의 도소매 상인들이 상인회를 발족하고 부평 깡시장을 정식 시장으로 등록했다.

한편, 1990년대 중후반 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가 출현하자 부평시장 상인들은 상권이 쇠퇴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견을 모아 부평시장 번영회 산하에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시장 번영회에서는 시장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던 불법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인들 서명을 받아 이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 달라는 진정서를 부평구청에 제출했다. 부평구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불법 노점이 즐비하던 시장 골목은 깨끗하게 정비된 부평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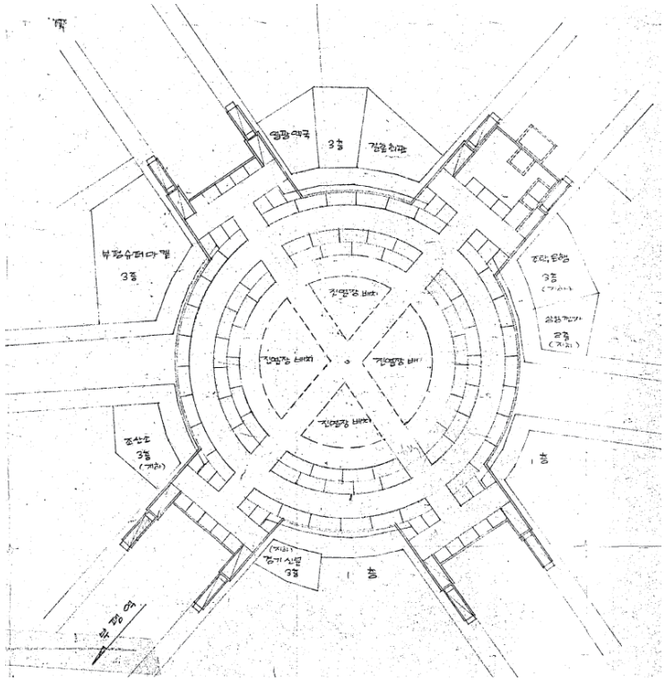
3) 청소년들의 성지, 부평역 지하도상가



❖ 부평역 지하도상가 배치도 ((사)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연합회, 『All that 인천지하도상가』, 2010)

1990년대까지 인천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던 곳은 동인천역 주변이었다. 교통이 편리하고 먹거리와 놀거리가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9년 인현동 화재사건으로 동인천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서 청소년들은 부평역 지하도상가로 몰리기 시작했다. 같은 해 개통된 인천지하철 1호선의 영향도 컸다. 부평역이 수도권 전철과 인천지하철의 환승역이 되면서 부평구는 물론 연수구, 계양구, 미추홀구 등 인천 대부분의 지역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었고, 역사에서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도 뛰어났다. 게다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팬시상점이나 의류점들이 모여 있었고, 밖으로 나가면 먹거리와 놀거리가 풍부한 문화의 거리로 이어진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다. 5개의 개별 시장이 하나의 부평시장을 이루고 있듯이 부평역 지하도상가도 다섯 개의 지하도상가를 통칭하는 이름이다. 지하도는 지상에 위치한 건널목이나 육교 대신 도로 지하를 굴착하여 보도로 만든 시설로 지하도에 상가 기능이 더해진 것을 가리켜 지하도상가라 부른다. 인천에는 1971년 동인천 지하도상가가 처음 만들어진 이래, 주안과 제물포, 부평 등에서 모두 15개가 운영되고 있다.

부평역 앞으로 지하도상가가 처음 조성된 것은 1978년이었다. 1977년 10월 인천개발공사는 「부평로 지하도 겸 상가 조성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지하도상가를 통해 도심지 재개발을 촉진하고 비상시 지하대피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부평역에서 바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라 북쪽으로 300m 떨어진 부평대로에 지하도상가 출입구를 두었다. 부평로 지하도상가는 부평대로를 따라 길이 118m에 폭 19.6m, 총 면적 887평으로 건설되었고, 4곳에 출입구를 배치했다. 1978년 8월 준공 당시 모두 139개의 점포가 입주했는데 점포당 평균면적은 2.04평, 업종은 주로 의류와 신발, 잡화 등이었다. 당초 시공사였던 인천개발공사가 1992년 경영상의 문제로 운영을 포기하면서 상인협의회에 관리권을 양도하였고, 이때 '신부평지하도상가'로 이름을 바꾸었다.



❖ 부평시장 지하도상가 평면도(인천광역시 기록관)

1970년대 부평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시장로터리는 차량과 사람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인천시는 시장로터리 지하에 지하도상가를 조성하여 통행량을 분산시키는 한편 상권 활성화를 꾀하고자 했다. 인천시와 부흥기업이 사업비 21억 2,000만 원을 공동으로 출자했고, 1979년 5월 착공하여 1980년 3월 22일 준공과 함께 영업에 들어갔다. 부평시장 지하도상가의 총 면적은 1,567평으로 당시 단일 지하도상가로는 국내 최대 규모였다. 시장 로터리로 이어지는 도로에 모두 8개의 출입구를 두었다. 당시 지하도상가가 새로운 상권으로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착공을 두 달 앞 둔 3월 20일 의류, 귀금속, 잡화 등을 권장 업종으로 하여 1차 분양에 들어갔다. 190개의 일반 점포 분양이 일찌감치 마감되었고, 중심부에 위치하는 백화점식 쇼케이스 점포 106개에 대한 추가 분양도 모두 마감되었다. 준공 후 '부평시장지하도상가'라는 이름으로 영업에 들어가 현재는 의류, 신발, 가방, 전자통신 등 다양한 업종을 가진 298개의 점포가 문을 열고 있다.

한편 1984년 8월 부평 성일로 지하상가 주식회사는 부평역 입구에서 부평로 지하도상가를 연결시켜 전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도상가 건설계획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부평역 입구에서 부평로 지하도상가까지 길이 301m, 여기서 경원대로 방향으로 대한극장까지 길이 84m, 총 면적 2,750평의 지하도상가를 건설하는 계획이었다. 부평의 세 번째 지하도상가 건설공사는 1984년 12월부터 1986년 9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그해 9월 10일 '부평 성일로 1차 지하도상가'라는 이름으로 영업에 들어갔다. 1차 지하도상가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 사이 성일로 지하상가 주식회사가 2차 지하도상가의 공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2001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관리주체가 변경되어 '부평역지하도상가'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 부평역 지하도상가는 5개 지하도 상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의류, 잡화, 신발, 전자통신, 팬시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 421개가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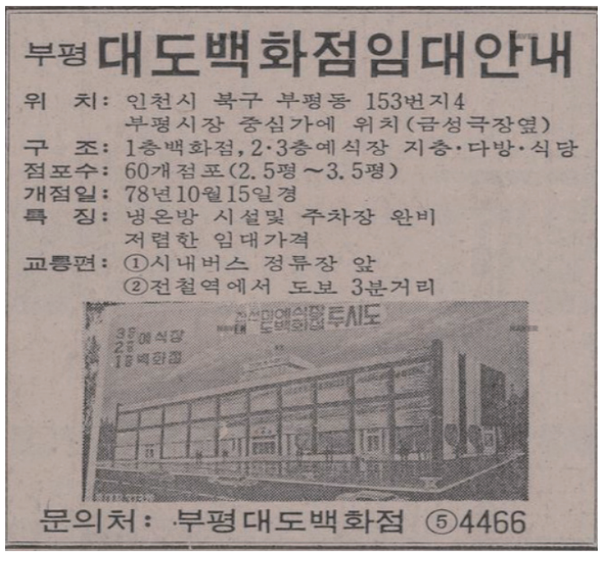
부평 성일로 1차 지하도상가가 영업에 들어간 지 2개월이 지난 1986년 11월 성일로 지하상가 주식회사는 2차 지하도상가 건설계획을 수립했다. 1차 상가의 중앙홀을 중심으로 굴다리 오거리 방향의 경원대로와 부평시장 로터리 방면의 시장로를 따라 각각 길이 100m, 전체 면적 1,835평의 지하도상가를 조성하여 모두 248개의 점포를 유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평역 광장이 민주화운동의 시위 장소와 13대 대통령선거 유세 현장으로 사용되면서 공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고, 공사 기간을 세 차례나 연장하여 1989년 6월 30일이 되어서야 준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입주가 지연된 탓에 손해를 입어야 했던 상인들이 회사와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고, 그로 인해 지하도상가의 운영은 또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인천시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인들과의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준공 6개월만인 12월 27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 후 성일로 2차 지하도상가는 2004년에 관리 주체가 바뀌면서 부평 중앙지하도상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 부평 중앙지하도상가에는 의류, 신발, 가방, 전자통신, 팬시 등의 업종을 갖는 247개 점포가 들어서 있다.

부평 지하도상가 중 가장 마지막으로 조성된 부평 대아지하도상가는 부평역의 상권을 하나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부평시장 지하도상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지하도 상가와 부평역사 쇼핑몰이 대아지하도상가를 통해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1989년 대아개발 주식회사는 철도청으로부터 부평역 민자복합역사 개발 승인을 얻고 지상 8층, 지하 2층에 연면적 2,792평의 민자복합역사 건설계획을 수립한다. 대아개발은 여기에 대형 쇼핑몰을 비롯하여 음식점, 영화관, 병원 등 상업시설을 입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서 기존 지하도상가와의 연결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아개발은 신축 쇼핑몰과 기존 지하도상가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하도상가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부평역 대합실과 성일 2차 지하도상가를 연결하는 길이 126m, 총 면적 1,071평의 지하도상가와 부평역사 쇼핑몰 및 성일 1차 지하도상가를 연결하는 길이 24.5m의 지하도상가를 건설하는 계획이었다. 1990년 5월 공사에 들어갔지만 2년으로 계획되었던 공사 기간은 주차장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강, 인천지하철1호선 건설공사와 맞물리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계획 변경을 거듭하면서 면적은 2,366평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고, 입주 점포도 209개가 되었다. 대아지하도상가는 인천지하철1호선 개통을 1년 앞둔 1998년 11월 착공 8년 만에 인천시의 임시승인을 얻어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부평역사 쇼핑몰과 지상 조경시설 공사가 완료된 후 2000년 4월 12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현재 대아 지하도상가에는 의류, 신발, 가방, 전자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 209개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4) 백화점과 대형 마트의 등장

인천에 처음 등장했던 백화점은 1954년경 중구 경동에 들어선 3층 규모의 항도백화점이다. 의류, 잡화 매장과 식당가 등 기본적인 구색을 갖추고 영업에 들어갔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1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다. 그 후로 30년 동안 인천 사람들은 서울로 백화점 나들이를 가야만 했다. 인천에 백화점다운 백화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84년 3월

구월동 주공아파트 근처에 5층 규모의 희망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인천은 다시 백화점 시대를 열게 되었다. 부평시장 로터리를 중심으로 대형 상권이 형성되고 있던 부평 지역에도 백화점이 하나둘 들어서게 된다. 2007년 간행된 『부평사』에는 1978년 6월 22일 부평동 192-7번지에 80개의 점포를 갖추고 문을 연 부평백화점을 부평에 처음 등장한 백화점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 밖의 기록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또 대도백화점이 1978년 12월 23일 부평동 153번지에서 개점했고, 55개 점포가 입점해 있었다고 적었다. 대도백화점은 같은 해 6월 25일과 8월 12일 『조선일보』에 임대 안내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존재했던 백화점이었다. 금성극장 옆에 신축 중인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중 1층 830평의 공간에 2.5~3.5평의 점포 60개를 임대한다는 광고였다. 건물의 2층과 3층은 진선미예식장에서 사용하고, 지하에 다방과 식당을 배치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름만 백화점이었을 뿐 예식장 1층 공간에 들어선 종합 상가의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평 대도백화점임대안내

위 치: 인천시 북구 부평동 153번지4
부평시장 중심가에 위치(금성극장옆)
구 조: 1층백화점, 2·3층예식장 지층·다방·식당
점포수: 60개점포(2.5평~3.5평)
개점일: 78년10월15일경
특 징: 넹온방 시설및 주차장 완비
저렴한 임대가격
교통편: ①시내버스 정류장 앞
②전철역에서 도보 3분거리

문의처: 부평대도백화점 ⑤4466

❖ 대도백화점 임대 광고(『조선일보』 1978년 8월 12일)

한편, 1987년 산곡동에 5천 세대가 넘는 현대아파트가 건설되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현대건설은 아파트 초입에 지하 3층, 지상 5층에 연면적 1만 576평의 건물을 짓고 '현대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쇼핑몰을 개업했다. 현대백화점의 모기업인 금강개발이 유통업에 뛰어들면서 압구정 현대백화점을 시작으로 무역센터점, 반포점 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갈 무렵이었다. 금강개발은 1991년 2월 산곡동 현대아파트에 있던 현대타운 건물을 증개축하여 현대백화점 부평점을 개업했다. 부평에 처음 들어선 백화점다운 백화점이자 대형 유통기업이 인천에 설립한 최초의 백화점이었다. 서울의 백화점에 비해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현대백화점'이라는 브랜드가 부평뿐 아니라 인천 시민, 특히 주부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991년 413억 원이던 매출이 이듬해 553억 원이 되었고, 2002년에는 1300억 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상가 건물이라는 태생적 한계에 따라 협소한 매장과 좁은 주차공간이 항상 문제가 되었다. 이에 더하여 유통업계의 선두를 다투고 있던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이 각각 구월동과 부평동 동아시티백화점 자리에 들어서며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결국 2003년 7월 27일 현대백화점 부평점은 폐점하였고 그 건물은 지금 아울렛으로 사용되고 있다.

1985년 2월 각 일간지에는 "부평에 단 하나뿐인 대형백화점"이라는 문구로 현대백화점 분양 및 임대 광고가 게재되었다. 그런데 백화점의 위치는 산곡동이 아니라 작전동이었고, 규모나 형태로 보아 백화점이 아니라 쇼핑센터였다. 당시 현대그룹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부지에 현대백화점을 건설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자 쇼핑센터의 이름을 현대백화점이라 붙였던 것으로 보인다.
작전동 444-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설 중이었던 이 건물은 연면적 2,600평의 당시로서는 넓은 규모의 쇼핑센터였다. 지금도 이 건물 외벽에는 현대백화점이라는 간판이 걸려있다.

❖ 폐점 후 간판을 내리고 있는 현대백화점 부평점(부평구청)

현대백화점 부평점이 산곡동 현대아파트 단지에서 문을 열었다면, 그에 버금가는 대단지였던 부평동 동아아파트 단지에는 동아시티백화점이 있었다. 현대백화점 부평점이 개업한 지 9개월 만인 1991년 11월 2일 동아건설은 부평동 동아아파트 입구에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8,500평의 건물을 짓고 동아시티백화점을 개업했다. 현대백화점 부평점이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에 비해 동아시티백화점은 굴포천 복개주차장을 활용하여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게다가 백화점 내에 수영장, 헬스센터를 입주시켜 현대백화점과 차별화를 꾀했다. 한때 1,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현대백화점 부평점을 능가했던 동아시티백화점은 모기업인 동아그룹이 경영난을 겪으며 흔들리기 시작했고, IMF사태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결국 1999년 8월 27일 롯데그룹이 백화점을 인수하여 롯데백화점 부평점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롯데그룹은 2002년 8월 구월동에 인천점을 개점하고 두 곳의 백화점에서 신세계백화점에 빼앗긴 인천의 소비자층을 흡수하고자 했지만, 입지 면에서 크게 앞서있던 신세계백화점의 매출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다. 결국 롯데그룹은 2013년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관교동 부지를 9,000억 원에 매입하고 아예 백화점 건물을 인수해버렸다. 양측은 법정 다툼까지 벌였지만 법원이 롯데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 2019년 1월 4일 롯데백화점은 신세계백화점이 철수한 건물에 인천점을 개업하고, 구월동 기존 건물에서의 영업을 종료했다. 롯데그룹은 관교동의 인천점 운영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그해 5월 부평점의 부지와 건물을 350억 원에 주식회사 모다이노칩으로 매각했고, 모다이노칩은 건물 개보수 공사를 마친 뒤 7월 24일 모다아울렛 부평점으로 재개장했다.

❖ 1994년 7월 동아시티 백화점 전경(부평구청)

1993년 11월 신세계백화점은 백화점이 아닌 새로운 유통사업에 뛰어들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할인점 이마트를 개점한 것이다. 고급화 전략을 폈던 백화점과 달리 이마트는 유통구조를 최소화시켜 도매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건물 옥상이나 지하에 주차장을 두고, 넓은 푸드코트와 문화센터까지 배치하여 쇼핑과 문화생활, 식사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1994년 고양시 일산점과 1995년 안산점을 개점한 데 이어 그해 12월 1일 전국에서 네 번째로 부평구 갈산동 171번지에 이마트 부평점의 문을 열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5,000평이 넘는 대형 매장에 475대의 주차장을 갖추고 있었다. 재개발을 통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었던 다른 세 지역에 비해 갈산동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아파트로 이루어진 주택가였다. 물론 길 건너 청천동에 대우자동차 부평공장과 수출공단이 위치하고 있었지만, 대형 할인점의 주 고객은 주부층이었기에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이마트 부평점은 도매시장의 저렴한 가격과 백화점의 깨끗한 쇼핑 환경을 갖추고 부평 일대의 주민들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일반 주택가라는 입지는 2000년대 들어 곳곳에 들어서고 있던 대형 마트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했고, 결국 이마트는 부평점의 부지와 건물을 부동산 개발회사인 서울디앤씨에 매각하고 2018년 6월 28일 부평점을 폐점하고 말았다. 부평의 첫 번째 대형 마트였던 이마트 부평점은 그렇게 사라졌고, 지금 그 자리에는 주상복합 건물인 부평 지웰에스테이트가 들어서 있다.

❖ 2002년 3월 갈산동 이마트 부평점 전경(부평구청)

지금 롯데마트 부평점이 위치한 산곡동 159번지는 일제강점기 군수공장으로 베어링을 생산했던 고요정공 부평공장이 있던 자리다. 광복 후 신한베아링을 거쳐 한국화약에 인수되면서 한국베어링, 한국종합기계 부평공장으로 1990년대까지 운영되었다. 1996년 한국종합기계 부평공장의 시설을 창원으로 이전하면서 한화그룹은 여기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사거리에는 대형 할인점인 한화마트를 지었다. 건너편에 한양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비해 시장이나 상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대형 할인점 자리로는 제격이었다. 1년 넘는 공사를 마치고 1997년 12월 18일 한화마트 부평점이 개점했다. 부지 3,800평, 연면적 7,300평에 매장 면적만 4,400평에 이르는 초대형 할인점이었다. 매장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였고, 3층부터는 주차장으로 활용했다. 2006년 한화유통이 롯데그룹에 인수되면서 그해 12월 롯데마트 부평점으로 재개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2001년 12월 롯데마그넷 부평역점(부평구청)

롯데그룹은 1990년대 말 인천의 소비자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한다. 부평 동아시티백화점을 인수한데 이어 구월동에 롯데백화점 인천점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평역사 쇼핑몰 내에 롯데그룹의 대형 할인점인 롯데마그넷을 입점시켰다. 롯데그룹은 부평역 2층에서 4층까지 2,400평에 달하는 공간에 대해 철도청과 30년 장기 임차계약을 맺고 2000년 2월 24일 롯데마그넷 부평역점을 개점했다. 그리고 2002년 6월 21일 롯데마트를 독립시키면서 이름을 롯데마트 부평역점으로 변경했다. 또한 삼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될 무렵인 2007년 12월 20일 롯데마트 삼산점이 개점했다. 주상복합건물인 대덕리치아노 건물의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 4개 층에 영업 면적 4,750평으로 부평의 롯데마트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2003년 현대백화점 폐점에 이어 2019년 롯데백화점 부평점이 폐점하면서 지금 부평구에는 백화점이 한 곳도 없다. 기존 백화점 건물을 사용하는 두 개의 아울렛만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네 곳에 이르던 대형 마트도 2018년 갈산동 이마트 부평점이 폐점하면서 롯데마트 세 곳만이 운영되고 있다. 구민들은 이웃도시 부천이나 구월동의 백화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생필품을 구매하기에는 대형 마트의 종류나 숫자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도시 규모에 비해 부평구의 쇼핑 환경은 좋지 않은 편이다.

1930년대까지 논과 밭이 펼쳐진 한적한 농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던 부평은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공업도시로 급속히 변모해간다. 부평역 인근으로 일본육군인천조병창을 비롯하여 각종 군수공장이 들어섰고, 경기도가 산곡동과 청천동 일대에 조성하고 있던 공업용지에는 도쿄제강과 고요정공 등 군수품을 생산하던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무자들이 모여들면서 부평의 인구는 급증했고, 공장 주변으로는 노무자를 위한 주택이 지어졌다. 인천부는 소화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부평역 일대의 가로망을 정비하고 택지와 상업용지를 공급하고자 했다. 그렇게 1940년대의 부평은 공업도시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광복이 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공공에서 추진하던 대형 사업이 중단되었고, 일본인이 운영하던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적산이 되었다. 곧이어 시작된 6·25전쟁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정부와 인천시가 전쟁 피해 복구와 사회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부평의 도시화는 수년 동안 멈춰 서 있었다. 1960년대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며 일시 중지 상태에 있던 도시계획이 다시 시작되었고, 부평은 자동차공장과 수출4공단이 들어서며 공업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 생산과 소비가 늘면서 생기 넘치는 도시가 되었고,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전철 등이 속속 개통되며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축되었다. 그러는 동안 부평의 인구는 50만 명을 돌파했고, 이제 부평은 공장이 즐비한 공업도시에서 상업시설,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는 복합도시로 도시 성격이 변해가고 있다.

참고문헌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仁川市史)』 상·하, 인천시사편찬위원회, 1973.
東京製鋼株式會社, 『東京製鋼100年史』, 東京製鋼株式會社, 1987.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1990.
호리 가즈오, 『한국 근대의 공업화(주익종 옮김)』, 전통과현대, 2003.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임창복,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 돌베개, 2011.
인천시립박물관, 『인천 근현대주거문화 관영주택과 사택』, 인천시립박물관, 2014.
부평역사박물관, 『부평 산곡동 근로자 주택』, 부평역사박물관, 2014.
부평역사박물관,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 부평역사박물관, 2016.
부평역사박물관, 『삶의 터전, 부평시장』 Ⅰ · Ⅱ, 부평역사박물관, 2020.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부평의 산업과 사회』 3-1 · 2, 2021

姜 雄, 「植民地期朝鮮の工業化の技術史的檢討」, 東京工業大學 博士學位論文, 1997.
염복규, 「1930~40년대 인천지역의 행정구역 확장과 시가지계획의 전개」, 『인천학연구』 6,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7.
염복규, 「일제말기 지방·국토계획론과 경인시가지계획」, 『서울학연구』 32, 2008
김현석, 「부평미군기지의 역사와 기지 반환의 성격」, 『박물관지』16, 인하대박물관, 2013.
전상숙, 「전시 일본국토계획과 대동아공영권 그리고 조선국토계획」, 『사회이론』 51, 한국사회이론학회, 2017.
김정아, 「기록물로 보는 근현대 인천(2) - 일본병기제조기변천일람표를 통해 본 인천지역사」, 『한일민족문제연구』33, 2017.
손민환, 「〈자료소개〉 기록물로 보는 근현대 인천(3) 히로나카상공(弘中商工)의 부평공장 운영 현황」. 『韓日民族問題硏究』, 34(1), 2018.
임범택, 「부평 토지구획정리지구의 변천과정에 관한 형태적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이연경 · 홍현도, 「부평 미쓰비시(三菱)사택의 도시주거로서의 특징과 가치 - 1930년대 말 부평의 병참기지화와 노무자주택의 건설」, 『도시연구』 22, 도시사학회, 2019.
홍현도, 「'시가지계획령 제10조에 의한 허가신청서류철'에 기록된 공장 및 공동주택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2019.

『朝鮮總督府官報』
『每日申報』
『東亞日報』
『朝鮮日報』
『대중일보』
『매일경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제 4 장

인천 육군조병창과 애스컴 시티

富·平·史

제4장

인천육군조병창과 애스컴 시티

정 혜 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1 일본군, 부평 땅을 차지하다

1) 구한말부터 일본군이 주목한 부평

❖ 인천육군조병창 위치(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오늘날 부평역 북서쪽 일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육군이 조성한 인천육군조병창이 있던 곳이다. 광학산 북쪽 기슭의 넓은 황무지였는데, 일찍부터 일본군이 눈독을 들이더니 빼앗아 일본군의 무기공장으로 만들었다.

육군 조병창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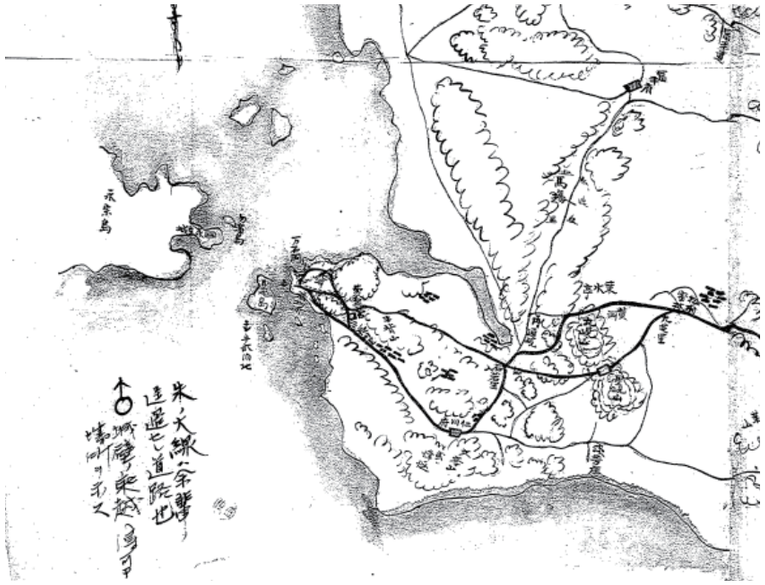
번호	명칭	소속 제조소	지역
1	도쿄(東京) 제1육군조병창	오미야(大宮)제조소, 센다이(仙台)제조소 등	일본
2	도쿄 제2육군조병창	다마(多摩)제조소, 이타바시(板橋)제조소 등	일본
3	사가미(相模) 육군조병창	제1제조소, 제2제조소	일본
4	오사카(大阪) 육군조병창	시라하마(白浜)제조소, 하리마(播磨)제조소 등	일본
5	나고야(名古屋) 육군조병창	아쓰타(熱田)제조소, 도리이마쓰(鳥居松)제조소	일본
6	고쿠라(小倉) 육군조병창	가스가(春日)제조소, 이코구치야마(糸口山)제조소	일본
7	남만(南滿) 육군조병창	제1제조소, 제2제조소 등	만주
8	인천 육군조병창	제1제조소, 평양제조소	조선

육군조병창
일본의 육군조병창은 일본 육군의 대규모 무기 생산 및 수리 보관 시설을 의미한다. 육군조병창의 전신은 1869년 오사카(大阪)에 설치한 '총포화약제조국'과 '조병사(造兵司)'이다. 이후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쳐 1923년에 육군조병창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그러나 이때 조병창은 직접 무기를 생산하는 부서가 아니라 관리 조직이었다. 무기를 고안하고 설계하고 제조소를 관리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했다.
그렇다면 무기는 어디에서 만들었을까. 무기 생산은 조병창 산하에 설치한 각종 공창(工廠)과 병기제조소 등이었다. 도쿄(東京)와 나고야(名古屋), 오사카, 고쿠라(小倉), 평양에 설치했다.
중일전쟁 이후인 1938년에 육군은 일본 본토와 만주 등 여러 지역에 공창과 제조소를 늘렸고, 1940년에 공창과 제조소를 육군조병창으로 통합한 후 육군병기행정본부 소속으로 두었다.
전쟁 말기인 1940년대에는 일본 열도(6개소)와 한반도(1개소) 및 만주(1개소)에 8개소가 있었다.

인천육군조병창은 1941년 개창해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무기를 만들었던 일본 육군의 군사시설이다. 일본 육군의 무기공장으로 들어서기 이전에는 일본군이 운영한 부평연습장이었다. 부평연습장과 인천육군조병창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인천육군조병창의 역사에서 부평연습장은 매우 중요하다. 이유는 일제가 인천육군조병창을 설치할 당시 부평연습장을 중심에 놓고 주변으로 땅을 확장해 나갔기 때문이다. 당국이 인천육군조병창을 열기 훨씬 이전부터 부평연습장을 통해 부평의 땅을 빼앗아 침략전쟁의 도구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언제부터였을까. 일본군은 언제부터 부평에 눈독을 들였을까.

1894년 1월 16일 군함 쓰쿠바(筑波)호를 타고 제물포에 도착한 다나카(田中) 대위 등 일본군 3명은 한양까지 이어진 도로를 정탐한 후 「인천경성간 도로 시찰보고서(원 제목 : 筑波艦仁川京城間道路視察報告外の件)」를 작성해 해군 대신에게 제출했다.



❖ 시찰보고서 첨부 지도를 통해 본 세 가지 경로. 출처 :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자료(C10125477300, 27년 3월 1일 「筑波艦仁川京城間道路視察報告外の件」)

경복궁 점령사건
1894년 6월 21일(음력)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한 사건. 갑오변란이라 부르기도 한다. 동학농민전쟁 발발 후 4월 28일(음력) 조선 정부가 청에 원병을 요청하자 일본군도 5월 6일(음력) 군함 2척을 이끌고 조선에 상륙했다. 그 후 5월 13일(음력) 일본군 보병과 기병 3,300명이 인천에 상륙해 위세를 보였다. 6월 9일(음력) 조선 주재 일본 공사가 고종에게 20개소 내정개혁요령을 강요한 후 경복궁 점령사건이 발생했다.
당일 오전 0시 30분 일본 공사의 전보를 받은 용산 주둔 일본군 혼성여단이 경복궁으로 향했다. 경복궁 서문 영추문을 통해 침입한 일본군은 오전 4시에서 오전 7시 사이에 궁궐 안팎에서 조선군과 총격전을 벌였다. 조선 국왕을 수색한 일본군이 총검을 들고 함화당 구역에 들이닥쳐 국왕을 경호하는 조선군을 무장 해제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은 궁중 보화의 약탈도 자행했다.
경복궁 점령사건 발발 이틀 후 일본은 청에 선전포고를 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이들은 제물포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경로를 세 개로 파악했다. 제1로는 석암리 → 구현산 → 구지리 → 오류동을 거치는 길이고, 제2로는 석암리 → 부평 → 양화진을 거치는 길이다. 제3로는 인천부 읍치 → 중림현 → 노량진을 통해 가는 길이다.

시찰보고서에 나오는 석암리는 지금의 석바위 시장 부근이고, 구지리는 송내동이며, 구현산(九峴山)은 광학산 일대가 된다. 다나카 일행이 시찰보고서에 담은 세 가지 길 가운데 두 가지 길에 부평은 빠지지 않고 있었다.

다나카 일행이 정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군이 제물포에 상륙했다. 청일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이었다. 이들은 곧바로 한양으로 쳐들어가 경복궁 점령사건을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자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구현산에 포대를 설치했다. 그리고 일본군은 1939년 구현산 인근의 땅을 인천육군조병창 부지로 흡수했다.

이같이 일본군은 일찍부터 부평을 주목하고 군사시설을 조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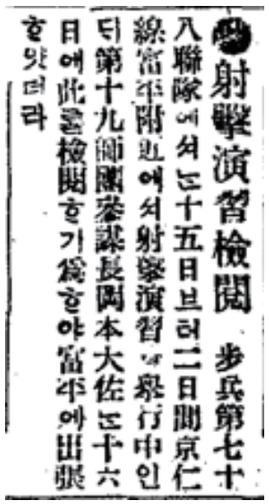
부평의 지정학적 위치가 갖는 중요성을 파악하고 조선 침략의 요충지로 평가한 것이다. 나라가 쇠망하는 과정에서 부평은 수난을 피할 수 없었다.

2) 부평평야에서 부평연습장으로

구한말 부평을 주목했던 일본군은 1910년 조선을 강제병합한 후 본격적으로 부평의 땅을 차지했다. 1916년 조선총독부는 부평 지역의 토지 60만 평을 확보했다. 일본군에 필요한 토지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조선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조선주차군이다.

1916년 조선주차군 제19사단은 조선총독부가 확보한 부평의 땅에 군 연습장을 설치하고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매일신보』 기사에 나오는 보병 제78연대는 조선주차군 제19사단 소속으로 용산에 주둔하고 있었다.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 역사
일본은 1880년 12월 일본공사관을 개설하면서 6명의 일본군을 파견한 후 지속적으로 병력을 늘려 나갔다. 1883년 제물포조약을 근거로 2개 중대의 공사관 수비대를 확충하고, 1885년에는 한성조약에 따라 1개 대대를 주둔시켰다. 청일전쟁을 치르면서 육군과 해군의 전투부대를 위시해 각종 병참대 및 경비대를 파견했다. 이후 1896년에는 한국주차대를, 1904년에는 한국주차군 등으로 확대 개편했다.
1개 연대, 4개 대대, 2개 중대 등의 총 4,273명으로 출범한 한국주차군은 1910년 8월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한 이후에는 조선주차군으로 변경되었다. 조선주차군은 1915년 이후 제19사단과 제20사단 등 2개 사단 체제를 갖추었고 1918년부터는 조선군으로 바뀌었다.


射撃演習檢閱 歩兵第七十八聯隊에서는十五日브터二日間京仁線富平附近에서射擊演習을施行中인데第十九師團參謀長岡本大佐는十六日에此를檢閱하기爲하야富平에出張하얏더라

❖ 매일신보 기사

보병 제78연대에서는 15일부터 2일간 경인선 부평 부근에서 사격연습을 거행 중인데 제19사단 참모장 오카모토(岡本) 대좌는 16일에 이를 검열하기 위해 부평에 출장하였다더라(『매일신보』, 1916년 9월 17일자)

군 당국은 1910년대에는 주로 사격연습을 했고, 1922년에는 항공 제6대를 포함해 여러 부대가 참여한 연합훈련장소로 사용했다.

일본 육군성이 발간한 「육군건축사무규정부록」에서 일본군 군용 연습장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있다. '연습장은 가능한 위무지(威武地)와 가까워 군대의 이용이 편리하고, 토지가 광활하며, 지형의 변화가 다양하고, 배수가 양호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가능한 한 산간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사격연습을 해야 하므로 불발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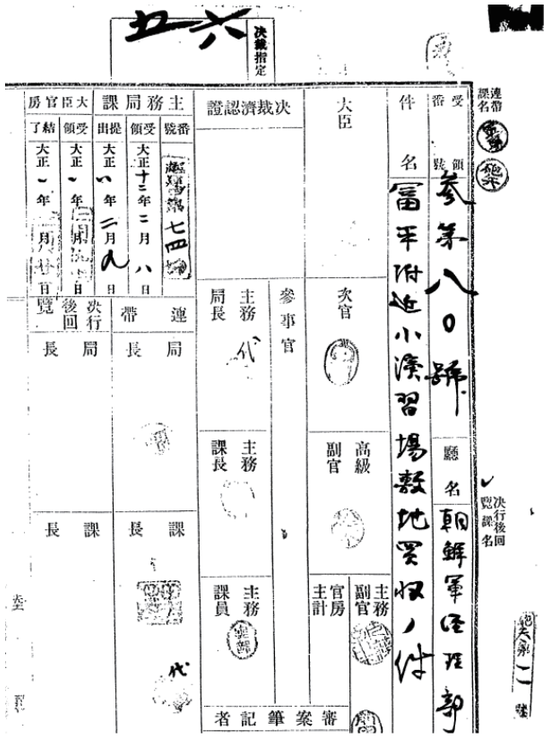
연습장에는 관측소, 감적소(監的所), 동적색인설비(動的索引設備)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관측소는 철골 구조로 만든 전망대이고, 감적소는 콘크리트나 벽돌로 만든 2m 정도 높이의 관측용 구조물이다. 동적색인설비는 이동하는 표적류를 가리킨다. 부평연습장 시기에 만든 이러한 설비는 이후 육군조병창을 설치할 때 재산으로 이관했다.

일본군 군용 연습장은 본연습장과 소연습장으로 구분했다. 소연습장은 본연습장이 '위무지로부터 현저하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군대의 이용이 불편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했다. 부평에도 소연습장을 설치했다. 조선군은 1923년에 부평 소연습장 건설 계획을 세우고 부지 매입에 나섰다.

부평의 소연습장 매입과 관련한 당시 자료가 있다. 1923년 2월, 조선군 경리부장이 일본 육군대신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앞으로 보낸 공문과 이에 대한 야마나시 한조의 지령안 등을 담은 자료이다. 공문 제목은 「부평부근 소연습장 부지매수의 건」(일명 조경영(朝經營) 203호)이다. 공문에서 해당 내용을 살펴보자.

> 용산부대를 위해 용산에서 1일 행정(行程)에 있는 부평 부근을 별도 그림(別圖)과 같이 총독부에서 매수한 뒤 인도하는 것으로 결의했으니 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소연습장 희망 구획은 그림에 표시(圖示)한 바와 같으나, 이 가운데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그 일(一) 소부분(小部分)이라도 차제에 군용지로 편입시킨다고 하는 당(當) 군사령관과 제20사단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략)
> 그리고 그림상 붉은 색의 대부분에는 약 4, 5만 평의 국유임야가 존재할 예정이어서 그 대부분을 군용지에 편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야마나시 한조는 서류를 검토한 후 '1월 31일 조경영 203호의 건은 신청한 대로(진행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로 보아 소연습장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부평 소연습장 부지 매입 관련 공문 표지(왼쪽) 및 야마나시 한조가 내린 지령(오른쪽). 작성자는 조선군 경리부장이고, 1923년 2월 8일에 일본 육군본부가 접수한 문서이다. 출처 :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자료(C03011787500)

❖ 소연습장 부지 매입 관련 공문

이같이 조선주차군과 조선군 시기에 만든 일본 육군의 부평연습장은 1922년에는 연합훈련장소로 사용되었고 1925년에는 헌병분주소(憲兵分駐所)를 설치할 정도로 적극 사용했다. 헌병분주소를 설치하기 전에는 연습이 있을 때마다 헌병들이 출장을 나왔으므로 경비를 절약하고자 한 것이다.

부평연습장의 운영은 부평 민중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주었다. 훈련 중에 민가를 강제로 빼앗아 군인들의 숙소로 이용하도록 하거나 민간인을 동원해 군부대가 이동하는 도로를 정비하도록 했다. 행군하면서 농토를 무단으로 지나가는 바람에 농작물 피해도 심했고, 임신부가 낙태하는 일까지 있었으니 폐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보자.

機動練習의軍人
仁川서宿泊
민가를치우고

금년봄에 인천(仁川)의 상공에서 조선의 제일류 비행가 안창남(安昌男)씨의 『푸로페라』 소리를 들은뒤로 그동안 잠々하든인천의하늘도 멋칠안되여 사람은 다르나 어쨋든가 비행기가 뜨게된다나 엇재든가 비행긔가뜨게되면 소위육군긔동연습 (陸軍機動練習)을 (空中)이신천(앞부터 지부평(富平)평야(平野)를목표삼으로하야 열니는동시 래월삼일에는약 오천명의군인이 인천에서 일박하게됨으로 일본사람의 집으로는 도더히다재우지못한다 하야 조선사람의 웬만한집은 모다빗 명식명령덕으로재우게되야 일부 민간에 불평이적지안으며 또평화로운인천으로하야금전쟁터를 이루게 할터임으로 더욱비난의 소래가높다는데그와동시에상공에비행긔도뜬다더라(인천)

❖ 동아일보 기사

금년 봄에 인천의 상공에서 조선의 제일류 비행가 안창남씨의 '푸로페라' 소리를 들은 뒤로 그동안 잠잠하던 인천의 하늘도 며칠 안되어 사람은 다르나 어쨌든가 비행기가 뜨게 된다.
소위 육군기동연습을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부평평야를 중심으로 하여 열리는 동시 다음 달 3일에는 약 5천 명의 군인이 인천에서 1박하게 됨으로써 일본사람의 집으로는 도저히 다 재우지 못한다 하여 조선사람의 웬만한 집을 모두 몇 명씩 명령 덕으로 재우게 되어 일부 민간에 불평이 적지 않으며 또 평화로운 인천으로 하여금 전쟁터를 이루게 할 터이므로 더욱 비난의 소리가 높다는데 그와 동시에 상공에 비행기도 뜬다더라.(『동아일보』, 1923년 10월 30일자)

仁川時話

仁川支局 一記者

오는 11월 3일에는 제20사단 약 5천 명의 군대가 안온하던 인천시가에 헤매게 되며 비행기가 상공에 비상하리라 한다. 그리고 부평평야에는 예년에 의한 육군기동연습을 거행한다는데 금년은 전보다 한층 규모를 넓혀 그 구역으로는 인천까지 포함되었다 하며, 군대 연습시 행로라고 부천군 신천리, 은고리, 안현리 등 순차로 수원까지 통하는 3등 도로를 부근 거주 농민으로 하여금 수선을 부담케 했다. 그렇지 않아도 매년 이 구역 거주 농민들은 미숙한 농작물이 무참하게도 날뛰는 말꿉 아래 결단남을 원통히 여기는 터이며, '마른 하늘에 벼락'이란 격으로 순박하던 농촌은 문득 인심이 불안할 뿐 아니라 심해서는 산모의 낙태하는 일까지 있었다 한다.(『동아일보』, 1923년 10월 31일자)

❖ 동아일보 기사

그렇다면 부평연습장은 어디에 있었을까. 대략 장고개와 캠프 마켓 사이, 즉 현재 육군 제3보급단과 캠프 마켓을 중심으로 한 산곡동 일대로 추정한다.

2 부평연습장에서 인천육군조병창으로

1) 중국 침략에 필요한 인천육군조병창

일본이 조선을 침탈해 식민지로 삼으면서 부평 민중들의 일상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1916년에 조선주차군이 만든 부평연습장은 부평 민중들의 일상을 흔든 사례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일본이 중국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키면서 부평 민중들의 삶은 더욱 큰 영향을 받았다. 줄곧 부평 민중들에게 폐해를 주었던 부평연습장이 인천육군조병창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1931년 일본이 중국 만주에서 시작한 침략전쟁은 아시아태평양전쟁(1931~1945)이다. 이후 일본은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켜 전선을 확대했다.

일본은 왜 중국을 상대로 침략전쟁을 일으켰을까. 일본이 처한 경제적·정치적 위기를 대륙 침략전쟁을 통해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1854년 개국과 함께 들어온 자본주의 체제를 안착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의 영토를 확장하고 인근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거듭했다. 전쟁을 수단으로 삼아 국민통합을 이루고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가려 한 것이다.

일본은 1869년 아이누(Ainu) 민족이 살던 에조(蝦夷)를 점령해 홋카이도(北海道)로 삼고, 1879년에 류큐(琉球) 왕국을 점령해 오키나와(冲繩)현으로 삼았다. 이후 자국의 영토를 확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1894년부터 중국과 구 러시아제국을 상대로 침략전쟁을 거듭했다. 그러나 취약한 일본의 경제 토대는 전쟁으로 해결할 수 없었고, 거듭하는 경제공황의 파고를 넘어서기도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1931년 만주 침략을 감행한 후 15년간 침략 전쟁의 파고에 빠져들었다.

일본은 1937년 7월 7일 루거우차오(盧溝橋) 사건을 계기로 중국 본토를 공격하고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중일전쟁의 발발로 한반도는 제국주의 일본의 병참기지로 전락하는 비운을 맞았다. 일본은 조선의 식량과 자원을 전쟁 물자로 수탈했고, 한반도의 토지와 해안을 전쟁에 대비한 시설로 채웠으며, 조선의 민중을 군인과 군무원, 노무자, 군위안부로 동원했다. 이러한 경향은 전쟁 말기로 갈수록 극심해졌으며, 조선 민중의 일상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부평 역시 이러한 시대와 전쟁의 운명에서 비껴가지 못하고 그 숙명을 정면에서 맞닥뜨려야 했다.

중일전쟁 발발 당시 일본 육군 수뇌부는 '3개월 안에 전쟁을 끝낸다'고 호언장담했다.

일본 침략전쟁의 역사
에조 점령(홋카이도 설치, 1869) → 타이완 침략(1874) → 류큐 왕국 점령(오키나와로 삼음, 1879) → 청일전쟁(대만을 식민지로 삼음, 1894) → 러일전쟁(1904, 남사할린 차지) → 대한제국을 강제병합(1910) → 제1차 세계대전(1914, 중서부 태평양 점령) → 러시아혁명 간섭전쟁(시베리아 출병, 1918) → 중국혁명 간섭전쟁(산둥 출병, 1927) → 만주 침략(만주사변, 1931) → 중일전쟁(7.7사변, 1937) → 태평양전쟁(1941)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 달리 전쟁이 수렁으로 빠져들자 보급 문제는 시급한 현안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구상한 것은 새로운 군사시설인 인천육군조병창이었다.

일본 당국은 부평의 넓은 분지에 대규모 무기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여기에 한반도와 중국 본토의 자원을 끌어모아 침략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었다. 조병창의 무기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군수공장을 세웠고, 여기에 동원할 조선 민중들의 숙소도 건설했다.

이같이 인천육군조병창은 식민지의 자원을 더욱 손쉽게 수탈하고 이를 이용해 침략전쟁의 무기를 한층 더 빠르게 생산·수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인천육군조병창은 일제가 건설한 새로운 군사시설의 공식 명칭이자 중일전쟁 장기화가 부른 일제의 야심작이었다. 한반도 병참기지화 정책의 총화이자, 전시 총동원체제 물자의 집산지이며 대륙 침략의 최전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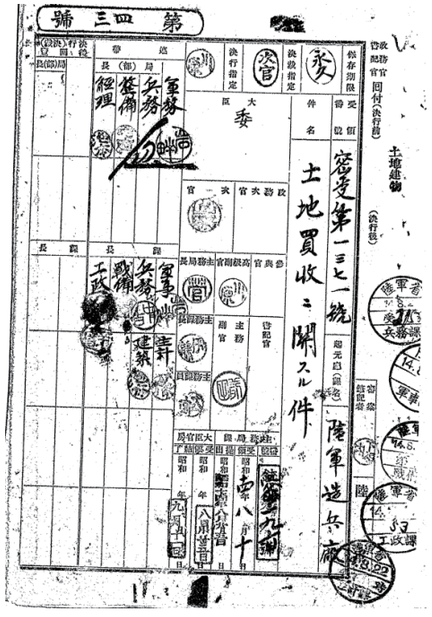
육군조병창은 육군에서 사용하는 각종 무기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대본영(大本營)이 있는 일본 본토에 두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일본 육군은 한반도의 부평과 평양에 조병창을 설치하고 각종 무기를 생산하게 되었다.

대본영
전시 중이나 사변(事變) 중에 설치된 일본 제국 육군 및 해군의 최고 통수 기관. 천황의 명령(봉칙 명령, 奉勅命令)을 대본영 명령(대본영 육군부 명령[大陸命], 대본영 해군부 명령[大海令])이라는 이름으로 내리는 최고 사령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때도 설치했으나 종전 후 해산. 1937년 중일전쟁 때 설치해 아시아태평양전쟁 종전까지 존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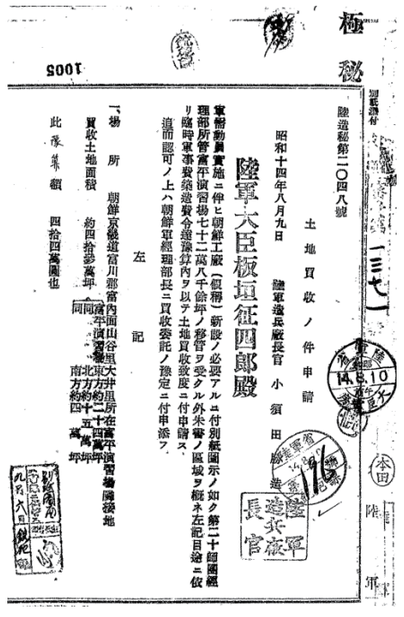
일본 육군 당국은 1939년 중반부터 인천육군조병창 설립을 추진했다. 물론 일본 정부와 군부는 중일전쟁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이미 군비 확장과 함께 국가총동원 정책을 입안하고 있었다. 계획은 1937년 5월 내각조사국을 기획청으로 재편한 것에서 출발한다. 기획청을 설치한 일본 당국은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본격적으로 국가총동원 체제를 구축했다. 1938년 4월에는 「국가총동원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해 일본 본토는 물론, 식민지 조선과 대만의 인력과 물자, 자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토대 아래 인천육군조병창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에 육군조병창을 세우자는 논의는 일찍부터 있었다. 1937년 6월 23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기사는 모두 조선에 조병창 건설을 건의한 내용이었다. 당시 조선상공회의소가 조선총독부에 올린 건의였다. 조선상공회의소는 "현재 조선은 군의 작업청(作業廳)으로 육군조병창 평양병기제조소, 육군병기본창 평양출장소, 육군항공본창 평양공홍기창 및 해군연료창 평양광업부의 4청이 있으나 조선의 지리적 중요성에 비춰 당국은 지금 조속히 병기제조소를 조병창 공창에, 병기본창 출장소를 병기본창 지창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일본 육군이 부평에 인천육군조병창을 세운 직접적인 원인은 예상과 달리 흘러가는 전쟁 상황 때문이었다.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난징(南京)을 점령하면 중국 정부가 항복할 것이라 예상하고 3개월 이내 승리를 장담했다. 그러나 일본의 예상과 달리 1939년에 들어서도 전쟁은 끝날 줄 몰랐다. 오히려 전쟁은 교착상태가 되었고, 200만 명이 넘는 일본군은 넓은 전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에게 시급한 것은 원활한 보급이었다. 특히 무기를 신속하게 보급하지 않으면 전쟁을 치를 수 없었다. 그런데 일본 본토에서 무기를 조달하려니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 신속하게 보급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전선과 가까운 한반도에 무기공장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육군은 부평의 조선군 부평연습장을 주목하게 되었다.



❖ 고스다 장관이 보낸 신청 문서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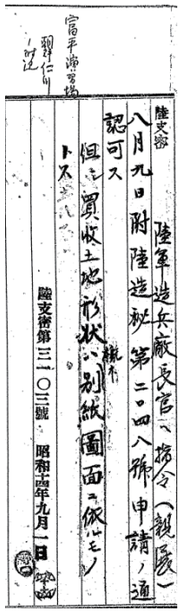


❖ 문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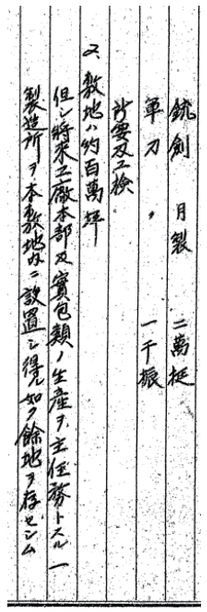
1939년 8월 9일 육군조병창 장관 고스다 가쓰조가 육군대신 이타타키 세이시로에게 보낸 문서 「토지매수의 건 신청」 표지(왼쪽)와 문서 속에 조선공창 설립을 위해 토지 매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오른쪽).
출처 :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자료(C01004619300)

> 군수동원 실시에 따른 조선공창(가칭) 신설이 필요하여 별지의 지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제20사단 경리부 소관 부평연습장 72만 8,000여 평의 이관을 받는 것 외 붉은 글씨의 구역을 대략 다음의 목적에 따라 임시군사비 축조비 영달 예산 내로써 토지매수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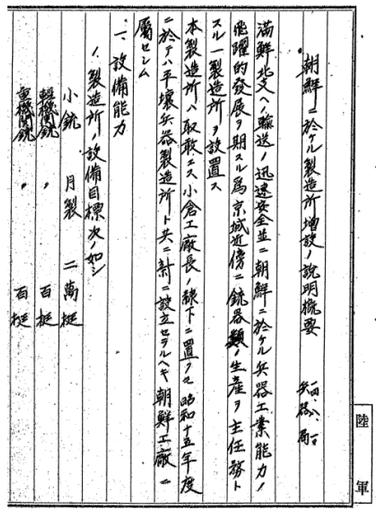
「토지매수의 건 신청」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1939년 8월 9일, 일본의 육군조병창 장관인 고스다 가쓰조(小須田勝造)는 육군대신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에게 '조선공창(朝鮮工廠)'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예산을 신청했다. 이 당시에는 인천육군조병창이 아니라 '조선공창'이라 표현했다. '공창(工廠)'이란 일본 육군과 해군에 소속되어 무기와 탄약 등 군수품을 제조하고 수리하는 공장을 의미한다. 문서에는 '별지의 지도'에 표시한 지역이라고 했으나 지도는 보이지 않는다.



❖ 육군성 보충 설명자료 제목



❖ 보충설명 자료 내용



❖ 1939년 8월 10일 육군성 병기국이 작성한 보충 설명 자료
출처 :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자료
(C01004619300)

「토지매수의 건 신청」은 9월 1일에 육군성 병기국이 작성한 '조선 내 제조소 증설의 설명 개요(1939년 8월 10일)'라는 문건을 포함하고 있다.

> 만선(滿鮮 : 만주와 조선, 인용자), 북지(北支 : 중국 관내, 인용자)에 대한 수송의 신속 안전과 조선 무기공업 능력의 비약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 경성 부근에 총기류 생산을 주 임무로 하는 제조소 한 곳을 설치한다. 본 제조소는 우선 고쿠라 공창의 예하에 두는데, 1940년도에는 평양병기제조소와 함께 새로 설립할 조선공창에 예속토록 한다.

'조선 내 제조소 증설의 설명 개요(1939년 8월 10일)'에서는 명확히 '총기류 생산을 주 임무'로 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조병창에서 만들어야 하는 무기의 종류와 규모를 적었다. 소총, 경기관총, 중기관총, 총검, 군도 등이었다.

또한 부지의 규모(약 100만 평)도 기재했다. 부지 100만 평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었을까. 앞에서 소개한 8월 9일 고스다 육군조병창 장관의 신청 내용에는 '제20사단 경리부 소관 부평연습장 72만 8,000여 평'과 그 외 지도의 '붉은 글씨의 구역'이라는 문장이 있다. 부평연습장을 중심으로 부지를 조달하려고 한 것이다. 이미 확보한 부평연습장을 제외한 토지를 사들이는데 필요한 돈은 육군의 임시군사비로 충당했다.

설비 능력
1) 제조소의 설비목표는 다음과 같다.
소총 월 제조 2만 정
경기관총 월 제조 100정
중기관청 월 제조 100정
총검 월 제조 2만 정
군도 월 제조 1천 정
2) 부지는 약 백만 평
단, 장래 공창 본부 및 실포류의 생산을 주 임무로 하는 제조소 1개소를 본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다.

고스다 육군조병창 장관의 신청에 대해 육군대신은 9월 1일, '신청한 대로 허가한다'고 지령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115만 평 규모의 인천육군조병창을 설치하게 되었다. 여의도가 약 88만 평이니 인천육군조병창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이 '조선 내 제조소 증설의 설명 개요(1939년 8월 10일)'는 부평에 육군조병창을 건설하는 목적을 명확히 적었다. 이를 통해 세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만주와 조선, 그리고 중국으로 수송할 무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할 목적으로 건설한다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시설은 경성 근방에 건설되는 것이 효과적이었는데 부평이 적합한 곳이었다는 점이다. 셋째, 부평의 육군조병창은 설치 이후 총기류 생산을 주 임무로 할 계획이었다는 점이다.

병기국이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경성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제조소는 총기류와 실포류(총기류에 사용하는 실탄)를 주로 생산할 예정이었다. 건설 초기에는 고쿠라 공창이 관리하지만 완성된 후에는 모두 부평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또한 공창 본부(부평)와 두 개의 제조소(부평과 평양병기제조소)을 둔다는 구상이었다. 평양병기제조소는 1918년 도쿄(東京)포병공창 소속의 조선병기제조소로 출발했다.

요시하라 요사무(吉原勇)가 쓴 「인천에서의 70년」(인천을 생각하는 모임(仁川を想う會) 홈페이지(https://jinsendayori.jimdofree.com))를 통해 당시의 일화를 살펴보자.

> 1938년, 나가이 부윤(인천부윤)이 부평 고쿠라 무기 제조창 분소 형태로 무기 제조 공장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손에 의해 만주국이 건국된 후 군비 확충이 주장되고 있던 시대이다.
> 인천항이 있고, 경성을 배경으로 만주국도 가까운 인천은 지리적으로도 우수했다. 고쿠라 무기 제조창 분소는 바로 인천 무기 제조창으로 격상되었다. 인천 무기 제조창 주변에는 아래 구속을 위한 기계 공장이 순식간에 모여들었다.

요시하라는 조병창의 부평 설치가 부윤 나가이의 유치 운동에 힘입었다고 적었다. 요시하라의 회고를 보면, 마치 인천의 적극적 유치 노력 때문에 당국이 조병창을 부평에 설치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요시하라의 회고는 사실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다.

일제가 육군조병창을 부평에 건설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 지리적 조건이었다. 부평은 경성과 인천을 잇는 중간에 위치하면서 한강을 통한 수로에 접근하기 쉬웠고 계양산·철마산·원적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자리하고 있었다. 분지는 안개가 자주 끼므로 연합군의 공습을 피하기에 적합했다. 이러한 부평의 입지 조건은 당시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병참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었다.

둘째, 경성과 인천의 중간에 위치해 인천항과 경인선을 통해 곧바로 물자를 수송하기 쉬웠다. 부평에서 만들어진 무기는 조병창 내부까지 연결된 철도를 통해 인천항으로 수송한 후 곧바로 중국 전선에 투입할 수 있었다.

셋째, 경성의 우수한 기술력과 학생 등 노동력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9월 1일, 육군성이 토지 매입을 허가하자 고스다 육군조병창 장관은 곧바로 공장 건설에 들어갔다. 첫 작업은 공사감독사무소를 현장에 설치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고쿠라 공창에서 감독 요원을 파견해야 하는데, 이들이 머물 숙소가 시급했다. 1939년 9월 30일 고스다 장관은 공문을 보내 임시 숙소 마련을 위한 임대료 지출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1939년 10월부터 시작한 공사는 개창식까지 약 1년 6개월이 걸렸다. 1941년 초 총검 공장과 견습공 연습공장 등 두 건물을 완공한 후, 1941년 5월 5일 인천육군조병창이라는 공식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여전히 공사 중이어서 1941년 초에 완공한 두 개 공장만을 우선 가동했다.

1941년 5월 5일 당시 인천육군조병창은 조선군관구부대 육군병기행정본부 소속이었다. 인천육군조병창을 관리하던 육군병기행정본부는 1940년 12월 2일에 편성한 부대이다. 그러므로 인천육군조병창은 개창하기 1년 전에 이미 평양병기제조소와 함께 육군병기행정본부 소속이 되었다.

일본 육군은 1940년 12월 인천육군조병창을 편제할 당시 초대 창장으로 소장 다이코 기사부로(大幸喜三郎)를 임명했다. 그는 1943년 10월까지 근무했는데, 화포 무기 전문가였다.

인천육군조병창에는 어떤 시설이 있었을까. 일본은 1923년 3월 16일에 조병창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 때, 「육군조병창령(칙령 제83호)」이라는 법령을 제정 공포했다. 육군조병창령 제2조에 따르면, 육군조병창은 총무부와 작업부, 기술부, 회계부, 공창과 제조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육군조병창령」

육보(陸普) 제985호 육군조병창령 제정의 건(1923. 3. 16.)

육군대신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내각총리대신 남작 가토 도모사부로(加藤友三郎) 귀하

육군조병창령을 별지의 칙령안과 같이 제정하고자 이유서를 구비하여 각의를 요청합니다. 짐 육군조병창령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토록 함.

1923년 3월 29일

내각 총리대신. 육군대신

「칙령 제83호」 육군조병창령

제1조 육군조병창은 육군 소요의 무기를 고안 설계하고 육군 소요의 무기 기타의 군수품 및 일반화약류를 제조 수리하며, 또한 이들 제품의 검사를 함과 동시에 해군 소요의 화약을 제조 수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육군조병창에 총무부, 작업부, 기술부, 회계부, 공창 및 장관 직할의 제조소를 둔다. 공창은 도쿄, 오지(王子), 나고야(名古屋) 및 오사카에 두고 직할 제조소는 고쿠라 및 평양에 둔다.

제3조 총무부, 작업부, 기술부 및 회계부의 사무 분장은 육군대신이 그를 정한다.

제4조 공창에 소요의 과 및 제조소를 둔다.

제5조 육군대신은 필요에 따라 공창 또는 제조소의 파출소를 두고 그 업무를 분장시킬 수 있다.

제6조 육군조병창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장관, 부장, 공창장 제조소장, 과장, 창원, 준사관·하사·판임문관

파출소를 두는 경우 파출소장은 창원 중에서 충원한다.

제7조 장관은 육군대신에 예속하고 육군조병창의 업무를 총리하며 또한 소할의 토지 및 건조물의 경영을 장리한다.

제8조 부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각 부의 사무를 장리한다.

제9조 공창장 및 직할 제조소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공창 및 직할 제조소의 업무를 장리한다.

제10조 과장은 상관의 명을 받아 각 과의 업무를 장리한다.

제11조 제조소장(직할 제조소장 제외)은 상관의 명을 받아 제조에 관한 업무를 장리한다.

제12조 창원은 상관의 명을 받아 각 담임 업무를 장리한다.

제13조 준사관, 하사 및 판임문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 업무에 복무한다.

제14조 관청 또는 민간으로부터 병기와 기타 물품의 제조, 또는 병기와 기타 그에 준하는 물품의 시험·제조의 지도, 혹은 제조 기술에 종사하는 자의 양성을 의뢰받은 때는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한 육군대신의 인가를 받아 그에 응할 수 있다.

제15조 위수지 외에 있는 제조소 또는 파출소에 경계를 시급히 요하는 경우에는 공창장과 제조소장 또는 파출소장은 즉시 소재지 관할 사단장에게 위병 파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순서를 거쳐 그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19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포병공창조례는 폐지한다.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무기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일본은 1940년 4월 육군병기창과 육군조병창을 육군병기창으로 통합하고 육군병기본부를 설치해 육군병기창을 통괄하도록 했다. 이후 1942년 10월에 다시 조직을 통합해 육군병기행정본부로 개편했다.

조병창의 임무는 무엇이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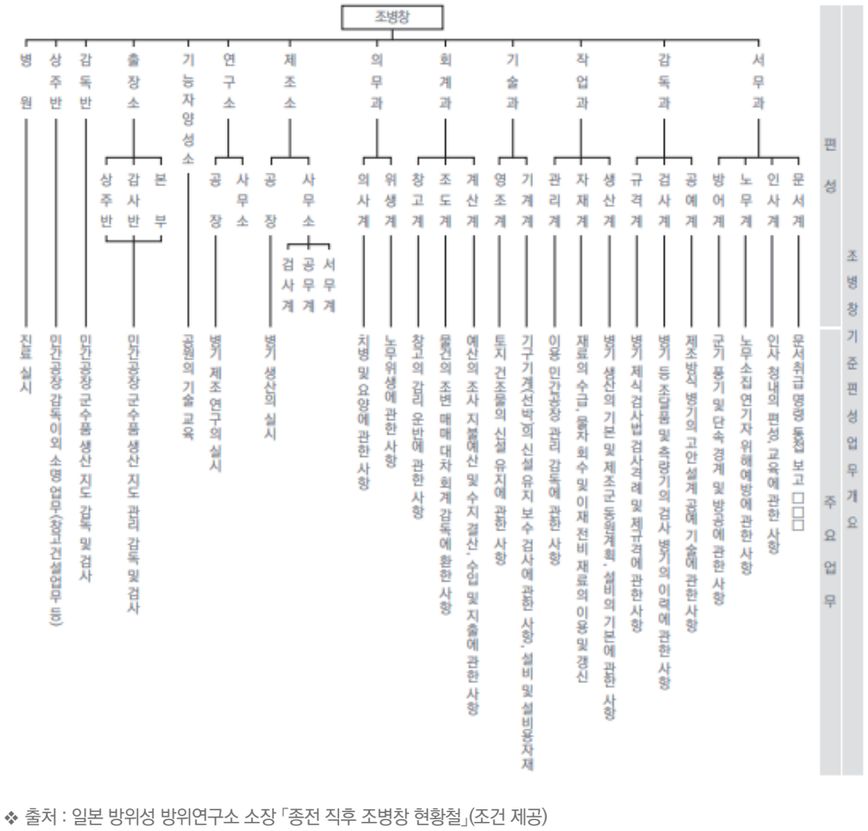
현재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에는 1945년 8월 31일 육군병기행정본부에서 작성한 「조병창 현황(造兵廠/現況)」이라는 자료가 있다. 아시아태평양전쟁기간 중 일본 육군이 운영했던 병기행정본부와 예하 6개 육군조병창의 패전 당시 현황을 정리해 미군에 이관한 자료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육군조병창의 조직 구성뿐만 아니라 병기 정비 상황, 설비 및 노무 상황, 물자 상황, 그리고 공습 피해 상황에 이르기까지 조병창 관련 종합보고서인 셈이다.

「조병창 현황」에는 육군조병창의 조직도가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조병창 예하 부서 및 조직으로 서무과, 감독과, 작업과, 기술과, 회계과, 의무과, 제조소, 연구소, 기능자 양성소, 출장소, 감독반, 상주반, 병원 등이 있다. 1945년 일본 패망 당시 조직도를 살펴보자.

「조병창 현황」중 조병창 임무

1. 임무

1) 조병창은 병기행정본부장에 예속하고 병기 재료와 기타 제조 구매 및 수리를 위해 이들 제품 및 병기 재료의 검사를 장리한다. 또한 병기 및 병기 재료의 제조와 군용 화약 및 병기용 금속재료에 관해 조사 연구 및 시험을 수행한다. 아울러 군수성의 위탁을 받아 일부 항공병기 및 해군성의 위탁을 받아 일부 해군 소요의 화약 제조를 수행할 수 있다.
2) 조병창에는 소요의 과, 제조소, 연구소 및 기능자 양성소를 둔다. 과는 소요의 과무를, 제조소는 제조의 업무를, 연구소는 주로 제조에 관한 연구 업무를, 양성소는 기능자 양성의 업무를 각각 실시한다.
3) 조병창에는 창장, 제조소장, 연구소장, 기능자 양성소장, 창원, 교관, 부 준사관, 하사관 및 판임문관을 둔다.



❖ 출처 :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종전 직후 조병창 현황철」(조건 제공)

인천육군조병창도 일본 패망 당시 조병창 조직도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인천육군조병창은 조병창 본부와 제1제조소(부평), 평양제조소, 경성감독반, 부산감독반, 성진감독반을 관할했고, 1942년 4월 15일에는 평양병기보급창 부평분창을 현재 일신동(당시 가토리마치, 香取町)에 설치했다.

인천육군조병창 조직

명칭	주요 업무	당시 위치
본부	-	경기도 부천군 부내면 대정리
제1제조소	소총, 총검 생산	경기도 부천군 부내면 대정리
평양제조소	탄황, 항공탄약, 차량기구 생산	평안남도 평양부

인천육군조병창 조직

명칭	주요 업무	당시 위치
경성감독반	감독 검사	경성부 광화문통 경기도청 내
부산감독반	감독 검사	경상남도 부산부 수정가
성진감독반	감독 검사	함경북도 성진부 쌍포정 일본고주파공업 성진공장 내
평양병기보급창 부평분창		경기도 부천군 가토리마치

부평에 있었던 제1제조소는 세 개의 공장을 두고 소총과 탄약, 총검, 군도 등을 나누어 생산했다. 공장 외에 숙소와 병원, 매점, 노무자를 훈련하는 기능자 양성소 등도 설치했다. 농장과 축사도 있었다. 농장에서는 논과 밭, 신개간지에서 찹쌀과 잡곡, 채소를 길렀고 피마자도 재배했다. 돼지감자 등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채소를 주로 재배해 비상시에 대비했다. 항공유 대용으로 사용할 기름을 얻기 위해 피마자도 재배했을 것이다. 축사에서는 말과 소, 돼지, 닭 등을 키웠다.

이러한 조직과 시설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1945년에 들어서 본토결전 방침이 정해지면서 시설을 추가하고 확충하거나 이전하는 일이 있었다. 시설을 추가한 사례는 고사포 부대 설치이다.

「대동아전쟁 제17방면군 축성시설배치도」(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에 소장)에는 전쟁 말기 한반도 내 일본군 군사시설이 있는데 부평 일대 지도에 눈에 띄는 기록이 있다. 일단 부평 왼편의 산지에는 '야전진지'라고 쓰여진 긴 실선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빨간 세모 표시에 '병기격납동굴 500㎡'라고 적혀 있다.

이 지도는 '병기격납동굴'이라는 지하시설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병기격납동굴' 주위에 '8고×6'이라는 문구도 주목된다. 8고×6은 99식 8센티 고사포 6문이 설치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99식 8센티 고사포는 1941년 독일 크룹(Krupp)사가 만든 8.8㎝ 고사포를 개량한 것으로 1942년부터 1945년에 걸쳐 500문 이상 양산한 포였다. 전쟁 말기 육군 방공부대에서 널리 사용했다. 콘크리트나 목재로 구축한 진지에 고정해서 사용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부평의 고사포부대 존재를 추측하는 자료를 볼 수 있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재남선 일본군 부대개황보고(在南鮮日本軍部隊概況報告)』에 있는 「고사부대배치요도(1945. 9. 2.)」이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일본군 방공부대, 특히 고사포부대는 주로 경성과 부산을 중심으로 주둔하고 있었다. 이들이 소유한 고사포는 총 98문, 고사기관포는 10문, 고사기관총이 26정이었다. 고사포 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공 부대(照空部隊)도 있었는데 경성에 3개 중대 21개, 부산에 3개 중대 12개의 조공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조공등은 고사포부대에 필요한 조명이다.

부평 일대에 주둔했던 일본군 방공부대는 고사포 제151연대 1개 중대로 1945년 2월에 편성되었다. 자료에는 고사포 제151연대 1개 중대가 인천 지역에 주둔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일부 혹은 전체가 부평 일대에 있었다. 이 부대가 소유한 고사포 역시 지도에 기재된 것과 같은 6문이었다.

현재 인천가족공원 정상에 가면 고사포가 설치되었던 콘크리트 진지 2곳을 볼 수 있다. 최근 부평문화원은 해방 이후 부평 인근 산 정상에서 촬영한 고사포 사진도 발견했다.

❖ 한반도의 고사포부대 배치도 (출처 : 방위성 방위연구소, 조건 제공)

❖ 인천가족공원 정상의 고사포진지1

❖ 인천가족공원 정상의 고사포진지2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조병창 내부 건물을 이전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병원 이전이다. 병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본부사령부가 사용하고 병원을 이전했다. 병원 이전은 뒤에서 상세히 소개할 자료(「1945년 인천조병창 상황보고」)에 잘 나타나 있다.

> 의무과 전원이 무기 증산의 추진력이 된다는 것을 기해 야간 진료를 개시함과 함께 제조소 내 진료소 및 주택 영단 지구 진료소를 개설해 종업원은 물론 가족의 보건 지도를 적극 과감하게 실시함으로써 안전감을 지키고 생산에 종사토록 노력하고 있다. 공습 하의 치료를 고려해 구내로부터 약 11킬로미터의 사립 여학교로 이전할 것을 계획 중이다.

일본의 패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최후 결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병창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에 대한 빠른 치료와 회복이 중요했다. 인천육군조병창에서는 이를 위해 조병창 병원의 운영 방침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첫째는 야간 진료의 개시다. 야간 진료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야간 노동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인들을 동원한 무기 생산이나 조병창 지하화 공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행되었다는 의미이다. 조병창 병원에서는 이들 중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야간 진료를 개시했다고 한다.

둘째는 제조소 및 영단주택 지구 진료소 개설이다. 조병창과 인근 지역이 워낙 방대한 탓에 부상자 등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히 진료 및 치료가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조소와 영단주택 지구에 진료소를 개설해 조병창의 노무자들을 치료하겠다는 심산이었다. 부상자의 시급한 치료를 위한 행위이기는 했지만 이 역시 결국 침략전쟁을 무리 없이 수행하려는 방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공습에 대비해 병원 시설을 조병창 밖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공습 하의 치료를 고려해 구내로부터 약 11킬로미터의 사립 여학교로 이전할 것을 계획 중"이라고 했다. 미군이 공습을 시작하면 인천육군조병창이 공습 대상이 될 것은 자명했다. 문제는 병원이 공습 피해를 입을 경우 조병창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이전하려고 했던 '약 11킬로미터의 사립 여학교'는 바로 소화고등여학교였다. 조병창 병원은 3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소화여학교'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소화여학교는 1940년에 부평에서 개교했는데, 해방 직후 교명을 박문여자고등학교로 변경했다. 1956년 교사를 송림동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부평을 떠났다. 그 자리는 현재 가톨릭 성모병원이 자리하고 있는데 조병창 병원으로 사용했던 건물 일부 흔적이 남아 있다.

❖ 조병창 기능자 양성소 기숙사 건물 앞의 양성공들. 대부분 14~16세의 어린 모습이다. (이범영 기증, 1944년 5월 촬영, 국립강제동원역사관 소장)

❖ 조병창 병원 서무과 단체 사진(지영례 소장)

❖ 1948년 Norb Faye가 촬영한 병원 건물 모습(https://flic.kr/s/aHsjnAP1Ba)

❖ 위 그림의 오른쪽 건물 지붕의 흔적을 볼 수 있다.

❖ 병원 이전 후 소화고등여학교 모습

당시 조병창 병원에 근무했던 지영례의 구술에 따르면, 중앙 입구로 들어가면 복도 옆으로 진료실과 입원실이 쭉 늘어선 형태의 큰 규모의 병원이었다. 내과·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 등 다양한 전문과를 갖추고 있었다. 1945년 이후 미군이 400병상 규모의 382병원으로 사용하다가 1949년 이후 한국 제1의무부대가 사용했다고 한다. 현재 국내 대학병원의 최대 병상 규모가 600병상 정도라고 하니 당시 조병창 병원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 의사가 그 때 일곱 여덟 명 됐을 거에요. 아마. 병원이 컸거든. 그래가지고, 거기 공장에, 공장이 있으니깐 거기서 일허다 다치믄, 팔 떨어진 놈, 어디 다리 부러진 놈 오지, 기계에 말려 들어가서, 별거 다 와요. 병원에 있으면, (중략)
> 그러니까 팔은 팔대루 따로 오고 사람은 사람대로 따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 그러면 저 그대루 가서 수술실로 가서, 팔 맞히는 사람은 맞히구 그것도 안되는 사람은 또 못하구 (중략) 환자들은 환자대로 들어가는 저, 병원 방공호가 있어요. 그 간호원들이 구루마에 태워갖구 다 거기 들어가.

1928년 산곡정(현재 산곡동)에서 태어난 지영례는 1935년 부평 동국민학교에 입학하고 1940년 4월 소화고등여학교에 입학했는데, 1942년 9월 병원 서무과에 근무했다. '정신대'로 끌려가는 것을 모면하려고 동급생들과 함께 들어갔다. 현재 부평공원에 있는 징용노동자상의 주인공이다.

❖ 왼쪽의 소녀 형상이 지영례를 모델로 제작한 것이다.

당국은 1945년 6월에 인천육군조병창 소속을 변경했다. 조선군관구 육군병기본부 소속에서 조선군관구 직속으로 변경한 것이다.

인천육군조병창에서는 어떠한 무기를 얼마나 많이 생산했을까. 부평에 인천육군조병창을 개창할 당시, 무기 생산 목표는 월 소총 2만 정, 경기관총과 중기관총 각 100정, 총검 2만 개, 군도 1,000개 등이었다. 패전에 임박해서는 매달 소총 4,000정, 총검 2만 개, 소통 탄환 70만 발, 포탄 3만 발, 군도 2만 개, 차량 200량 정도를 생산했다. 당초 목표에 비해 늘어난 품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당시의 무기 생산 종류와 수량은 어느 정도였을까. 1946년 조선군잔무정리반이 작성한 자료(『조선내 전쟁 준비』)를 통해 살펴보자.

이들 무기는 부평의 제1제조소와 평양의 평양병기제조소를 주축으로 각지에 있었던 조병창 예하 공장과 관련 시설물이 생산했다. 그리고 위 자료에는 찾을 수 없는 군수품이 하나 더 있다. 물자 수송용 잠수함인 '3식 수송잠항정'이었다. 이 잠수함은 인천 만석정에 있었던 조선기계제작소(현재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생산했다. 당시 직접 잠수함 생산에 참여했던 김재근은 조선기계제작소가 총 6척을 인천육군조병창에 납품하고, 10척 정도를 시운전하던 중 광복을 맞았다고 구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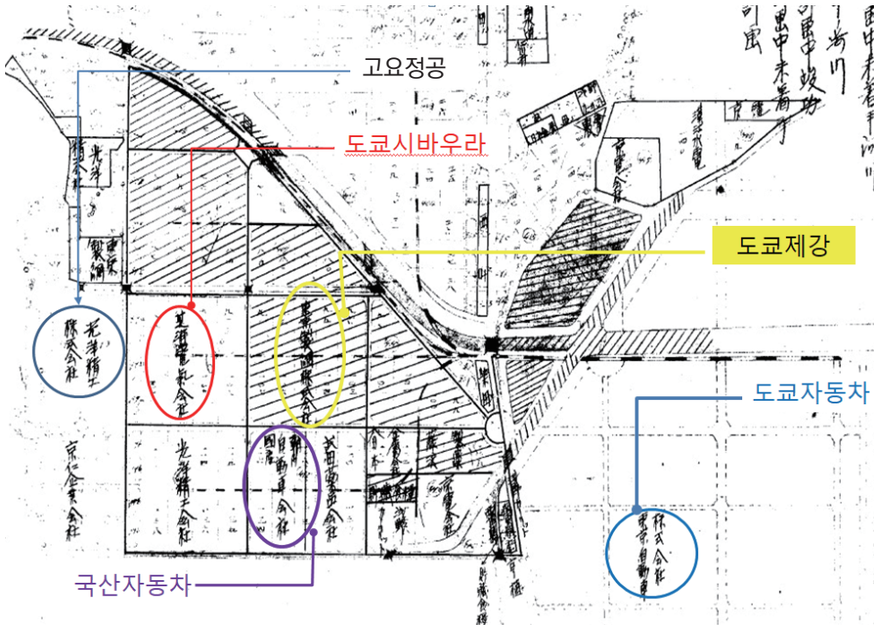
인천육군조병창이 생산한 무기의 종류와 수량
- 소총 4,000정(1개월)
- 총검 20,000진(월)
- 소총 실탄 700,000발(월)
- 대포용 탄환 30,000발(월)
- 군도 2,000진(월)
- 차량 200량(월)
- 피혁마제품 200,000엔(월)
- 소형 배 250척(1944년과 1945년)
- 무전기 200조(1945년)

조선기계제작소 외에 부평에 있던 군수공장에서도 조병창에 부품과 강판을 납품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군수공장은 미쓰비시제강(주)이다. 1942년 히로나카(弘中)상공을 인수한 미쓰비시제강(주) 인천제작소는 강판과 박격포탄을 납품했다.

부평의 주요 군수공장

직종	작업장명	설립 연도
기계기기	경성공작	1939
기계기기	고요(光洋)정공	1942
기계기기	국산자동차공업	1939
기계기기	도쿄(東京)자동차공업	1939
기계기기	도쿄(東京)제강	-
기계기기	디젤자동차공업	1937
기계기기	미쓰비시(三菱)제강	1939

부평의 주요 군수공장		
기계기기	조선베아링공장	-
섬유방적	오사카(大阪)섬유공장	1939
화학	니혼(日本)고주파중공업	1939
요업	부평요업	1939



❖ 조병창에 납품하던 주요 군수회사 위치

2) 조선에서 공출한 놋그릇은 어떻게 되었을까?

일제는 부평의 땅을 빼앗아 조선 민중의 노동력으로 인천육군조병창을 건설했다. 그리고 조선 민중의 손으로 무기를 만들었다. 이같이 일제는 한반도의 땅과 노동력을 수탈했다. 그 뿐 아니라 많은 물자도 수탈했다.

❖ 인천 경정의 동유기 헌납식 기념사진. 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사진이 있다. 산더미처럼 쌓인 놋그릇과 생활도구들이다. 한반도 전역에서 빼앗은 것들이다. 인천 경정(京町) 제1정회가 주최한 동유기 헌납식 기념사진도 있다. 부평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인데, 연도는 알 수 없다. 경정은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과 신포동 일대에 해당하는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유지들이 많이 살던 곳이다. 사진의 옷차림새를 보면, 경정에 살던 일본인들이 군수품 생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생활도구를 모아 헌납하는 듯 하다. 현수막에는 '미국과 영국을 격멸하자', '물리치고 말리라' 등 선전 구호가 있다.

구리와 유기는 군수품 생산에 매우 중요한 금속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속류를 일본인만 헌납했을까.

❝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떠나는 소리에
금붙이 쇠붙이 밥그릇마저 모조리 긁어 갔고요
어랑어랑 어허야
이름 석 자 잃고서 족보만 들고 우누나. ❞

신판 「신고산타령」의 한 대목이다. '금붙이 쇠붙이 밥그릇마저 모조리 긁어 갔다'는 가사가 나온다.

'일제 때 각 가정의 놋그릇, 숟가락은 남아나지 않았다. 일제는 금속이란 금속은 모두 빼앗아서 군수품 만드는데 사용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당국이 조선 민중이 가진 금속을 모두 동원했다는 것은 초등학교 졸업생도 아는 사실이다. 일제가 강제로 빼앗아 간 놋그릇이나 숟가락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다. 조선인이 오랫동안 대를 이어 사용했던 유산이며, 한 끼 한 끼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한 생명의 도구였다. 그런데 일제는 1941년 8월 「금속류 회수령」이라는 법을 만들어 조선의 민중들이 아끼던 생활 도구를 모두 가져갔다. 금속류 회수령은 칙령 제835호이다. 칙령이란 일본 천황이 내리는 법령이다. 일본 정부가 금속류 회수령을 공포한 후 조선총독부도 법령을 제정해 10월 1일부터 한반도의 생활 도구와 금속류를 모두 쓸어갔다. 조선총독부가 가정의 생활 도구를 쓸어간 것은 생활 도구가 주로 철과 구리 등 금속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빼앗아 간 금속류는 어디로 갔을까.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을까. 그렇지 않다. 바로 인천육군조병창에 있던 주물공장으로 가져갔다. 인천육군조병창의 상징처럼 우뚝 솟아있는 두 개의 굴뚝이 있는 곳이다. 인천육군조병창은 금속류를 주물공장에서 녹인 후 각종 무기 만드는 데 사용했다.

주물공장이 녹인 금속은 조선 민중의 생활 도구만이 아니었다. 일본군은 무기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실어 왔다. 중국 점령지의 역사 종교 유물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 삼국지의 장비가 휘둘렀을 법한 창이나 칼도 조병창의 주물공장을 피할 수 없었다.

❖ 보물 제393호 전등사 철종

❖ 인천시립박물관 소장 명나라 도교 종

그 가운데 일부는 주물공장의 용광로에 들어가기 직전에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 그중 하나가 현재 전등사에 걸려 있는 범종(梵鐘)이다. 전등사 범종의 공식 명칭은 '전등사 철종'으로 보물 제393호로 지정됐을 만큼 가치를 인정받은 유물이다. 이 범종이 처음 발견된 곳은 바로 부평의 조병창이었다. 전등사 범종이 보물로 지정된 까닭은 이 종이 전통적인 한국의 종이 아닌 중국 북송시대 범종의 주조 양식을 잘 보여 주기 때문이었다. 범종이 원래 있던 곳은 중국 허난성(河南省) 숭명사였으나 중일전쟁의 와중에 일본군이 수탈해 부평까지 끌고 왔다. 불행 중 다행으로 범종이 용광로에 들어가기 직전 전쟁이 끝났고, 현재 전등사에 있다.

전등사 범종과 같은 운명의 유물은 다른 곳에도 있다. 현재 육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육군박물관 옥외 전시 유물 중에는 중국 청대의 화포가 전시되어 있는데 화포가 발견된 장소도 역시 부평이었다. 범종과 같은 방식으로 일본군이 중국의 점령 지역에서 노획해 부평의 조병창으로 실어 날랐다. 화포 역시 용광로에서 녹아버리는 불운은 피했으나 본래의 자리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영문도 모른 채 자리하고 있다.

인천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명나라 도교 종(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7호)도 간신히 살아남은 중국 역사 유물이다. 철제로 만든 이 종은 명나라 숭정(崇禎) 11년(1638) 10월 18일 허난성(河南省) 상추현(商丘縣) 지역에서 태산행궁(泰山行宮)이라는 도교 사원에 걸 목적으로 만들었다. '도종(道鐘)'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도 도교 사원에서 사용한 종이었기 때문이다. 이 종은 1945년 8월 조병창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1946년 인천시립박물관이 미군정청의 협조를 받아 인수한 후 문화재로 보존 관리하면서 야외 전시장에 전시하고 있다. 이같이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에 희생된 유물은 적지 않았다.

❖ 주물공장 모습(2019년 8월 촬영)

3 언더그라운드 - 지하 무기공장

1) 다급한 일본, 미 전투기가 장악한 일본의 하늘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에 이어 1941년 12월 동남아시아와 하와이 진주만에 대한 침략을 감행했다. 이로써 일본군의 전선은 지구의 거의 3분 1을 차지할 정도로 비대해졌다. 전선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승리와는 거리가 멀어져 버렸다. 일본군은 갑자기 늘어난 전선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했다.

❖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로 갑자기 늘어난 일본군 전선.
출처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강제동원명부해제집』1, 2009, 표지

그렇다면 왜 일본은 태평양에서 전쟁을 일으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까. 어리석게도 중일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중일전쟁은 일본의 국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무모한 전쟁이었다. 중일전쟁 발발 당시 육군 참모본부 작전부장이었던 이시와라 간지(石原莞爾)는 확전을 반대했다. 이

시와라 간지는 1931년 만주 침략을 도발한 주인공이었다. 그런데 왜 반대했을까. 그는 중일 전쟁 발발로 전선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면 불리하다고 생각했다. 만주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소련이 쳐들어오는 날에는 만주마저 잃을 수 있었고, 장기전을 치르기에는 인구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나 일본 수뇌부는 중국군의 완패를 확신하며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중국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중국 침략의 길이 자신이 출세하는 길이자 일본 민중이 원하는 길이라 착각했다.

일본 민중들은 군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답했다. 그러나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다. 중국 전선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일본의 국가체제를 바꾸어 놓았고, 일본은 전시(戰時)를 맞았다.

당시 일본은 장기전을 치를 만한 국력이 아니었다. 인구도 적었고 물자나 자금, 석유도 부족했다. 이전에 일본이 승리를 경험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모두 1년 이내의 전쟁이었다. 기습을 통한 기선 제압 전략이 먹힌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독일령을 공략할 때도 단기전이었다. 그러나 중일전쟁은 달랐다. 개전 초기 육군의 호언장담도 무색하게 전쟁의 한복판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일본 군부나 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난징(南京)을 점령하면 중국 정부가 항복해서 전쟁은 끝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전황은 일본의 예상을 비껴갔다. 일본군이 1938년 10월, 한커우(漢口)·우창(武昌)·칸요(漢陽) 등 우한(武漢) 3진을 점령하고, 1939년 2월 남부 하이난도(海南島)를 차지한 후 전선은 정지 상태가 되었다. 이유는 첫째 일본 국력이 열세였고, 둘째 중국의 대응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1936년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공합작을 한 후 대일항전에 나섰으므로 전력(戰力)이 강해졌다. 여러 나라의 지원도 이어졌다. 영국은 1938년에 완공한 버마루트를 통해 중국 장제스(蔣介石) 정부군에 막대한 군수물자와 무기를 지원했다. 중소불가침조약(1937. 8.)을 맺은 소련은 중국에 전투기 924대, 자동차 1,516대, 대포 1,140문, 기관총 9,720정과 지원병 형태의 소련인 조종사를 보내 지원했다. 미국도 1938년 12월 2,5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며 지원했다.

이에 비해 일본군은 갑자기 넓어진 전선을 감당하기 힘들었고 중국 내륙까지 물자와 무기를 공급하기도 버거웠다. 식량을 현지에서 해결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민간인의 집을 부수고 식량을 약탈했으나 중국 전선에서 일본 병사 230만 명 가운데 절반은 굶어 죽었다.

중국 전선이 고착되면서 거리에 나가 환호하던 민중은 돌아섰다. 민중들은 일본의 명예·영광과 함께 평안하고 안락한 일상을 기대했다. 그러나 길어지는 전쟁은 민중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희생을 요구했다. 한커우 점령 후 전쟁이 끝날 것이라 기대하던 민중들은 늘어난 통제와 일상을 조이는 불편함에 실망했다. 민중의 삶은 미국과 전쟁을 일으킨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 일상의 불편함이 늘어나자 전쟁에 대한 염증은 높아졌다. 정책을 지지하고 고통을 감수하는 분위기는 예전만 하지 않았다.

> “매일 배가 고파서 배의 벌레가 쪼르륵 쪼르륵 말해서 기분이 나빠 잘 수가 없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국민은 기아 때문에 모두 병이 들어버리고 정신적으로도 가망이 없게 됩니다. 쓸쓸히 사는 것이 싫어집니다.(도쿄 남자)”

1944년 1월 일본 내무성 경보국 외사과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다. 당시 외사과는 국민들의 통신(편지, 전보 등)을 검열하고 있었다. 당국은 일본 민중이 경험하는 배고픔을 해결해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941년 12월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일본의 전쟁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다. 미국과 전쟁은 무모한 전쟁이었다. 개전 당시 미국의 국민 총생산은 일본의 12배 정도였다. 중화학공업과 군수산업의 기초가 되는 철강은 일본의 12배, 자동차 보유수는 160배, 석유는 776배나 되었다. 누가 보아도 열세였다. 그런데도 일본 군부는 오히려 이 점을 이용해 국민을 결속시키고자 위기를 강조하며 민중을 선동했다.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후 일본군은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자바, 버마 등을 성공적으로 점령했다. 그러나 1942년 6월 5일 미드웨이 해전을 기점으로 일본군의 불패 신화는 무너졌고, 1944년 6월 마리아나 해전으로 전쟁은 결판이 났다. 마리아나 제도를 미군이 차지하면서 일본이 만든 비행장은 미군 손에 넘어갔고, 미군은 이 비행장을 통해 일본 본토 공습을 시작했다. ‘제국의 하늘’이라는 일본 본토 하늘이 뚫리면서 매일 퍼붓는 미군 비행기 B-29의 소이탄 공격으로 일본 전역은 불바다가 되었다.

공습. 민간인이 거주하는 후방을 대상으로 한 공습은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민간인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습은 일본의 중국 침략 과정에

서 나타났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인 1915년 9월 5일 일본 해군은 중국 칭다오(青島) 시내를 폭격했다. 그리고 만주 침략 직후인 1931년 10월 8일, 관동군은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서부에 있는 진저우(錦州)를 공습했다. 제1차 세계대전 종결 후 첫 도시 폭격으로 많은 민간인이 살상당했으나 일본 천황 쇼와(昭和)는 '당시 정황상 당연한 일'이라 했다. 이후에도 대만에서 발진한 일본 폭격기는 계속 중국 본토의 민간인을 공격했다.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8월 15일 해군항공대를 동원해 난징과 난창(南昌)을 공습했다. 1938년 6월, 3일간 실시한 광둥(廣東) 공습으로 1만 명 이상의 중국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미국이 대일본 금수 조치를 단행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 이같이 후방의 민간인 지역 공습은 일본이 먼저 시작했으나 일본도 공습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미국과 전쟁을 시작한 후 몇 달 지나지 않은 1942년 4월 7일, 도쿄·나고야·고베 등 주요 도시에 미군 B-25 폭격대가 나타나 폭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1944년 여름까지 일본은 공습의 안전지대였다. 일본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점령했으므로 급유 문제로 미군 폭격기가 출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미군이 태평양 지역을 회복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미군은 태평양 지역을 회복하기 직전인 1944년 6월 15일, 기타큐슈(北九州) 지역의 군사시설 및 군수공장을 폭격했다. 미군이 사이판에 상륙한 다음날이었다. 이 폭격을 계기로 일본 본토 공습의 막을 올렸다. 티니안을 점령한 미군은 8월 10일부터 거의 매일 일본 본토를 폭격하기 시작했다.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에서 하루에 10만 명씩 죽어 나갔다.

❖ 소이탄 모습(도쿄대공습전재자료센터 소장 사진. 2010. 2. 27. 수요역사연구회)

❖ 소이탄의 구조

공습은 '하늘이 뚫린 듯한' 폭격이었고, 폭탄이 떨어지는 모습은 융단이 내려오는 것 같았다. 강력한 화력을 가진 소이탄 위력은 가공할 정도여서 도로와 철로까지 녹여 버렸다. 공습을 맞아 불타는 집을 탈출해도 도로는 불에 이글거리고 있고, 열을 식히려 강물에 뛰어들면, 이미 뜨거워진 물 온도 때문에 도로 튀어나와야 했다. 미군 비행기는 저공으로 날았으나 이를 저지할 일본의 대공포는 작동하지 않았다.

공습 지역은 민간인 거주지역이자 군수공장이 밀집한 지역이기도 했다. 미군의 폭격기는 민간인 거주지역에 인접한 군수공장과 군이 운영하던 공창(工廠)과 수송로를 공격하기 위해 1945년 일본 패전 당일까지 일본 상공을 누볐다. 비행기와 무기를 생산하던 일본 전국의 군수공장과 조병창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렇다면 포기하고 무기 생산을 중단할 것인가. 그렇지 않았다. '지하로 가자!'

소이탄
폭탄, 총포탄, 로켓탄, 수류탄 등 탄환류 속에 소이제(燒夷劑)를 넣었다 해서 붙인 이름이다. 사용하는 소이제에 따라 황린(黃燐) 소이탄, 터마이트(termite) 소이탄, 유지(油脂) 소이탄으로 분류한다. 일본에 투하한 것은 대부분 기름을 넣은 유지 소이탄이다. 소이탄의 크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직경 30㎝ 정도, 길이 50㎝ 정도의 원통형 함석이 일반적이다. 중일전쟁 후 일본도 생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필리핀 작전 시 미군이 처음 사용했고, 이후 일본 본토 공습과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 투하했다. 150~400갤런짜리 폭탄을 투하하면 2000℃의 고열을 내므로 소이탄 한 발로 2500㎡ 면적을 태울 수 있을 정도의 화력이다.

2) 지하에서라도 무기를 만들어라!

일본 정부는 1943년 8월 27일에 「공장사업장방공긴급대책요강」을 각의결정했다. 이어서 일본본토공습이 본격화한 1944년 12월 22일 각의결정 「공가(空家)에 관한 방공강화대책요강」을 공포했고, 1945년 2월 23일에 「공장긴급소개요강」을 결정했다. 1944년까지 내린 각의결정의 골자는 군수공장 주변의 주택을 철거해 주택에 붙은 불이 공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5년의 방침은 야산에 지하공장을 마련하거나 공습의 위험이 적다고 예상되는 조선으로 군수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이었다.

당국의 정책으로 항공기 등 주요 무기공장을 산속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도쿄 등 관동지역과 중부지역도 있었지만 관서가 많았다. 지금도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하공장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곳은 나가노현 마쓰모토(松本)시 외곽의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공장, 교토부 다카쓰키(高槻)에 가와사키(川崎)항공기공장으로 조성했던 다치소(高槻의 다, 지하의 치, 창고의 소를 조합한 당시 암호), 도쿄 아사카와(淺川)에 건설한 나카지마(中島)비행기 지하공장 등이다.

❖ 마쓰모토 미쓰비시 지하공장의 내부(2017년 3월 촬영)

❖ 입구에만 철근 공사를 한 마쓰모토 미쓰비시 지하공장

❖ 미쓰비시 지하공장 내부 구조물

❖ 기어들어가야 하는 다치소 입구

❖ 기나긴 다치소 터널(2015년 8월 촬영)

❖ 최대 규모로 알려진 도쿄 아사카와 지하공장 내부

이같이 일본은 언더그라운드 세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언더그라운드는 일본 본토만이 아니었다. 조선에서도 땅속으로 파 들어가기 시작했다.

1945년 들어 일제는 한반도의 지하에 수많은 군사시설을 구축하면서 마치 한반도 전체를 지하 벙커처럼 바꾸었다. 지금도 제주도와 경남, 전남 해안 지역에는 곳곳에 숭숭 뚫려 있는 동굴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미군의 대규모 상륙에 대비하기 위한 해안 방어, 그리고 수송용 주정 및 자살공격용 잠수함을 은닉하기 위해 파 놓은 지하 군사시설들이다. 당시 일제는 본토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방어를 위한 지하 진지를 대규모로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1945년 2월 본토결전 작전 개시에 따라 군 조직 개편과 함께 한반도 전역은 커다란 방어 벙커처럼 변모했다.

1945년 초 미군이 필리핀에 상륙하면서 사실상 전황은 기울었다. 일본 전역의 주요 도시들이 B-29를 필두로 한 미군 폭격기의 사정거리 안에 있었다. 일본 당국은 지하 군사시설과는 별도로 수많은 방공호를 만들고 시도 때도 없이 방공훈련을 했지만 미군 항공기의 공습을 효과적으로 막을 방도는 없었다. 그럼에도 항복 선언은 없었다. 정부와 군부의 상식적 인사들은 자연스레 패전 이후를 고려하고 있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천황과 일족들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이 패전으로 끝날 경우 자신들에게 닥칠 불행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불행의 그림자를 옅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이 세운 작전은 최후의 1인까지 국체(國體)를 지켜야만 한다는 본토결전(本土決戰)이었다. 국체란 천황제도를 의미한다. 즉 천황이라는 존재를 위해 많은 국민들을 희생시키려 한 것이다.

일제는 본토결전을 위해 일곱 개로 구성된 작전구역 안에 한반도를 포함했다. 애꿎은 식

민지민을 침략전쟁의 곳곳에 동원해서 갖은 피해를 주고 밥 먹는 숟가락과 밥그릇까지 공출해서 일상을 붕괴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들의 왕을 지키기 위해 볼모로 잡겠다는 심산이었다. 왜 일제는 한반도를 볼모로 잡았을까.

메이지 초기부터 일본은 한반도를 자신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일종의 완충지역으로 보았다. 전 근대시기에 일본은 바다가 일본 열도를 공고히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1854년 미국 페리가 이끌고 온 '흑선(黑船)'의 등장과 함께 바다가 더 이상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자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륙으로부터 위협적으로 뻗어 있는 한반도를 세력권 안에 넣어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일본은 부국강병을 바탕으로 한반도 침략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결국 1910년 한반도는 식민지로 전락했다. 이후 35년간 일제는 한반도를 발판 삼아 대륙 침략이라는 욕망의 방망이를 거리낌 없이 휘둘러댈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구도는 1945년에 근본적으로 흔들렸다.

❖ 본토결전에 따른 일본군의 작전구역(1945. 2. 12.)
(출처 : 부평사편찬위원회, 『제4권 인천육군조병창과 애스컴 시티』, 2021, 122쪽.)

1944년 말 레이테 해전의 패배, 1945년 초 필리핀 방어전 실패는 치명적이었다. 이제 미군이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본토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결국 대본영은 1945년 1월 20일 이른바 본토결전을 계획했다. 이 계획은 군사시설을 지하로 옮기는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점이었다. 조선에 적용한 작전명은 결7호였다.

한반도가 갑작스레 본토가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전화(戰禍)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한반도와 조선 민중들에게 아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천황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 열도만으로는 부족했다. 한반도까지 전선을 확장해 미군의 공격 루트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다. 식민지민의 피해는 안중에 없었다.

둘째, 한반도를 최후 방어선에 포함시켜야만 일본 본토의 주권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패전을 앞둔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오랫동안 온전히 유지해 온 일본 본토가 연합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다. 패전의 책임을 지고 영토가 분할 점령되는 화가 닥쳤을 때, 그 희생양으로 제공할 땅덩어리가 필요했다. 식민지 조선, 즉 한반도는 희생양으로 적합해 보였다. 일제의 본토결전 방침에 한반도가 포함된 이유였다.

본토결전은 조선을 포함한 일본 본토를 최후 결전 지역으로 상정하고 그에 대응한 부대 동원과 배치, 그리고 관련 군사시설물을 건축하는 일이었다. 당시 일본군 당국은 미군이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 해당 지역으로 규슈(九州) 남서부 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한반도 남서부 해안을 꼽았다. 총력전과 지구전을 통한 최후 결전을 위해 미군의 공격이 상정되는 지역에 대규모 지하 군사시설물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대한 패전을 늦추고 그사이 연합군과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에서 강화조약을 맺는다는 지상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한반도에 군사시설의 지하화를 추진했다.

당국은 제주도와 남서 해안에 대규모 지하 진지와 은닉 창고, 상륙 방어 시설을 구축했다. 대전과 경북, 충북 영동 일대에는 최후 결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령부와 제반 시설의 은신처를 지하에 마련했다. 그리고 부평 일대에도 인천육군조병창이 들어갈 대규모 지하시설 공사를 개시했다.

1941년 개창 당시 인천육군조병창의 대부분 시설은 지상에 세웠다. 그러나 1945년 초부터 당국은 부평의 땅속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닥칠 미군의 공습을 이겨내면서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과 생산한 무기를 은닉할 필요가 있었다. 공장과 무기의 은닉을 위해 선택한 최종 수단은 이들을 지하로 옮기는 것이었다.

인천육군조병창은 미군의 상륙 예정지와는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일본은 전쟁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무기 생산 계획에 따라 지하화를 결정했다. 일단 미군이 상륙하게 되면 제일 먼저 수백 대의 미군 항공기가 인천의 군수기지를 목표로 할 것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그간 '언더그라운드-인천육군조병창'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6년 부평문화원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어르신문화콘텐츠 사업'을 신청해 지역 주민 10여 명과 함께 발굴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부평문화원의 김규혁 팀장이 새우젓 저장소로 사용하던 동굴을 주목하고 문화원 사업으로 확장한 것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부평문화원이 파악한 지하시설은 6개소 정도였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실지조사를 한 결과 총 24개소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업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은 현장조사는 물론 인근 지역민을 찾아 관련 내용을 채록하고 사진과 영상을 남겼다. 문화원은 지역 주민들이 발굴한 성과를 자료집으로 발간했고, 연구와 조사 작업을 비롯해서 역사탐방프로그램과 강좌 운영으로 이어갔다.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도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노래극과 그림자인형극 등을 만들고 역사탐방프로그램의 강사 등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같이 부평문화원의 '어르신문화콘텐츠 사업'은 지역의 역사 현장을 지역사회가 발굴하고 기억하는 활동으로 이어가는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사례로 정착시켰다. 2020년부터는 부평문화원이 개발한 VR로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총 24개의 지하시설에 대해 2016년 당시는 부평 새우젓 토굴로 알고 있었기에 명칭을 부평토굴로 불렀으며 사업 결과자료집도 『토굴에서 부평을 찾다』로 표기했다. 그 후 생존자 구술과 역사 자료를 통해 단순한 토굴이 아니라 일제가 군수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면서 명칭을 '부평지하호(富平地下壕, Bupyeong Underground Facility)'로 변경했다.

❖ 부평문화원이 파악한 함봉산 지하시설물 현황 (출처 : 부평사편찬위원회, 『제4권 인천육군조병창과 애스컴 시티』, 2021, 161쪽.)

❖ 그림자인형극 '아픈 역사의 현장 부평토굴'(2017)

❖ 노래 '부평토굴의 노래'(2017)

❖ 시니어극단 은빛여울 '세 남매의 봄' (201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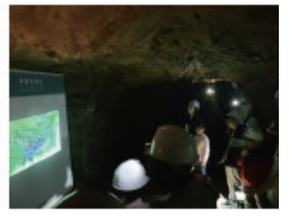
❖ 주니어극단 푸른하늘 '독립이의 그 날의 기억, 부평지하호의 비밀'(2019)

❖ 지역 주민의 지하호 기억 활동
(출처 : 부평사편찬위원회, 『제4권 인천육군조병창과 애스컴 시티』, 2021, 160쪽.

그림자인형극 부평토굴의 노래 세 남매의 봄 독립이의 그 날의 기억

❖ 일반시민 필드워크(2017)

❖ 고등학교 연계 필드워크(2018)



❖ 일반시민 필드워크(2018)

❖ 시민 대상의 필드워크
(출처 : 부평사편찬위원회, 『제4권 인천육군조병창과 애스컴 시티』, 2021, 159쪽)

❖ 부평지하호 VR 온라인투어(2020)

❖ 삼산고등학교 특강 (2018)

❖ 작전고등학교 특강 (2018)

❖ 부개고등학교 특강 (2019)

❖ 인천고등학교 특강 (2019)

❖ VR과 특강으로 만나는 24개 지하호
(출처 : 부평사편찬위원회, 『제4권 인천육군조병창과 애스컴 시티』, 2021, 159쪽.)

지하호VR투어

2016년 부평문화원이 지하시설 24개소를 발굴했으나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과 주장이 있었다. 군의 방공호였을 것이라거나 무기를 감춰두는 곳이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다가 『부평사』 발간 작업을 통해서 지하공장을 만들던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평문화원은 2019년부터 시작해 2021년에 출간한 부평사편찬위원회의 『제4권 인천육군조병창과 애스컴 시티』를 통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새로 발굴한 자료는 「1945년 3월 예하부대장 회동시 상황보고, 인천육군조병창」이다. 이 자료는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소장 자료 가운데 『예하부대장 회동시 병기 생산 상황보고』 라는 문서철에 포함되어 있다. '극비' 서류였다. 패전을 앞두고 한반도 주둔 일본군 측이 계획·추진했던 육군조병창의 지하화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 ❝ 조선 내의 여러 생산시설의 분석 및 방호에 관해서는 주로 창고에 있는 여러 재료를 분산해 격납토록 하고 일단 실시를 완료했는데 다시금 그를 강화하기 위해 당 창(인천육군조병창-필자) 및 주요 민간 공장의 생산시설 중 중요한 것을 분산하는 데 또한 힘써 그를 지하시설로 하는 것으로 계획 준비 중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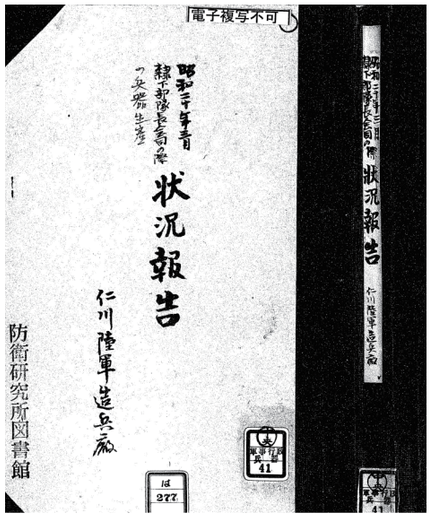
「1945년 3월 예하부대장 회동시 상황보고, 인천육군조병창」의 제10항 분산 및 방호의 일부 내용이다. 이미 한반도 내 전시 상황을 고려해 창고의 여러 물자들을 분산해서 보관토록 했는데, 다시 이를 강화해 조병창 및 주변 공장의 생산시설을 지하에 구축하도록 계획 중이라는 대목이다. 지하에 중요 생산시설을 은닉해서 전쟁의 피해가 직접 부평에 미치는 그날까지 전쟁 무기 생산을 지속하겠다는 의도였다. 그 계획을 1945년 3월 인천육군조병창의 공식 보고 문건에서 확인한 것이다.

조병창의 보고 내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단순히 지하시설을 계획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실시 요강을 가지고 이미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 본토에 있는 생산시설을 부평을 비롯한 인천육군조병창 관할지역으로 옮기는 일을 매우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1945년 상황보고」의 부록에는 '이설(移設) 분산 및 방호 등의 진척 상황'과 '이설 분산 방호 실시 요강'이라는 문건이 있는데, 여기에 자급자전 태세 확립을 위해 도쿄 제1조병창의 '실포(實包)' 생산 설비를 부평과 평양 등으로 옮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포는 화약이 들어 있는 탄환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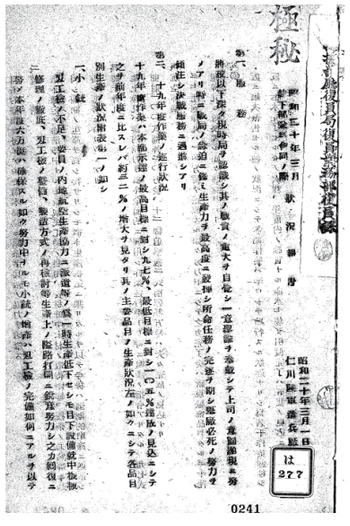
당시 일본 육군은 조선, 그리고 연결된 만주에서 최후까지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월 150만 발의 실탄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부평과 평양에 있는 제조소의 설비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결국 도쿄 제1조병창에 있는 실탄 생산 설비를 이동하는 방안을 생각해냈다. 이렇게 이동한 생산 설비의 일부를 지하에 설치할 계획이었다. 조병창 측은 이설 및 분산 계획을 월별로 작성했다.

도쿄 제1조병창의 실탄 생산 설비를 한반도에 들인다는 것은 일본 본토의 전쟁 물자 생산을 떠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주둔 일본군이 사용할 실탄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지만 생산과 생산을 위한 시설 건축, 그리고 지하공장 구축이 더 많은 조선 민중과 자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은 자명했다. 아울러 그만큼 미군의 공격에 노출되어 피해

를 입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무기공장을 가진 당시 인천, 그리고 한반도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



❖ 공문 표지



❖ 보고문

『예하부대장 회동시 병기 생산 상황보고』 표지(왼쪽), 「1945년 3월 예하부대장 회동시 상황보고, 인천육군조병창」(오른쪽)
(출처 :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자료(C14010849000))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에서는 부평의 지하시설과 관련한 지도도 찾을 수 있다. 방위성 육군일반사료 중 「대동아전쟁 제17방면군 축성시설배치도」라는 제목의 지도이다.

지도의 크기는 가로 5m, 세로 2m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이 지도에는 일본군의 패전 직전 한반도 내에 주둔했던 제17방면군이 건설한 군사시설 현황이 표시되어 있다. 경성을 비롯해 인천·대전·대구·목포·부산·의주 등의 지역에 '야전진지(野戰陣地)'라고 군사시설을 표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비행장과 각 부대 본부의 위치 및 편제 등도 있다. 그 가운데에는 붉은색으로 세모를 그린 후 옆에 '병기격납동굴'이라고 써넣은 부분이 있다.

「일본 방위성 소장 부평지하시설 지도」는 방위연구소 사료열람실에서 열람만 가능하고 촬영 및 수집이 불가능하다. 아래 지도는 열람자(조건)가 지도에 표시된 내용을 메모한 뒤 나중에 해당 지역 지도에 옮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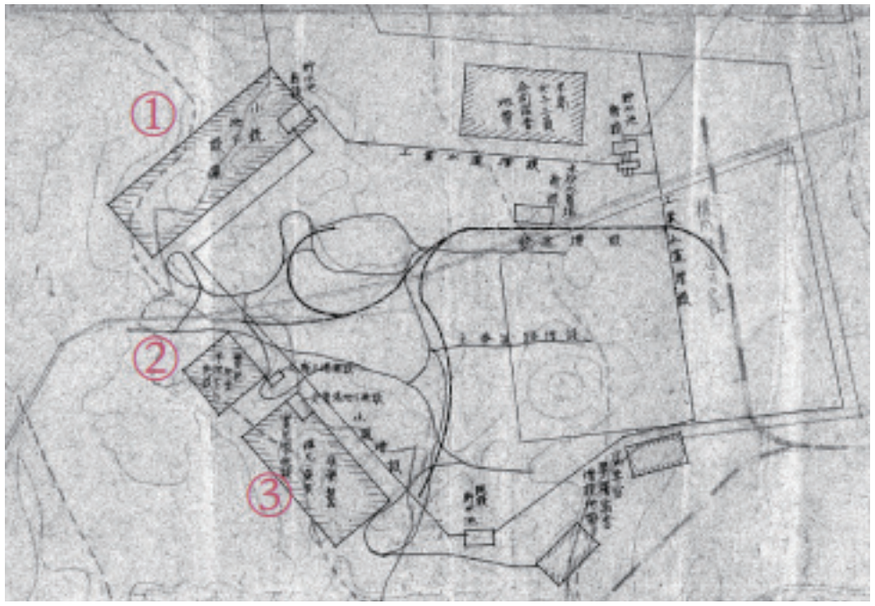
❖ 일본 방위성 소장 부평지하시설 지도(원본 지도에 표기된 내용을 필사한 후 현재 지도에 옮긴 것).
: 지도 속 김포와 여의도의 '#' 표시는 비행장. 부평 왼편으로는 야전진지를 구축했다고 표기.
(출처 : 부평사편찬위원회, 『제4권 인천육군조병창과 애스컴 시티』, 2021, 136쪽.)

「1945년 3월 예하부대장 회동시 상황보고, 인천육군조병창」에 따르면, 첫째 일본 군부는 4월부터 5월까지 도쿄의 육군제1조병창을 인천(부평)으로 옮기고, 둘째 부평의 제1제조소, 평양제조소, 그리고 부대설비 등도 지하공장을 건설해 옮긴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지하에 진료시설도 만들고자 했다. 인천육군조병창의 지하화를 위해 동원할 인원도 명시했다. 이 계획에 따라 한반도의 민중을 동원해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첫 번째 계획은 실행 불가능하게 되었다. 1945년 4월 미군 공습으로 육군제1조병창이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당국은 도쿄의 육군제1조병창을 인천(부평)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변경해 8월~9월까지 일본 본토의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으로 이 마저도 계획으로 그쳤다.

두 번째 계획에 따라 인천육군조병창의 지하시설이 들어가기로 한 지역은 현재 함봉산과 선포산이다. 도면(실포·소총 이설 분산방호 전개도(1945.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면을 보면 조병창 당국은 함봉산 일대에 '반지하 설비' 또는 '지하 설비'라는 표기가 있다. 크게 실포 지금(地今) 반지하시설, 전약(塡藥) 제품, 탄환 실포 지하시설 등 두 구역을 기재하고, 부근에 '가스공장 신설, 수전장 지하설비'라는 표기도 있다. 장고개 북쪽 지역, 즉 지금의 보급단 내에는 '소총지하설비' 구역과 '반도여자공원합동숙사'도 표시되어 있다. 그 밖에 도로나 수도의 증설 노선을, 희망촌 일대(은광 지하)에는 '회계 분산 창고 지대'라는 표기도 볼 수 있다.



❖ 실포·소총 이설 분산방호 전개도(1945. 3) 중 일부. 붉은 번호는 부평문화원 김규혁 추가
(출처 :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자료(C14010849300))

이를 통해 함봉산 일대에 당국은 소총 지하설비, 실포 지금(地今) 반지하시설, 실포 지하시설, 가스공장 시설, 반도(조선을 의미)여자공원 합동숙사 등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1945년 3월에 수립한 계획 가운데 당국이 얼마나 구축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함봉산과 제3보급단및 507여단 부지 내에서 알 수 있는 지하시설물 흔적은 총 33개소(함봉산 24개소, 제3보급단 7개소, 507여단 2개소)이다.

❖ 지하시설 중 일부(부평문화원 제공 사진)

❖ 지하시설에서 바라 본 입구(부평문화원 제공 사진)

그런데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에 따르면, 일제 패망 직전 인천육군조병창은 또 한 번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었다. 모리타 요시오는 1964년에 남긴 책『조선종전의 기록』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 남조선이 전장이 될 때에는 군사령부는 대전으로 전진하는데, 그 때 쓰고자 대전 공원 중에 대규모 방공호를 파고 종전시는 회칠만 되어 있었다.
> (제17방면군 참모장 이하라 준지로井原潤次郎). 당시 제17방면군 참모 겸 조선총독부 어용계, 육군 중좌 다케토미(武富重文) 씨 등의 이야기에 따르면, 군은 장기 항전을 기도하며 경상남도의 거창, 경상북도의 상주, 충청남도 대전을 잇는 산간 지구에 작전에 필요한 자재와 제작기계 공장 건설을 계획, 겸이포의 일본제철소 및 인천조병창의 일부를 이곳에 이주할 준비를 개시했다.

모리타 요시오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서 조선사를 전공하고 녹기연맹이라는 일본인 단체에서 활동했다. 광복 후 조선인양동포세화회 등에 관여하며 일본 외무성과 법무성 등에서 근무했다. 말년에는 성신여자사범대학 일본어과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추진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군 관계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책에 남겼다.

모리타가 들었다는 인천조병창의 이전에 관한 계획은 헛소문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다. 당시 조선군잔무경리부가 작성한 자료「조선내 전쟁준비」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 한편 군수품의 집적을 위해 정찰을 실시하고 그 복곽적 중심지대를 남선(南鮮)의 대전과 대구 사이 지구로 선정했다. 그리하여 군비는 대거 팽창했으나 군의 무기 생산과 정비가 이를 따르지 못하자 방면군은 중앙의 보급에 의존하지 않고 자활적으로 무기 정비에 착수해 인천조병창을 급히 정비했다.

군 병력을 늘리면 당연히 무기 생산량도 늘어나야 하므로 인천육군조병창도 함께 대전으로 이전해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같이 일제는 패망에 임박해서도 절대 인천육군조병창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3) 인천육군조병창이 동원한 조선인

1939년 9월 1일, 육군성이 토지 매입을 허가하자 고스다 장관은 곧바로 인천육군조병창 건설에 들어갔다. 1939년 9월 1일은 인천육군조병창 건설공사가 시작된 날이자 조선 민중들의 인천육군조병창 강제동원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1939년 이후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조선인의 강제동원은 그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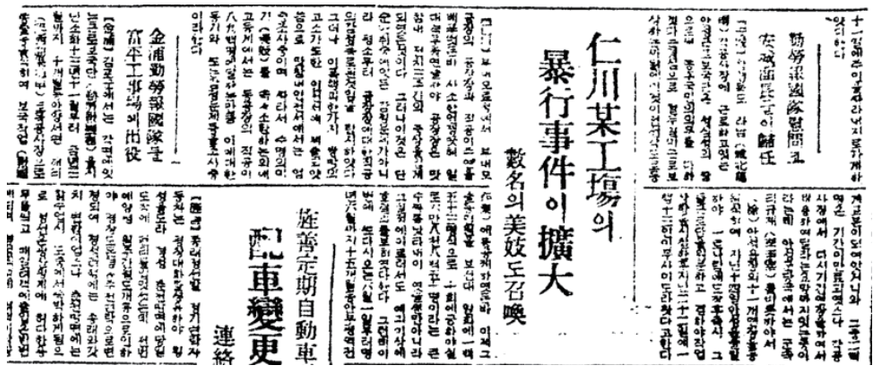
인천육군조병창과 관련해서는 세 종류의 노무동원이 있었다. 첫 번째는 1939~1941년간 조병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동원이다. 두 번째는 조병창에서 무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동원한 인력이다. 세 번째는 일제 말기 조병창의 지하화와 관련해 동원한 인력이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시설공사는 조병창 본부와 제1제조소 소속 각종 공장 공사였다. 하자마구미(間組)·간토구미(關東組)·다다구미(多田組)·다마모구미(玉藻組)·시미즈구미(淸水組) 등 5개 건설회사가 하청을 받아 근로보국대를 동원해 공사에 들어갔다. 생존자 구술기록에 따르면, 건설회사는 공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부평 인근의 김포와 강화, 멀리는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일대에서 동원했다.

> ❝ 현지 사람을 수천 명 동원해 부평공사를 진행했는데 토사가 붕괴하는 등 공사 진척이 더뎠다. ❞

조병창 공사에 참여했던 다마모구미 창립자 히라이 타로(平井太郎)의 기록에서 표현한 공사 당시 상황이다.

동원된 이들의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사 규모가 컸던 만큼 최소 수천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직접 공사에 투입된 인원만 수천 명이고 관련된 여러 설비와 수송 인력까지 더하면 더욱 많은 인원을 추산할 수 있다. 당시 공사장에 동원된 조선인들의 모습을 담은 신문기사를 보자.



仁川某工場의
暴行事件이擴大
數名의美妓도召喚

❖ 매일신보 기사

김포군에서는 각 면에 있는 근로보국단을 지난 소화 13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양서면 해리 토목공사장으로 총출동을 시키어 보국작업에 봉공케하였던 바, 이제 그 출동인원을 보건대 1회에 1백 53명씩으로 10회에 걸쳐 6만 8천 8백 50명이라는 큰 숫자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적에 이르러서도 예상 이상의 좋은 결과를 보였다 한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5개월간 부평역전에 있는 육군관계 토목공사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1회에 백명씩 출동키로 되었다 한다.

(출처 : 『매일신보』 1940년 5월 25일)

氣高萬丈의富平平野

建設工事着着進捗

五百牛車資材運般에大進軍

上仁川驛增改築時

旅客의

林田久吉氏特志

❖ 동아일보 기사
경인간 부평평야의 개발공사는 활발해지고 진전되고 있다. 만평이라는 광대한 평야에는 신생의 맥박이 뛰고 있으며 우렁찬 함마 소리는 천지를 놀래키며 만장의 기염을 토하고 있다.
건축자재 운반에 동원된 오백 달구지의 대오도 정연한 진군은 대장관을 이루고 있다.
(출처 : 『동아일보』 1940년 5월 12일)

기사에 따르면, 부평에는 인천육군조병창 부지 공사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각종 공사들이 줄을 이었다. 인천육군조병창이 들어서는 것을 전후로 부평 지역에 관련 공장들을 다수 건설했기 때문이다. 히로나카상공(1937. 6.), 조선제강소(1937. 6.), 조선기계제작소(1937. 6.), 도쿄자동차공업(1939. 12.), 시바우라 제작소(1940. 1.), 히타치 제작소(1940. 3.) 등이 대표 사례이다.

원래 일본 육군은 조병창에서 자체 생산이 어려울 경우에는 육군관리공장인 민간 군수공장을 지정해 하청 생산을 하도록 했다. 부평의 인천육군조병창도 마찬가지였다. 당국은 부평에 기계와 금속 관련 기업들을 설치하고 이들을 연계한 군수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생산해야 할 무기가 늘어나자 조병창의 생산품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주변의 민간 공장을 군 공장으로 지정해 관련 생산을 하청하는 일이 늘어났다. 주로 민간 공장에 부품 생산을 담당케 하고 조병창은 이들을 받아 조립해서 완성하는 방식이 늘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조병창 주변에는 많은 군수공장들이 밀집했고, 부평에는 공사가 끊이질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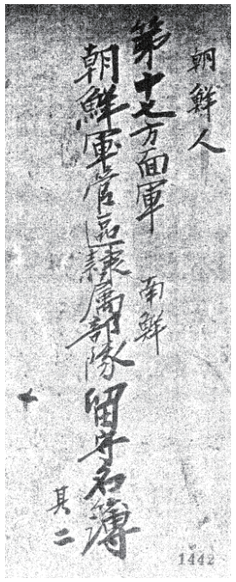
두 번째 동원은 공장에서 직접 무기를 생산하거나 관련 설비 등을 담당한 경우이다. 얼마나 될까. 1945년 3월 당시 일본 당국이 밝힌 인천육군조병창 소속 노무자는 총 1만 1,300명이었다. 이 중 일본인이 12% 정도였고 약 90%(9,000명)가 조선인이었다.

현재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강제동원 관련 명부 가운데 인천육군조병창에 동원된 조선인의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유수명부』와 『임시군인군속계』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담고 있는 자료는 『유수명부』이다. 이 자료에는 총 1만 2,584명이 인천육군조병창 소속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군속 신분이다. 군이 동원한 민간인이라는 의미이다. 중복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약 1만 명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에는 명부에 누락된 피해자가 적지 않았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동원한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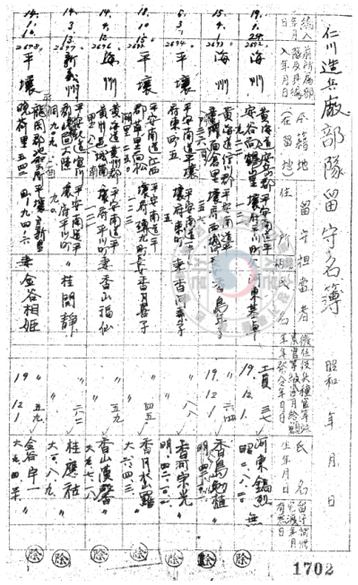
당국은 군속 외에도 어린 학생들을 조병창 생산 공정에 투입했다. 전쟁 초기에는 신문기사를 통해 모집(견습공)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일제 말기에 오면서 학생동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매일신보 기사(1944년 5월 7일, 5월 10일)에서는 제1차로 경성공업·인천중학·인천상업·인천공업·인천고녀·소화고녀 등 6개 학교 360명의 입창식(5월 8일)과 현장 소식을 전하고 있다. 5월 7일자 기사는 당국이 학생들을 인천육군조병창으로 동원하기로 했다는 예정 기사이다.

『유수명부』
일본 육군이 1944년 말에서 1945년 초부터 작성한 자료. 외지에 투입된 부대에 소속된 병력의 현황과 유수택(留守宅:가장이 없는 집) 관계 사항 등을 관리하는 자료.
일본 정부가 1990년 노태우 대통령 방일 후 제공한 강제동원 48만 명부 중 하나.
일본인과 조선인을 함께 수록한 자료인데, 일본 정부가 조선인만을 추출해서 제공.
총 144개 철, 총 2만 6,454매(표지, 중간표지 및 기타 문서 포함)로 구성되었으며, 일본 육군에 군인·군속으로 투입된 약 15만 9,000명의 군인·군속의 기록을 수록.
강제동원으로 볼 수 없는 장교 및 하사관도 포함.

『임시군인군속계』
1945년 3월 1일 오전 0시 현재 일본군에 동원되어 있던 군인·군속에 대해 호주(또는 가족)가 면장 앞으로 보낸 신고서를 묶은 것으로 출신 지역별(道別)로 등재.
일본 정부가 1990년 노태우 대통령 방일 후 제공한 강제동원 48만 명부 중 하나.



❖『유수명부』 해당 부대 표지



❖『유수명부』 인천육군조병창 해당 명부

❖ 매일신보 기사

감투정신으로서 진발하는 제1차 학도동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된 곳은 **에 있는 인천조병창으로 동원생도들은 오는 8일 입창식을 성대히 거행하고 실제 작업은 9일부터 시작하기로 되었다.(일부 내용, 현대문)

(출처 : 『매일신보』 1944년 5월 7일)

5월 10일자 기사는 두 개인데, 1면에는 입창식 행사를, 3면에는 공장 소식을 실었다. 하루 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새벽 5시 반부터 시작하는 일과의 고단함을 느낄 수 있다.

❖ 매일신보 기사

결전 비상배치요강에 바탕한 학도동원은 8일 제30회의 대조봉재일의 가일을 맞이하여 인천육군조병창에 조선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어 이날 경성공업, 인천중학, 인천상업, 인천공업, 인천고녀, 소화고녀의 6남녀 중등학교 생도 3백 60명의 학도가 우리 손으로 숙적 미영 격멸의 결의에 불타며 역사적인 입창식을 거행하였는데, 식상(式上) 조선총독부 학도동원부장 전중(田中) 정무총감, 중정(中井) 조선군 병기부장, 화기(和氣) 조병청장은 다음과 같은 축사의 훈시를 하여 한층 학도의 약기(躍起)를 촉구하였다.(일부 내용, 현대문)

(출처 : 『매일신보』 1944년 5월 10일)

❖ 매일신보 기사

8일 입창식을 마치고 경성공업생 44명은 바로 조병창 숙소인 아오바료(靑葉寮)에 들고, 인천중학, 인천공업, 인천상업생은 통근으로서 모두 9일 아침부터 통년 동원의 공장생활이 시작되었다.

소화고녀, 인천고녀 생도(도합 120명)만은 일감을 받아다가 학교에서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남학도들의 하루 생활은 규율있는 일과 속에 행해지는 것이다.이들의 일과표를 보면 오전 5시 50분 기상 점호, 그리고 체조를 하고 오전 6시 10분 아침을 먹고 7시 반부터 각과로 배치되어 작업을 개시한다. 그리하여 오후 5시 반이면 그날 일을 마치고 오후 6시에 입욕을 하고 저녁을 먹은 후는 아오바료에 들어 훈화를 듣고 공부를 하고 밤 10시 반에 취침, 다음 날을 위하여 밤 휴식에 든다.

(일부 내용, 현대문)

(출처 : 『매일신보』 1944년 5월 10일)

조선의 학생들을 인천육군조병창에 동원한 것은 당국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1944년 3월 7일 일본 정부는 「결전비상조치에 따른 학도동원실시요강」을 발표했다. 당국은 이 조치를 3월 18일 조선에도 적용했다. 일본이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전쟁 상황이 매우 다급해 어린 학생들 손이라도 빌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44년 5월 8일 학생들을 동원한 후에도 인천육군조병창의 학생동원은 계속되었다.

세 번째 동원은 현재 함봉산과 제3보급대 부지에 조성한 지하시설 공사이다.

> 3월 1일 현재 노무자는 약 1만 1,300명으로 이 중 내지인은 약 12%이다. 1945년도 노무 요원은 제2제조소 신설 요원 약 1,500명, 지하공사 등에 따른 임시적 요원 약 3,500명, 합계 약 5,000명을 증원하고, 결원 보충을 위해 약 3,000명, 총계 약 8,000명의 취득을 필요로 한다.
> 지하 공사 등에 필요한 임시 요원은 모두 징용에 의거하고, 그 외는 관 알선 및 학도 동원에 의해 충족하도록 시책 중이다(1945년도 요원 충족 계획 부표 제3). 또한 위 인력 외 내지 조병창 및 남만 조병창으로부터 공출을 의뢰받은 반도 국민학교 수료자 노무요원 약 2,000명의 취득에 관하여 각각 수배 중이다.

『예하부대장 회동시 병기 생산 상황보고』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보고에서 예하부대장 회동시 병기 생산 상황보고는 1945년 3월 현재 전시 노동력 보충을 위해 일본과 남만, 그리고 군 요원으로 동원된 자가 이미 90만 명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선이 "종래 노무요원의 급원지"를 담당했으나 이제는 동원이 '궁박'하게 되어 학도 동원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어린 학생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극비문서에 잘 담겨 있다.

이같이 당국이 지하시설 공사를 위해 투입할 한인은 약 8,000명이었다. 제2제조소 신설에 필요한 인원이 1,500명이었고, 지하공장 건설 등을 위해 '임시적'으로 약 3,500명의 추가 노동력을 징용이라는 방식으로 동원할 계획이었다. 그 외 3,000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었다. 확보 방법은 징용과 관 알선, 학도근로 등이었다.

그러나 공사 도중 일본이 패전을 맞이하면서 정확한 동원 규모는 8,000명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도근로대나 징용의 형식으로 지하화 공사에 동원된 한인의 사례를 파악할 수 있다. 2022년 현재도 당시 상황을 전하는 생존 경험자가 있다. 여러 생존자 가운데 한 사람은 전진수이다.

1930년 현재 서울 석관동에서 태어난 전진수는 1938년 숭인국민학교를 거쳐 1944년 경신중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일본 패전이 임박한 1945년 7월 함봉산 지하공사장에 동원되어 지하시설에서 해방을 맞았다. 어느 날 교사가 침구를 가지고 경성역(지금 서울역)으로 나오라고 해서 학생복을 입은 채로 나간 것이 부평행이었다. 가족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갔다.

학도근로대
1944년 8월 23일 일본 정부가 공포한 「학도근로령」에 따라 실시한 제도.
학도근로령 제1조 : '국가총동원법 제5조(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 및 제국 법인, 기타 단체가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총동원 업무에 협력하게 할 수 있다.)이 규정에 준하는 학도'를 대상으로 동원하도록 하고, 시행의 근거는 국민근로보국협력령(國民勤勞報國協力令)에 따르도록 함
이 규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60세 미만의 남성과 만 14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이 동원 대상

전진수는 중학교 2학년 나이로 22부대 현역 군인들과 함께 충북 충주농업고등학교 4학년생, 청주상업고등학교 4학년생과 혼성 작업팀 소속으로 작업했다. 산을 양쪽에서 뚫어나가는 작업이었는데, 긴 정과 해머로 물을 부어가며 돌에 구멍을 뚫었다. 물을 부으면 돌이 약간 부드러워져서 해머가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든 구멍에 군인들이 TNT 폭약을 넣어 폭파하면 학생들은 주머니에 가마니 띠를 매고 돌과 흙을 실어날랐다. 기계 하나 없이 맨손으로 굴을 파는 셈이었다.

숙소 바로 앞에 경인선이 다니는 길이었는데 어느 날 점심 먹기 전에 보니 기차가 화통에 깃발을 십자로 걸고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일장기가 아니었다. 갑자기 만든 태극기였다. 태극기를 들고 기차에서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인솔했던 담임선생님이 '경성역으로 갈 준비를 해라'고 해 함께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교사는 해방되었다고 알려주지 않았다.

함봉산 지하시설물 가운데에는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하기 직전까지 학도근로대를 동원해 구멍을 판 흔적이 남아 있다.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기 위해 구멍을 낸 흔적이다. 경성역에서 갑자기 기차를 타고 부평에 온 학생들은 광복을 맞이하던 순간까지 망치와 징을 들고 구멍을 파고 흙을 밖으로 날랐다.

징용이 아니라고?

"난 징용을 피해서 조병창에 갔다구. 징용간 게 아니야." "기능자양성소에 지원해서 간 거야. 기술 배우라고." 간혹 조병창에 동원되었던 경험자들이 하는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생기는 의문. "어? 그러면 조병창에서 일한 사람들은 징용이 아니었다는 거야? 강제동원이 아니네." 그렇지 않다.

인천육군조병창은 일본 육군이 운영한 군부대 소속의 무기공장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은 비록 군인은 아니지만 군의 지휘를 받는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만든 군인군속 명부인 『유수명부』나 『임시군인군속계』에 '군속'이라고 이름이 기재된 것이다. '군속' 명부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이들도 강제동원된 조선인이다. 1938년 4월 일본이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국가총동원체제로 전환한 후, 일본은 물론 조선과 만주, 중국, 남사할린, 중서부태평양, 타이완 등에 살던 민중들은 모두 강제동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본 당국은 각종 통첩과 법을 만들어 이들을 동원했다. 1939년 조병창 건설공사에 조선인을 동원할 때, 근거가 된 것은 '정무총감이 내린 통첩'과 「국민근로보국협력령」이다. 조병창에서 무기를 만들었던 조선인들은 「노무조정령」과 「국민징용령」의 적용을 받았다. 1945년에 학생들을 함봉산에 데려가 굴을 파도록 한 법은 「학도근로령」이었다. 그런데 왜 '징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험자들이 있을까. 조병창에서 일한다는 것이 '징용'이라는 것을, '강제동원'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기술을 배우러, 또는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이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생할 게 아니라 공장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알선을 해서 들어가게 된 거요." "학교에서 갈 사람 지원, 공부해주니까 거기 가서 공부해라. 3년 동안 공부 가르친다."피해자들이 징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해도, 역사적 사실은, 인천육군조병창에 동원된 이들은 강제동원이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일본의 국가총동원체제 아래에서 강제동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이들 뿐이었다.

❖ 지하시설 가장 안쪽에 남은 흔적. 마지막까지 폭약을 넣기 위해 팠던 구멍이다. (부평문화원 제공 사진)

1945년 초 전황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조병창이 생산해야 할 무기는 더욱 많아졌다. 다른 조병창이나 무기 생산시설로부터 군수물자를 보급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인천육군조병창이 갖는 부담은 배가 되었다. 1944년 여름부터 미군이 일본 본토를 공습하게 되자 조병창의 시설과 물자를 지하시설로 옮기는 일도 추진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 조선인들의 노동력을 동원했다. 조병창을 세운 땅은 원래 조선인의 것이었고, 조병창을 만든 것도 조선인이었다. 그리고 조병창에서 일한 것 역시 조선인이었다. 조선인을 위한 것이 아닌 제국주의 일본의 야욕 때문에 동원된 이들이었다. 일제가 부평의 땅속에 남긴 동굴의 깊이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깊이 동원되었던 조선인들의 피해가 박혀 있다.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누리집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포상한 독립유공자 명단을 볼 수 있다. 이 독립유공자 명단 가운데 인천육군조병창과 관련한 독립유공자를 찾을 수 있다. 오순환(吳純煥,1921. 8. 6.~1991. 6. 26. 경성부 창천동 출생)과 황장연(黃長淵, 1923. 4. 13.~2008. 6. 15. 경기도 문산군 파주읍 출생), 그리고 정은태(鄭銀泰, 1921. 11. 13~1996. 12. 7. 경성부 창천동 출생)가 주인공이다. 이 가운데 오순환과 황장연은 직접 인천육군조병창에 들어가 거사를 기도했고, 정은태는 자금을 모으거나 지원 활동을 했다.

이 가운데 오순환의 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 사람이다. 서울 창천감리교회 청년회원으로 있던 그는 1938년 3월 정은태(鄭銀泰)·이광운(李光雲)·이선영(李善泳) 등 21명의 동지를 규합하여 친목을 가장한 항일결사 창천체육회(滄川體育會)와 조기회(朝起會)를 조직하고 회장을 맡아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
> 이들은 항일독립운동의 방안으로서 조선총독과 일제 고관을 암살하여 동포들의 민족의식을 앙양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그는 1941년 10월 거사에 대비하여 무기 조작 기술을 습득할 목적으로 인천조병창(仁川造兵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탐지한 일경에 의해 1942년 붙잡혔다. 그는 1944년 5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황장연의 공적 내용도 살펴보자.

> 경기 파주(坡州) 사람이다. 그는 1943년 3월 5일에 인천(仁川)의 육군조병창(陸軍造兵廠) 내에서 3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고려재건당(高麗再建黨)을 비밀리에 조직하고 당원들에 대한 무기 공급책임을 맡았다.
>
> 1944년 8월에 임시정부에서 밀파된 국내 연락원 신교선(辛敎善)과 접선하여 독립투쟁용·비상용의 무기 공급을 지령받고, 육군조병창 내의 무기를 밀반출하여 그해 9월에 신교선에게 인계한 후 일경에 발각되어 붙잡혔다고 한다. 그는 1945년 2월 17일 일제의 조선군법회의(朝鮮軍法會議)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그해 8월 15일 광복으로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두 사람은 모두 거사를 위해 무기제작 기술을 습득하거나 무기를 손에 넣으려 의도적으로 조병창에 잠입했다가 검거되었다.

직접 독립 거사에 나서지는 못했으나 조병창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에 대한 열망을 표출한 학생과 청년들도 있었다. 인천공립직업학교(현 인천기계공고) 2학년 재학 중이던 1944년 12월 8일, 또래 학생 수백 명과 함께 강제로 조병창에 끌려가 무기를 만들었던 양재형(1927년 인천 중구 경동 출생)은 전문학교 학생들과 함께 조병창 화장실에 '조선독립만세'를 적은 종이를 붙였다. 그는 나팔수를 하면서 제3공장 생산 라인에서 총신을 만드는 일을 했다. 일본 공원을 보조하는 일이었다. 인천공립직업학교 학생들은 매일 아침 9시에 부평역에 집결해 교사들의 점호를 받은 후 걸어서 조병창으로 이동했는데, 양재형에게 나팔을 불도록 했다고 한다. 한겨울에 나팔에 입을 붙이면 입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고 했다.

1944년 양재형이 조병창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보성전문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인천공립직업학교 학생 중 7명을 불러 종이에 '조선독립만세'라고 적어서 조병창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당시 조병창은 불빛이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게 창문도 없고 문도 이중이었으며, 출입구도 양쪽 두 개밖에 없었다. 학생들은 이 종이를 조병창 화장실에 붙였는데, 몇 시간 후 조병창이 난리가 났다. 당국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보성전문학교 청년들만 조사했다고 한다. '조선독립만세'라 적은 종이는 단 몇 시간 밖에 붙어있지 못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 군부대 소속의 무기공장에 '조선독립만세'라니, 일제 입장에서는 간담이 서늘했을 것이다.

부평 민중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인천육군조병창을 세우고, 한반도 민중을 동원해 공장을 건설하고 무기를 만들고 지하공장을 파 들어갔다. 이들이 만든 무기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와중에서 무고한 민중을 살상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인천육군조병창을 독립을 향한 도화선으로 만들려는 이들이 있었다. 비록 나라를 빼앗긴 지 30년이 넘어 독립은 요원해 보였고, 도처에 감시의 눈이 번득이던 상황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인천육군조병창에서 기술을 익히고 무기를 빼내려 했다. 직접 독립 거사에 나서지는 못했으나 조병창 화장실에 '조선독립만세'를 붙여 일본 당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학생들도 있었다. 이같이 인천육군조병창은 조선 민중의 애환과 함께 독립의 불씨를 키운 곳이기도 했다.

4 일본 침략전쟁에서 벗어나자마자 다시 냉전의 현장으로

1) 광복 후 부평의 변화 : 일본의 무기공장에서 군 기지로

인천육군조병창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과 함께 운명을 다했다. 그러나 해방 직후 조병창의 땅과 시설들은 한동안 일본군의 손아귀에 머물러 있었다. 인천육군조병창만이 아니었다. 광복을 맞은 한반도는 한동안 일본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반도에서 공식적으로 일본이 물러난 것은 1945년 9월 9일이었기 때문이다.

> 제24군단이 9월 8일 조선반도에 상륙했을 때 인천에서는 무장한 일본군 헌병대가 경계를 서고 있었다. 대부분의 일본군은 서울에서 철수하고 있었지만, 소수의 일본군과 경찰이 서울을 경비하고 있었다.
> - (중략) 이후 3일 동안 미군은 서울-인천지구에서 확인한 모든 물자 야적장, 보급시설, 조병창, 탄약 공장에 경비병을 배치했다. 여기에는 인천 근처의 대규모 조병창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인천지구에 주둔한 일본군은 9월 10일까지 25% 정도의 병력을 제외하고 무장해제를 완료했다.

『주한미군사』가 묘사한 당시 모습이다. 제24군단은 1944년 4월 8일 하지(John R. Hodge) 중장을 사령관으로 하와이에서 창설한 전투부대이다. 일본 패망 후 하지 중장이 이끄는 제24군단이 한반도 점령군이 되었고, 하지는 1945년 8월 27일 주한미군사령관이 되었다.

미군 제24군단이 한반도에 상륙한 9월 8일까지도 일본군은 무기를 소지한 채 한반도 민중의 압제자로 남아 있었다.

해방, 무엇이 해방인지 알 수 없었던 시절.

인천육군조병창에도 한동안 큰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제1공장장을 맡았던 조선인 공장장이 부평치안대 대장에 취임했다는 내용이다. 자료에서 창장은 인천육군조병창장을 의미한다.

> 부평지구(헌병대)
>
> 1. 관내 치안은 의연 평온하다.
>
> 2. 인천육군조병창 제1제조소 제1공장장 ○○○소좌(반도 출신)는 정세가 급변한 이래 지구의 특수성에서 군민으로부터 요망되는 소속 창장의 인가를 얻어 부평지구 치안대와 협력, 창 측 반도인 공원에 대해 지도에 전념하였던 바, 8월 26일 부평치안대의 요청에 의해 다시 현직 부평치안대장에 취임했다.(소속 창장이 묵인하였다.)

아시아역사자료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방위연구소 자료 「부평지구(헌병보)(C13070014400)」의 내용 중 일부이다.

제1공장장을 맡았던 조선인 공장장은 채병덕 소좌였다. 그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일본군 포공학교를 졸업했으며, 오사카 육군조병창을 거쳐 부평 인천육군조병창의 제1공장 공장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일제의 문헌에 따르면 채병덕은 단순히 조병창의 병기 생산 공장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조병창에 동원되어 있던 조선인들의 지도·관리까지 맡고 있었다. 요컨대 해방 직전 일본군 부평지구치안대가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치안 유지에 주력할 때 채병덕이 '반도인 공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채병덕은 해방된 이후에도 부평치안대 대장을 맡게 되었다. 채병덕은 이후 제3공장 책임자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초대 육군참모총장이 되었다.

1945년 9월 9일 오후 4시 총독부 제1 회의실에서 조선 총독과 재조선 일본군은 항복문서에 조인하고 조선총독부에 걸었던 일장기를 내렸다. 조인식에는 연합국 측 대표로 제24군단 사령관 하지 중장과 태평양 방면 해군 사령관 킨케이드(Thomas C. Kinkaid) 대장이, 일본 측에서는 조선군관구 사령관 고즈키 요시오(上月良夫) 중장과 진해 경비사령관 야마구치(山口儀三郎) 중장, 조선 총독 아베(阿部信行)가 참석했다.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완전한 광복을 맞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항복문서 조인식은 한반도 남쪽에서 미군정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일장기는 내려왔지만 태극기 대신 미국 국기가 내걸렸다.

9월 9일 정식으로 항복 조인식이 끝나자 곧바로 하지는 한국인에게 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조선인민제군이여!
>
> 태평양방면 육군총사령관이자 연합국군총사령관 맥아더 대장을 대신해 나는 오늘 남조선지역에 일본군의 항복을 받았다.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법률과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조선의 경제 상태를 앙양시키며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며 기타 국제법에 의해 점령군에게 과하여진 기타 제 의무를 이행하노니 점령 지역에 있는 제군도 또한 의무를 다하여라. 나의 지휘하에 있는 제군은 연합국군총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장차 발할 나의 명령을 엄숙히 지켜라.
>
> (중략) 제군은 평화를 유지하며 정직한 행동을 하라. 이를 지키는 이상 공포의 생각[念]을 가질 필요는 없다. 만약 명령을 아니 지킨다든지 또는 혼란 상태를 일으킨다면 나는 즉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수단을 취하겠노라. 이미 확정된 항복 조건을 이행함에는 나는 시초에 있어서는 현 행정기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노라. (중략) 신문, 라디오는 금후 곧 조선사람을 위한 기관이 될 것이다. 나는 조선인 제군이 장구하고 또 귀중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노라. 또 제군이 과거 수십 년간 여러 압박 아래 신음해 온 것도 잘 알며 제군의 대망이 무엇이라는 것도 잘 아는 바이며 제군이 생활상태 개선을 하루바삐 수행하고자 하는 제군의 열망을 가슴 깊이 품고 있는 것도 잘 아노라.

하지는 성명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 행정기구'를 유지하다가 9월 19일 조선총독부를 폐지하는 대신 주한미육군사령부 군정청(USAMGIK)을 수립했다. 미군정 시대의 문을 연 것이다.

1945년 9월 8일 미 제24군단이 작전명 '베이커-포티(Baker Forty)'에 따라 한반도에 상륙한 후 미군은 인천에 상륙한 9월 8일부터 서울과 인천 일대의 군수물자와 보급시설, 그리고 조병창을 접수해 나갔다. 10일경에는 조병창을 포함한 일본군 부대에 모여 있던 인원 중 25%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병력의 무장해제를 완료했다. 미군은 일본군에게 회수한 무기

가운데 소화기는 전리품이나 기념품으로 나누어주고, 기관총·화포·폭탄·항공기엔진·탄약은 땅에 묻거나 태웠다. 그래도 남은 것은 바다에 수장했다.

일본군 부대의 무장이 해제된 상황에서 인천육군조병창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마지막까지 일본군의 손아귀에 남아 있던 인천육군조병창을 접수한 것은 미군 제24군수지원사령부(ASCOM 24)였다. 미군 제24군수지원사령부는 1945년 8월 27일 미 제24군단을 기반으로 주한미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부대였다. 8월 29일에 공식 편성했는데, 6만 2,724명의 전투부대와 2만 9,076명의 지원부대로 구성했다. 그러나 접수 초기에는 사병과 장교 500명 규모였다. 이후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에 따라 8월 30일 75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령관에는 오키나와 육군기지 사령관 길버트 셰비스(Gilbert Cheves) 소장을 임명했다.

1945년 9월 9일 도착한 제24군수지원사령관은 11일 인천지구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 1945년 9월 12일 제24군수지원사령부 본부와 본부중대가 인천에 도착했다. 임무는 군단의 군수보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군수보급 시설, 조직, 장비 운영 등을 책임지는 것이었다. 또한 인천항과 남한의 철도를 관할하는 임무도 맡았다. 1945년 9월 16일 제24군수지원사령부가 부평의 일본육군조병창 지역으로 이동한 후 주한미군사령부는 부평을 애스컴 시티(ASCOM City)로 명명했다.

제24군수지원사령부 업무 가운데 하나는 인천 지역과 경기 지역에 주둔 중인 일본군 송환 작업이었다. 인천 지역에서 이들이 일본으로 송환한 일본군은 약 2만 명 정도였다. 그러나 제24군수지원사령부의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임무는 각종 조병창 시설의 철거였다. 제24군수지원사령부는 인천육군조병창을 접수한 후 공장 건물 안에 있었던 공구와 기계류를 철거했다.

왜 멀쩡한 기계류를 철거했을까. 우선 후속 부대가 주둔할 공간을 마련해야 했다. 다른 이유도 있었다. 미군은 일본군이 소지하고 있던 무기가 해방된 한국인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한국인들이 해방의 기쁨으로 '경거망동'할까 오히려 경계했다.

조병창 해체와 관련해 미군 제24군단 병기참모부가 남긴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자.

> '점령 부대는 조병창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후속 부대가 주둔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조병창에 있던 여러 종류의 공구와 특수 기계를 철거해서 아무 데나 버린 것이다.'
> 조병창의 기계류를 철거해 버린 것은 군단 야전 명령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심한 조치였다. 군단 야전 명령은 조병창을 점령하라고 했지 파괴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 하지 장군은 조병창의 기계류를 파괴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했다.

보고서는 '조병창의 기계류를 철거해 버린 것은 군단 야전 명령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심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기계류 철거는 바로 일제 육군조병창 최후의 모습이었다. 마지막까지 결전을 외치며 조선 민중을 동원해 무기 생산에 열을 올렸던 한반도에 일제가 만들었던 조병창은 이렇듯 일본군의 철수와 함께 일본 침략의 역사에서 문을 닫았다.

2) 6·25전쟁의 역사를 축적한 땅

한반도 남한 지역에 미군정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반도에 각각 군정을 실시하던 미국과 소련은 철군 논의를 시작했다. 철군을 먼저 제안한 나라는 소련이었다. 소련은 1946년부터 공식적으로 한반도에서 미·소 양군의 철군을 주장했다. 미국 군부도 1947년 4월에는 미 국무부에 철군을 요청했다. 1947년 9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도 미·소 양군의 철군이 의제로 올라왔다. 철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1947년 11월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는 미·소 점령군의 동시 철군 결의를 통과했다. 한반도에 정부를 수립한 후 가능한 90일 이내에 점령군의 완전 철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미국은 1948년 12월 31일을 미군 철수 시점으로 정했다. 그러나 냉전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 지역의 정세를 감안해 최종 철수 완료일은 1949년 6월 30일로 늦춰졌다.

남한 지역에서 미군의 철수는 1948년 9월부터 시작해 1949년 6월 29일 1,500여 명의 미군 부대가 인천항을 출발함으로써 완료했다. 미군 철수 직후인 1949년 7월 1일 미군은 주한미군 군사고문단을 정식으로 설치했다.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은 기본적으로 미대사관 소속이었으므로 무초(John Joseph Muccio) 대사가 군사고문단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했다. 이 가운데 60여 명이 부평의 애스컴 시티에 머물렀다.

미군의 최종 철군은 6월 29일에 완료했지만 공식적인 철군일은 6월 30일이다. 미군의 철수 후 부평 지역은 국군이 인계해 유지, 운영했다. 한국군은 미군이 철수하고 떠난 부평에

부평 지역 위수사령부를 1949년 8월 1일 설치했다. 또한 미군이 두고 간 옛 일본군 조병창을 수리해 1950년 6월 15일에 제2조병창으로 개편했다.

한국군은 미군이 최종 철군하기 이전부터 부평 지역의 공장을 접수해 무기 생산에 착수하려 했다. 육군본부는 1949년 1월 15일 정부 귀속업체인 유항(有恒)상공주식회사 용산 공장과 조선유지주식회사 인천공장을 접수해 각각 제1 및 제2공장이라 지정하고 이를 모체로 육군 특별부대 소속으로 육군 병기공장을 창설하고 소화기 부품 생산에 착수했다. 제1공장은 인수 즉시 시설을 보완하면서 소화기(小火器)를 정비하고 99식 소총 부속품과 수류탄 제작에 착수했으며, 제2공장은 3개월간에 걸쳐 시설 복구와 기계 정비에 임했다.

국방부는 1949년 6월 미군으로부터 조병창을 인수했으나 파손도가 심해 복구할 수 없었다. 미군이 1945년 부평에 들어오면서 기계류를 파손했기 때문이다. 조병창을 활용할 수 없게 된 국방부는 1949년 12월 병기행정본부를 설치해 병기 생산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전담하게 되었다. 병기행정본부는 1950년에 들어와 서울 영등포에 있는 삼화정공주식회사를 제3공장으로, 인천의 조선알루미늄공업주식회사와 기아전업주식회사를 생산감독공장으로 각각 지정해 무기생산 능력을 확충했다. 특히 인천 제2공장에서는 주로 마찰식 수류탄 생산에 주력하는 한편, 무연화약 제조방식 연구에 성공해 화약공장으로 가동할 수 있었다. 1950년 6월 15일에는 인천의 제2공장을 제2조병창으로 개편했다. 그러나 6·25전쟁이 일어나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말았다.

또한 한국군은 부평 지역에 다양한 군부대를 설치했다. 경기도 수색에 있던 제51통신대대를 1948년 11월 25일 부평으로 이동했고, 1948년 8월 20일에 제1공병단을 창설했다. 10월 5일에는 육군자동차학교를 설치했고, 11월 25일에는 제2병기대대가 부평의 미군 무기창고를 인수한 것을 계기로 대대편성을 완료했다. 1949년 8월 1일 부평 지역에 육군본부 직할 위수사령부를 설치하고, 8월 15일에는 육군군의학교를 창설했다. 육군군의학교도 육군본부 직할이었다.

이같이 한국군은 미군이 철수하기 전부터 부평에 군부대를 배치하기 시작했고, 철수 후 부평의 조병창도 관리했다. 이로써 일본군이 설립 운영했던 조병창은 한국군의 관할이 되었다. 이제 부평은 한국군의 군사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부평은 3개월간 북한군의 차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7월 4일, 북한군은 인천에 침입해 각 기관을 점거했다. 그러나 북한군도 부평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다. 9월 15일 미군의 인천상륙작전 후 9월 17일 미군은 다시 부평을 회복했다.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미 해병사단은 9월 16일부터 인천 시가지 소탕 작전을 시작했다. 인천 지역의 소탕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다음 과제는 김포 비행장의 조기 확보였다. 김포 비행장은 한강 이북으로 작전 수행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당시 김포 비행장 탈환 임무는 미 해병 제5연대가 담당했다. 그런데 김포 비행장 탈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부평 지역에 대한 선점이 필요했다. 미 해병 제5연대와 제1연대는 16일 밤 부평 일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원통이고개 일대의 주요 고지에 군을 배치하고 작전에 들어갔다. 그 결과 9월 17일 저녁에 부평 지역 탈환에 성공했다.

부평 지역의 작전을 실행한 미 해병 제5연대는 여세를 몰아 김포 비행장 탈환 작전에 나섰다. 이같이 미 해병 제5연대가 부평과 김포 비행장을 탈환하기 위해 작전을 진행하는 동안 미 해병 제1연대는 인천 지역 수복에 나섰다. 9월 18일경 미 해병 제1연대가 소사 동쪽 지역의 원미산을 탈환함으로써 인천 지역을 완전히 수복했다. 인천 지역의 완전 수복과 함께 인천 시정도 어느 정도 복구해 시정 개회식을 거행했다.

그러나 북진과 평양 점령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으로의 진격으로 끝날 줄 알았던 6·25전쟁은 중공군의 대규모 개입으로 새로운 전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으로 인해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 이남으로 다시 후퇴하기 시작했다.

공산군은 1951년 1월 5일에 인천 지역에 들어왔다. 그러나 이미 12월 24일 시민 「소개령」 발표 후 1951년 1월 3일에는 대부분이 철수해 시내는 텅 빈 상태였다. 미 제8군사령부는 철수 상황에 따라 1월 4일 인천항의 폐쇄를 명령하고, 인천항·김포공항·부평보급소 등지에 있던 군수물자를 모두 파괴했다.

이같이 부평은 1951년 1·4후퇴 과정에서 잠시 공산군의 치하에 들어갔으나 3월 말에 다시 회복했다. 국군과 유엔군이 3월 15일 1·4후퇴 이후 70일 만에 서울을 탈환했고, 전진을 계속해 3월 말에는 38도선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이때 미군도 부평에 돌아왔다. 1951년 봄 유엔사령부가 서울·인천 지역을 탈환했을 때 부평은 미 해병대와 전방 지역의 신병 교대 센터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미군은 다시 옛 인천육군조병창 자리에 보급부대를 설치했다. 현재 부영공원이나 제3보급단 자리도 미군 주둔지(애스컴 시티)가 되었다.

1951년 봄에 미군의 수중에 들어간 애스컴 시티는 6·25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 육군지원사령부(Army Support Command)의 집합처가 되었다. 천막을 치고 장비와 보급품을 저장

했고, 퀀셋 막사와 같은 임시 구조물도 다수 건설했다. 미 제195병기중대, 미 제330병기중대, 미 제74병기대대 등도 애스컴 시티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제79병참대대도 이 시기에 있었던 부대였다.

❖ 제79병참대대의 조감 사진(1952. 8. 30.)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로 미해병대 제1사단을 지원하던 미해병대 지원사령부가 애스컴 시티의 메인 구역(현재 캠프 마켓)으로 들어왔다. 같은 시기에 인천보충대도 부평으로 이전했다. 원래 인천보충대는 인천항 근처에 있었는데, 부평으로 자리를 옮겼다. 미 해병대 지원사령부의 뒤를 이어 1955년 3월에는 미 제443병참기지창이 이전해왔다. 미 제443병참기지창은 곧 미 제55병참창으로 교체되었다. 미 제181통신중대도 6월과 7월에 걸쳐 이동해왔다.

미 제55 병참창을 애스컴 시티로 이전한 것은 미군의 병참 업무를 애스컴 시티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미 제55병참창은 미 제295·293·130·508·540·564·505·537·539 병참중대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받으면서 애스컴 시티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미군은 1955년에 애스컴 시티 지역사령부를 설립했다. 그리고 10월 11일에 애스컴 시티 예하 지역사령부를 설립했다. 이로써 1970년대 애스컴 시티가 해체되기 전까지 부평미

군기지의 기본 골격을 완성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부평미군기지를 '부평지구사령부' '부평기지사령부' '애스컴지구사령부' 등으로 불렀다. 지역민들은 '애스컴 데뽀(Depot)' '55부대' '8057부대' 등으로 불렀다. '55부대'는 미 제55병참창을 가리키는 말이고, 현재 캠프 마켓 일대가 된다. '8057부대'는 현재 현대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이다.

❖ 부영공원 안내판

❖ 포로수용소가 있던 자리

요즘 부영공원을 찾는 이들은 이 공원이 6·25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부영공원은 부평의 미군기지 가운데 하나였고, 6·25전쟁 시기에는 포로수용소가 있었던 곳이다. 제10부평포로수용소다.

6·25전쟁 기간 중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가 발생했고, 포로수용시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이 되었다. 현재 전국에는 이들을 수용했던 시설이 남아 있고, 거제의 경우에는 관광지로 변모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영공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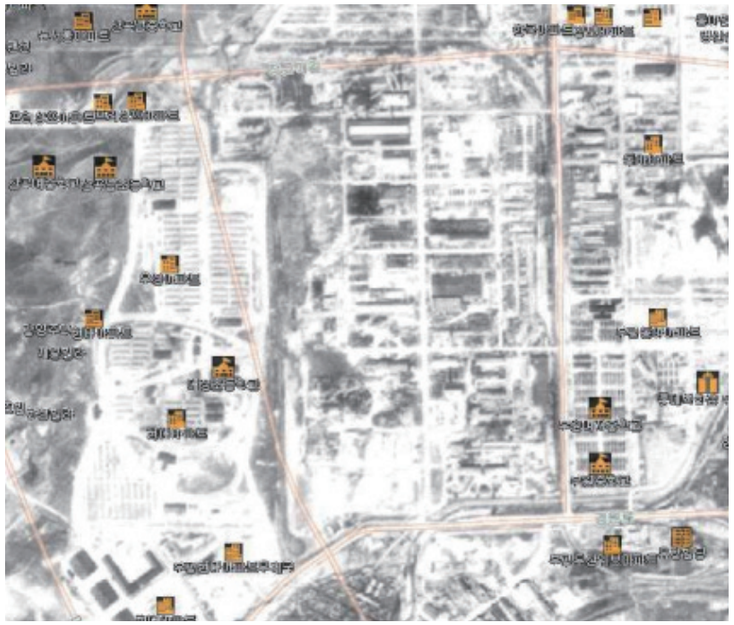
6·25전쟁 발발 직후부터 포로수용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미 제8군은 1950년 7월 초 부산에 포로수용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자재 부족으로 보류했고, 제24사단 헌병중대가 대전에 처음으로 수용소를 설치했다. 공주와 조치원은 포로집결소를 설치해 포로들을 대전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후에 미군이 대전에서 철수하면서 제25사단이 경북 영천에 포

로수용소를 설치했고, 제24사단에서는 충북 영동에 수용소를 설치해 포로들을 대구로 이송했다. 7월 14일 미 제8군은 부산에 수용소를 건설할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7월 18일 500명 단위의 수용소를 건설할 곳을 정했고, 24일까지 수용소 외곽에 철조망을 세웠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선의 포로집결소에서는 포로를 텐트나 노지 혹은 농가 등에 임시 수용했다가 사단과 군단별로 합친 후 가능한 신속히 임시수용소로 이송했다. 전선에서 떨어진 임시 포로수용소는 비교적 규모가 컸다.

인천상륙작전 후 늘어나는 포로를 수용하기 위해 인천을 비롯해 서울, 평양, 대전, 원주 등지에 수용소를 설치했다. 인천포로수용소는 인천소년형무소를 개조했는데 수용 능력이 2,500명 정도였다. 수용소장과 경비는 미군이 담당했다가 1950년 10월 25일 한국군 제32포로경비대대가 담당했다. 상륙작전 직후인 9월 말에 6,000여 명이었던 포로들이 11월 초에 3만 2,107명으로 늘어나자 2개 동을 더 건설했다. 중공군 개입 이후 전세의 악화로 1950년 12월 폐쇄되었다. 이곳에 수용되었던 포로들은 인천역에서 기차로, 혹은 항구에서 수송선과 화물선을 통해 부산 수용소로 이동했다.

❖ 1947년 포로수용소 설치 이전의 모습. 왼쪽 밭 경작지가 제10포로수용소 설치 장소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 1954년 3월 애스컴 시티 모습. 왼쪽 부분이 제10포로수용소가 있었던 곳.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현재 부영공원에 포로수용소를 설치한 것은 1953년이었다. 미군은 1953년 3월 부평에 제10포로수용소(유엔군 제10부평 전쟁포로수용소, United Nations Command Prisoner of War Camp NO. 10, Army Service Command City)를 설치해 1,500명 정도의 북한군 포로(송환반대 약 1,400명)를 수용했다.

부평에 포로수용소를 설치한 이유는 포로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미 공중폭격을 통해 북한의 대부분을 초토화시켰던 미국은 1951년 8월 15일부터 공산 측의 통신망과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한 '교살(Strangle)' 작전을 수행했다. 9월과 10월에는 '허드슨항(Hudson Harbor)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상공에서 모의 원폭 투하 비행을 실시했다. 지상 전선에서도 유엔군은 8월 중순 이후 10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하계 공세와 추계 공세를 감행해 군사적 압력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가 발생했다.

제10포로수용소 설치 과정
- 1953년 3월 8일 수용소 포로용 텐트 설치 (14포로근무부대, 509 REPL 중대 인천에서 이동)
- 1953년 3월 수용동 울타리 및 부속 건물 건설(4. 18 현재 A수용동 90%, B수용동 75%, C수용동 주변 정비 중, 펜스 80%, 구역 정비 50% 완료됨)
- 1953년 4월 4일 500명 단위의 수용동 1개 80% 건설 완료. 두 번째 수용동 30% 진행
- 1953년 4월 25일 24시 현재 A·B수용동 울타리 및 화장실 공사 완료, C수용동
- 1953년 5월 1일 매일 포로 550명이 수용소 건설 노역에 참여하고 있음
- 1953년 5월 16일 A, B, C수용동의 울타리, 화장실, 취사실, 급수 시설 등 완료
- 1953년 5월 13일 A, B, C수용동 막사 건설 시작. 수용동 막사 건축에 매일 포로 1,000명 동원. 수용동 건축 6월 26일까지 완료 예정
- 1953년 6월 7일 수용소 본격적인 운영 개시

1951년부터 휴전협정이 시작되었다. 2년에 걸친 지리한 휴전회담 논의 과정에서 먼저 합의한 문제는 군사분계선 설정이었다. 휴전감시 문제도 1952년 5월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1952년 5월에도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 있었으니 바로 전쟁포로 문제였다. 유엔 측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 원하는 포로만 송환하자는 '자유송환원칙(자원송환원칙)'을 주장했다. 이에 비해 공산 측은 제네바협약에 의한 '자동송환원칙(강제송환원칙)'을 주장했다. 이 때문에 지체되고 있었다.

제10포로수용소 수용 포로 현황
- 1953년 3월 3일 제5포로수용소 150명, 포로수용소 건설에 동원돼 제10수용소에 도착
- 1953년 3월 14일 북한인민군 비 송환자 1,500명 수용 계획
- 1953년 3월 25일 제5포로수용소에서 50명 제10수용소에 도착
- 1953년 4월 16일 제5포로수용소에서 100명의 포로 이송. 현재 600명 수용 중
- 1953년 4월 24일 제6포로수용소에서 200명의 포로 이송. 현원 799명
- 1953년 5월 1일 제6포로수용소에서 200명의 포로 이송. 4월 28일 121명 병원으로 이송. 현원 996명
- 1953년 5월 14일 제5포로수용소에서 500명의 포로 이송됨 -1953년 5월 27일 포로 현원 1,491명 수용 중

유엔 측의 주장대로라면 원래 유엔 측이 제시한 13만 명의 공산 측 포로 중 8만 명만이 송환 대상이었다. 공산 측은 이에 격렬히 반대했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는 포로 심사 과정에서 고문, 살해 등에 저항해 공산 포로들이 수차례에 걸쳐 폭동을 일으켰다. 포로 처리 문제의 이견으로 1952년 10월 8일 휴전협상은 다시 중단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포로 문제는 약간의 진전을 보였다. 우선 4월에 병상 포로를 교환했다. 4월 26일에는 중단되었던 휴전회담을 재개했다. 결국 양측은 귀국 희망 포로는 송환하고 귀국반대 포로는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인계해 그 의사를 확인토록 했다. 여기에서 결정하지 못한 포로들은 '정치회의'에 넘기며, 정치회의에서도 결정하지 않은 포로들은 민간인으로 석방하도록 합의했다. 이 와중에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반공포로 석방 조치를 내렸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휴전협정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결정에 동의할 수 없었다. 상당수의 반공포로들이 배제될 것이라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6월 18일 자정을 전후해 유엔군이 관리하고 있던 부산, 마산, 대구, 영천, 논산, 광주, 부평 등의 포로수용소에서 2만 7,000여 명의 포로들을 석방시켰다. 그러나 6월 21일까지 계속된 반공포로들의 탈출 과정에서 모두 61명의 포로가 사망했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은 부평수용소였다. 석방 조치가 내려졌을 때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400명의 탈출자 가운데 30명이 사망했다. 신문에서는 47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 부평지구 제10포로수용소는 부평지구 미군기지 내의 미 제44공병단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수용인원은 1천 4백 86명이었다.
> 원래 이 수용소는 한국군 헌병 1개 중대가 배치되어 있었지만 미군기지 내에 있음으로써 헌병 총사령부에서 파견한 밀사와 접촉할 수가 없었다.
> 그리하여 18일 부평수용소 내 포로들은 이날 아침의 반공포로 석방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정오에 영내 확성기를 통해 뉴스를 듣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날 정오부터 총사령부의 김길수 대령, 고윤석 해군 소령, 제1경비대대장 박종대 소령, 헌병중대 선임장교 이영현 중위가 모여 뒤늦게 석방을 비밀리에 논의했다. 미군 측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포로석방 조치를 알고 하오에는 작업도 내보내지 않고 단속했다. 그러자 불안감을 느낀 포로들은 간부들끼리 모여 탈출을 논의했다.
> 18일 하오 3시경 이영현 중위는 김대령 등과 협의한 대로 밤 9시에 탈출시키기 위해 수용소 외곽 철조망을 순시하는 체 하면서 경비 헌병을 주의 주는 것처럼 가장한 포로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다른 수용소는 모두 탈출했다. 여기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밤 9시에 탈출하라"고 외쳤다. 이렇게 하여 이 중위의 의사는 포로들에게 전달되었다. 따라서 포로들은 밤 9시에 탈출을 감행하기로 간부들 간에 합의가 됐다. 행동은 각 대대별로 50명 단위로 조 편성을 해서 각개돌파로 하되 탈출 시 돌을 던져 외등을 깨트리기로 했다.
> 밤 9시 우리 헌병들은 수용소 내의 전선을 끊는데 성공했다. 포로들은 조편성한 대로 스크럼을 짜고 정문으로 몰려가 철조망 위에 담요를 걸치고 뛰어내렸다. 정문을 지키던 미군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서 도망치고 말았다.
> 미군들은 정전과 동시에 포로들의 탈출을 알고 미해병대원들이 증원되고 저지 사격을 가하는 바람에 1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수용인원 1,486명, 탈출한 포로 538명, 탈출 후 피체 39명, 탈출 수 802명, 사망 47명, 부상 60명"(『경향신문』, 1973년 7월 20일자).

당시 동아일보 기사는 사망자가 8~10명이라고 보도했다.

> 9일 부평포로수용소에서 미해병대원들이 북한 포로들과 충돌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동 소식통에 의하면 8명 내지 10명의 북한 포로들이 살해되고 90명이 부상당하였다고 한다.
> 부평포로수용소에서의 포로들의 탈출 기도는 18일 하오 7시에 취하여진 것인바 이는 미군이 한국군의 포로감시 임무를 해제한 후 2시간이나 경과된 때였다.(『동아일보』, 1953년 6월 20일자).

❖ ASCOM(현재 부영공원)에서 인천항으로 이동하는 수송 차량에 오르는 중공군 포로(1954년 1월 22일)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또한 1954년 1월에는 중국으로 송환을 거부한 중공군 포로를 수용하기 위해 부평에 중국인 포로수용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중공군 포로는 1954년 1월 22일에 인천항을 통해 중화민국(현재 타이완)으로 출발했다.

1953년 12월 23일 중립국 송환위원회의 포로 설득 작업이 완료되자, 중화민국 정부는 포로 영접을 위한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1월 20일 오전 9시 포로의 공식적 교환과 포로들의 철수가 시작되었다. 비무장지대에서 나온 포로들은 트럭 16대로 각 차량에 3,000명씩 탑승해 부평 미 군수지원사령부에 도착한 후 하차해 수속을 마쳤다. 이들은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소독 및 식사를 했다. 그리고 원래의 차량에 다시 탑승해 인천으로 이동했다.

인천항에는 2,000여 명의 화교 대표와 남녀학생이 해변 모래사장에서 환영 대열을 이루었다. 중화민국으로 포로 인계 작업은 부두 근처의 16개 장막에서 진행되었다. 16대 차량으로 이동한 포로들은 인천항에 도착해 16개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유엔군 및 중화민국 군관이 한 명씩 출석을 불러 인수인계했고, 그 후 쌍방이 서명했다.

정식 서명은 1월 23일 오후 4시 제8군 사령부에서 거행되었다. 유엔군사령부를 대표해 제8군 군단장 테일러가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는 백선엽, 중화민국 대표로는 레이밍탕이 참석했다. 서명은 테일러 장군, 백선엽 장군이 한국 측 포로 문건에 서명했는데, 포로들의 총 수는 1만 4,220명이었다. 이들은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LST 15대로 이송되었다. 열차에 탑승했던 264명의 상해(傷害) 포로 중 143명은 비행기 6대로 타이완으로 출발했고, 경상자는 세 번째 LST로 운송했다. 1954년 1월 22일 모든 중공군 포로가 인천항을 떠났다. 중공군 포로가 출발하면서 부평 미군기지에서 포로수용소의 역할은 끝났다.

6.25전쟁 당시 포로수용소가 있었던 부영공원은 일제 말기에는 인천육군조병창의 일부로서 지금도 지하시설물이 남아 있다. 2층 구조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1층만 확인할 수 있다. 지리적 위치나 규모, 내부 시설의 모습으로 볼 때, 조병창에서 생산한 총기를 검사했던 격발 장소로 추정한다. 지하시설은 전문 조사가 필요해 아직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흙과 풀로 덮혀 있어 외부에서는 구별할 수 없다. 다만 상층부의 구조물이 남아 있다. 향후 정밀조사와 전문학술조사를 통해 정확한 용도 등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하시설의 내부

❖ 상층부의 모습.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에 지하시설이 있다. 2021.11.

1971년 6월 미 제121 후송병원의 용산 이전을 시작으로 1973년 1월 주요 시설은 경상북도 왜관의 캠프 캐럴(Camp Carroll)로 이전했고, 애스컴의 주요 부대인 제69수송대대, 제30병기중대, 제595정비중대, 제199인사중대 등도 이전했다. 1973년 6월 30일 애스컴 대부분은 한국 국방부에 이관하고 애스컴 시티는 공식적으로 해체했으며 캠프 마켓만 남게 되었다.

❖ 부평 애스컴 시티 배치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5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 역사문화도시 부평을 만들기 위해

1) 냉전의 시대에서 평화 구축 시대로

일본 육군 소속 인천육군조병창에서 광복 후 미군부대 애스컴 시티가 된 후, 부평의 미군부대는 미국 문화의 전파소이자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이곳에서 많은 음악인이 성장했고, 음악을 통해 전쟁 후 삭막한 한국 사회에 한 줄기 희망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애스컴 시티는 빛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빛과 함께 그림자도 있었다. 미군 범죄와 환경오염은 미군이 주둔했던 전 세계에 드리웠던 부작용이었다.

또한 미군부대는 기지촌이라는 새로운 마을을 낳았다. 기지촌 여성들은 고단한 삶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였으나 사회적 외면과 냉대를 피할 수 없었다.

빛과 그림자를 함께한 곳, 미군부대.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부대를 반환받으려는 움직임은 1990년대 초 한국 사회의 민주정부 수립을 계기로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인천시민들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 후 계양산 지키기 운동을 통해 시민사회 역량을 집결하기 시작했다. 1996년 5월 17일, 부평역 광장에서 개최한 5·18광주민중항쟁 16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우리 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이 출발했다. 이렇게 시작한 시민들의 반환 운동은 걷기 캠페인, 토요일 집회, 수요일 정치마당을 거쳐 674일 철야 천막농성이라는 범 시민적 투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02년 3월 29일 반환 결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부영공원 반환과 2019년 12월 11일 인천시와 국방부의 발표(캠프 마켓 1단계 구역의 즉시 반환)를 거친 후 2020년 반환을 이루었다. 부영공원은 환경정화작업을 거친 후 반환 당시 모습 그대로 인천시민들에게 돌아왔다. 인천시는 2022년 현재 부영공원의 인천육군조병창 관련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2020년 10월 14일 시민의 날에 개최된 캠프 마켓 개방행사의 모습

❖ CAMP MARKET 조형물 뒤에 도열한 행사참석자들

1990년대에 시작된 미군부대 반환 운동은 부평만이 아니라 전국적 운동이었고, 부산시 범전동의 '캠프 하야리아(Camp Hialeah)'와 같이 반환 후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곳은 원래 농토였는데, 일제강점기에 경마장으로 바뀌었고 1937년부터 일본군 기마부대와 제72병참경비대, 포로감시원 훈련소로 사용했으며, 광복 후 2006년까지 부산기지사령부 '캠프 하야리아(Camp Hialeah)'라는 미군부대가 있었다. 시민들의 반환운동을 통해 2006년 반환 이후 환경정화작업을 거쳐 2014년 부산시민공원이 되었다. 그러나 부산시민공원은 반면교사로 남았다. 반환 과정에서 범전동의 일제강점기 근대건축물을 포함해 미군부대 시기의 건축물도 대부분 철거를 통해 사라졌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미군부대 반환 경험을 갖지 못한 탓이었다.

부산 범전동의 근대건축물이 사라지면서 일제강점 이후 100년이 넘도록 이 땅이 걸어온 역사의 궤적과 기억은 찾기 어려워졌다. 그저 넓은 공원이 남았다.

다행히도 이 넓은 공원에서 유일하게 역사의 궤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다. 미군부대 시절 장교 클럽 자리를 개조한 부산시민공원 역사관이다. 역사관은 현재 매년 20만 명이 찾는 명소이다. 역사관이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근대건축물이 사라진 곳에서 범전동 너른 들판이 걸어온 역사와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 공원역사관 입구(2018년 10월 촬영)

❖ 포로감시원 수기를 활용한 전시물(2015년 12월 촬영)

부산 범전동의 근대유적이 남긴 아쉬움을 다시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는 왜 과거 어두운 역사의 현장을 남겨야 하는가, 우리 사회는 이곳을 통해 무엇을 향유할 것인가. 현재 인천시는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인천시 시민참여위원회이다. 물론 인천시 시민참여위원회가 인천 시민을 대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활용 방안에 대해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논의 기구가 있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 가장 큰 차이이고, 우리는 이 장점을 살려서 후대에 또 다른 반면교사가 되지 말아야 한다.

2) 부평과 한반도 민중의 역사를 올곧이 간직한 곳, 인천육군조병창-평화의 마중물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들이 해야 할 고민의 출발은 '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을 남겨야 하는가'하는 점이다.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은 부평과 한반도 민중의 역사를 올곧이 간직한 곳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역사도 일본의 역사도 아닌 한국의 역사가 농축된 우리의 근대유산이기 때문이다.

일본 당국은 부평 민중의 땅을 빼앗아 한반도 민중의 노동력을 착취해 무기공장을 만들었다. 한반도 전역에서 강제로 끌어모은 놋그릇 등 생활도구와 문화재를 인천육군조병창 주물공장에서 녹여 무기 재료로 삼았다. 그것도 모자라 한반도 민중을 끌고와 무기를 만들게 하고, 지하시설을 파도록 했다. 광복을 맞은 이후에는 곧바로 미군이 주둔하면서 또 다시 냉전의 산물로 자리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은 한국 사회가 피해자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자산이자 평화

를 위한 마중물이며 반전평화교육의 현장이다. 피해자성은 피해역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공감하며 이를 통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힘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은 한반도 전역에 있으므로 남북한이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은 인천을 넘어선 한국의 유적, 그리고 세계의 유적으로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은 일본의 침략전쟁이 남긴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 가운데 하나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이란 일본이 저지른 아시아태평양전쟁(1931~1945)이 만든 유적이며, 전쟁유적은 전쟁이 낳은 유적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은 '어두운 역사(Dark History)'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을 포함한 근대 전쟁유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한 주제인 '부의 유산(Nagative Heritage)'이다. 최근 '부(負)의 유산'은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으로 불리기도 한다. 불편문화유산이란 '고통과 아픔의 역사적 사건과 연결된 장소가 그 역사적 사건 이후 문화유산화되면서 국가 및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면서 수반되는 기억 분쟁과 정치적 분쟁을 통칭'한다.

세계 시민들은 왜 '고통과 아픔의 역사적 사건과 연결된 장소'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세계가 공유하려는가. 바로 '전쟁 없는 21세기, 고통과 아픔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열망'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이 바로 평화를 위한 마중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은 세계적 추세이다. 심지어 아시아태평양전쟁 가해국인 일본도 자국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부평은 다른 지역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문화자산을 가진 곳이다.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은 현존하는 유일의 일본 무기공장 유적이다. 일본은 전시 중 육군조병창을 총 7개소 설치했는데, 이 가운데 현장을 보존하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인천육군조병창이 유일하다.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을 제외한 6개소 가운데 5개소는 공습으로 사라졌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도쿄 사가미(相模) 조병창은 미군 시설이어서 접근할 수 없다. 인천육군조병창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는 세계 시민들이 반전평화의 교훈을 공유할 현장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은 아시아태평양전쟁과 탈식민지 냉전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유적이다. 일본군이 점유해 침략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사용하던 곳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세계 냉전 질서 속에서 오랜 기간 미군의 점유지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성격에서 우리는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이 가진 세계사적 의의를 생각할 수 있다.

현재 모든 미군기지가 남긴 토양오염 문제는 세계적 수준의 환경정화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잘 세계시민이 보존하고 향유할 문화환경으로 제공하는가 하는 점이다. 토양오염된 곳을 철거하지 않고 살리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성공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가운데 한 곳을 소개하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의 베스터하스파브릭(Wester Gas Fabriek Culture Park)이다.

2019년 3월 20일자 스트레이트뉴스(www.straightnews.co.kr)는 「유럽 항만도시에서 인천 내항의 미래를 고민하다」는 제목의 특별기고문을 실었다. 기고자는 환경을 극복한 좋은 사례로서 베스터하스파브릭을 들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오염된 토지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부평 미군기지 재사용에 참고할 수 있다며 관심 있게 보았다'고 강조했다.

2003년에 문을 연 베스터하스파브릭은 암스테르담시에 있다. 19세기 말 암스테르담은 가로등을 밝히기 위해 2개의 가스공장을 건립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베스터 가스공장이었다. 원래 오염 덩어리의 가스공장이었는데, 친환경 방식을 적용해 성공한 사례로 손꼽힌다. 1967년 공장 폐쇄 후 공장부지는 물론 주변 토양과 물이 기름과 타르 등으로 뒤덮여 주변은 거의 죽은 땅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오염되었고, 석면까지 대량 발견될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1981년 암스테르담시가 정치인과 전문가, 시민들과 힘을 모아 수십 년에 걸쳐 정화작업을 벌이며 노력한 결과, 베스터하스파브릭은 암스테르담시에서 가장 성공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사례이자 유럽 최고 수준의 명소가 되었다. 과거 환경 오염지역이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2022년 7월 인천시 문화재위원회는 부평역사박물관 소장 인천육군조병창 관련 유물 총 13건을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 인천육군조병창 유물을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이다.

역사문화도시 부평, 역사 궤적과 기억을 향유하기 위한 첫발 떼기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을 남겨야 할 이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보자.

첫째는 더 많은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는 일이다. 현재 인천육군조병창에 대해서는 연구도 부족하고 오류도 있다. 2021년 11월에 출간한 『부평사』 제4권이 가장 최근의 자료를 담은 연구성과이다. 연구의 오류를 수정하고 역사적 실체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자료를 확보

해야 한다. 인천육군조병창은 일본 육군이 설치 운영한 곳이므로 공문서와 도면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 방위성에는 인천육군조병창 관련 공문서가 적지 않다. 그 외 해방 이후 미군이 작성한 설계도면(현재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도 있다. 이러한 문헌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필요하다. 비록 고령이기는 하지만 인천육군조병창의 경험자를 찾는 작업도 멈출 수 없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기록원을 설립한다면 어떨까.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고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먼저 공간에 대한 생각을 확장해보자. 1939년 당시 일본 육군이 공사에 들어갈 당시 인천육군조병창의 부지는 72만 8,000여 평이었다. 이후 부지를 확장해 150만여 평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재 캠프 마켓 부지는 72만 평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도 가지 않았다. 현재 캠프 마켓 부지는 인천육군조병창 부지의 일부였을 뿐이다.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은 현재 캠프 마켓 부지는 물론 부영공원과 한국군 부대(제3보급단, 제507부대), 함봉산의 지하시설, 영단주택 자리, 캠프 마켓 주변의 아파트 등 주거지역과 상가 등 부평 지역의 거의 대부분에 걸쳐 있다.

또한 시간적 연속성을 생각해보자. 일본군이 부평에 인천육군조병창을 조성하기 전, 이 땅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일본이 패망한 후 이 땅은 어떠한 변천을 겪었는가. 일본군, 미군, 한국군 부대 주둔지로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은 켜켜이 역사의 더깨를 쌓아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을 통해 일제강점기와 일본의 침략전쟁, 그리고 냉전 이데올로기를 압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장할 주제가 있다. 바로 '환경'이다. 흔히 환경이라고 하면 토양환경만을 떠올린다. 그러나 '환경=토양환경'만이 아니다. 최근에 중요하게 평가하는 환경은 문화환경이다. 문화환경이란 근대유산을 의미한다. 인류가 걸어온 그간의 삶과 역사인 근대유산은 앞으로 지키고 공유해야 할 중요한 환경이자 우리 삶에서 분리할 수 없는 존재이다.

내셔널트러스트운동
19세기 말 영국에서 일어나 한국에서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산 기증과 기부를 통해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확보해 시민의 소유로 영구히 보전하고 관리하는 시민운동이다. 이 운동은 전통적 가치를 복원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물려주어야 할 자연·문화유산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다.

2021년 11월 27일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한 시상식이 있었다. 시상식의 구성의 하나인 '이것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서 특별상의 영예는 부평의 인천육군조병창 병원 건물에 돌아갔다.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핵심은 공유화 정신이다. 그런데 공유화 정신은 서양만의 전통인가. 그렇지 않다. 한국에서는 19세기 영국보다 더 오랜 전통적 가치관이 있었다. 관습법상의 '동유재산'이다. 조상들은 자손만대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을 동유재산으로 정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잘 관리해 왔다.

동유재산
지역 공동체의 운명과 함께하는 자연환경을 공동체 모두의 소유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제도. 예 : 공동으로 이용하는 어장(漁場), 목장(牧場), 소나무 산[松山] 등

시상식에서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일본육군조병창 병원을 내셔널트러스트특별상으로 선정한 이유로 조선인이 강제동원되어 무기 제조 공장에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셔널트러스트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환경정화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역사성 있는 공원으로 돌려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고 설명했다(『경향신문』 2021년 11월 28일) 즉, 인천육군조병창 병원이 특별상을 받은 이유는 환경의 의미와 가치를 확대해 문화환경의 중요성을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인정한 결과이다.

역사문화도시 부평, 역사 궤적과 기억을 향유하기 위한 구체 방안

근대유산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전시물처럼 박제된 오브제가 아니다. 100년 전에도 사용했고, 50년 전에도 사용했으며 지금도 사용하는 곳이다. 일제강점기의 건축물 가운데 지금도 사람들이 생활공간이나 사무공간, 상업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탄생할 당시 용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내부를 조금 바꾸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같이 근대유산은 과거로 끝난 박제품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 사람들과 교유하고 소통하는 살아 있는 공간이다.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이라는 근대유산도 70년 전에는 일본군의 무기공장이었으나 60년 전에는 미군부대로 용도가 바뀌었다. 앞으로 어떻게 바꾸어 생명력을 가진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우리가 생명력을 부여할 때 가능하다. 생명력을 불어넣는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활용과정

실태조사(전수조사) → 연구 → 필드워크 → 유적의 활용 방안 계획 수립(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 보존 : 건축자산제도, 등록문화재·지정문화재 제도 활용 → 문화콘텐츠 선정 및 구축 → 시민사회 공유 및 활용

건축자산제도
2015년 6월 제정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도이다.
이 법에서는 '건축자산'을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도(문화재보호법 제53조)
2001년에 도입. 100년이 되지 않은 건축물이나 물건, 예술품 등과 같은 근대유산이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존대책이다. 지정문화재와 달리 보존과 관리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정문화재 제도(문화재보호법)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그리고 문화재자료로 구분하며, 보존과 관리를 정부와 지자체 등이 담당한다.

살아 있는 공간 만들기는 실태조사에서 출발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시민들과 함께 답사를 다니면서 장소 하나하나에 대한 활용 계획을 세운다. 여기에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건축자산제도나 등록문화재 및 지정문화제 제도를 활용해 보존 방법도 찾아 나간다. 그리고 시민들이 향유하는 과정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계속 함께 가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주민 공감대 형성이다. 정부·지자체가 주민들과 함께 '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을 보존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존하면 좋을지'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정부·지자체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주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은 살아 있는 공간으로서 앞으로도 새로운 역사를 쌓는 곳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후,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유럽 산업유산 재생 프로젝트 탐구』, 돌베개, 2013.
김현석, 「땅의 계보와 공간 서사 : 부평연습장, 조병창, 애스컴 시티」(『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보고 34집 미군기지 캠프 마켓과 인천육군조병창 유적』, 2021, 12~21쪽)
부평문화원, 『장고개길을 따라서-부평3보급단 지역 콘텐츠 조사사업』, 2021.
부평사편찬위원회, 「제6장 캠프 마켓 반환운동」, 『제4권 인천육군조병창과 애스컴 시티』, 2021.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보고 34집, 미군기지 캠프 마켓과 인천육군조병창 유적』, 2021.
정혜경, 『우리 지역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활용 – 방안과 사례』, 도서출판 선인, 2017.

조건, 「일제말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대전주둔과 군사령부 이전 계획」, 『역사와 담론』92, 2019, 340~341쪽.
조건, 「일제말기 인천육군조병창의 지하화와 강제동원 피해」, 『한국근현대사연구』98, 2021, 187~191쪽·201~208쪽
한만송, 『캠프 마켓』, 봉구네책방, 2013, 83~85쪽.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MeritList.do?goTocode=20002(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제 5 장

부평의 마을

高·平·史

제5장 부평의 마을

김 정 아 (부평역사박물관 총괄팀장)

1호선 전철에서 내려 북부 광장에 섰다.

많은 사람들이 전철에서 내려 부평역의 여러 지하상가 출구로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전철에 오르기 위해 역사 안으로 들어선다. 사람들은 저마다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이며 버스와 택시도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부지런히 움직인다. 단 1초의 멈춤도 없이 시종일관 모든 것이 바삐 움직이는 곳, 바로 부평역이다.

시계를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으로 돌려본다.

여름이면 초록이 일렁이고 가을이면 고개를 숙인 벼가 파도를 타는 곳.

논과 논 사이를 가로지르는 긴 길목을 따라 가보면 곳곳에 보이는 초가 몇 채가 전부였을 것이다.

1927년 조선척식자료조사회에서 발행한 『조선철도연선요람』의 기록을 통해 당시 부평에는 일본인 122명과 조선인 1만 6,65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현재 부평의 인구가 50만 명 정도이니 100년이 시간 사이에 많은 인구 유입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1930년대 부평의 모습은 이전과 사뭇 달랐다.

1899년에 개통 된 경인선 부평역에는 1934년 겨울이 되어서야 전기가 들어왔다. 이후 부평역 주변으로 크고 작은 공장의 건설이 이루어 졌는데, 대부분이 일제의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지원하는 군수공장들이었다. 공장이 들어섰으니 사람들이 부평에 모이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이 말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100년이면 강산이 열 번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라지만, 특히나 부평은 그 변화가 눈에 띄게 이루어진 곳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마을이 만들어졌다. 그 와중에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 마을도 있다. 오고가는 사람에 이리저리 치여 골목 하나를 지나려면 수 분이 걸렸던 시끌벅적한 시장 골목은 이제 시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산하다. 고단한 인생만큼이나 높은 곳에 자리했던 달동네는 흔적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 자리엔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가 들어섰다.

부평역 앞 너른 광장에 우두커니 서서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살피면 북쪽 끄트머리에 계양산 한 자락이 보일 뿐 그 외의 방향에는 온통 높은 건물로 가로막혀 시선이 멀리 이르지 못한다. 양쪽으로 세워진 빌딩은 마치 누가 더 높은가 뽐내는 듯하다.

문득 저 높은 건물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해진다.

조용했던 마을 부평이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한 병참기지화 된 큰 줄기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부평의 마을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다.

이 글은 부평의 마을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보고자 한다. 지금의 부평 마을뿐만 아니라 사라져 버린 마을의 모습도 기억을 더듬어 찾아볼 것이며, 부평 사람들이 어떤 공간 환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숲은 저 혼자 이룰 수 없다. 크고 작은 나무가 그루 그루 모여 숲을 이루듯 그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간 부평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면 그것 자체로 부평의 역사가 되기 때문이다.

1 사라진 마을, 남겨진 이름

1) 십정동_열우물마을

"5.678세대 대규모 단지"

얼마 전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시작한 십정동에서 재개발을 홍보하며 게첩한 현수막의 한 글귀이다. 사람들이 외우기 쉽게 일부러 맞춘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한눈에 띄는 세대수이며, 말 그대로 대규모 단지이다. 한 세대당 3인 가족으로 계산을 하면 십정동 재개발 지역에만 1만 7,000명이 새롭게 이주하는 것이다.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는 코를 높이 올리고 하늘을 쳐다보는 듯 그 높이는 눈으로 어림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깨끗하게 단장한 이 아파트 단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평의 마지막 달동네였으며, 사람들은 이곳을 열우물 달동네라 불렀다.

열우물마을의 공간구성

열우물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 중 현재까지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마을에 열 개의 우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이다. 우물의 수가 정확히 열 개가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 정도로 많은 우물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우물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수량도 풍부해 주변 마을이 가뭄으로 고생할 때에도 열우물마을의 우물은 마르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전한다. 열우물을 한자로 표기하면 '十井'이 된다. 행정동명인 십정동이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열우물마을은 다시 윗열우물마을과 아랫열우물마을로 나뉜다.(앞으로 윗열우물마을은 윗마을로, 아랫열우물마을은 아랫마을로 부르기로 한다.) 부평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었던 마을은 이 중 아랫마을이었는데, 이웃하고 있던 윗마을과 아랫마을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두 곳 중 마을을 먼저 형성한 곳은 윗마을이었다. 윗마을에는 창녕 성씨 집성촌이 있었는데 창녕 성씨는 마을의 탄생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윗마을의 시작은 1456년(세조 2)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세조가 어린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즉위한 지 3년이 지난 때였다. 성삼문과 박팽년 등이 중심이 되어 단종의 복위를 위한 거사를 꾀하지만 실패하였고, 이를 계기로 성삼문을 비롯한 사육신은 목숨을 잃고 그 일가는 멸문지화를 당해 뿔뿔이 흩어져버렸다. 이 때 성삼문과 6촌 관계였던 성습지가 식솔들을 이끌고 열우물마을로 피난하면서, 창녕 성씨의 세거가 시작되었다.

아랫마을은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시작되었다. 정확히 언제부터 마을이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야산에 드문드문 사람들이 모여 살던 것이 6·25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들어와 대강의 판잣집을 지어놓고 살면서 대략 마을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전쟁 이후에는 인천 전역의 철거민들이 이주하였고 1970년대 이후에는 근처에 세워진 주안제5·6공단 근로자들이 저렴한 집을 찾아 이곳을 찾았다.

아랫마을은 산비탈과 산등성이를 따라 조성된 달동네이다. 달동네는 높은 산자락에 위치해 달이 잘 보인다는 의미로 그 유래는 '달나라 천막촌'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TV 일일연속극 「달동네」 방영 이후부터다. 이 연속극이 큰 인기를 누리면서 '달동네'는 불량 노후 주택이 모여 있는 산동네의 대명사가 되었다.

산비탈과 산등성이를 따라 무계획으로 만들어진 마을이다보니 도로는 가파르고 골목은 구불구불했다. 보통 달동네에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은 산등성이 가장 정상부의 집을 선택한다. 열우물 달동네도 예외는 아니었다. 집에 오르는 길이 가파르기 때문에 집세가 다른 집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수도시설이 여의치 않았던 때에는 물을 사용하는 것에도 제약이 있었다.

가만 생각하니 참으로 아이러니다.

달동네 가장 꼭대기 집과 달동네를 밀어내고 같은 자리에 세워진 아파트의 가장 꼭대기 층.

하늘과 맞닿아 있는 이 두 꼭대기 집들은 각각의 시대에서 가난과 부를 상징하고 있으니 말이다.

열우물마을의 생활 민속

마을의 성격이 다른 만큼 윗마을과 아랫마을의 생활 민속에도 차이가 있었다.

창녕 성씨를 중심으로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던 윗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논농사를 근간으로 생활하였다. 쌀과 보리를 중심으로 배추와 무 등을 함께 재배하였지만 1969년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고 1970년 초 주안5·6공단이 조성되면서 농지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논과 밭은 급격한 인구 유입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시설로 변화되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테니스와 스쿼시 경기를 위한 열우물경기장이 건립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윗마을의 농지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규모이지만 아직도 윗마을에는 소규모의 텃밭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텃밭의 규모로 보면 생업을 위한 농사가 아니라 가족들이 나눠 먹을 목적으로 보인다. 도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여러 농기구와 함께 농기구를 보관해두는 창고 역시 몇 곳 남아있다.

부평의 마지막 달동네였던 아랫마을을 살펴보자.

도시화의 과정에서 탄생한 달동네의 문화에는 수많은 근·현대의 도시 민속이 존재하고 있다. 열우물 달동네도 예외는 아니었다. 열우물 달동네의 경우 이전까지는 분묘가 있던 곳이라 전통문화의 전승이 어려웠지만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키기도 하고 주변 마을의 전승 문화와 교류하면서 융합되기도 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마을 사람들은 아랫마을만의 독특한 생활 문화를 만들기도 했으며, 윗마을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마을 제의와 축제를 함께 하는 등 독특한 도시 민속을 만들었다.

마을이 사라지기 전까지만 해도 아랫마을은 영화와 TV드라마 속 배경으로 종종 등장했다. 때로는 가난한 주인공의 집이 있는 곳으로 때론 뉴스에나 나올 법한 끔찍한 범죄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 등장하기도 했으며, 모두의 추억 속에 간직하고 있을 따뜻한 이웃과 정이

있는 마을 공간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그 중 눈에 띄는 장면은 형형색색으로 예쁘게 칠이 되어 있는 마을의 담벼락과 계단을 배경으로 하는 장면이었다. 실제 아랫마을에는 이처럼 마을 곳곳에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아랫마을을 '열우물벽화마을'혹은 줄여서 '벽화마을'이라 부르기도 했다.

마을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1997년이었다. 달동네의 특성상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주택 건설을 한 것도 아니었고 제대로 된 건축 부재를 사용한 것도 아니었던지라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한 불량 주택은 늘어만 갔다. 사람들은 집에 문제가 생기면 임시방편으로 수리를 하며 살던가 어지간한 불편이 있지 않는 한 높은 수리비가 부담스러워 애써 모른 척하며 생활했다. 재개발에 대한 기대와 반복되는 좌절 속에 마을 사람들은 집과 상가의 수리를 포기하고 방치하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마을의 황폐화는 점점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첫 벽화는 마을 어린이들이 이용하던 해님 공부방 외벽에 그린 것이었다. 마을 초입에 위치했던 공부방 외관을 아기자기하게 꾸며 마을 이미지를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구불구불한 골목 속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공부방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림은 벽화를 그리고자 한 몇 명의 미술인들이 의기투합하여 진행하였다. 지자체의 도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벽화를 그리는 데 필요한 페인트와 붓은 개인의 호주머니 속에서 나왔고, 그들은 시간을 쪼개어 공부방 외벽에 벽화를 그렸다.

❖ 열우물 달동네의 벽화

벽화를 통해 마을의 환경을 개선해보자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2년부터였다. 이때는 '열우물길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전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016년까지 계속되었으며, 마을 담벼락과 계단, 전신주 등에 그림을 그려나갔다. '열우물벽화마을'이 조성되는 시간이었다.

열우물 달동네의 마을공동체

드라마 속 달동네는 때론 정과 사랑이 넘치는 낭만있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형편없는 반찬이 올려진 밥상이지만 가족과 주고받는 대화로 식사 시간은 즐거우며, 비록 고단한 오늘을 보냈지만 내일은 좀 더 나은 하루가 될 거라며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도 한다. 하지만 세상이 드라마처럼 녹록치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처럼 차가운 현실은 열우물 달동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제대로 된 보육시설이 없어 일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집을 홀로 지켜야 했고, 보육 공백이 길어질수록 아이들의 학업 역시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었다. 아이가 너무 어려 공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은 가계에 도움을 더하고자 부업을 선택했다. 육아와 살림 그리고 돈벌이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에 많은 여성들이 부업을 선택했지만 노동 강도에 비해 돌아오는 금액은 너무나 형편없었다. 돈이 아쉬운 건 어른들 뿐만이 아니었다. 아이들에게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장난감과 과자들은 닿을 듯 닿지 않는 '그림의 떡'이었다. 1980년대 후반 무렵 열우물 달동네 마을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침 뱉기 부업이 성행하였는데 '그림의 떡'을 자신의 입속으로 넣고 싶어 했던 아이들은 너도나도 침 뱉기 부업을 하였다. 인위적으로 침을 뱉는 것이 몸에 유해하다는 것은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여겼다.

1988년에서 1989년에 이르기까지 달동네 마을에서 어린이들이 일정 양의 침을 모아 오면 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침 뱉기 부업이 성행하였다. 이는 인천의 한 제약회사에서 백내장 및 노화 방지 치료제를 개발하는 원료로 사용하고자 아이들의 침을 모은 것이었다. 학교 앞 문방구나 오락실처럼 아이들이 자주 들락거리는 곳에서 부업 모집이 이루어졌고 아이들은 침을 뱉으면 돈을 준다는 사실에 열심히(?) 침을 뱉었다.

보육 공백과 아이들의 학습 부진, 침 뱉기 부업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건강권 약탈 등 열우물 달동네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이러한 마을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한 것이 마을공동체 '해님방'이었다. 4명의 여성이 중심이 된 이 마을공동체는 당시 마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보육 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1986년 해님놀이방과 공부방의 문을 열었다. 이후 이 두 기관을 합쳐 '해님방'이라 불렀는데, '해님방'은 마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활동 영역을 점차 넓혀갔다. 여성

들이 양질의 부업을 할 수 있도록 공동 부업장을 만들었고, 침뱉기 부업이 사라지도록 다양한 민원 활동을 펼쳐 결국 제약회사가 더 이상 침 뱉기 부업을 못하게끔 하였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에 따라 결식아동이 발생하자 해님밥집을 운영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았고, 가사는 여성들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시절 가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까지 해야 했던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 공동세탁장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해님방의 가장 큰 활동은 암암리에 진행된 여성들의 불법 불임수술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보건 당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낸 것이었다.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라는 구호를 강력히 외치던 1980년대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가족계획정책이 펼쳐지던 때였다. 인구 절벽을 호소하며 각종 출산장려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국가는 산아제한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그 중 하나가 영구피임시술이었다. 확실한 산아제한을 원했기 때문에 불임시술을 받은 가정에게는 각종 혜택이 주어졌다. 또한 불임시술을 진행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수술 한 건당 일정의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로 인해 각 병원에서는 시술 환자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시술 의지를 내비친 후에는 번복하지 못하도록 여성의 신분증을 수거하고 시술 종료 후 돌려주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으며, 시술 전후로 부작용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 인권유린에 가까운 이러한 영구피임시술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해님방'은 해당 문제를 언론사에 제보하여 사회문제로 공론화시켰으며,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여성에 대한 관계 부처의 회복 지원을 이끌어 냈다. 또한 불법 모집의 재발 방지와 시술의 부작용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것을 약속받았다.

이후에도 해님방은 여러 활동을 펼치며 마을 대소사의 중심에 있었다.

❖ 해님공부방

주변을 살피며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은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그 안에서 저마다 더 빨리 더 멀리 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다. 이렇게 팽팽한 레이스가 펼쳐지는 와중에 나 혼자가 아닌 서로를 보듬고 이끌며 나간 것이 열우물 달동네의 마을공동체인 것이다. 열우물 달동네가 공사장의 먼지로 사라진 지 오래지만 그 이름만큼은 아직까지 우리 곁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평의 마지막 달동네'라는 수식어 때문이 아니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끈끈한 마을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어쩌면, 부평의 마지막 달동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마을공동체가 사라진 것일 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해님방과 같은 공동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2) 산곡1동_화랑농장

백운역 쪽에서 현대아파트 3단지와 부광고등학교 앞 언덕을 따라 약수터 고개를 넘으면 유독 '화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인다. '화랑'을 붙인 가게 간판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제법 규모가 큰 교회의 이름에도 '화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화랑베스트

빌, 화랑연립, 화랑탑스빌처럼 주택단지에도 예외 없이 '화랑'이 들어가 있다. 심지어 도로명도 화랑로이다. 산곡3동의 일부 지역인 이곳은 '화랑'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김국환과 화랑농장

요즘 세대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이용사는 군에서 복무하다가 부상으로 인해 제대를 한 병사를 의미한다. 상이군인이라고도 부른다.

1953년, 상이용사 김국환이 중심이 되어 상이용사들의 자활을 위한 협동농장을 만들고 '신라의 화랑도 정신을 본받자'는 의미를 담아 이곳을 '화랑농장(花郎農場)'이라 이름 붙였다.

화랑농장은 상이용사 김국환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창설부터 운영까지 그의 역할은 실로 막중했다. 1928년 평안북도 벽동군 송서면에서 태어난 김국환은 어린 시절 대부분을 만주에서 보냈다. 북경에 있는 광복군 3지대 북경대대 2중대 소속으로 항일투쟁을 하였고 해방 후 잠깐 고향으로 돌아갔다 가족들과 함께 월남하였다.

1949년 육군에 자원입대하였는데, 복무 중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자연스레 참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포항 영덕 지구 전투 중 총상을 입었고 평생 총알 파편이 몸 안에서 돌아다니는 후유증을 겪으며 살아야 했다. 9개월간의 치료를 마치고 육군 제839부대로 전속되었는데, 이 부대는 사실상 재복무가 불가능한 상이군인들이 배속되는 곳이었다.

3년여 간 이어진 동족상잔의 비극은 정전협정으로 인해 가까스로 멈췄지만 문제는 이후부터였다.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김국환과 같이 부상의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상이군인의 경우 당장의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국가는 아주 소액의 생활지원금을 지원 해 줄 뿐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결국 이들은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쓰레기를 뒤지는 넝마주이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정부의 보상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했다.

김국환과 같이 이북 출신의 국군은 돌아갈 곳마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더 컸다. 김국환은 300여 명 정도의 상이군인들과 함께 1951년 가을, 산곡동 함봉산 자락에 터를 잡았다.

화랑농장은 1953년 창설하였지만 산곡3동에 상이군인들이 터를 잡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2년 전인 1951년 부터였다.

당장 집을 지을 돈도 자재도 없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만든 지하호에 머물며 숙식을 해결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황폐한 땅을 개간하는 것이었다. 돌을 골라낸 땅에는 보리와 야채를 심었다. 소와 돼지 사육을 함께하였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입만으로 화랑농장 상이군인들의 완전한 경제적 자립은 불가능했다.

❖ 상이군인들의 지하호 생활 모습(부평역사박물관 제공)

화랑농장의 변화

1951년, 이북 출신의 상이군인 30여 명이 이곳에 처음 자리를 잡은 지 2년 뒤인 1953년 5월 화랑농장은 현판을 걸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 무렵 화랑농장 상이군인은 192명으로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 구성원이 증가한 만큼 화랑농장의 수입은 더 많아져야 했지만 척박한 환경에서 쉽사리 수입이 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어렵게 개척한 땅이 실제는 미군 부지라 하여 졸지에 화랑농장 부지 4만 평 중 3만 평을 반납하는 어려움도 겪어야 했다.

미군은 어떻게 화랑농장 땅의 주인이 되었을까?
일제는 1923년 이곳을 포함한 너른 부평의 땅을 일본군 제 20사단이 관할하는 군사훈련 목적의 '부평연습장' 조성을 계획하였고 실제로 야포 및 총격 훈련을 하는 연습장으로 사용하였다. 해방 후 일제가 사용하던 군사시설은 미군에게 그대로 이양되었기에 땅의 주인이 미군이 되었다.

화랑농장을 창설하기 1년 전인 1952년, 김국환은 천막동 하나를 설치하고 십자가를 걸어 화랑교회를 세웠다. 당시 부평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김국환은 향후 화랑농장 운영에 미군의 여러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여 영어 구사가 가능한 목사를 초빙해 운영하였다. 미군과 유기적인 관계가 화랑농장의 발전에 필요할 것이라는 김국환의 예상은 적중했다. 미군은 화랑교회 예배당 건립을 원조하였으며, 3만 평의 부지를 미군에 반납해야 했던 위기의 순간에서 부지 반납에 대한 보상으로 화랑농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기술을 원조하였다. 상이군인의 노력과 미군의 원조로 1955년 3월 3일, 화랑농장 신축 공사 낙성식이 거행되었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는 규모를 갖춘 유일한 집단농장'이라 평하였다.

❖ 1953년 5월 6일 화랑농장 창설 기념사진 (부평역사박물관)

❖ 화랑농장 신축 공사 모습 (부평역사박물관)

그러나 1961년 화랑농장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쇠퇴하여 집단농장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름만 남게 되었다. 이후 경기도의 제안으로 1962년 부녀보호소이자 직업훈련원인 협성여자기술교도원으로 재탄생하였다. 협성여자기술교도원의 운영을 위해 김국환은 모든 재산을 재단 법인화하여 협성원을 출범시켰다. 당시 부평에는 미군기지 주변으로 기지촌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성여자기술교도원에 입소하는 여성들 대다수가 부평의 기지촌 여성들이었다. 이곳에서는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미용 훈련 등의 직업기술을 교육하였다. 이후 1973년 미군의 철수와 함께 기지촌 여성들도 점차 사라지게 되면서 협성여자기술원은 같은 해 협성원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였고 1992년에는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여 협성양로원을 설립, 1995년 12월에는 노인 요양시설인 협성요양원을 개원하였다.

❝ 협성여자기술양성원 김옥환 여사(양지를 찾아)

공휴일만 되면 찾아오는 졸업생들이 조그만 성의나마 과일을 사들고 자기들의 재생의 기쁨을 말 할 때마다 제일 삶의 보람을 느낀다는 협성여자기술양성원장 김옥화(46)여사는 그러나 좀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란다.

북구 산곡동 산25번지에 자리잡은 실습실, 기숙사, 식당 등 5동의 건물과 함께 동재단으로부터 운영을 위임받은 것은 68년 2월. 외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홀로 사는 김여사는 원래 서울 낙원동에서 약국을 경영하여온 약사. 가산을 정리하여 이곳에 온 지도 벌써 1년, 그동안 1백 20여 명의 졸업생을 사회에 내보냈다.

가정과 사회의 부조리로 인하여 길거리를 헤매고 윤락의 길로 빠졌던 소녀들이 도 당국의 구호의 손길 아래 기박된 이들 원생들은 따뜻한 잠자리와 이미용 기술 습득에 여념이 없으며 실습을 겸하여 인근 4개 고아원 및 4개 한국군 부대에 무료 실습 및 봉사를 하고 있다.

현재 70명의 원생을 수용하고 있는 김여사는 특히 원생들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도 당국에서 지급되는 1인당 4홉의 양곡 및 부식비로서는 부족하다면서 미258 통신대에서 수시로 받는 약간의 원조와 기독교 봉사회에서 받는 원조 외에 부족되는 경비는 전부 김여사가 손수 메꾸어 나간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김여사는 원생들이 실습으로 번 돈은 각 원생들 앞으로 저금을 시켜 졸업 때 통장을 주어 재생길에 도움이 되라고 온정을 베풀기도 하며 이곳을 졸업한 원생들은 100% 취업돼 나가며 가냘픈 소녀로서는 많은 일당 3백50원 내지 4백원의 수입을 올린다.

실지로 무보수에 가까운 수당을 받고 일하고 있는 직원 및 기술교사들도 김여사의 뜻을 받들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9개월 동안 기술교육은 물론 소양교육까지도 겸하여 앞으로 이들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교육을 시켜 성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김여사는 그러나 이들 불우소녀들이 양성원에 들어오기 이전의 문제로서 좀더 따뜻한 사회의 온정과 사회복지제도가 아쉽다고 말하면서 이전에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사회사업에 발을 들여논 이후 자기 삶의 길을 딴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며 소신껏 일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는 김여사는 밤낮으로 이들 원생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데 여념이 없다.

지난 8·15 23주년 기념식전에서 김여사는 박경원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지역사회개발의 공을 높이 평가받아 감사장을 수여받는 바 있다. 『경기매일신문』 1969년 11월 14일자. ❞

현재 화랑농장에서 상이군인을 찾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상이군인 대다수가 고인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장의 기능이 상실되었던 때 상이군인들이 저마다 생계를 위해 뿔뿔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각해보면 화랑농장의 수명은 1951년 처음 산곡동에 자리 잡은 후부터 1961년 농장 해체까지 불과 10여 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랑농장이라는 지명이 아직까지 우리 곁에 숨 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랑농장 일대 역시 머지않아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간간히 전해진다. 정확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지만 동네가 낙후되어 어떤 형식의 개발이든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 이다. 마을 주민들 역시 개발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는다. 도시화 속에서 개발은 필연적이다. 또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과거의 시간은 완전히 먼지가 되어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로 숨결이 더해지기도 한다. 과거의 시간을 어떤 형태로 남겨두는가는 온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다. 이미 사라져버려 이름만 남은 화랑농장은 과연 개발의 바람 앞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3) 청천동_맑은내마을

부평 대부분의 마을이 그랬던 것처럼 청천동 역시 작은 마을에 불과했다. 서쪽으로는 원적산과 장수산이 있고 청천천과 세월천이 마을 주변으로 흐르고 있었다. 청천동의 대부분은 밭이었고 드문드문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평범했던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무렵으로 한센인들이 중심이 되어 장수산 안쪽에 대규모 양계농장인 청천농장을 조성하면서부터다. 이후 부평수출산업공단이 조성되어 크고 작은 공장들이 들어섰고 마을은 공단 노동자들의 주거지로 역할을 하였다. 공단 내 입주한 공장뿐만 아니라 10명 미만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청천동은 공장과 노동자들로 대표되는 마을이 되었다.

한센인과 청천농장

부평에 한센인이 정착하게 된 것은 나시인(羅時人) 한하운과 깊은 관계가 있다. 오늘날에는 완전 치료가 가능한 한센병은 한 때 의학 기술의 부족과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정확한 진료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던 1940년대 말 정부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한센인을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정부는 1949년 9월, 한센인이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부평에 세우고 수원과 춘천 등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한센인을 이주시켰는데, 이 때 한센인 대표로 정부와 교섭을 한 이가 한하운이었다.

한하운은 한센인의 집단 거주촌을 '성계원'이라 이름 지었는데 이는 1960년 국립부평나병원이 되었다. 이후 음성 판정을 받은 한센인들 중 천주교인은 '십정농장', 기독교인은 '청천농장'으로 각각 이주하였다.

1961년 약 600여 명의 한센인이 청천동으로 이주하였고 이들은 청천농장을 설립하여 양계 사업을 하며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였다. 청천동에 정착한 지 약 15년이 지난 1976년 무렵에는 청천농장의 1일 달걀 생산량이 6만 개, 성수기에는 10만 개 이상에 이를 정도로 번성하였다. 확실한 경제적 자립을 이룬 셈이다. 대규모 양계 농장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청천농장을 양계마을이라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공포가 있어서 청천농장과 이웃 마을의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같은 청천동 안에 있었지만 청천농장에 다른 마을 사람들이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한센인들 역시 길을 지날 때에도 이웃 마을을 지나지 않고 우회하는 등 두 마을의 사람들은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청천농장의 양계사업은 나날이 발전했지만 농장에서 흘러나오는 분뇨 냄새와 오수로 인해 주변 마을의 지속적인 항의로 끝내 농장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부평의 경계를 나눈 경인고속도로

부평의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북쪽의 경계는 마치 자를 대고 선을 그은 듯 일직선으로 되어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 인위적인 북쪽의 경계가 바로 경인고속도로이다.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의 건설은 경인공업지역으로의 인적·물적 집중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해 추진되었다. 1966년 경인지구특정 지역건설 종합계획안이 발표되어 경인고속도로의 건설이 가시화되었다. 1968년 3월 24일 착공하여 이듬해 12월 21일에 가좌IC까지 1차 개통, 1969년 7월 21일에 인천 종점까지 완전 개통하였다. 총 공사비는 31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다.

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 청천동과 이웃하고 있는 효성동은 같은 생활문화권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두 지역 간 교류가 이전과 달리 어려워지게 되었고

1995년 북구가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가 되는 과정에서 경인고속도로 아래에 있던 효성동과 작전동의 일부가 청천동으로 편입되었다. 한때 같은 생활문화권으로 묶여 있었지만 경인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구(區)를 달리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노동자의 마을

1969년 부평 청천동과 갈산동, 계양구 작전동으로 이어지는 수출산업공단이 조성되었다. 수출산업공단의 조성은 청천동과 갈산동뿐만 아니라 부평 전역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나 공단이 들어섰던 청천동에는 크고 작은 공장의 입주와 동시에 노동자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서 급격한 인구 증가를 맞이하게 되었다.

부평수출산업공단에는 동서식품, 삼익악기, 반도상사 등 지금도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을 비롯해 비록 규모가 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당시 수출 주력 상품이었던 섬유 및 가발 제조업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5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였다. 이러한 공장은 단순히 공단 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공단 내 입주한 대규모 공장의 하청을 받기 위한 기계 공장, 봉제 공장 등이 마을 안에 세워지기 시작했다. 마을을 비집고 들어온 공장들은 대부분이 영세하여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상가의 지하에 위치하거나 때로는 불법 건축을 하여 공장을 운영하였다. 이처럼 골목에 주로 위치하는 작은 가내수공업 형태의 공장들은 일명 마찌꼬바(일본어로 길거리를 뜻하는 마찌(まち)와 공장을 뜻하는 고우바(こうば)의 합성어)라 불렀다.

하루가 달리 늘어나는 사람들을 위해 청천동 내 과수원과 밭이 있던 자리까지 주택이 건설되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셋방살이를 했으며, 건물주들은 더 많은 세를 내기 위해 건물을 쪼개어 방 한 칸 부엌 한 칸의 셋방을 만들었다. 당시 청천동에서 거주했던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셋방은 열 개가 넘는데 비해 공동화장실은 하나뿐이라 출근 준비를 하는 아침에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비좁은 방이 여러 개 이어져 있어 이러한 형태의 집을 사람들은 흔히 '닭장'이라 불렀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시 『승천』 (김해자 作)

한 집 건너 지하공장
미싱 소리 드르륵대던 곳
사철 시꺼먼 하늘만 내려앉던 청천동
십자약국 골목 파란 대문
빨간 닭장집 안 녹색 부엌문
방문 벽에 걸린 푸른 작업복
왼편에 하얀 명찰 생산2과 김정례
앉은뱅이책상 앞에 <해고무효소소송 승소판결문>
옆에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재, 안에 쓰다만 편지
"공부 열심히 해. 돈 걱정 말고 누나만 믿어라"
방문턱에 걸린 두 발
부엌 바닥에 늘어뜨린 긴 머리칼
아궁이에 타다 만 연탄
잠긴 문 바라보다 멈춘
반쯤 열린 눈
밖에 하얀 눈

'닭장'이라는 말이 대신해주듯 당시 노동자들의 삶은 고단했다. 강도 높은 노동과 긴 노동시간, 열악한 노동환경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위협하였다. 때로는 사업주를 비롯한 관리자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고된 생활은 공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보육시설의 부재로 홀로 남겨지는 아이들은 맞벌이 공장노동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맞벌이 가정의 '남겨진 아이들'은 제때 끼니를 해결할 수 없었으며, 자연스레 학습부진자가 되었다.

1969년 공단 운영이 시작되고 이후로 청천동에 크고 작은 공장이 들어서며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세워진 것은 그로부터 약 20년 후인 1989년이었다.

햇살공부방은 청천동에 세워진 최초의 비영리 탁아소이다. 설립자 이명숙은 청천동에 있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였다. 보육시설이 없던 때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따라 공장에 온 아이들이 재봉틀 아래서 먼지를 마시며 노는 모습을 보고 노동자들을 위한 탁아소 건립의 필요성을 느껴 탁아소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탁아소 건립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마침 오랫동안 청천동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활동을 하고 있던 백마교회에서도 이명숙과 같은 고민을 하며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였다. 탁아소 건립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였으나 문제는 재정이었다. 당시 갈산동에서는 한독금속노조 회원들의 아내들이 주축이 되어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노동자들을 위한 탁아소 운영 필요성을 이해한 조합 회장이 설립 자금을 빌려주면서 1989년 10월 청천동 최초의 탁아소인 햇살공부방이 문을 열게 되었다.

광야교회와 백마교회

햇살공부방의 설립을 함께한 백마교회는 민중교회이다. 백마교회는 1974년 광야교회로 시작되었다. 청천동 179-15번지에 문을 연 광야교회는 부평지역 산업근로자들에 대한 선교가 목적이었다. 교회의 규모가 크지는 않았으나 노동자들의 교육 및 상담 활동을 통해 노동자 기본권 신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

노동집약적 수출정책을 펼친 결과 이농에 따른 농촌의 낙후, 도시 빈민의 증가, 양극화의 심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선성장 후분배의 경제정책에서 분배가 실패함에 따라 계층 간의 불균형과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동자들과 도시 빈민, 농민들은 소외 계층이 되었는데,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노동운동, 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동자를 비롯한 도시 빈민 등 소외된 이들을 민중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 말부터 민중신학, 민중사회학, 민중문학 등이 태동하였고 이러한 민중운동을 교회적으로 흡수한 것이 민중교회였다.

1980년 광야교회는 백마교회로 이름을 바꾸었고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특히 의료보험이 없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청천동과 산곡동 인근 지역의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저렴한 금액으로 진료를 볼 수 있는 의료봉사를 주도하였고, 부부노동자들의 자녀들을 돌보는 선교원, 노동 청년을 위한 배움터와 도서실 등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군사정권 시절 눈엣가시로 여겨져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백마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1988년 경찰은 백마교회 안에 설치한 주말 진료소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여 진료실에 있던 각종 의료기기 및 약품, 주민진료 기록부 등을 압수하였고 진료장소를 제공해 주고 이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담임목사를 구속하였다. 불법 진료라는 경찰의 발표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11개 의료단체를 비롯하여 백마교회 신도 및 인천지역 목회자 200여 명이 선교 탄압에 대한 항의와 함께 관계자 석방을 위한 시위를 진행하였다.

공단을 비롯한 주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 많은 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경제활동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일을 하며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 노동자들이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공장생활을 하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공부를 하고 싶은 노동자들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야학에 나가는 것이었다. 당시 노동자 야학은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백마교회 역시 '열매배움터'란 이름으로 야학을 운영하고 있었다. 백마교회 야학의 교사들은 대략 10여 명가량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대학생이었다. 학생들의 목표는 검정고시의 통과였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은 대략 1년 정도로 이루어졌다. 검정고시를 위한 기본 교과목 외에도 노동법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가르치기도 했다.

백마교회의 야학은 1987년까지 운영되었다. 1987년을 전후로 각 공장별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자체적으로 교육하게 되었고,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검정고시 학원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었다.

노동자들과 함께한 백마교회는 사라졌고 2022년 초 노동자들과 함께한 백마교회 자리에 작은 표석 하나가 세워졌다.

❖ 광야교회와 백마교회 기념석(부평구청)

미싱을 돌리는 소리와 함께 크고 작은 공장에서 내뿜던 기계 소리는 이제 멈췄다.

닭장이라 불리던 옛집들 역시 사라졌고 간혹 그 흔적을 골목에서 흐릿하게 찾을 수 있을 뿐이다. 맞벌이 노동자들을 위한 첫 탁아소인 햇살공부방은 햇살어린이집으로 이름을 바꾸고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다. 노동자의 흔적 대부분이 지워져버린 청천동에 남아있는 단서 하나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산업화가 한참 이루어지던 때 노동자들과 도시 빈민, 농민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었다. 노동자가 대다수였던 청천동 사람들 역시 여기에 속했다. 노동자들의 이야기와 요구는 무시해도 될 것으로 치부하던 때인지라 누구도 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고 그들의 생활에 관심 두지 않았다. 서로를 보듬으며 문제를 해결한 이들은 정치인도 국가도 아닌 바로 평범한 청천동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사비를 털어 탁아소를 세워 운영했으며, 교회에서는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았다. 공부가 하고 싶은 노동자들을 위해 야학을 기꺼이 열었으며 이 과정 중 정부의 탄압을 받기도 했다.

상생과 공생은 이상적인 사회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실현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서로 지향점이 달라 상생과 공생보다는 충돌과 대립이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충돌과 대립이 난무하는 오늘날 청천동 사람들이 남긴 상생과 공생의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4) 부평2동_삼릉마을

부평2동에 들어서면 유난히 '삼릉' 혹은 '삼능'이라는 상호가 많이 보인다. 삼릉(三菱)을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세 개의 마름모'라는 뜻으로 이는 일제강점기 대표적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사의 마크를 의미한다. 부평2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릉마을'이라 부르는데 이를 줄여 '삼릉'이라 부르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사택마을'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이름으로 부르건 '미쓰비시'가 중심에 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부평2동 전체가 삼릉마을인 것이 아니라 특정 공간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릉'이라는 단어가 부평2동의 대명사와 같이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단어가 대치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적 의미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삼릉마을의 시작과 변화

'삼릉'이라는 단어가 마을의 이름에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42년 이후부터다. 미쓰비시중공업(주)이 자금난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히로나카(弘中)상공 부평공장을 인수한 후 부평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히로나카상공은 공장과 함께 중견 기술자 양성을 위한 기술자 양성소 및 숙련공 양성을 위한 공원양성소를 지금의 부평공원 자리에 설치하였다. 또한 공장과 가까운 부평2동에 사택을 건설했다.

한 때 조선의 우량주로 승승장구하던 히로나카상공은 무리한 사세 확장으로 자금난을 맞이하였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1942년 미쓰비시중공업(주)에 매각되었다. 히로나카상공의 공장과 사택을 인수한 미쓰비시중공업(주)은 같은 해 미쓰비시제강(주)으로 이름을 바꾸고 미쓰비시제강(주) 인천제작소로 재편하면서 삼릉마을의 시작을 알렸다.

히로나카상공은 1937년 오늘날 부평공원 자리에 대규모 기계공장을 건설했다. 히로나카상공에서는 기계 설계 및 판매를 비롯해 광산 기계 등을 생산하였다. 당시 히로나카상공의 사업은 번성하여 1938년에서 1940년 초반까지 조선의 주식 붐을 주도하는 우량주로 각광받았다.

히로나카상공의 공장이었다가 미쓰비시제강의 공장이 있었던 자리는 1990년대 말 부평공원으로 바뀌었다. 1990년대 중·후반 까지만 해도 당시의 건물이 남아있었으나 공원으로 변화되면서 모두 철거되어 지금은 그 모습을 확인할 길이 없다. 사택은 해방 후 기지촌 여성과 공단 노동자 등으로 주인을 바꿔가며 비교적 최근까지 남아있었으나 현재는 대다수가 철거되어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다.

❖ 부평공원이 들어서기 전 88정비부대의 모습(부평구청)

해방 후 미쓰비시제강 미군이 접수하였고, 미군의 철수 후에는 한국군 88정비부대의 기지로 사용되었다. 해당 사진은 1996년 촬영한 것으로 당시까지만 해도 미쓰비시제강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쓰비시가 남기고 간 사택의 새로운 주인은 기지촌 여성과 미8군이나 미군기지 주변 클럽에서 밴드 공연을 하는 뮤지션들이었다. 기지촌 여성들 중에서도 미 장교들과 계약동거를 하며 '현지처'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주로 삼릉에 거주했다. 계약 동거를 하는 기지촌 여성들은 미군의 식사를 준비하고 군복 세탁을 해주는 등 기본적인 살림을 봐주는 대신 생활비와 월급을 받으며 생활했다. 동거를 위한 집도 미군이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동거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삼릉에 거주하는 기지촌 여성들은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기지촌 여성들을 통해 미군 PX에서 판매하는 소시지나 통조림, 빵을 비롯한 각종 식료품과 화장품, 커피, 담배 등이 흘러 나와 삼릉은 미제 물건이 넘쳐나는 곳이기도 했다.

기지촌 여성과 함께 삼릉마을의 새로운 주인이 된 이들은 뮤지션들이었다. 많은 뮤지션들이 삼릉에 거주하게 된 배경에는 부평 미군 기지를 비롯해 주변의 많은 클럽에서 공연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빌보드 차트에 오른 인기 팝송들의 '빽판'(불법복제음반)을 구해 채보를 하고 연습을 하며 생활했다. 최신 유행의 음악을 파악하기 위해 매일 AFKN을 듣는 건 뮤지션들이 해야 할 일 중 하나였다.

> "AFKN을 들으면 아나운서가 영어로 말 한 다음에 음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노래 제목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 음악을 들으면서 들리는 대로 악보를 그려요. 그리고 낙원시장이나 이런데 가서 기타를 쳐서 곡을 들려주면 주인이 대략 알아듣고 빽판을 찾아 줘요."
> 구칠성(유니버셜 클럽 매니저, 2020년 12월 10일 제1차 구술)

뮤지션들의 가장 큰 목표는 미8군 클럽 무대에 오르는 것이었다. 까다로운 미8군의 오디션을 통과한 밴드만이 무대에 오를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무대에 오른다는 것은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여기에 더해 일정 기간 동안 공연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었고 동시에 고수익이 따랐다.

애스컴에서 연주를 하는 밴드 뮤지션들은 보통 오후 5시 무렵 지금의 동수역 부근에서 집결하여 미군 버스나 트럭을 타고 부대로 들어가 공연 준비를 했다. 삼릉에 거주하는 뮤지션들도 있었고 서울에서 오는 쇼 단원들도 있었다. 이들 공연은 밤새 진행되어 새벽녘이나 되어야 마무리되었는데 당시는 통행금지가 있었던 때라 미군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다.

애스컴 내에는 계급별로 출입이 제한되는 클럽이 여럿 존재했다. 계급에 따라 연령대가 달랐기 때문에 선호하는 음악이 달랐으며, 밴드 뮤지션들은 자신이 어떤 클럽 무대에 오르는지에 따라 능동적으로 연주곡을 바꿔야 했다. 당시에는 흑백 갈등이 심하던 때로 흑인과 백인이 출입할 수 있는 클럽이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들 역시 선호하는 음악이 달랐기 때문에 밴드 뮤지션들은 연령에 따라 그리고 인종에 따라 선곡을 신중하게 해야 했다.

❖ 애스컴시티 내 클럽과 클럽 내부(부평역사박물관)

밴드 공연은 부대 내 클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부대 밖에도 미군들이 찾는 크고 작은 규모의 클럽이 있었는데 비교적 규모가 있는 클럽에서는 별도의 무대를 설치하고 밴드를 섭외하여 공연을 진행하였다. 이 경우에도 미8군 무대에 선 이력이 있는 밴드는 더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설 클럽에서 진행하는 공연이다 보니 무대나 음향 장비가 부대 내 시설에 비할 바가 아니었고 밴드 규모도 4~5인 정도로 한정되었다.

삼릉마을에는 유니버셜 클럽과 원더랜드 클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니버셜 클럽은 장교들이 주로 찾았던 곳으로, 조명 시설을 갖춘 무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규모가 제법 컸다.

❖ 삼릉에 위치한 유니버셜 클럽에서 밴드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구칠성 제공)

밴드 뮤지션들은 무대 의상과 악기를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했다. 클럽에서 공연을 하면 매니저로부터 별도의 출연료를 받았지만 이보다 더 큰 수입원은 클럽 손님들로부터 받는 팁이었다. 소위 '잘 나가는 밴드'가 되려면 철저한 악기 관리는 물론 세련된 무대의상 역시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었다.

1970년대 삼릉마을에 밴드 뮤지션들을 중심으로 한 '두두회'라는 모임이 조직되었다. 콩 두, 머리 두의 한자어를 합친 것으로 콩 두는 오선지 위의 음표를 의미한다. '두두회'는 일일찻집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와 어울리고자 했다. '두두회'와는 별개로 '부평중앙회'라는 뮤지션 모임도 있었다. '두두회'가 삼릉에 있는 뮤지션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것이라면 '부평중앙회'는 부평 전체 뮤지션들을 대상으로 조직한 것으로 '부평의 음악인들이 우리나라 음악 발전에 중심이 되자'라는 의미를 담아 '부평중앙회'라 이름 지은 것이다.

한 때 마을의 주축이 되었던 기지촌 여성과 밴드 뮤지션은 미군 기지의 철수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유니버셜 클럽과 원더랜드 클럽은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한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클럽으로 변모하였지만 오래 운영되지는 못했다.

부평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은 해외에서 유행하는 최신 팝음악을 재빨리 습득하고 가장 먼저 국내 대중음악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오죽하면 부평에서 몇 개월 전 유행했던 팝음악이 도리어 서울에서 뒤늦게 유행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음악 발전에 중심이 되자'는 당창 포부를 안고 모임까지 조직했지만 미군 부대의 철수로 부평의 뮤지션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지금은 그저 먼 기억 속에서만 자리하고 있다.

미군 기지의 철수와 함께 떠난 기지촌 여성과 뮤지션들의 자리는 인근의 수출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비교적 저렴했던 집세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찾았던 것이다.

현재 삼릉마을의 중심이었던 사택은 대부분이 철거되어 아주 일부만 남아있다. 철거된 사택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인지라 철거가 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여 그 의미를 지속적으로 되새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나, 이미 무너져 버린 것을 그리워한다고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 법. 비록 철거되어 사라져버렸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쓰비시 사택이 담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보고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 한때 엄혹한 시절을 같이 버텨 낸 많은 건물들을 떠나보내고 지금은 외로이 그리고 초라하게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나머지 사택 건물들이라도 하루 빨리 보존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철도 관사

삼릉마을이라는 경계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미쓰비시 사택이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삼릉마을이라 불렀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경우 부평 남부역 인근까지를 삼릉마을로 인지하기도 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건설된 철도 관사를 미쓰비시 사택으로 오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인선을 부설한 일제는 원활한 철도의 운영과 유사시 군사 수송 등과 같은 특별한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철도종사원들이 역 인근에 머물 수 있는 집단 거주 시설을 건설하였다. 부평역 인근에도 이러한 시설이 있었다.

부평역 남쪽에 맞닿아 있는 곳에도 2호 연립의 관사 16동(32호)으로 조성된 집단 거주 시설이 있었는데 이를 '철도 관사'라 한다. 당시 주거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하였으며 주로 일본인 직원들이 거주하였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대부분 다 철거되었고 단 한 채 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 1947년 철도관사 항공 사진 (출처 : 인천광역시 지도 포털)

❖ 부평2동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철도 관사

5) 부평3동_신촌

경원대로를 사이에 두고 캠프마켓 정문과 마주 보고 있는 마을, 이곳은 부평3동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신촌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다.

신촌은 말 그대로 '새로운 마을'이라는 뜻이다. 사실 이곳에 마을이 조성된 것은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1920년대 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1930년대 중·후반부터 사람들이 들어와 살며 '새로운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아 신촌이라 이름 붙인 것이 시작이다.

기지촌 역사의 시작

몇몇의 사람들이 거주하던 작은 마을 신촌이 북적이게 된 것은 해방 후 인천육군조병창을 미군이 접수한 이후부터다. 많은 수의 미군이 부평에 주둔하자 이들을 상대하는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고, 이는 부평 미군 기지촌의 시작이 되었다. 신촌과 삼릉은 같은 기지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었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미군 부대 정문과 마주하고 있었던 신촌에는 주로 일반 사병들이 찾았으며, 삼릉에는 영외생활이 가능하여 '현지처'를 두고 계약 동거를 하는 장교들이 주로 살았다. 이웃하고 있는 두 마을의 온도 차는 비단 미군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상대하는 미군의 계급에 따라 기지촌 여성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발생하였다.

신촌은 그야말로 미군을 위한 마을이었다. 경원대로 변을 따라 미군의 편의를 위한 많은 상점들이 들어섰고 서툴지만 대부분의 대화가 영어로 오고 가는 등 이 무렵 여느 부평의 마을과는 구별되는 분위기였다.

❖ 미군을 위한 각종 상점이 들어선 신촌의 거리

전쟁의 후유증에 따른 극심한 경제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겪어야 했던 때에도 신촌은 미군 부대 및 기지촌을 기반으로 한 많은 일자리와 이를 통해 흘러나오는 달러로 실업률이나 경제 상황이 다른 곳에 비해 나은 편이었다. 이는 곧 부평의 경제와도 연결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의 사람들이 신촌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했다. 미군과 한국인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각종 범죄가 들끓었고 혼혈아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 이 시기 신촌에서 발생한 폭력 및 마약 문제 등을 기사로 접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신촌 주민들 사이에 아직까지 뇌리를 떠나지 않는 사건이 있다. 1969년 5월 신촌에서 스물세 살의 젊은 여성이 미군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젊은 여인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여 주민들과 기지촌 여성들이 여인의 상여를 메고 부대 정문 앞에 몰려가 항의 시위를 한 것이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미 헌병 50여 명과 한국 경찰 30여 명이 출동하였고 진압과정 중 20여 명의 한국인이 부상을 당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시위대는 해산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침을 거부한 스물다섯 살의 여성이 미군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신촌의 주민들과 기지촌 여성들은 이러한 미군의 범죄에 대응하여 함께 상여 시위를 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미군의 대응을 요구하는 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했다.

혼혈 아동을 품은 곳

2015년 인천의 지역지에 한 미국 입양 여성이 생모를 찾는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여성은 1957년에 태어났으며 1961년 아버지로 추측되는 미군에 의해 서울 고아원으로 보내져 같은 해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5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당시 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그녀의 입양 기록인 '해외 입양 이민 승낙서'뿐이었다. 입양승낙서에는 그녀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김장수'라는 이름과 '인천시 부평동 287번지'라는 주소가 적혀있었다. 그리고 어렴풋한 그녀의 기억 속에 '당시 어머니와 아는 여성이 아리랑 클럽에서 미군 병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이름만으로 찾기에는 터무니없었고 단서가 될 것 같았던 주소는 없는 주소로 나왔다. 그나마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부평동 280번지가 현재 부평3동 신촌이라는 것과 그녀의 기억에 남아있는 '아리랑 클럽' 역시 신촌에 있었던 클럽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신촌에서 생활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정도였다.

기지촌과 혼혈아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단어이다.

혼혈아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시점은 1945년 미군의 주둔부터로 보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정설이다. 신촌을 비롯한 부평의 기지촌에서 혼혈아를 보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대규모 기지촌이 형성된 부평에 혼혈아가 증가하자 1965년 산곡동에 혼혈아 특수학교인 한일초등학교가 개교했으나, 혼혈아들은 편견과 차별로 가득 찬 냉담한 시선으로 고통받아야 했다. 단순히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이 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어머니가 전통 윤리를 내팽개친 기지촌 여성이라는 것과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전통윤리를 중요시하던 한국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여겨졌다. 이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순수한 한민족의 혈통을 혼탁하게 만든 장본인이며, 혼혈아들은 그 결과물이라 생각했다.

비뚤어진 사회 편견에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던 혼혈아들은 해외 입양을 선택했다. 혼혈아가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들의 어머니가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영원을 약속했던 미군은 본국으로 돌아가버린 후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여성들은 양육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았지만 기지촌 생활을 하며 아이를 돌본다는 건 꽤나 힘든 일이었다.

부평3동 신촌에는 혼혈 아동을 돌보는 기관이 있었다. 바로 '성 원선시오의 집'이다.

'성 원선시오의 집'의 시작은 덕적도부터 시작된다. 미국인인 최분도 신부는 덕적도에서 여러 사정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혼혈 아동을 돌보았다. 이때 최분도 신부의 곁에서 묵묵히 일을 도운 이가 서재송이다.

이들은 '성 가정의 집'을 설립하여 혼혈 아동과 소외된 장애아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았으며 주로 최분도 신부의 고향인 미네소타를 중심으로 입양을 도왔다. '성 가정의 집'은 1976년 덕적도에서 송현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평에도 '성 가정의 집'과 마찬가지로 혼혈 아동을 돌보는 '성 원선시오의 집'이 있었다. 미국인 신부인 김 원선시오가 운영했던 곳으로 산곡동 화랑농장 근처에 있었는데 150여 명의 아동이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컸다. 김원선시오 신부가 건강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서재송이 '성 가정의 집'과 '성 원선시오의 집'을 오가며 아이들을 돌보았다.

서재송이 부평3동 신촌에 자리 잡게 된 것은 1986년 부평3동 성당을 축성하면서다. 이후 '성 가정의 집'과 '성 원선시오의 집'을 합쳐 '성 원선시오의 집'을 운영했고 인천뿐만 아니라 의정부와 동두천 등의 미군 기지촌을 다니면서 혼혈 아동의 어머니와 아이의 양육 문제를 논의하고 고민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혼혈 입양아의 입양만을 추진한 것이 아니었다. 입양 가정이 안전한 곳인지 꼼꼼히 확인했고, 아이가 입양 후 낯선 환경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영어와 미국식 생활 방식을 가르쳤다. 또한 입양아들의 사진과 신상을 꼼꼼히 기록하여 남겼는데 이는 훗날 가족을 찾는 데 크나 큰 역할을 했다. 이렇듯 혼혈 아동을 편견과 차별없이 품었던 성 원선시오는 1994년 폐원했다.

신촌은 기지촌이었다. 몇몇의 연구자는 신촌을 우리나라 최초의 미군 기지촌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평 사람들은 이런 신촌의 역사를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숨기기에 급급하다. 아마도 기지촌이라는 곳을 성매매의 장소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해방 후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되어 처참해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면에 내세워진 것은 다름 아닌 기지촌과 기지촌 여성들이었다. 정부는 기지촌 여성들을 향해 '달러 전사' 혹은 '안보 전사'라 추켜세우기도 했다. 기지촌에서 흘러나오는 달러의 힘은 실로 막강하여 당시 우리나라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 돈으로 전쟁으로 무너진 도로를 다시 세우고 학교를 세운 것이다.

기지촌 여성을 바라보는 오늘날의 시선을 꼬집은 한 칼럼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 우리가 포주질 하지 않았고, 우리가 뚜쟁이질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자매가 그렇게 번 돈으로 밥 먹고 학교 다닌 것이다. (중략) 정부는 기지촌 여성들을 안보전사이자 산업역군이라고 떠받들었지만, 정작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중략)

1929년 덕적도에서 태어난 서재송은 2020년 작고하였다. '해외 입양의 대부'라 불리었으며, 혼혈아를 비롯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헌신적으로 살폈다. 서재송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의 사진과 입양 카드, 편지 등을 꼼꼼히 기록한 기록물 1,600여 건을 중앙입양원에 이관해 국외 입양인들의 가족 찾기에 큰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국민훈장 독백장을 수여받았다.

> 그들이 정녕 안보전사였다면 마땅히 국립묘지에 모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립묘지 문 열어달라는 말은 안 하겠다. 다만 그들을 향해 굳게 닫혀 있는 우리 사회의 문, 우리의 마음의 문은 열어야 할 것이다. 『한겨레』, 2012년 11월 30일자.

신촌의 기지촌 역사를 바라보는 부평 사람들 역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지 않을까?

2 부평시장, 시대를 사고팝니다

부평깡시장, 진흥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 부평문화의거리는 모두 부평동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모두를 통칭하여 부평 사람들은 '부평시장'이라 부른다. 이전에는 부평자유시장까지 포함하였으나 지난 2018년에 건물이 철거되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되었다.

부평의 사람들은 부평시장에서 식료품을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을 구입하며 일상생활을 이어나갔다.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트가 활성화된 오늘날이지만 여전히 명절이나 김장철이 되면 부평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여 이동이 어려울 정도이다. 그만큼 부평시장이 부평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부평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을 넘어 시대의 변화를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1950~1960년대 미군기지가 있던 시절에는 너도나도 구하고 싶어 했던 미제 화장품과 커피가 거래되었고 군복을 염색하여 판매하기도 했다.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꿀꿀이죽은 그 당시 부평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기 먹거리였다. 1970년대 부평수출산업공단이 들어선 후에는 각지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의 가재도구와 생필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월급날이나 명절이 되면 가족을 위한 선물을 구하기 위해 부평시장을 찾았다. 1990년대 이후 인근에 농산물센터가 문을 열고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갔고 최근에는 청년 사업가들이 '감성'을 더한 공간을 만들어 젊은 소비자를 사로잡으며 부평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시장은 단순히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 곳을 넘어 시대의 요구를 담아냈다. 말 그대로 시대를 사고파는 곳이다.

1) 부평시장의 역사

1930년대 조선공업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부평은 대규모 공장지대의 적격지로 주목받았다. 그 결과 인천육군조병창과 미쓰비시제강 등 여러 공업시설이 들어섰고 자연스럽게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졌다. 그로부터 불과 10여 년이 지난 1940년대 부평은 각종 공장의 입주와 공장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인구 10만을 바라보게 되었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 규모를 갖춘 상업시설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부평에 시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간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1941년 7월 20일 매일신보 기사에 따르면 인천 부세진흥회가 부평주민들을 위한 공설시장 혹은 인천부가 운영하는 시장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실제로 시장이 건설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부평에 공설시장, 인천부세진흥회에서 설치운동
> 인천부역확장에 따라 부평일대는 글자 그대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여 앞으로 부평공장을 중심으로 인구 10만을 포옹하게 되었으므로 인천부세진흥회에서는 부민은 되었으나 아직까지 아무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평지대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그곳에 공설시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영으로서 시장을 설치하여 달라고 지난 18일 오후 7시 역원회를 열고 협의하였는데 머지않아 각 관계방면과 절충하여 만진하리라 한다. 『매일신보』, 1941년 7월 20일자.

1945년 광복 후 부평에 미군기지(ASCOM CITY)가 자리하자 미군 매점(PX)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미제 물건이 흘러나와 오늘날 부평문화의거리 인근에 시장이 만들어졌다. 이 때 형성된 시장을 '양키시장' 혹은 '블랙마켓'이라 한다. 이 시장은 1950~1960년대까지 활발히 운영되었는데, 물건을 유통하는 이는 주로 기지촌 여성이었으며,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 역시 국내 유통책과 함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유통되는 물품은 미군 군복과 찬합, 군용 담요, C-레이션, 담배, 커피, 여성용 화장품을 비롯하여 TV와 라디오, 각종 기계류까지 다양했다. 당시 부평 양키시장에서 흘러나온 미제 물건들이 남대문 시장에 공급 될 정도로 그 규모는 대단히 컸다.

❖ 미제 화장품(부평역사박물관 소장)
1950~1960년대 부평 양키시장에서 주로 유통되었던 미제 화장품이다. 전쟁으로 국내 화장품 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미군 매점(PX)을 통해 양키시장으로 흘러나온 여성용 화장품은 몇 배나 비싸게 팔릴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 미제 커피(부평역사박물관 소장)
1950~1960년대 유통되었던 미제 커피로 6·25전쟁 이후 커피가 기호품으로 급속도로 전파되며 양키시장의 인기 품목이 되었다. 당시 국내 시장에 정상적으로 수입한 커피는 5%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미군 매점(PX)을 통해 유통된 것이었다.

2) 부평깡시장

부평깡시장의 '깡'은 경매를 의미하는 순우리말이다. 지금의 건영캐스빌아파트 자리에는 청과물 공판장이 있었고 이곳에서 매일 경매가 열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붙여진 이름이다.

부평깡시장의 역사는 부흥실업주식회사로부터 시작된다. 1968년 한천길은 부평동 152번지에 부흥상회를 설립하고 농산물 도소매를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그러다 1973년 동업자를 규합하여 부흥실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지금의 건영캐스빌아파트 자리에 청과물 도매시장을 개장하였다.

부흥실업주식회사의 청과물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상인들이 주변에 자리를 잡았다. 부흥실업주식회사의 '부흥'을 따와 '부흥시장'이라 부를 정도였다. 부흥실업주식회사는 1980년에 사옥을 준공하고 제1판매장을 신축, 제2판매장을 신설하였다.

1990년 2월 건영농산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4년 1월에 건영농상주식회사의 청과물 도매시장이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하면서 청과물경매시장으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이후 건영의 계열사인 건영 건설에서 경매장 자리에 지상 14층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1996년에 법정 부도를 맞게 되면서 긴 시간 동안 아파트는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건영건설의 부도와 맞물려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의 개장, 2001년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건립이 이어지면서 부평깡시장의 상권은 나날이 쇠락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2002년에 건영캐스빌아파트의 건설이 완료됨과 동시에 주변 환경 정비 및 상인회 조직 등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부평깡시장은 2007년에 정식으로 시장 등록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진흥종합시장

진흥종합시장은 1971년에 개장하였다. 부흥로 304번길 27일대에 해당되며 부평깡시장과 부평종합시장에 둘러싸여 있다. 직사각형 4개 필지에 각 2동씩 8동의 정사각 형태의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남쪽에서 북쪽 방향에 이르는 건물 2동씩을 묶어 가동부터 라동까지 구분하였다. 한 동에는 24개의 점포가 있어 총 96개의 점포가 있다. 이렇듯 상가 건물에 입점한 형태이기 때문에 '진흥종합상가'라고도 한다.

진흥종합시장은 상가 건물을 활용하여 물건을 쌓아 놓고 팔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위 다른 시장과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단기간에 팔아야 하는 품목이 아닌 도매용 물품을 주로 판매하였는데, 공산품·건어물 등의 도매업을 주로 취급하여 현재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1971년 진흥종합시장이 개장하던 때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는 가게가 있다. 바로 신일상회다.
이는 곧 진흥종합시장에서 가장 오래 된 가게임을 의미한다.
신일상회를 개업한 신원범은 1970년에 깡시장 인근 노점에서 그릇 장사를 시작했다. 당시는 부평수출산업공단이 들어서고 각지에서 올라 온 젊은이들이 그릇이나 이불과 같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 시장으로 몰려들던 때였다. 1971년 부평진흥종합시장이 개장하자, 신원범은 작은 점포를 분양받아 '신일상회' 간판을 올렸다. 그릇을 팔면서 부업으로 각종 밑반찬을 조금씩 팔았는데, 이것이 공단 노동자들에게 날개 돋친 듯 팔렸다. 그 후로 반찬 판매의 비중을 늘려나갔고,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품목을 식료품으로 완전히 바꿨다. 현재는 아들이 가게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 신일상회. 진흥종합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이다.

4) 부평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은 부흥로 316번 길에 위치하며 부평종합시장이 해당 관청에 등록된 시점은 상인회는 2006년 인정시장 등록은 2007년이다. 하지만 부평종합시장에서 노점을 했던 상인들은 1960~1970년대까지 노점이 성행하였고, 이를 단속하는 단속반과 마찰이 잦았다고 증언하고 있어 시장이 형성된 시기는 이전보다 훨씬 앞섰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평종합시장은 부평깡시장과 진흥종합시장과 맞닿아 있어 그 경계를 정확히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총 면적이 1만 1,655㎡에, 점포 수는 430개로 부평시장에 속해있는 다른 시장보다 규모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2005년에 부평종합시장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케이드 설치 및 통행로 정비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후 시장 현대화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및 개방화장실 설치, 안전 및 방범 시설을 설치하였다. 시설 현대화뿐만 아니라 경영 현대화를 위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유통, 경영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5) 부평문화의거리

부평문화의거리는 부평문화로 80번길 7 일원에 있는데, 금강제화부터 시장로터리까지 이어지는 직선의 도로를 말하며 1998년 조성되었다.

지금은 깨끗하게 정비된 상태이지만 부평문화의거리가 조성되기 전 이곳은 노점이 난립하여 도로 통행이 쉽지 않아 안전과 위생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던 곳이었다.

1990년대 이후 인근에 백화점과 대형 할인 매장이 들어서고 지하상가가 대규모로 조성되면서 재래시장의 상권 쇠퇴가 우려되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노점의 난립은 시장을 찾은 사람들의 발길을 다시 되돌리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상인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상인들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과 함께 소공원과 같은 휴식공간의 역할도 겸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상권의 활성화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부평문화의거리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다.

부평문화의거리 조성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상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이다. 부평시장 상인들은 1996년에 '부평시장 번영회 산하 문화의거리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문화의거리 조성 청원서를 부평구에 제출하였다.

부평문화의거리 조성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노점의 철거였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며 장사를 한 노점 상인들은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았고, 추진단과 노점 상인들은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여 50여 개의 노점을 남기고 철거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1997년 10월 기공식을 거행하고 이듬해 3월에 완공하면서 마침내 부평 문화의거리가 탄생하였다. 1999년에는 부평문화의거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향후 발생하는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문화의거리발전추진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상인이 주축이 되어 문화의거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노점과의 갈등을 해결하여 오늘의 부평문화의거리를 만들었다.

2013년, 상인회 발족과 전통시장 등록이 이루어졌고 이후부터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진정한 문화의 거리를 구현하기 위해 상설 공연이 가능한 문대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공연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6) 부평자유시장

1950년대에 김영길과 서신호 등은 부평공설시장과 새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자 부평동 210번지에 새로운 시장을 개설하고 '자유시장'이라 이름 지었다. 이후 부평시장의 중심 상권이 자유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부평 상권의 중심지가 되었다.

1962년 6월 7일 '부평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시장이 인천시 공설 시장이 되었는데, 1971년에 공설 시장이었던 부평시장이 폐지되면서 같은 해 5월에 부평자유시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설 시장이 되었다.

부평자유시장의 중심 건물은 부평시장 로터리에 맞닿아 길게 늘어선 콘크리트 건물이다. 1층은 상가로, 2층과 3층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2018년에 철거되면서 부평자유시장의 건물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부평자유시장에서 도로변과 맞닿아 있었던 상가는 주로 닭집이 들어와 있어 사람들은 이곳을 '닭집 골목' 혹은 '통닭 골목'이라고 불렀다. 튀김을 만들고 남은 폐유로 비누를 만들어 팔았기 때문에 닭과 함께 비누를 진열하는 이색적인 풍경이 만들어졌다.

'닭집 골목'을 뒤로하고 상가 안으로 들어가면 '순대 골목'과 '한복골목'이 나온다. '순대 골목'이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부평수출산업공단 노동자들이 휴일이면 시장을 찾아 순대를 사갔다는 구술 내용을 통해 1960년대 중·후반 정도에 조성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1970년대 부평자유시장

❖ 2018년 부평자유시장 철거

현재 부평종합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상주순대국은 1985년 부평자유시장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그 당시 저녁이 되면 부평수출산업공단 노동자들이 값싼 순대와 머릿고기를 안주삼아 대포를 즐겼고, 주말이면 순대를 사려는 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또한 집안 잔치에 편육과 머릿고기가 빠지지 않던 때라 상주순대국을 포함해 자유시장의 모든 순대 가게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1990년대 후반 IMF(국제통화기금)외환 위기에도 상주순대국을 비롯한 순대 골목의 가게들은 그럭저럭 운영이 괜찮았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순대 골목을 더 많이 찾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이런 사정을 헤아렸던 상주순대국 사장은 머릿고기 한 점이라도 더 올려주려 했다. 2000년대 들어 상주순대국이 있는 순대 골목에 건물 안전문제가 제기되었고 2018년 부평자유시장 순대 골목은 완전히 철거되었다.

❖ 부평자유시장 철거 이전 순대 골목

❖ 상주순대국의 순대국과 순대

'순대 골목' 뒤편으로 '한복 골목'이 조성되어 있다. 부평자유시장 건물의 철거로 '닭집 골목'과 '순대 골목'은 사라졌지만 '한복 골목'만큼은 아직 남아있다. 한복 골목의 오래된 역사는 가게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대다수의 한복가게가 신발을 벗고 마루 위로 올라 한복을 구경할 수 있는 좌식 형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근래에는 선호하지 않는 구조이다. 맞춤보다는 대여를 선호하는 한복 소비 패턴의 변화와 온라인 마켓의 등장으로 과거 혼수 맞춤을 위해 북적였던 부평자유시장의 '한복 골목'은 오늘날 조용한 골목이 되었다.

7) 평리단길

부평대로 36번길과 부평대로 38번길 일대를 평리단길이라 부른다. 상점의 분위기가 서울의 경리단길과 비슷하다고 하여 부평과 경리단길을 합쳐 생긴 이름이다. 원래 이곳은 '커튼 골목'이라 불리던 곳으로 상권이 쇠락하여 폐허가 되기 일보 직전의 공간이었다. 2010년대 중반 무렵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매력을 느낀 청년사업가들의 가게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였고 2018년 무렵부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평리단길에 위치한 상점들은 카페, 와인바, 이탈리안 음식점 등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품목들이 대부분이다. 젊은 감각에 맞춰 인테리어를 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젊은이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청년사업가들이 새롭게 상권을 형성한 평리단길에는 오래된 가게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1945년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는 복화루와 남창문구가 있으며, 1960년대 개업한 대신모자 역시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시장의 일반적인 분위기와는 다른 평리단길이 부평시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이처럼 오래된 가게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창문구는 1945년 임덕용이 부평역 인근 노점에서 공책을 팔면서 시작되었다. 부평에 미군부대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 예상한 임덕용은 자연스레 학교가 생길 것이며 공책을 비롯한 문구류의 수요가 높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후 작은 가게를 얻어 '남쪽으로 창을 내다'라는 의미의 '남창상회'란 이름을 걸고 문구류와 각종 생필품을 팔았다. 1974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남창문구'로 이름을 바꾼 후 부터는 문구용품만 취급했다. 임덕용에 이어 남창문구를 운영하고 있는 이는 며느리 조광자이다. 조광자는 손님이 공책 한 권이라도 원하면 기꺼이 배달하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쌓았다. 수출공단 조성 이후 공장에 사무용품을 주로 납품하였는데 멀리는 김포까지도 배달 요청이 들어왔었다. 한때 남창문구는 없는 게 없는 곳으로 유명했다. 남창문구에서 팔지 않는 건 다른 문구점에 가도 살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

대신모자를 운영하고 있는 김현중은 1960년 우연히 방문한 부평시장에 모자 가게가 한 곳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신모자를 개업하였다. 모자는 주로 직접 만들었으나 주문이 많을 때는 서울 남대문시장과 평화시장에서 사 오기도 했다. 개업 초기에는 중절모를 많이 팔았는데, 부평에 학교가 하나둘씩 생기면서는 학생 모자를 주로 팔았다.

부평수출사업공단이 들어선 후에는 작업모 주문이 밀려들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1990년대 스포츠 브랜드 모자와 기능성 모자가 유행하면서 대신모자의 전성기는 끝이 났고, 지금은 중국에서 수입한 값싼 모자와 단체 맞춤 모자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사람들의 발길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대신모자의 60년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 3대째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남창문구

❖ 1960년부터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대신모자

3 부평의 사람, 부평의 이야기

1) 이찰·이율 형제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에는 이찰·이율 형제의 효심을 기리는 정려각이 있다. 사실 이 정려각은 부평구 갈산동에 있었던 것인데 1990년대 갈산동의 택지개발로 인해 지금의 위치로 이전한 것이다.

갈산동은 칡덩굴이 뒤덮여 있어 불리게 된 지명이다. 갈산동 동남쪽 산기슭에 병자호란을 전후하여 임영대군(臨瀛大君, 1420~1469)의 후손이 자리 잡아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갈산의 한 모퉁이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갈우(葛隅)라 부르기도 했다. 갈우마을은 임영대군의 후손과 효령대군파 영신군(靈愼君)의 후손이 이주해 와 전주 이씨의 집성촌이 되었다.

정려각의 주인공인 이찰·이율 형제는 1614년 갈산동에서 태어났다. 평소에도 행실이 바르고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하기로 마을에서 유명했다. 형제는 아버지가 병들어 눕자 곁을 떠나지 않고 온갖 약을 구하여 보살폈으나 차도가 없이 병세가 위독해지자 형제가 서로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피를 아버지의 입에 흘려 넣는 등 정성을 다하였다.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차도를 보이지 않고 세상을 떠나자 장례를 치르고 3년간 시묘살이를 했다.

얼마 후 어머니마저 병세로 위독해지자 아버지 때와 같이 지극 정성으로 병간호를 했다. 하지만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마찬가지로 장례를 치른 후 3년간 시묘살이를 했다.

이를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이들 형제의 효행을 칭찬했고 부평의 유지들은 나라에 이를 상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현종은 형제의 효행을 기리도록 하고 1670년(현종 11) 효자 정려를 내렸다.

❖ 이찰·이율 형제의 정려. 본래 갈산동 종손의 집 옆에 있었으나 1990년대 택지개발로 인해 계양구 갈현동으로 이전하였다.

2) 원통이고개

부평 사람들에게 원통이고개는 흔한 지명이다.

원통이고개는 간석오거리에서 부평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고개를 말한다. 원통이고개와 관련해서는 그 유래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하나는 '굴포 운하'와 관련한 것이고 또 하나는 '조선 도읍지'와 관련한 것이다.

굴포 운하와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자.

조선시대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에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곡물을 실은 배는 강화도와 김포 사이 물길이 협소한 강화해협을 지나 한강을 거슬러 중앙의 세곡 창고인 경창(京倉)에 도착하게 된다. 강화해협을 지날 때는 반드시 '손돌목'을 거쳐야 했는데 이곳은 물길이 유달리 굽이쳐 운항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난파의 위험도 높았다. 이에 조정에서는 안전한 세곡의 운반과 뱃길의 단축을 위해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하고자 굴포(堀浦)운하를 착안하게 되었다. 조선 중종 때에 운하를 파는 굴포 작업은 한강의 지류인 굴포천과 부평평야를 거쳐 부평삼거리 부근의 구릉지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현재의 인천 북항 부근 해안 쪽에서도 갯골을 지나 내륙으로 굴포 작업을 하여 지금의 간석오거리 부근에 이르렀다. 굴포운하의 성공을 목전에 두었으나 단단한 암반으로 인해 굴착은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다. 모두가 염원했던 굴포 운하가 그간의 숱한 좌절과 고생에도 불구하고 끝내 성공하지 못해 허사로 돌아간 것이 원통하다 하여 '원통이고개'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선 도읍지와 관련해 전해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새로운 도읍지를 정하기 위해 무학대사에게 명하여 후보지를 찾게끔 하였다. 이에 무학대사는 한양과 계룡산을 거쳐 부평까지 이르렀다. 부평의 지형과 지리를 꼼꼼히 살펴본 무학대사는 부평이 한강을 끼고 있어 가히 일국의 도읍지가 될 만하다고 생각하였다. 산혈(山穴)을 조사해 백 개의 골짜기가 있으면 완벽한 조선의 도읍지로서 조건을 갖추는 데, 한 개가 부족한 아흔 아홉 골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하나의 골짜기가 부족해 도읍지가 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쉽고 원통하다고 하여 원통이고개가 되었다는 것이다.

3) 부평의 독립운동가

이연형과 정재철

1921년생인 이연형과 1922년생인 정재철은 부평에 위치한 히로나카상공 주식회사의 직공으로 근무하였다. 이들은 윤석균과 송치호의 권유로 조선독립당에 가입하였고 이후 독립자금 모집 및 제공하며 독립운동 활동을 하였다.

독립자금을 먼저 전달한 것은 정재철이었다. 정재철은 1940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독립운동자금 520원을 제공하였으며, 이연형은 1941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870원을 제공하였다. 특히 이연형은 히로나카상공 퇴직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해 일을 하면서도 독립자금 모집을 위해 애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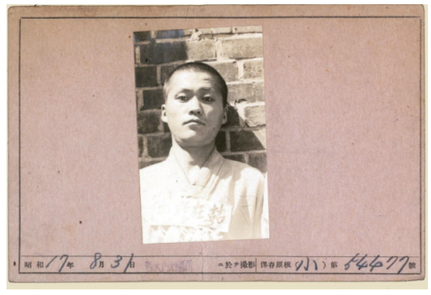
그러나 1942년 6월 이들의 독립자금 모집 활동이 들통나면서 용산경찰서에 체포되었고 같은 해 10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독립활동이 발각되어 체포된 계기는 금전사기 사건 때문이었다. 사람을 꾀어 돈을 받아내고 개인 목적으로 유용한 것인데 오늘날과 유사한 수법이다. 금전사기 사건의 범인은 윤석균과 송치호였다. 이연형과 정재철을 조선독립당에 가입하게 한 인물들이다. 사실 그들이 가입을 권유한 조선독립당은 실체가 없는 조직이었으며 윤석균과 송치호 역시 독립운동가가 아니었다. 이들은 전달받은 독립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했고 이러한 사기 행각이 발각되면서 오히려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이연형과 정재철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비록 이연형과 정재철이 전달한 돈이 독립운동을 위해 쓰이지는 못했지만, 조국의 독립을 생각하며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독립자금을 마련코자 했던 그들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고작 20대 초반의 나이였던 이들에게 액수가 얼마였든 선뜻 내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엄혹한 시절 자칫하면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마음먹는다고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두 사람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 이연형(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 정재철(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오순환

1921년 서울 창천동에서 태어난 오순환은 1935년 창천감리교회 내 에벧 청소년회에 입회하면서 이필주 목사의 영향을 받아 독립운동을 결심하였다. 본인의 독립운동으로 교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1938년 탈회를 하고 같은 해 오순환을 비롯하여 이광운, 이선영, 정은태 등 4인이 주축이 되어 독립운동 모임을 가장한 창천체육회와 조기회를 조직하였다. 이후 뜻을 같이하는 이들을 포섭하여 15인의 정회원과 5명의 준회원으로 조직을 확장해나갔다. 이들은 총독부 고위직 관리를 처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독부 및 관저 등을 탐색하였으나 삼엄한 경계를 뚫지 못하고 실패에 그쳤다.

신식 무기의 탈취 및 제조방법 습득으로 목표를 수정한 창천체육회 일원들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1941년 10월 오순환이 인천육군조병창에 입사하여 무기 제조 과정에 대한 정보를 습득·유출하고자 하였으나 이듬해 4월 내부자의 밀고로 인해 창천체육회회원 전원이 체포되었다.

1942년 5월 10일, 창천체육회 회장 오순환은 경성지법으로부터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와 함께한 행동위원 5명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체육회 회원 중 한 명은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재판 중 사망하였다.

오순환은 독립운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오순환(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4) 6·25전쟁과 제10포로수용소

1950년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다.

평화롭던 휴일 새벽, 북한 공산군은 남북군사분계선인 38선을 넘어 기습 남침했다.

밝아오는 여명과 함께 총과 포탄의 소리가 사방으로 흩어지며 주말의 평화는 순식간에 깨져버렸고 동시에 동족상잔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군에 비해 병력과 장비면에서 열세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말을 맞아 휴가와 외출을 나간 부대원이 많았던 탓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무서운 속도로 남진한 북한군에 의해 1950년 6월 29일 서울은 함락되고 말았다. 그러나 곧이어 유엔군의 참전이 이루어졌고 우리 군 역시 후방에서 전열을 정비하며 전세 역전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교두보를 확보한 유엔군은 서울 수복을 위해 진격을 이어갔다. 서울 수복의 성공을 위해서는 김포비행장과 영등포 장악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미 해병 1사단이 부평까지 진격한 후 부대를 나눠 5연대는 김포공항으로, 1연대는 경인가도를 따라 영등포로 진출하는 작전을 실행코자 하였다. 5연대가 선두에서 부평으로 진격하던 9월 17일 새벽 T-34 전차 6대와 200여 명의 보병들로 이루어진 북한군이 원통이 고개로 접근한다는 첩보를 접하고 매복에 들어갔다. 북한군의 마지막 전차가 원통이고개에 들어서는 것을 확인한 연합군이 공격을 시작하며 교전이 시작되었다. 진로와 퇴로를 완전히 차단당한 북한군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고 뒤이어 도착한 한국군 역시 공격에 가담하면서 경인가도 일대는 적의 전멸지가 되었다. 전사에서는 9월 17일 부평 원통이고개에서 펼쳐진 이 전투를 부평전투라 기록하고 있다.

부평전투로 인해 북한군의 T-34전차 6대는 모두 파괴되었고, 200여 명의 북한군은 사살 혹은 포로가 되는 등 말 그대로 압승이었다. 당시 부평전투에서 기관총 사수를 맡았던 르로이(Leroy E. Schuff)는 당시를 아래와 같이 회고했다.

부평전투는 원통이 고개에서 발발하였다 하여 원통이 고개 전투라 불리기도 한다.

> 우리는 도로가 가운데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큰 언덕에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에 크고 높은 송전탑이 길 양쪽으로 놓여 있었죠. 우리는 양쪽 언덕에 위치를 확보했어요. 다음날 아침, 탱크 소리에 잠을 깼어요. 궤도 차량의 소리가 길에서 다가오고 있었죠. 우리는 애스컴 시티를 넘겨다보고 있었어요. 인천 동쪽에 있는 작은 도시였어요. 여섯의 적을 확인했는데, 소련제 탱크였어요. 250여명 의 병력들이 트럭에 타거나 뒤를 따르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막 양쪽 언덕 사이에 난 길로 접어들었죠. 사격 통제가 아주 놀라웠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언덕 위로 고개를 내밀지 않았고, 그저 그들이 우리들 사이로 들어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언덕 근처 길 위에 탱크 한 대를 갖고 있었는데, (적의) 선두 차량이 언덕 모퉁이를 돌아 들어올 때 우리 탱크가 사격을 가하면 교전을 시작하라는 신호가 있었어요. 탱크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30분간의 교전이 끝난 후 보니, 우리는 사상자가 없었고 적군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6대의 탱크도 모두 파괴시켰어요. 30분쯤 후에 맥아더 장군과 참모들이 나타났습니다.
> <르로이(LEROY E. SCHUFF)의 회고 내용은 「부평미군기지의 역사: 캠프 마켓과 애스컴 시티」『2019-2020 부평역사박물관 특별전 헬로우 애스컴 시티, 굿바이 캠프 마켓』, 부평역사박물관, 2020, 136쪽>

부평전투를 승리로 이끈 연합군은 서울로 진격하는 과정 중 부평역 및 부개동 일대에서 산발적인 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끌며 원활한 서울 수복 작전을 실행해 나갔다.

현재 십정동 부평아트센터 앞마당에는 부평전투의 승리와 함께 6·25전쟁에 참전해 목숨을 잃은 한국과 미국의 젊은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자리하고 있다.

❖ 부평전투승전기념비

전쟁은 포로를 낳는다.

6·25전쟁이 발발한 다음날 12명의 북한군 포로를 수용한 것을 시작으로 전쟁 기간 동안 총 17만 명에 이르는 북한군과 민간인 포로가 발생하였다. 전쟁이 발발한 초기에는 포로 발생이 많지 않았으나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약 13만 명의 포로가 발생하며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유엔군은 늘어나는 포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부산에 대규모 포로수용소를 건설하였는데, 이때는 포로들의 이념 성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수용했다. 이러한 수용정책은 수용소 내 반공포로와 친공포로 간 갈등을 유발시켰고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불러일으켰다.

당시 임시수도 부산에는 각종 행정기구의 설치와 피난민의 집결로 100만이 넘는 인구가 밀집하였다. 여기에 더해 포로들의 유입까지 이루어져 부산은 그야말로 포화상태가 되었다. 또한 포로 간의 갈등으로 소요사태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었다. 안정적인 포로 관리를 위해 수용소 이전의 필요성을 절감한 유엔군은 거제도를 낙점하고

새로운 포로수용소 설치를 시작하였다. 부산 포로수용소에서 발생한 포로 간 갈등 및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는 포로들의 이념 성향 등을 고려한 분산 수용을 원칙으로 했다.

1953년 3월 3일 부평에도 반공포로를 수용하기 위한 제10 부평 포로수용소 건설이 시작되었다. 지금의 부영공원 자리이다. 500여 명의 포로가 시설물 건설 작업에 투입되어 6월에 완료되었는데, 이는 전국 16개 포로수용소 중 가장 늦은 것이었다. 규모도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작았다.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전국에 있는 반공포로들을 기습적으로 석방시켰다. 한국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전을 진행한 것과 송환 거부 포로들에 대한 독단적인 유엔군의 결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 이승만의 석방조치로 2만 5,000명의 반공포로가 석방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석방 조치가 부평포로수용소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포로 석방 사실을 접하게 된 부평포로소의 포로들은 집단적으로 수용소를 탈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 제10 부평포로수용소의 모습(부평역사박물관). 1953년 일본 잡지 아사히 화보집에 실린 사진으로 포로탈출 사건 다음날의 탈출에 실패한 포로들이 미군의 경계를 받으며 모여 있는 모습이다. 기사에서는 부평 포로수용소 탈출 사건으로 인해 33명이 사망했고 11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하고 있다.

부평포로수용소에 석방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당시의 상황을 담은 기사를 통해 당일의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다.

> 부평수용소에 수용 중이던 반공애국 포로 1,500명은 18일 밤 9시 동 수용소를 경비 중이던 한국 헌병과 완전무장한 미군 헌병과의 교대가 끝난 후 맨주먹으로 결사적인 탈출을 감행하여 수 시간 후 동 수용소를 탈출함에 성공하였다.
> 그런데 동 수용소는 여덟 겹의 철망이 둘러 있어 탈출한 포로는 대부분 철망을 넘다 부상 당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미군 헌병의 사격을 받아 사살된 자도 다수에 달할 것이나 아직 사상자의 확실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 그런데 동 수용소를 탈출한 황해도 출신 한국인 반공포로 김정식씨가 말한 바에 의하면 그가 동 수용소를 탈출할 때 밟고 넘어온 시체만 하여도 20여 개나 되었다고 한다.
> 그런데 동 수용소는 연락 관계가 불충분하여 미군 경비병이 경비에 당하기 전에 한국군에 의하여 접수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 그런데 이날 연락이 불충분하였던 관계로 영천, 대구, 부평의 3개 수용소에 수용된 애국포로의 석방은 순조롭지 못하였는데 그 외 4개 수용소에서는 석방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부산 제9수용소에서는 경비중인 미군과의 하등의 충돌도 없었다.
> 『경향신문』, 1953년 6월 20일자.

포로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부평뿐만 아니라 영천과 대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들 포로수용소 중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던 곳은 부평이었다.

> 그러나 내가 소속되어 있던 부평지구 수용소에서는 1천 5백 명의 포로 전원이 이 사실을 깜쪽같이 모르고 있었다.
> 새벽잠에 깊이 빠져 있었다.
> 이유는 간단했다.
> 나중에 밝혀진 바이지만 부평 수용소 헌병대장은 철저한 공산주의자였던 것이다.
> 숲 사이로 바라보니 정문엔 어느 틈엔지 국군 헌병 대신에 미군 헌병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 그들은 각 지구 수용소에서 한국 헌병들의 지원 아래 탈주에 성공한 포로들 소식을 알고 있는 듯 했다.
> 그들은 상부로부터 모종의 특별 경계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 박종은, 『PW; 포로수용소 생활 1200일의 실화』, 종화사, 1994, 198·218~220쪽.

5) 부평과 시인 한하운

한하운 시인의 본명은 한태영으로 1921년 함경남도 함주군에서 태어났다. 시인의 이름 앞에는 늘 '나시인(羅時人)'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말 그대로 한센병을 앓았기 때문이다.

유복한 유년시절을 보냈던 시인은 1935년 당시 명문인 이리농림학교 수의축산학과에 입학하였다. 입학 후 습작 활동을 하며 시인으로서 미래를 그리던 중 1939년 한센병 확진을 받았다. 당시 한센병은 정확한 치료제가 없어 '천형(天刑)'이라 불릴 정도였다. 고향에 돌아온 시인은 이때부터 '하운(何雲)'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1949년 신천지 4월호에 「전라도 길」을 포함한 13편의 시를 발표하였고 같은 해 첫 시집 『한하운 시초』를 간행하였다.

한하운 시인이 부평과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당시는 한센병 환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파다하게 퍼져 있어서 한센인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시스템 혹은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시설조차 마련할 여력이 없었다. 그저 그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만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다. 정부는 1949년 9월 한센인이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부평에 세우고 수원과 춘천 등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한센인들을 부평으로 이주시켰다. 이 때 한하운이 한센인 대표로 정부와 교섭을 하였다.

한하운 시인의 출생 연도는 그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시인의 자서전을 비롯한 이력서 등 여러 글에서 출생연도를 저마다 다르게 기록한 것에서 오는 혼란이었다. 그가 어떤 이유로 생년에 대해 기록을 달리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도 여러 포털 사이트에는 1920년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졸업한 이리농림학교 입학 자료를 통해 정확한 생년이 1921년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 우선 부평은 이 지방민의 반대가 없을 것이라 믿고 불모의 산협이지만 우리가 무슨 선택의 자유가 있을까 (중략)우리들의 마지막 안식처로서 택하기로 하였다. (중략)
나는 그들을 설득시키고 수원시의 알선으로 서력 1949년 12월 30일 밤 8시에 70명의 환자를 인솔하고 부평으로 갔다.
나는 기뻤다. 그렇게도 원하였던 땅을 얻게 된 까닭으로 (중략)
나는 600명 환자의 선거에 의하여 이곳 자치위원장에 취임하고 원명을 성계원이라 명명하였다. 한하운, 『황토길』, 무하문화사, 1960, 144쪽. ❞

❖ 성계원을 표시하고 있는 이정표 (부평역사박물관)

성계원은 인천가족공원 입구를 지나 간석사거리로 넘어가는 길 왼쪽 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만월산 깊은 골짜기에 둘러싸인 이곳의 지형은 '은둔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들에게 최적의 장소였다.

이리농림학교에서 수의축산학을 전공한 한하운은 전공 지식을 발판삼아 이곳에서 양돈과 양계 사업을 적극 펼쳤고 그 결과 인천에서 유통되는 계란의 80%를 이곳에서 생산하게 되었다. 한센인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1960년 국립부평나병원으로 이름을 고친 성계원은 1968년 익산과 칠곡, 부평 등에 분산되어 있는 나병원을 소록도 병원에 통합코자 한 정부 정책에 따라 폐원되었다. 이후 이곳은 부평농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한하운이 한센인의 자활과 복지를 위해 힘쓴 흔적은 이외에도 부평의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성계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한센인들은 각각 '십정농장'과 '청천농장'으로 이주하였는데 기독교인은 '청천농장'에, 천주교인은 '십정농장'에 주로 머물렀다. 한하운 역시 1959년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십정농장'에 거주하였다.

한하운은 한센인의 자립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1952년에는 한센인 2세들의 복지시설인 '신명보육원'을 설립하여 초대 원장으로 자리하면서 그들이 공교육의 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다. 당시 냉혹했던 사회적 편견에 의해 각 학교의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은 한센인 2세들의 입학을 반대하였는데, 한하운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설득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비록 먼 길을 돌아가야 했지만 부평서초등학교에 전 학년을 입학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한센인의 복지를 위한 사회활동가인 동시에 그는 시인이었다. 부평에 정착한 이후에도 활발한 시작(時作) 활동을 하여 대표작으로 꼽히는 『보리피리』와 자서전인 『고고한 생명-나의 슬픈 반생기』를 발표하였다. 한센병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는 서울 명동에 무하문화사를 설립하여 자작시 해설집 『황토길』과 『정본 한하운 시집』을 간행하는 등 문학인으로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한센병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무던히 노력했던 시인은 안타깝게도 완치 판정을 받은 지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1975년 십정동 자택에서 간경화로 생을 마감하였다. 소외자의 삶을 살았던 시인은 마지막조차 지독히 쓸쓸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5년 3월 14일 경향신문에 다음과 같은 짤막한 기사가 실린다.

❝ 문단은 금년 들어 원로 문인들이 잇달아 타계하는 슬픈 일을 겪었는데 정작 이들의 빈소나 장례시작엔 극소수의 문인들만이 찾아와 애도를 표했다 해서 최근 일부 문인을 사이엔 "너무 비정하다" "인정머리 없는 문인사회다"라고 자기비판. (중략)
지난 2월 28일 인천에서 작고한 시인 한하운씨의 빈소에는 서울에서 누가 조의를 표하러 갔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향신문』, 1975년 3월 14일자. ❞

한하운이 부평에 온 후 사회적·문학적으로 끼친 영향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부평에서 그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간신히 '부평농장'을 비롯한 당시의 이름만이 몇몇 남아 점점 사라져가는 그의 그림자를 간신히 붙잡고 있다.

이북이 고향인 그에게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낸 부평은 실질적인 고향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 그는 죽어서도 부평 땅에 묻히지 못했다.

은둔의 삶을 살기 위해 부평을 찾았던 것처럼 그는 죽어서도 은둔자로 남아야 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 한하운 시인

❖ 한하운 시초

6) 부평의 노동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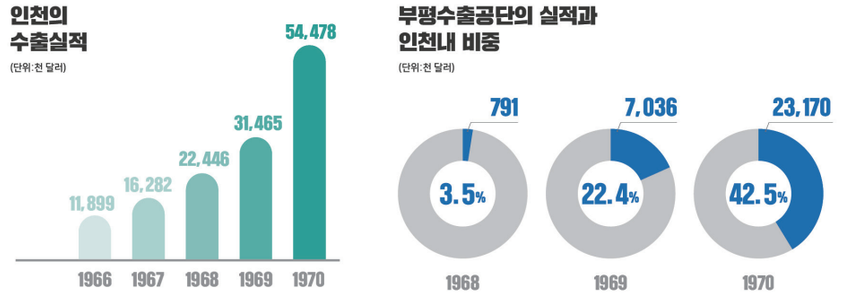
1969년 부평수출산업공단이 조성됨에 따라 부평은 우리나라 굴지의 산업도시로 자리매김 하였다. 부평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도시가 된 건 단순히 수출공단이 조성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일제강점기 부평에 대규모 군수공장인 인천육군조병창이 들어섬에 따라 주변으로 크고 작은 하청업체가 운영되고 있었다. 해방 후 이 공장들은 사명(社名)을 바꾸고 공장 가동을 이어갔다. 즉, 수출공단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부평에는 여러 산업시설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수출공단 구역 밖으로 세워진 크고 작은 공장들은 공단에 대한 경계를 확장시키는 데 일조했다. 실제로 한국GM공장은 수출공단 구역 밖에 세워졌지만 그 당시 부평 사람들은 대우자동차가 있는 곳까지를 공단의 범위로 생각했다. 더 멀리는 산곡동에 있었던 신한베어링이나 전남방직까지도 공단의 범위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 지금은 한국GM이 정식 사명(社名)이지만 공단이 활발히 운영되던 당시의 사명은 대우자동차여서 아직까지도 많은 부평 사람들은 대우자동차로 부르고 있다.

이처럼 수출공단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던 탓에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이 무렵 부평의 인구는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그렇게 부평은 산업의 도시이자 노동자들의 도시가 되었다.

수출산업공단의 조성으로 말미암아 인천의 수출 실적 및 기업의 매출 실적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고단함의 연속이었다.



출처 : 『한국수출산업공단 30년사』 한국산업단지공단, 1994년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및 폭력적 노동 통제 속에 고통받아왔다. 1970년대 OECD 국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이었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55시간을 일했다. 제조업의 경우 누간 노동시간이 100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노동시간과 임금은 비례하지 못했다. 1980년대 중반의 통계를 보면

4인 가족의 경우 총 임금액으로 비교해도 60% 밖에 되지 못했다.

오늘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로부터 발생한다면 이 당시에는 생산직과 사무직 간의 차별로부터 기인했다. 생산직과 사무직 간 작업복과 명찰의 차별, 권위주의적 노무관리, 관리직과 생산직과의 식사 차별 등 불합리한 차별이 지속되었고, 비인간적 대우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다. 노동현장에서 누적된 많은 문제들은 노동운동을 통해 개선하고자 했다. 1970년대에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여성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노동운동을 이끌었다면, 1980년대에는 중공업 중심의 남성노동자들로 주축이 이동했다. 이 당시 노동자들이 주장한 것은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인간적 대우에 대한 요구였다.

부평 노동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건과 인물이 있다. 바로 반도상사의 파업과 반도상사에서 노동자들의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섰던 장현자이다. 반도상사는 부평수출산업공단 내에 있던 공장으로 1970년대 대표적 수출품인 가발을 생산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반도패션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1970년대 주력 수출 상품인 가발을 생산한 공장이었기에 당시 주문량은 말할 것도 없이 많았는데, 밀려오는 주문량을 채우기 위해 한 달의 반 이상을 밤샘 근무를 해야만 했다. 강도 높은 노동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10분씩 주어지는 쉬는 시간이 노동자들이 근무시간 중 취할 수 있는 휴식의 전부였다. 그렇다고 두 다리를 뻗고 쉴 공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앞에 놓인 미싱에 머리를 기대고 쪽잠을 자며 버텨냈다.

1970년대 초 반도상사는 여성 의류를 생산하는 반도패션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가죽옷과 청 옷을 함께 생산했다. 청 옷을 만들기 위한 염색실이 별도로 있었는데 약품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였다. 40여명의 폐결핵 환자가 발생했지만 회사는 책임지기는커녕 사직을 강권하였다.

반도상사에서는 퇴근하기 전 소지품과 가방 등을 검사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회사의 물건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조치이다. 퇴근 시간이 되면 정문 앞에는 소지품 검사를 받으려는 이들로 긴 줄이 서 있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여느 때처럼 소지품 검사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서 있던 와중에 17세의 어린 노동자가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새치기를 하였다. 이 모습을 본 경비원이 어린 소녀의 머리를 향해 몽둥이를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하얀 눈 위로 붉은 피가 퍼졌다. 병원으로 이송 된 소녀는 뇌진탕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얼마 뒤 회사를 그만두었다.

공장 내에서 폭력과 폭언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차별 또한 예삿일이었다. 회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장현자를 비롯한 몇몇의 동료들은 회사를 상대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 알리며 농성을 시작했다.

> 반도상사 직원들의 요구사항
>
> ① 폭행사원을 처벌하라.
>
> ② 중식 차별 문제 해결하라.
>
> ③ 기숙사 시설 개선하라.
>
> ④ 강제 잔업 철폐하라.
>
> ⑤취업규칙 내 걸어라.
>
> ⑥ 임금인상 60% 지급하라.
>
> ⑦ 이 문제들은 사장이 직접 해결하라.

회사는 이들을 해산시키고자 했으나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이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노동조합 결성에 성공하였다.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후부터 근로기준법이 조금씩 지켜지며 이전과는 나은 노동환경이 만들어졌다.

1980년대 부평의 노동운동은 대우자동차로 대표된다. 대우자동차는 여러 번의 시위를 통해 임금인상 및 노동환경 개선 등을 이끌어냈는데, 노조를 눈엣가시로 여긴 회사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노동 강도를 한층 더 높였을 뿐만 아니라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을 펼쳤다. 기존에는 노동자 한 명이 한 시간당 평균 13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던 것에 반해 1986년에 준공된 새로운 공장에서는 30대를 생산하는 등 노동 강도가 이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대우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생산량에 대해 파업을 결심하였고 파업의 이유와 회사의 만행을 알리고자 대우자동차 정문부터 청천동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대우자동차의 파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주민을 비롯해 인근 노동자들이 이들의 시위를 응원하기 위해 모여들며 힘을 보태기도 했다. 당시 대우자동차 회장인 김우중은 파업의 진압을 위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인천시 경찰청은 2,5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무자비로 연행하며 농성장 침탈을 감행하였다. 시위 참여자들은 그렇게 강제 해산되었다. 이후 회사는 공장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여 노동자들을 감시하였고, 이들의 삼엄한 감시하에 공장 운영은 재개되었다. 노사는 협상을 진행해 경찰 병력을 완전히 철수할 것과 농성진압과정에서 구속된 이들을 즉각 석방시키는 대신에 공장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합의하였다.

반도상사와 대우자동차 외에도 부평에서는 많은 노동운동이 전개되었다.

공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노동운동의 빈도가 높았을 것이다. 노동운동과 관련한 책을 찾아보면 부평의 노동운동 이야기가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권리 향상에 부평이 큰 역할을 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 대우자동차 시위(경향신문사 제공)

❖ 부평 일대 거리를 행진하며 노동운동탄압 규탄 시위를 벌이는 노동자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부평은 1899년 경인철도 개통 이후 수많은 변화를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한적했던 부평의 마을 역시 이후부터 많은 사람이 찾았고 해방과 미군의 주둔, 부평수출산업공단의 조성 등 부평의 굵직한 역사의 흐름에 따라 마을 역시 그 주인을 바꿔가며 변화하였다.

시간이 흐른 지금은 도시화로 인해 많은 마을이 해체되고 그 자리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인구 50만이 넘는 부평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부평의 옛 시간을 담은 여러 흔적들이 아무런 고민없이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이 글을 써내려가면서 각 단락의 맺음말 거의 대부분을 '사라져 버렸다.' 혹은 '지금은 볼 수 없다.'로 마무리 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운 좋게(?) 우리 곁에 남아있는 시간의 흔적들도 머지않아 이와 같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기름에 갠 물감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유화는 밑바탕 색을 완전히 덮어 그 존재를 은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피카소는 고가의 그림 도구를 살 여력이 없던 때 이전에 그림을 그렸던 캔버스 위에 덧칠을 하여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1903년에 그린 「맹인의 식사」이다. 「맹인의 식사」는 같은 캔버스 위에 그려진 이전의 그림을 완전히 은폐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피카소가 숨겨버린 그림은 지난 2021년,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 118년 만에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미 그려진 그림에 새로운 그림을 덧댄다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도시는 유화와 같다. 선조들이 남겨놓은 그림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도시 건설과 발전에 있어서 그림 위에 덧칠을 하는 건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다만 옛 그림과 오늘의 그림을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며 덧칠을 하는지가 관건이겠다.

피카소의 그림처럼 유화는 바닥 그림을 그대로 보존한다. 마음만 먹으면 가장 윗 층의 그림을 제거하고 바닥층의 그림을 드러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시는 그렇지 않다. 덧칠로 인해 사라져버린 옛 흔적들은 전지적인 능력자가 와도 그 존재를 다시 살려낼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도시를 만들면서 혹은 계획하면서 역사의 흔적을 지워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으로 조화롭게 그림을 그릴지에 대한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부평의 사라져 버린 마을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해 나갔다.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담지는 못했지만 기술한 마을 외에도 삼산동 영성마을, 부개동 벽돌마을 등 여러 마을이 존재했었다. 이 글에서 부족한 부분은 2021년 발간된 『부평사』를 통해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007년 출간된 부평사 이후 약 14년이 흐른 지난 2021년, 부평의 역사를 총망라한 부평사가 출간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 대략 2030년 중·후반 무렵에 증보된 부평사가 편찬될 것이다. 2030년대에 편찬될 부평사에는 철거되어 사라졌다는 내용 대신 과거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마을의 모습 더 나아가 부평의 모습을 담은 글이 담기길 간절히 바란다.

참고문헌

부평역사박물관 학술총서 1『부평 산곡동 근로자 주택』, 부평역사박물관, 2014.

부평역사박물관 학술총서 2『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부평역사박물관, 2015.

부평역사박물관 학술총서 3『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 부평역사박물관 2016.

부평역사박물관 학술총서 4『장수산 맑은내 마을, 부평 청천동』, 부평역사박물관, 2016.

부평역사박물관『다시 보는 한하운의 삶과 문학』, 소명출판, 2017.

부평역사박물관 학술총서 5『열우물 마을 부평 십정동』, 부평역사박물관, 2017.

부평역사박물관 학술총서 7『상이용사의 보금자리, 부평 화랑농장』, 부평역사박물관. 2019.

부평역사박물관 학술총서 8『삶의 터전 부평시장』, 부평역사박물관, 2020.

부평역사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공동기획전『부평시장, 시대를 사고팝니다』,
부평역사박물관·굴비민속박물관, 2020.

장현자,『그때 우리들은』, 한울사, 2002.

찾아보기

ㄱ

'계남(桂南)'학교 73

'계산(桂山)'학교 74

'부명(富明)'학교 74

6·25 전쟁 325, 358

99식 소총 324

GM대우 211

GM코리아 209

가곽(街廓) 124, 168, 195

간토구미(關東組) 308

갈산동(葛山洞) 88, 91

갈우(葛隅) 마을 88

강제동원 239, 308, 311

검정사택 120, 220

결7호 299

경명현[景明峴. 징맹이고개] 66

경원대로 25, 115, 172, 174 250, 370

경인고속도로 24, 140, 155, 164, 179, 183, 196, 359, 360

경인국도 164, 167, 168, 181

경인기업주식회사 226

경인기업주택 226, 234

경인시가지계획 161, 164, 165, 167, 169, 172, 180, 193

경인일여 160

경인일체화 160, 161, 193

경인철도 78, 80, 84, 122, 154, 157, 160, 167, 181, 400

계양(桂陽) 34, 36, 69, 70, 75

계양(桂陽)학교 69, 75

계양산 25, 26, 33, 36, 38 40, 41, 43, 66, 80, 89, 93, 335, 347

계양산성 35, 38, 41, 42, 43

계창학교 71, 72, 73

고고한 생명-나의 슬픈 반생기 395

고사포 279, 280

고요(光洋) 정공 197, 198, 202, 285

고즈키 요시오(上月良夫) 321

공가(空家)에 관한 방공강화대책요강 296

공설시장 241, 242, 245, 375, 380

공영조(工營組) 172

공장긴급소개요강 296

공장법 185

공장사업장방공긴급대책요강 296

관사(官舍) 36, 224

광야교회 362

광학산 25, 27, 132, 263, 264

구산동(九山洞) 89

국가총동원법 270, 315

국립부평나병원 394

국산자동차 189, 190, 191, 192, 198,200, 201, 202, 206, 221

굴포천 24, 27, 28, 84, 85, 98, 168, 228, 254, 385

근대유산 337, 340, 341

근로보국대 172, 308

금마산 25

금성극장 138, 139, 140, 252

금속류회수령 288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 64, 66

기지촌 115, 117, 140, 147, 335, 356, 365, 366, 370, 372, 374, 376

길주(吉州) 34, 37

김국환 354, 355, 356
김포 비행장 325
깡시장 243, 244, 245, 246, 374, 376, 377, 378

ㄴ

나가야(長屋) 219
나가이 테루오(永井照雄) 185
내금위(內禁衛) 61
냉전 323, 335, 337, 338, 340
녹기연맹 307
농민운동 84, 86
농민조합 87, 88
농지개혁 176
닛산 207

ㄷ

다다구미(多田組) 122, 228, 308
다다구미(평화촌) 120
다마모구미(玉藻組) 308
대도백화점 252
대본영(大本營) 270
대우 189,398,
대우자동차 120, 210, 228, 255, 397, 399, 400
대정리 31, 33, 154, 156, 157, 158, 159, 278
대한극장 140, 250
대화지구 167
도깨비시장 120, 243
도산주택(桃山住宅) 223
도시계획법 164, 178, 179, 180
도시재생 339
도종(道鐘) 290
도쿄가스전공(東京瓦斯電工) 189
도쿄시바우라(東京芝浦) 197, 199
도쿄자동차공업 189, 191, 221, 310
도쿄제강주식회사 198
동소정면 33, 51, 53, 54, 56, 58, 155, 156
동아건설 237, 254
동아시티백화점 254
동아아파트 228, 235, 237, 254
동양제강 204
동양척식주식회사 218
동유재산 341
두두회 368
등록문화재 339, 341
디젤자동차 조선제조소 192

ㄹ

러일전쟁 269, 292
롯데백화점 122, 253, 254, 256

ㅁ

마리아나 해전 293
마분리(馬墳里) 53, 89
마장(馬場) 89, 90, 93
마장면 30, 33, 51, 53, 55, 71, 90, 93,156
마제이[마재이] 90
만월산 25, 27, 155, 229, 394
만주사변 160, 185
맑은내마을 358
모다아울렛 254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307
뫼끝말 90
무네미고개 25, 27
문화의 거리 242, 243, 244, 246, 247, 380
문화의거리발전추진협의회 379
문화콘텐츠 102, 300, 342
문화환경 339, 340, 341
뮤지션 366, 367, 368
미8군 116, 214, 229, 366, 367
미드웨이 해전 293
미쓰비시 부평공장 121
미쓰비시(三菱) 제강 199, 218, 285

미쓰비시(삼릉) 줄사택 120

미쓰비시(三菱) 중공업 188

미쓰비시제강㈜ 204, 285, 365, 375

ㅂ

박노정 206, 207

반공포로 330, 331. 390, 391, 392

반도상사 360, 398, 399, 400

반전평화교육 338

반환운동 336

백마교회 362, 363

백마극장 139, 140, 243

백선엽 333

범종(梵鐘) 289

베스터하스파브릭 339

벽화마을 350, 351

병참기지화 270, 347

보리피리 148, 229, 395

보명학교 69, 70

본토결전 279, 297, 298, 299

부개동(富開洞) 89, 90, 167, 170, 180, 193, 230, 232, 238, 243, 389, 401

부개산(富開山) 92

부개종합시장 243, 244

부영공원 326, 327, 329, 333, 335, 340, 391

부영주택 223, 224

부평 대아지하도상가 251

부평도호부 25, 29, 32, 38, 40, 51, 65, 80, 122, 145, 154, 155, 240

부평깡시장 374, 376, 377, 378

부평농장 229, 395, 396

부평대로 100, 172, 174, 249, 382

부평동(富平洞) 25, 30, 32, 33, 90, 139, 167, 170, 180, 193, 204, 223, 230, 239, 374

부평두레놀이 98, 100, 102, 103

부평두레보존회 102

부평리 30, 31, 32, 33

부평문화의거리 374, 375, 379

부평미군기지 120, 327, 335

부평백화점 252

부평변전소 200

부평수리조합 80, 85, 87, 88

부평수용소 330, 331, 392

부평수출산업공단 140, 358, 360, 374, 380, 396, 398, 400

부평시장 167, 184, 242, 244, 245, 247, 248, 250, 252, 374, 375, 379, 380

부평연습장 263, 265, 267, 268, 269, 271, 273

부평영화극장 135, 136, 137

부평자유시장 374, 380

부평전투 388, 389

부평종합시장 243, 246, 374, 377, 378, 379

부평중앙회 368

부평지구 161, 162, 163, 166, 194, 213, 215, 320, 327, 392

부평토굴 300, 301

부평평야 27, 80, 84, 85, 98, 100, 103, 146, 185, 265, 385

부평풍물대축제 98, 99, 100, 101, 102

부흥실업주식회사 376

불편문화유산 338

블랙마켓 375

ㅅ

산곡동(山谷洞) 90, 91, 120, 123, 124, 125, 126, 128, 129, 130, 140, 180, 193, 199, 220, 226, 233, 268, 354, 362, 372, 397

산미증식계획 85, 86, 88, 116, 117, 120, 121, 140, 142, 146, 220, 364

삼릉 115, 364, 365, 366, 367, 368, 369, 370

삼산동(三山洞) 27, 91, 98, 100, 101, 102, 103, 105, 193, 244, 401

삼산지구 238, 244, 257

삼화정공주식회사 324

상이용사 148, 229, 354

새나라자동차 206, 207, 212

새한 189, 209, 210, 212

서곶지구 163

서면 58, 70, 81

성 가정의 집 372, 373

성 원선시오의 집 372, 373

성계원 394, 395

성균관(成均館) 58

세계유산 338, 341, 342

소사지구 163

소화고등여학교 282, 284

소화토지구획정리 166, 167, 168, 169, 170, 172, 173, 174, 175, 176, 177, 184, 221, 244, 257

송림지구 167

수리조합 80, 84, 85, 86, 87, 88

수송잠항정 285

수주(樹州) 29, 34, 36, 38

수출공단 212, 213, 214, 215, 255, 369, 396, 397

수출공단조성법 213

시가지계획위원회 161, 162

시미즈구미(淸水組) 191, 308

시민참여위원회 337

신명보육원 148, 229, 230, 395

신부평지하도상가 249

신세계백화점 253, 254, 255

신진 180, 189, 207, 208, 209, 212

신촌 109, 110, 111, 112, 115, 116, 117, 118, 119, 140, 242, 370, 371, 372, 373, 374

신한베아링 202, 256

십정농장 230, 395

십정동 25, 91, 92, 106, 107, 108, 109, 143, 144, 148, 155, 181, 230, 347, 348, 389, 395

십정현(十井峴) 92

ㅇ

아베 다이스케(安部泰輔) 240

안남(安南) 29, 34, 36, 38, 41, 224

안하지고개(아나지고개) 25

암스테르담시 339

애스컴시티 148, 155, 233, 235, 301, 302, 322, 326, 327, 334, 335, 389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266, 267, 275

야전진지(野戰陣地) 279, 304

양재형 318

양키시장 375, 376

어두운 역사(Dark History) 337, 338

어르신문화콘텐츠 사업 300

역둔토(驛屯土) 81, 86

연희진(連喜鎭) 63, 64, 65, 66

열매배움터 363

열우물 91, 92, 106, 108, 143, 347, 348, 349, 350, 351, 353

열우물길프로젝트 351

영단주택 120,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40, 223, 226, 243, 282, 340

오순환 316, 317, 387

온수동(溫水洞) 44, 54

온천(溫泉) 43, 44, 45, 46, 47, 48, 54

외국인묘지 132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185

우성건설 233

원적산 24, 25, 90, 92, 155, 274, 358

원통이고개 25, 325, 385, 388

원통천 27, 122

위수사령부 324

유항(有恒)상공주식회사 324

육군 제3보급단 268

육군병기행정본부 263, 275, 277

이사맹 44, 45, 46, 47

이시와라 간지(石原莞爾) 291

이연형 386, 387

이찰·이율 형제 383, 384

인천가족공원 132, 134, 148, 280, 394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339

인천상륙작전 67, 325, 328, 388, 390

인천소년형무소 328

인천수출공단 180, 213, 214, 215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339

인천시가지계획 160, 161, 163, 164, 165

인천원예협동조합 부평공판장 247

인천육군조병창 120, 193, 204, 226, 263, 264, 269, 270, 272, 273, 275, 278, 281, 282, 285, 286, 288, 299, 302, 303, 305, 308, 310, 311, 314, 316, 318, 319, 320, 322, 325, 335, 337, 339, 340, 341, 342

인천청과주식회사 242, 246

인천포로수용소 328

일본고주파공업 198, 199

일본주택영단 227

일신동(日新洞) 25, 92, 181, 230, 232, 278

일제강점기 사택 120

ㅈ

자동차사택 120

장끝말 90, 91

장대지(將臺址) 39

장시(場市) 240

장제(長堤) 29, 34, 35, 36, 38, 180

전등사 289

전쟁유적 338

전진수 315

정은태 317

정재철 386, 387

정항현(井項峴:우물목고개) 92

제10포로수용소 327, 329, 330, 331, 388

제17방면군 279, 304, 307

제1공병단 324

제1제조소 278, 279, 285, 308, 320

제24군단 319, 320, 321, 322

제24군수지원사령부 322

조서강(趙瑞康) 46, 47

조선공창 272

조선국산자동차공업 189, 190, 191, 192, 193, 212, 221

조선기계제작소 285, 310

조선베아링 202, 203

조선시가지계획령 160, 175, 176, 180

조선유지주식회사 324

조선주차군 265, 267, 269

조선주택영단 124, 125, 226, 227

주부토(主夫吐) 28, 29, 34, 35, 36, 37, 38

주안 수출산업공단 181

주안염전 78, 106, 107, 108, 109, 213, 215

주안 천일제염 시험장 77, 108

주안산 24, 155

줄 사택 120, 121, 142, 146

중공군 포로 327, 329, 332, 333

중심성(衆心城) 65, 66, 67, 68

중일전쟁 154, 185, 194, 257, 269, 270, 271, 277, 289, 291, 292, 294

지영례 282, 283, 284

지정문화재 341, 342

지주제(지주소작제) 86

지하도상가 248, 249, 250, 251

진흥종합시장 243, 244, 245, 246, 374, 377, 378

ㅊ

채병덕 320

천일염전 77, 78, 106, 107

철도관사 120, 123, 225, 369, 370

철마산 25, 233, 274

청일전쟁 83, 264, 292

청천농장 230, 358, 359, 395

청천동 230, 232, 233, 255, 2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99

체비지(替費地) 177

총동원체제 270, 316

치소(治所) 33, 434

ㅋ

캠프 마켓 326, 327, 334, 340, 389

캠프 하야리아(Camp Hialeah) 336

코로나 102, 207, 208, 209

클럽 109, 110, 111, 112, 115, 116, 117, 118, 119

ㅌ

토지구획정리 133, 155, 161, 162, 163, 164, 166, 167, 168, 169, 170, 172, 173, 176, 177, 178, 179, 180, 181, 183, 184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79, 180

토지조사사업 80, 81, 86

티니안 294

ㅍ

평리단길 382

평양병기보급창 278, 279

평양제조소 263, 278, 305

피해자성 337, 338

ㅎ

하이난도(海南島) 292

하자마구미(間組) 308

한강수력발전 197, 198, 200

한국GM 211, 232, 397

한국내셔널트러스트 340, 341

한국도시개발 233, 235, 236

한국베어링 120, 129, 203, 228, 256

한국수출산업공단 149, 213

한국종합기계 203, 256

한신공영 233

한양건설 234

한양주택 233

한하운 148, 229, 358, 359, 393, 394, 395, 396

함봉산 25, 229, 305, 306, 314, 315, 340, 354

항도백화점 251

항동(航洞) 30, 33, 53, 92, 158

해님방 351, 352, 353

햇살공부방 361, 362, 363

향동천 27

허통(許通) 61

현대백화점 252, 254, 257

현대아파트 235, 236, 237, 239, 252, 253, 254, 327, 353

협동국산자동차회사 189

협성여자기술교도원 357

협성원 357

혼혈 아동 371, 372, 373

화도진(花島鎭) 63, 64

화랑교회 229, 355, 356

화랑농장 229, 353, 354, 355, 356, 358, 373

황장연 317

황해사(黃海社) 85

후정리(後井里) 33, 53, 83, 91, 103, 105, 158

훈도(訓導) 61

휴전협정 326, 330

희망백화점 252

히라이 타로(平井太郎) 308

히로나카 료이치(弘中良一) 186, 188 ,217

히로나카 상공 167, 186, 187, 188, 189, 193, 217, 218, 219, 220

집필위원(구성순)

임학성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연학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김정아　부평역사박물관 총괄팀장

표지

이진우 화백 作　「열우물은 해체중」

부평사편찬팀

허광무　부평문화원 상임연구위원
정소현　부평문화원 보조연구위원

한권으로 읽는 부평사

발행일　2022년 11월 30일 발행

발행처　부평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51
전화 032-505-9001

디자인·편집·인쇄　경성문화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1 퍼스텍 빌딩
전화 02-786-2999

ISBN 979-11-5698-382-8

비매품 이 책에 실린 모든 자료는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권으로 읽는 부평사

제1장 부평의 역사와 환경 및 인물
제2장 부평의 문화와 예술
제3장 부평, 도시가 되다
제4장 인천육군조병창과 애스컴 시티
제5장 부평의 마을

부평사편찬위원회

93300
9 791156 983828
ISBN 979-11-5698-382-8